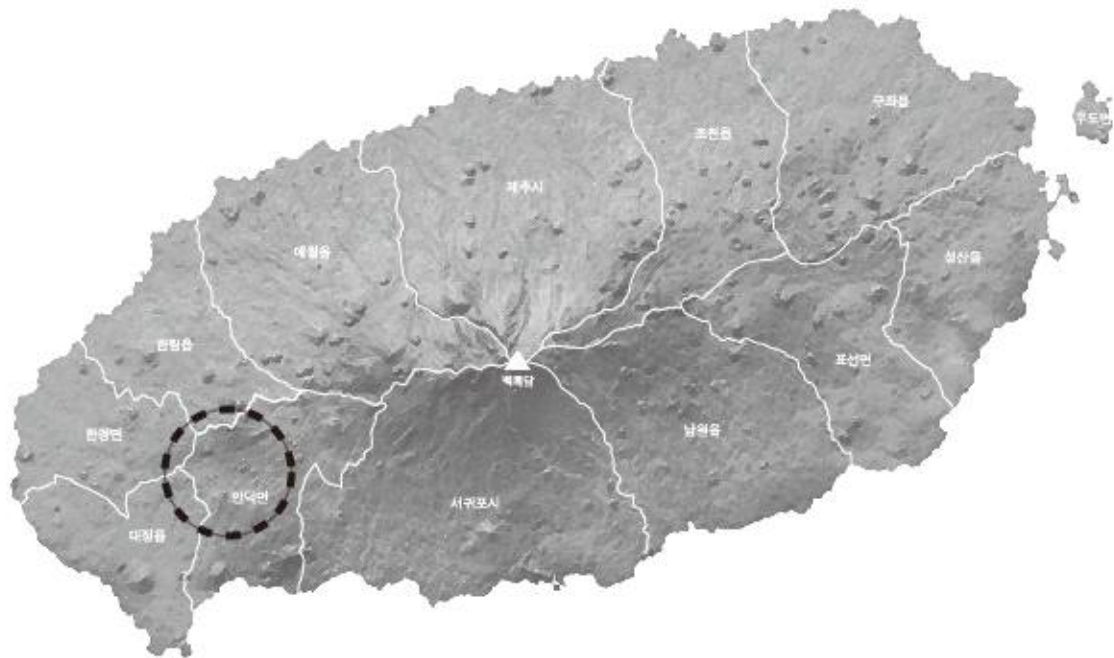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292-01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성용
조사지점 안덕면 동광리

8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8**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안덕면 동광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2
2.5. 장비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4
3. 발일	57
7. 식생활	168
2. 제보자 일생	33
6. 의생활	135
제2절 어휘	
1. 인체	214
3. 친족	227
5. 음식	236
7. 생업	250
9. 민속	265
11. 자연	268
13. 식물	286
2. 육아	220
4. 의복	231
6. 가옥	245
8. 수와 단위	262
10. 신앙	268
12. 동물	276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안덕면 동광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홍춘호 (여, 1938년생)
 신원홍 (남, 1941년생)
 고희정 (여, 1940년생)

2.2. 조사 기간: 2014. 10. 28.~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마을	구술 1. 조사마을	홍춘호 신원홍	45:22	○
2. 제보자 일생	구술 2.제보자일생,	홍춘호 신원홍	1:30:01	○
3. 밭일	구술 3.밭일(조농사, 콩농사)	홍춘호 신원홍	1:55:29	○
	구술 3.밭일(밭벼농사, 기타농사)	홍춘호 신원홍	1:51:14	○
4. 들일	구술 4.들일(소 기르기~사냥)	홍춘호 신원홍	2:01:47	×
5. 바다일	<구술 4.들일(사냥), 5.바다일>	홍춘호	57:33	×

		신원홍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옷감~도구)	교회정	51:36	○
	구술 6. 의생활(바느질~모자)		50:03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밥과 국)	홍춘호 신원홍 교회정	44:41	○
	구술 7. 식생활(죽류~젓갈)		54:16	○
	구술 7. 식생활(장아찌와 회~떡류)		1:14:25	○
	구술 7. 식생활(소와 고물 ~ 기타)		27:54	○
8. 주생활	구술 8.주생활(구조)	홍춘호 신원홍	56:28	×
9. 신앙	구술 8.주생활(초가 지붕이기, 연장)	홍춘호 신원홍	49:29	×
10. 세시풍속	9.신앙, 10.세시풍속(정월~3월)			
		10. 세시풍속(4월~8월)	홍춘호 신원홍	31:40
11. 놀이	구술 11. 놀이(연~한다리 인다리)	홍춘호 신원홍	1:31:31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혼례~상례)	홍춘호 신원홍	1:52:38	×
13. 민간요법	구술 12. 통과례(제례), 13. 민간요법(기계총~생손알이)		59:17	
	14. 경험담		구술 13. 민간요법(두드러기 ~ 까치눈) 구술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_>는 다른 항목의 조사가 하나의 파일 저장된 경우다.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홍춘호 신원홍	58:56	○
2. 육아	어휘 2. 육아1	홍춘호 신원홍	54:14	○
3. 친족	어휘 3. 친족	홍춘호 신원홍	55:03	○
4. 의복	어휘 4. 의복	홍춘호 신원홍 교회정	37:35	○

5. 음식	어휘 5. 음식1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47:26	○
6. 가옥	어휘 6. 가옥	홍춘호 신원홍	51:35	○
7. 생업	어휘 7. 생업2	홍춘호 신원홍	1:32:54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홍춘호 신원홍	38:28	○
9. 민속	어휘 9. 민속	홍춘호 신원홍	50:53	○
10. 신앙	어휘 10. 신앙			
11. 자연	어휘 10. 신앙, 11. 자연	홍춘호 신원홍	00:54:15	○
12. 동물	어휘 11. 자연(방향), 어휘 12. 동물(벌레와 곤충)	홍춘호 신원홍	49:53	○
	어휘 12. 동물 (들짐승 ~ 바다동물)		21:30	○
13. 식물	어휘 13. 식물1 (풀 나무 ~ 나무)	홍춘호 신원홍	2:10:12	○
	어휘 13. 식물2 (열매 ~ 바다 식물)	홍춘호 신원홍	23:21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하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김성용, #1: 홍춘호, #2: 신원홍, #3: 고희정)

1. 조사 마을

101001 @ 오늘 양 그 이 동광리 이제 와시난에 동광리가 어떻 형성돼신지 혼변 남자삼촌 곱아줍서.

101001 #2 이 그 스삼사건 난지 후에 약 이 부락이 설립되면서 한 칠년 칠년 정도 그 지나가지고 여기 설립했는데 이 설립 목적은 여기가 이 직 말하면 이 덩불 밧이 없어. 점 이 저 미에지벙뒤라, 옛날말로.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 흐면은 무장공비가 쳐들어오는 것을 빨리 알 수 있게끔 나무 없는 델 부락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길 설립을 했는디 여기에 설립호젠 흐니까 성땀을 두르고 담으로, 담으로 성을 짚어. 성을 싸가지고 동문서문 문이 두 군데 잇었는데.

101001 @ 동문서문양?

101001 #2 응 거기에 거기에 문지기를 에 즉 말하면 문지기 보초를 세우고 또.

101001 #1 돌아가명.

101001 #2 돌아가면서 에 한 삼십 메다에서 오십 메다 간격을 뒤 가지고 또 초소를 만들엇어, 이 성땀 우에. 기에 가지고 무장공비 오는 것을 그 빨리 알아가지고 저 직 말하면 여기 저 파축소라고 헤가지고 순경이 완 여기 살앗주게.

101001 @ 그때도 파축소엔 햇수광?

101001 #2 아니 저 저.

101001 #1 주둔소. 주둔소. 저.

101001 #2 파축수가 맞지.

101001 #1 파축수가?

101001 #2 응.

101001 #1 파축수가? 그땐 파축수엔 안 헤서.

101001 #2 파축수엔 아녀고(안 혀고) 저.

101001 #1 주둔소.

101001 #2 주둔소는 아니고.

101001 #3 지서지계.

101001 @ 지서?

101001 #1 아 아이 파견소 파견소.

101001 @ 파견소 으응.

101001 #3 파견소지 파견소.

101001 #1 파견소라고 해가지고 순경이 딱 하나 와서 이것는다, 거기레 만약에 어떤 에 낫모른 사람이 나타나면은 거기레 알으키면은 거기서 판드레 그 이 안덕 그 지서레 연락을 하는 그런 곳이엇는디 여기에 그때 당시에.

101001 @ 그때가 저 스삼사건 때우짱?

101001 #2 스삼사건 지나서.

101001 #1 지나가지고.

101001 @ 사삼사건 지낭? 응.

101001 #1 사삼사건 지나가지고 여기 재건헐 왕 은.

101001 #2 이 부락 설립과정이 그런데에.

101001 @ 헝난 멧 년도 쯤에 여기 설립뻬수짱?

101001 #1 여기가 사삼년도 스삼사건이 낫으니까.

101001 @ 사십팔년 사삼사건은?

101001 #1 아 사십팔 년 사십팔 년이니까 약 헝 칠년 잇다가 여기 부락 성립뻬 거든.

101001 @ 아 거난 사삼사건 후에 동광리가 성립뻬구나양?

101001 #1 응.

101001 @ 아, 경 헝면은 육이오전쟁 지낭?

101001 #2 아 육이오.

101001 #1 아니 전쟁은 전이지.

101001 #2 아니 아니여 육이오. 전쟁이 터진 후에 이것을.

101001 #1 게메 터진 후에 이거 저 뉘지지 육이오전쟁은 터진 후에지.

101001 #2 터진 후에지.

101001 @ 거 막 늦게 뻬수다양?

101001 #1,2. 응. 늦게 뻬엇어.

101001 #2 그니까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에 사삼사건 터져가지고 에 직 말헝면 피난오라고하는 것이 소까이 그 공문을 부락 지금은 이장통장헝지만 그때는 구장이 라 헝거든.

101001 @ 응, 구장.

101001 #2 구장안테 보낸 것을 깔아얏아부럿어 깔아얏아 가지고 이민 이 부락 민들한테 알으키지 안아부럿어. 그러니까 소까이 내려가질 못헝 거라.

101001 @ 계난 저 화순서 올라왔수짱?

101001 #2 아니.

101001 #1 각처에다가.

101001 #2 제주도내에 안 간 디가 없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101001 @ 아 거난에 여기 온 사람덜이 화순사람헝고?

101001 #2 화순 사계.

101001 @ 사계.

101001 #2 또 이 저 한림 쪽에도 간 따라온 사름 잇곡.
101001 #1 응, 한림 쪽에도.
101001 @ 한림도?
101001 #2 애월도 간 잇는 사름도 잇곡.
101001 #1 덕수도 강 싯당 온 사름.
101001 @ 게 어떻흐연에 한림서 여기까지 왔수광 한림서?
101001 #1 여기 사름덜이 친척 따라갓지.
101001 #2 여기 사름덜이 피난갓다가.
101001 #1 피난 나갓다가.
101001 @ 아 여기 잇던 사름덜이 한림갓다가.
101001 #1,2. 응.
101001 #1 친척 따라 갓주게 친척따라 친척 여기 사름들이 친척잇는 데로 피난
을 갓주게.
101001 #2 연고지 따라가지고 간겨지.
101001 @ 아 거난에 스삼사건 때 여기 저 그 뭐냐 못살게 돼니까 다른 디로 갓
단에, 계민 그전에 스삼사건 전에도 사름은 살았다는 거 아니팡?
101001 #2 여긴 안 살았어.
101001 #1 여기도 살았수게게.
101001 #2 여기 살았는데 저쪽에 멧 가구밖에 없었어.
101001 #1 아 아니.
101001 @ 어디 쪽에마썸.
101001 #1 범리네집.
101001 #2 여쪽에 여쪽에 한.
101001 #1 혼 세집은 살았주게게.
101001 @ 소 소개뵈 후에 여기 살았다는 거 아니우팡양?
101001 #1 우리 동광.
101001 #2 소개뵈 후에?
101001 @ 예.
101001 #2 아니.
101001 @ 마을형성이?
101001 #1 마을형성이 마을형성.
101001 #2 소개 전에 멧 가구 잇었던 텐디 소개뵈지 후에 이 많은 가구수가 여
기 정착뵈거야.
101001 @ 음.
101001 #1 여기 원래는 이 저.
101001 @ 처음에는 혼 멧가구?
101001 #2 혼 혼 다섯가구 뵈꺼라.

101001 #1 음 다섯가구 좀 돼지.
101001 @ 처음에는?
101001 #1 스삼사건전에는.
101001 @ 사삼사건전에는 혼 다섯가구?
101001 #1 음 예 문씨 집안 학교, 임씨 집안 학교만 여기 살아나서.
101001 #2 그니까 스삼사건 전에 부락형성이 저쪽 저 무등이왓이라는 데가 있
꼭.
101001 @ 무등이왓?
101001 #1,2 무등이왓.
101001 @ 무등이왓?
101001 #1,2 응.
101001 #1 거기가 큰 본동이주게.
101001 #2 또 여쪽에가 삼밭동이엇는 데가 이서 지금 비석도 세워 잇는다.
101001 @ 응 삼밭동.
101001 #1 이갯이 직 말하자면 무등이왓이라는 데는 상동이고 여기 삼밭동은
하동 이렇게 불러왔거든. 불러 왔는데 그때 당시 공민학교라는 게 이제 갈리학교가
이섯어 바로 여기.
101001 @ 공민학교 무슨 거마씀?
101001 #1 이게 또 초등학교라는 건디 여기 저 그때 당시에 갈리학교라는 거
여기 학교가 이섯어.
101001 @ 갈리학교?
101001 #1 스삼사건 전에.
101001 #2 응 스삼사건.
101001 @ 갈리?
101001 #1 응. 갈리학교라는 것이 저 잇어주게.
101001 #2 잇엇어 이게 초등학교지.
101001 @ 갈리학교하민 어떤 학교짜?
101001 #1 이 이제 ㅁ뜨민 초등학교계.
101001 @ 응.
101001 #1 이제 ㅁ뜨민 초등학교.
101001 #2 그때 부르는 게 갈리학교 갈리학교 했거든.
101001 @ 그때 혼 몇 명 텅겨수광?
101001 #2 그때.
101001 #1 그때는 핫수다.
101001 #2 혼 혼 사오십 명 텅겼어.
101001 #1 그때는 예 모록밭 사름도 이 학교 텅기고예.
101001 #2 근디 학교가.

101001 @ 아난 모록밭도 여기 다니고?
101001 #1 예 흑생은 모록밭도 여기 땡기곡 광평도 여기 땡기곡 화순사름도 여기 와났수다.
101001 @ 솔도는?
101001 #1 솔도는 여기 안 왔어.
101001 #2 솔도는 안 오고.
101001 @ 솔도는 안 오고 광평 모록밭 그다음?
101001 #1 저 그 화순사름들도 와나부러난 고자 흑교.
101001 @ 아.
101001 #3 서광도 와나실 거라.
101001 #1 서광 사름덜도 이디 와나곡.
101001 #3 서광 사름덜은 흑교가 어섯어.
101001 #1 서광은 흑교가 없고 동광은 흑교가 잇어요.
101001 #2 근데 이 초등 초등학교가 안덕 안에 딱 두 군데 잇거든. 화순에 흐나 잇곡 여기 바께 업섯거든.
101001 #3 사투리로 곱읍서게.
101001 #2 그 적에 저 즉 말흐면은 저 국민학교엔 흐는 게 딱 두 군데 이섯거든.
101001 @ 거난 저 아까 말했주만은 그냥 사투리로만 말흐서 그냥 그냥 계속 양?
101001 #2 쟁 헤 가지고 했는데.
101001 @ 쟁흐영 흐여그네.
101001 #2 원래 이 안덕 그 거세기 호적이 여기에 삼밭동네에 여기에 와나서. 면사무소 그 모든 서류가 여기 완 배치도 뉘넋다고.
101001 @ 응.
101001 #2 웨냐면 우리 안덕 괄레(官內)에 이 그때 당시 무등이왓이엔 우리 부락이 그리 번창흐고 청년들이 참 상당히 단결심이 좋앗주게.
101001 @ 계난에 정리흐민예 그 사삼 전의도 사름은 살앗고?
101001 #2 응.
101001 @ 사삼 전에?
101001 #2 사삼 전에가.
101001 @ 흐 멧 년 전부떠 사름 살앗수광?
101001 #2 여기?
101001 #1 여기는 스삼 후에 살앗지.
101001 #2 여어기는 사삼사건 전에 내가 알기는 한 이삼 대 끌어온 거거든. 지금 대수로 보면은. 저 무등이왓이건 삼밭동이건 여기건.
101001 #1 옛날부떠 이서넋수게 옛날부떠.

101001 #2 옛날부터 부락은 형성됐난 거고.
101001 #1 삼밭구석이엔 햅여그네.
101001 @ 햅 햅 년 전부떠마썸?
101001 #2 내가 알기로는 내가 예 나가 지금 사십 년 생인디,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서났는디 아주전에도 이서났는디.
101001 #1 전이곡 말곡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전의부떠 살아신디.
101001 #2 우리 할아버지 때부떠 이서나신디.
101001 @ 그때 햅 햅가구 정도 살아서마썸?
101001 #2 그 적에도 약 상하동 햅 햅 백오십가구는 이섯다는 거거든.
101001 @ 백오십 가구. 거난 사삼 전에 햅 햅 백오십 가구 살고 경 햅구나양?
101001 #2 예.
101001 @ 그 경 햅여그네 이제 사삼사건 나난에 그 아까 모릇 그 삼밭동? 무릉이왓?
101001 #2 무등이왓.
101001 @ 무릉이왓?
101001 #2 응.
101001 @ 또?
101001 #2 삼밭동.
101001 @ 삼밭동.
101001 #2 응.
101001 @ 삼밭동 거기 살단에?
101001 #2 거기에 살단 이게 집이건 뭐이건 다 소각돼부러터 불질러버리니까.
101001 @ 응 다소각돼가지고?
101001 #1 케니까 여기 거주할 그 집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연고지 따라가지고 따 빨빨히 흩어져가 간거거든.
101001 #3 마을이 어서져부러트수게.
101001 @ 아 그면은 케난 지금은 햅 햅 가구 됩니까?
101001 #1 지금 부락 그 저 행정구역상으로 햅 햅 백오십 가구.
101001 @ 백오십 가구양?
101001 #1 저 양잠단지까지 ㄴ쁜 행정구역이니까.
101001 @ 양잠단지면 어디짱?
101001 #1 저 무등이왓 조금 지나면 거기서 한.
101001 @ 모록밭 가는디?
101001 #2 예 가기 전 가기 전에.
101001 #1 가는디 가는디 가는디 예 가는디.
101001 @ 예.
101001 #2 것도 우리 동광 행정구역이난.

101001 @ 음 백구십 가구 정도?
101001 #1 이제 이디 문화마을 생겨부난 백구십 가구 넘을 걸.
101001 #2 더 돼주.
101001 @ 아 문화마을은 언제 생겼수광?
101001 #2 문화마을은 저어 것이 에 한 이십 년 전 이십 년은 돼서.
101001 #1 이십 년은 안 돼실 거우다.
101001 #2 이십 년 됐수다.
101001 @ 이십 년?
101001 #2 이십 년.
101001 @ 어떤 사름덜이 왕 살암수광?
101001 #2 다 에 육지, 위엿 분들이영 또 제주 내에 탄 부락에 살던 사름들영.
101001 @ 응.
101001 #2 이 본거지 사름 거주지 주민은 두 세대 거이가 업서.
101001 @ 사름들이랑은 잘 어울립니까?
101001 #1 안 어울립니다 안 어울려.
101001 #2 에이 아니.
101001 @ 거기 따로 여기 따로?
101001 #2 짬뽕이 돼나서.
101001 @ 허허 계난 제주도 말로만 흡서.
101001 #2 예.
101001 @ 그냥 이진 제주도 말을.
101001 #2 응.
101001 @ 뭐 헉젠 헉는 거니까.
101001 #1 계난 잡등이가 돼나서 어울리지 안 행여.
101002 @ 응 제주도 말로만양. 그 뭐냐 그 여기 사는 성씨덜 무슨 성씨가 제일 하우짱?
101002 #2 음 현재 성씨가.
101002 #1 강씨가 할 거우다.
101002 #2 강씨가 할 거우다.
101002 @ 강씨 그다음?
101002 #2 강씨 고씨.
101002 @ 응.
101002 #2 에 그다음에는 에.
101002 #1 김.
101002 #2 김씨 우리 신씨, 이씨 그정도.
101002 @ 응 계난 쥬 한 성씨는 강씨?
101002 #2 응.

101002 @ 강씨도 제비 강씨도 잇곡.
101002 #1 예게.
101002 @ 펜안 강씨도 잇곡.
101002 #1 예게.
101002 #2 흥난 여기 거의 제비 강씨.
101002 @ 거의 제비 강씨양 화순도 보민 제비 강씨 흥지양?
101002 #2 응.
101003 @ 강씨가 하구나 그 뭐냐 그 여긴 주로 무슨 일 흥명 살암수광?
101003 #2 여기 밭농사엔 흥 것이 저 콩 갈곡.
101003 @ 콩?
101003 #2 또 모멸 갈곡.
101003 @ 모멸.
101003 #2 모멸 갈곡.
101003 #1 지슬 갈곡.
101003 #2 저 지슬.
101003 @ 응 지슬. 그 다음에 따른 것들은?
101003 #1 풋 갈곡.
101003 #2 풋 갈곡. 그거 웨에는 여기.
101003 #1 감저도 갈고.
101003 #2 응 응 저 고구마도 흥는디 여기는 이게 미짱냥은 아녀거든. 아녀니까
그거나백이 흥 게 어서.
101003 @ 무사 미짱냥은 안 흥염서마씀?
101003 #2 고지가 높아.
101003 @ 고지가 여기 멧 고지 됩니까?
101003 #2 이백칠십 고지.
101003 @ 이백칠십 고지? 게 보통 삼백 고지ㄱ진?
101003 #2 응 흥는데 에 토질이.
101003 @ 응.
101003 #2 땅이 에 화산땅이라 뇌서.
101003 @ 응.
101003 #1 강한 땅이 아니니까 밀감 맛이 없어.
101003 @ 그 고자 뭐 웨도 질루지양?
101003 #2 응 웨 질화.
101003 #1 축산을 전윈 전의는 축산 안 흥여낫수게게.
101003 #2 전의는 거의 축산을 응.
101003 @ 응.
101003 #1 처음에 이제 살 땐 웨 질, 웨로 살앗수다다, 웨로. 아이덜 후교 다니

는?? 췌로.

101003 @ 물은 안 질루왓수광?

101003 #2 물도 질화나곡.

101003 #1 물도 질루고. 이제도 물 질루는 사름 잇수다. 한 분께서 이제도 물도 질루곡 물도, 이제도 질루곡 췌도 질루곡.

101003 @ 그 다음 따른 건, 흐는 것덜.

101003 #2 따른 건 흐는 거 엇고.

101003 #1 도새기 질루당도 치와불고.

101003 #2 다 치와불고.

101003 #1 안 웹젠 흐명 도새기덜도 다 치와불곡. 이자 췌덜도 멧 집만.

101003 #2 게난 이게 겨울철 ㄹ차와 가민은 자기 농사 진거 다 걸어 아진 다음 은 농안기 뻬어서 저 해변 쪽으로 늬의 미깡 타그네.

101003 #1 돈 벌어먹으레.

101003 #2 이땅 벌어먹으레 텅겸주기.

101003 @ 경 흐면은 저 췌 하영 흐는 거?

101003 #2 하영흐는 거 콩.

101003 @ 콩.

101003 #1 보리.

101003 @ 보리.

101003 #2 이제 보리도 흐곡.

101003 #1 보리도 만이 흐다.

101003 @ 콩도 종류가 잇지 아녀우광, 무슨 콩?

101003 #2 그 콩나물 콩.

101003 @ 콩나물 콩.

101003 #1 준자리.

101003 #2 그것이 준자리엔 흐는데 요즘말로.

101003 @ 콩나물 콩에 뭐마썸?

101003 #1 준자리 .

101003 @ 준 준자리?

101003 #1 에 준자리.

101003 #2 아주 잔잔한 콩이라는거지.

101003 @ 응응. 응 아 거난 준 준자리구나. 준자리.

101003 #2 아 준자리.

101003 #1 준자리 홉니다. 준자리.

101003 #2 이딧 말로 준자리엔 흐는데 저 콩나물 콩이주게. 췌디 저 모덜, 보리 그게 주로 그게 세 가지가 췌 만이 흐는 거.

101003 @ 보리는 무슨 보리?

101003 #2 보리는 맥주보리.
101003 #1 맥주보리.
101003 @ 아 맥주보리로. 슬오린 안혹니까?
101003 #1 슬오리는 안 혹여, 슬오리는 안 혹여.
101003 @ 맥주보리만.
101003 #1 응 맥주보리만.
101003 @ 계민 콩 하고.
101003 #2 메밀 하고.
101003 @ 메밀이엔 하지맘서. 모멸.
101003 #1 모멸.
101003 #2 모멸 하고 저 맥주보리.
101003 @ 응 맥주보리.
101003 #1 멧 년 전까지 지슬 하나 해낫주 지슬.
101003 @ 췌는 집집마다 다 잇수광?
101003 #2 아 아니.
101003 #1 이제는 집집마다 다 잇수다.
101003 #2 이제는 업적으로 한 한 댓 대서너가구 한 으섯집 으섯집 돼겐다.
101003 @ 췌 질루는 집이 혼 으섯 집?
101003 #1 예. 업적으로 하나 해주 옛날처럼 혼 췌 열 개나 하는 사람은 잇수다
게. 옛날에는 집집마다 췌 열 개 여다섯 개 잇다마는 이제는 업으로 하는 사람뿐
개인으로 하는 사람은 잇수다. 가인으로 하나씩 하는 건 돼질 아녀여 돈이. 업적으
로 혹여그네 하영 하는 사람은 어떻흔지 몰라도 윈.
101004 @ 그 다음에 그 저 이 동네영 집 집주변에 보면 오름 잇지 안으팡. 오
름 그 다음에 저 네, 그 다음에 이 저 바위, 그 다음에 굴 이런 거 이시민 좀 말해
줍서. 췌 처음 오름, 오름.
101004 #2 오름, 오름은 이 부락 남쪽으로 가면 우리 동네 남쪽으로 가면.
101004 @ 응.
101004 #2 이 저 북오름이 잇곡.
101004 @ 북오름?
101004 #2 으에 또 그것 따라 거린오름이 잇곡.
101004 @ 거린오름.
101004 #2 응. 또 저 불근오름이 잇곡, 저 동남쪽으로 가민 머리에진오름이 잇
곡, 또 그 조금 위우로 가민 민오름이 잇곡, 또 넘어사면은 죽은다비오름이 잇곡,
원물오름이 잇곡, 저디 가면 당오름 잇곡, 도너리오름 잇곡, 오름은 그거.
101004 #1 남성이오름 잇곡.
101004 #2 건 더 돌아가민 남성이 오름 잇곡.
101004 @ 오름 하우다양.

101004 #1 오름 막 하우당.
101004 #2 응 뺩 돌아가명.
101004 @ 내는?
101004 #2 내는 이거 저 잇날 말로 앞내꼬량이엔 흐는 앞내가 잇곡.
101004 @ 앞매?
101004 #1 앞내, 앞내.
101004 #2 내꼬량이엔 헛거든. 내꼬량.
101004 #1 앞내꼬량.
101004 #2 저 또 돌떠리내엔 흐 거 잇곡, 여기. 또 요 밑으로 가민 승비다리내엔 흐 거 이서. 승비다리 내창이엔 흐 거 이서.
101004 #1 승비다리내창,
101004 #2 그계 세 군데.
101004 #1 응.
101004 @ 그 다음에 그 저 바위 바위 그 옛날 그 저 심방덜 가그네 막 빌어난 디 돌. 그 큰 돌 잇지 안허우팡?
101004 #1 여기는 큰 돌은 업고예, 옛날 심방 다니던 당, 당 이서낫수다, 당. 당, 바르 당, 할망당.
101004 @ 그 앞이 돌은 어서낫수광?
101004 #1 돌도 저 저 허도(헛나온 말인 듯) 돌은 잇긴 이서.
101004 #2 돌은 잇어도 그 이름은 안 지엇어 그거.
101004 #1 돌은 돌은 잇긴 이신디 그 낭만 막 막 시꺼 막 더꺼전 시난에 원 돌 신거 잘 몰라 원.
101004 #2 돌 일름을 지질 안 흐여서.
101004 #1 겐디 그디 그자 일 년에 흐 번이고 일 년에 두 번이고 그자 고정적으로 그디 강 흐 심방 데령가그네 빌는 디주 그디. 아기 아파가지고 왕 빌곡.
101004 #2 그이 더 그 웨에 에 드리라는 게 이서, 드리. 돌다리.
101004 @ 응 드리.
101004 #1 응 돌다리 돌로만 웬 드리.
101004 #2 이 저 내 이렇게 우의로 이리케 난 거 똑 한 군데 잇곡. 돌다리라는 게 흐나 잇곡.
101004 @ 어디 이서마썸?
101004 #2 여기 저 여기 한 유커리 광장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민 이서.
101004 @ 경흐고 그 다음에 저 굴.
101004 #2 굴은 이에 저 지슬에 영화에 나오는 거 저디 큰넙케엔 흐 거 잇곡. 또 동쪽으로 가면은 저 미오름케엔 흐 거 잇곡. 또 아 요디도 가민 중이알케도 셔.
101004 #1 켜켜 켜켜헛 것사 해주며.
101004 #2 켜켜헛 건 흐지만 제일 큰 게.

101004 @ 계민 그거 다 끌어줍서.

101004 #2 제일 큰 게 큰돌래엔 흔 거. 흔 삼사백 명 피신덜 헤난 그 사삼사건 때. 그 끌어주.

101004 @ 그다음?

101004 #2 그다음 저 미오름 산테굴이 크주.

101004 #1 미오름굴이 크주. 미오름 산테굴이 크주.

101004 #2 또 요디 즈궁이야엔 구제난 거 죽아난 거.

101004 #1 그 미오름굴은 그 미오름굴은 이 시국에 저 사름덜이 손소 파, 그냥 이녁이 파명 그디 파는, 파도 그자 손나영 골쟁이로 파명 알려레 사알살살 헝명. 오름 오름 꼭대기난에 오름 꼭대기를 요영 들어가명 올로 손 파명 알레 강 ??? 거기 굴 만든 디주게.

101004 #2 아 거기서 대변보면 송이에 가보명 수세식으로 싹 내려가볼테.

101004 #1 계난 그디 굴을 영 헝면은 두 바띠로 굴이 뜯나서. 우리 그디 강 곱 아낫주게.

101005 @ 그 그 다음에양 그 여기 무슨 저 기관들 이수광? 여기.

101005 #2 이 주변에?

101005 @ 예.

101005 #2 주변에 요즘 막 저 거세기 중국아이덜 썩헝는 거세기 요 해피타운 헝는 거 잇곡.

101005 #1 그게 기관이우광.

101005 #2 아이 것도 거 사부러시난.

101005 #1 그것사 관광지주.

101005 #2 계난 요 동쪽으로 가면은 지금 그게 저 그 이름 뭐라고 하더라.

101005 #1 고느레?

101005 #2 아니 고고량 쪽에.

101005 #1 고고량 쪽에?

101005 #2 또 거기 가기 전의 여기 저 동광요양원이 잇곡.

101005 @ 요양원.

101005 #2 또 우리 그 지역 벗어난 디는 필요가 엇고. 여기 조금 동쪽으로 가면은 저 아스콘회사가 잇어. 우리 동광 저 지원헝는 데, 그거 세 군데.

101005 @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가 잇곡.

101005 #2 이걸 이제 초등학교 폐교돼여부런.

101005 @ 아 초등학교 폐교됐수광?

101005 #2 폐교돼여부난 이게 저 거세기로 웬 저 저 저 아 뭐 이저부러져. 저저 저 체험마을로, 체험마을로.

101005 @ 아 체험마을로. 그 다음에 뭐 따른 것들은 엇수과 여기.

101005 #2 여기 또 뜯 건 뭐 없어.

101005 @ 복지회관 잇곡.

101005 #2 아 계난 그 복지회관 잇곡 이거 노인정 잇곡 여기 청년.

101005 #1 청년사무실 잇곡.

101005 #2 청년덜 저 체력단련.

101005 #1 단련실 잇곡 체력단련실.

101005 #2 또 마을문고 잇곡.

101005 #1 마을문고 잇곡 체력단련실 잇곡.

101006 @ 이 마을에 그 저 계 잇지 안 후우파? 계 옛날 그뜨면은 저 뭐 상여 계라든가.

101006 #2 거 거 이젠 업서.

101006 @ 옛날 옛날 잇서난 거 하나 곱아줍서 옛날.

101006 #1 아 상여 사름 저 무시 거 후는 거.

101006 @ 응 계계 옛날, 저 여기 계 대신에 제연 후지 제. 그 거 이서난 거 흔 번 곱아줍서.

101006 #2 그것이 저 옛날 상여제연 흔 계, 에 그 쪽에 한 열 멧 멩이가 조직헤 나실 거라 그계. 켜디 그걸 헤영 했는디, 그계 한 십여 년 그거 운영돼실 거라. 뵈는디 왜냐면 그루후에 이노무 계 저, 그걸 보관을 잘 못헤가지고 달 떨어지니까 딘 디 가서 빌려다 쓰면서 그 제를 파산시켜부러트주기.

101006 @ 그 다음에 따른 거 엇수과? 그 여자삼춘은 무신 그 옛날 그릇제 그뜨 거.

101006 #1 그릇제야 이십주계. 그릇제도 잇곡, 쓸제 잇곡. 그릇제도 셔그네 돈덜 흔 달에 얼마씩 모아 모아놏당 이년 차례 돌아오민 그 무시거 다나누시(たなぬし) 식으로 후여그네 차례 돌아오면은 이제 거세기 그릇도 후고 그릇덜 사오고. 쓸제도 후여그네 다나누시식으로 들어그네 일 년에 흔번씩 흔 사름씩 차례배기로 후여그네. 쓸도 보리쓸제도 잇곡 곤쓸제도 잇곡. 그 제도 그 옛날사 제 핫주.

101006 @ 곤쓸제도 헤낫수과?

101006 #1 예 보리쓸제도 헤낫수다.

101006 @ 여 여기 뭐 곤쓸 나지도 안 후는디.

101006 #1 곤쓸제, 곤쓸 나지 안 후는 거난 제 후엿주계.

101006 #2 나지 안 후난 후는 거지.

101006 #1 나지 안 후난. 계난 잔치 때 받젠. 우리 아기 아기덜 여기 잔치 때 받았 제 후여. 이제 잔치돼면은 그 제쓸 받아그네 잔치후곡, 곤쓸 그제는 곤밥을 얼마 헤서계, 잔치 때도 보리밥만 핫주.

101006 #2 기여 후고 여자 여자분들은 그런 제가 이시민, 남자들은 번주제연 흔 거 이섯주, 번주. 도야지 사그네 저 합동으로 사다냥 잡앙 갈랑 먹는 제. 돼지, 돼지 사다그네 후민, 그 저 멩질 가츠와 가민 그거 잡앙 추석 때 정추 때 멩질 대비헤가지고, 그 돼지 사당 잡아그네 갈라그네, 멧 멩이서 늬이 산담 중노동을 가그네 담을

공사마탕 햅여그네 돈 모앗당 그걸 에 햅여그네 돼지 잡아먹는 그 제.

101006 #1 도새기 잡아먹는 제.

101006 #2 제가 이섯주.

101006 @ 그 옛날 보면 저 켜당덜 고적, 고적은 어서낫수광?

101006 #1 무사 어서낫수광게.

101006 #2 고적도 에 초창기에는 스삼사건 전에 풍습을 따라가지고, 이 저 메밀 료 만든 돌레떡이엔 햅 거, 이만씩 햅 돌레떡이엔 그 햅어.

101006 #1 이만씩 햅 돌레떡이주게.

101006 #2 응 거난 돌레가 이만 햅디 그제 그 집안마다 풍습이 에 고적이엔 햅 민 그거 멧 개 경햅다가 그루후에는 이게 쏘로 햅거든 쏘로 에 저.

101006 #1 처음엔 햅 뉘.

101006 #2 어 햅 뉘 햅당 그 다음 두 뉘 햅당 햅 말로 이렇게 올려놨거든. 이렇게 올리당 것도 업서저불고.

101007 @ 경 햅고양, 그 동광리 저 풍습 잇지 안 햅우광, 풍습. 동광리만 햅는 풍습 잇걸랑그네.

101007 #1 동광리만 햅는 동광리만 햅는 풍습 잇날 거세기 햅는 풍습?

101007 @ 예에.

101007 #1 여기 처 처음에 햅는 풍습이 조나 보리나 갈민 여름에는 우리 오십에서 육십씩 검질을 메십주게. 검질을, 검질을 메영 조컴질 햅 때 게민 저 햅 열 집서 스무 집서 게난 수눌영 수눌영 돈 쉼 햅 것을 돈이 어성 돈 쉼 햅 것이 엇고 그자 수눌영 이집의 강 메여주곡 다음 집의 강 메여취그네 빌영 햅곡. 햅 열 집의 뉘취거난 햅루에 빌영 메고. 그런 건 오래갓수다, 그 풍습은. 보리도 수눌영 빔도 햅고, 검질뉘 때도 수눌어그네 햅 놉 빌어그네, 돈 쉼 비는데 돈 쉼 비는 식이 어서. 그자 수눌어그네 햅곡, 원 햅 잘사는 집은 보리쏘이라도, 일 햅루민 보리쏘 햅 뉘, 그 시절에. 보리쏘 햅 뉘 반양도 놉의 일 햅곡, 쏘쏘 햅 뉘 반양도 놉의 일 햅곡. 기추룩 햅명 그일을 전의부떠 쪽 햅 것이 이 이제낭 안 햅십주. 이제낭 안 햅서, 쪽 햅여그네 그런 풍습은 이섯수다.

101007 @ 그 당에도 가낫지양?

101007 #1 예게 당에 가고마.

101007 @ 지금도 당에 갑니까?

101007 #1 지금은 안 갑수다. 지금은 안 갑수다.

101007 @ 옛날 멍질 때.

101007 #1 옛날 멍질 때, 옛날 멍질 때도 게 켜당덜 집의 문막 저 이집의 강 떡곡, 이집의 강 떡곡 다 돌아뉘기명 먹어십주게.

101007 @ 게난 여기 당은 엇고양?

101007 #1 당은 어서.

101007 #2 아 당 당 저기 무사게 저 잇는다.

101007 #1 아 당은 잇긴 잇수다. 이제도 땡기는 사름이 어서 당 지금 당 잇긴 잇수다. 당 이제도.

101007 #2 경 하고 저 이 스테 후에도 한 이십 년까지 사름이 돌아가면은 죽 으면은 영장이엔 흐잔아. 영장이엔 흐 것이 이계는 저 장이사흐 거세길 빌어가지고 흐 건디 그때는 부락에서 지금 말흐민 봉사적으로 한 사름씩 그 저 문을 장소까지 장 메여가곡, 그게 봉사적으로 다 모이렌 했거든.

101007 #1 아 동네 일은 나민 무조건하고 이 일절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동네사 름들이 다 거기 갖수게. 그 전부 가.

101007 #2 그 풍습이 그때는 상당히 좋았는디 이제는 인심이 아주 날카로워졌 어.

101007 #1 경 하고 사름 이제는 사름이 저 무신 장이사 빌곡 무시거, 그때는 동 네사름 빌영 다 모욕도 시키고 옷도 입지곡, 동네사름이 다 관도 그냥 차주곡 동네 사름 완 다 동네사름덜이 다 흐여그네 이제 죽으면 이제 무쭈근 하고 그자.

101007 #2 그 적에는.

101007 #1 그자 그 집의 강 살 계산만 해십주.

101007 #2 이 지금 말흐민 시체에 입히는 옷도 다 만들어가지고 다 입혔거든.

101007 #1 집의서 다 만들어.

101007 #2 이 상복그튼은 것도 다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직접 입었는디 사다 가 지고 사용 안 했�허거든. 근디 요즘은 다 만든 것을 사가지고.

101007 @ 저 명질날 모영들 뭐 하지 안혹디가?

101007 #1,2. 합동세배?

101007 @ 아니.

101007 #1 그 전에?

101007 @ 그 전에 멩질날.

101007 #1 그전에는 예 멩질날 양 이녁 멩질 흐여 먹어지민 흐썰 자게 흐여 먹 어지민 나가그네 스몫 운동장이나 학교운동장에서라도 막 스몫 북덜 가정 두드리멍 놀고 또 경했주마는 이젠 경 놀지도 안 흐곡. 그전엔 잔치만 헤나도 양 잔치날 저 녍은 무쭈건 놀아마씨. 잔치만 흐민 잔칫집은 놀레 갈 거로 계산헤여. 잔칫날 저냐 그 집의 가그네 흐면 신랑 새서방 들어오곡 새각시 들어오곡 흐민 그 집의서 살 거, 그날 처냐 살아 살아 그 집의서.

101007 @ 거난 옛날 잔치 흐면 그 흐 오일잔치 하지 아녀엿수광?

101007 #1 예게.

101007 @ 도새기 잡는 날.

101007 #1 도새기 잡는 날. 딱시.

101007 @ 도새기 잡으면은 이제 켤당덜 모영.

101007 #1,2 예.

101007 @ 가문잔치.

101007 #1 가문잔칫날. 가문잔칫날 잔칫날 삼일날을 부짱 삼일을 하여십주게.
101007 @ 그 뒷날은 고생헌 사름덜 경하여도 저.
101007 #1 영 하여그네 돌아다그네 밥도 혼 사발씩.
101007 @ 빠다귀 국물 하여그네 영 맥이곡.
101007 #1 예. 경 했수다게, 경 했수다게.
101007 #2 이젠 그런 거세기도 어서저불고.
101007 #1 잔치해나민 침 동네사름덜 친숙헌 사름덜은 돌아다그네 문 빠다귀 국이라도 슬마그네 다 침 해연 맥엇곡 했주마는 이제는 어느 저를에 그런 식도 엇고 집의서. 그때는 그자 잔치나 넘어나나 멩질을 넘어나나 흐민 절민 사름덜이 그날 저녁은 그냥 놀 걸로만 계산해나곡 하여신디.
101007 #2 계난 김교수도 그런 때 겨꺼보지 안 해실 거라.
101007 @ 다 겨꺼봤수다. 호호흙 나도 여기 저 색달리난양.
101007 #1 아 색 색달리이우파?
101008 @ 예. 흰하여마썸. 경 하고 여기 저 특산물 무신 거 제일 하여 납니까? 이제 무신 거 저 약초덜은 재배 안 해마썸? 특산물.
101008 #2 안 하여 안 하여.
101008 #1 예. 그런 거 재배 안 하여. 경관재배 이 약초 ㄴ쁜 거나양 이디 촌이 난양 약초 ㄴ쁜 거 무신 이 부루꼬르(브로콜리) 간냥 그런 것덜도 안힙니다.
101008 #2 이 이게 재배.
101008 @ 거난 모멸?
101008 #2 예.
101008 #1 그자 모멸. 그자 그 조. 조도 처음인 잘 안 하여. 모멸, 보리.
101008 #2 콩.
101008 #1 콩. 그자 그거. 콩도 그자 푸린콩, 장콩이나 따로 그자 보리 두어 말 지기 댓 말지기 갈곡 그 나머지는 전부 준자리콩 갈곡.
101008 @ 이거 뭐 공판힙니까? 어디 오일장에 강 폼니까?
101008 #1 아 공판 험수게 다. 농협에 공판.
101008 @ 농협에? 계난 모물이 대부분이구나 모물이.
101008 #1 예. 모물이 대부분. 그전엔 양 이 저 이 이제사 영 농협에 영 받암주 전의사 농협에 뭐 받아보질 안 했수다게.
101008 @ 계난 옛날 거로 말해줍서 옛날.
101008 #1 예. 옛날에는예. 옛날엔 우리가 풋을 지민 풋을 내민, 돈이나 더 받아 보젠 풋을 ㄴ을들영 풋덜을 등짐에 정 모실포까지 기냥 저그네 모실포 가그네 풋서 말이고 너 말이고 저그네 모실포 가그네 그 풋을 풀양. 풋 풀아그네 인제 여기 또 필요헌 거 뜯 거 상을 거 이시민 상오곡.
101008 @ 무신거 사옵니까?
101008 #1 신도, 아기덜 신도 혈민 아기덜 신도 사고, 아기들 난닝고도 하나씩

사고, 여름의는 페랭이도 하나 사당 아기덜 열을 씨우쟁 하고 사당 살 것이 죽읍니까? 사기도 돈 아까왕 사질 안 했주.

101008 #2 옛날 이 농작물은 이디 저 한참동안은 유채만 했주, 유채.

101008 @ 유채?

101008 #2 유채나물 해가지고 이걸 비영 털어그네 기름 누물 하고. 이 고구마, 이젠 고구마엔 하는데 이제 감자, 게난 감잔디 그걸 썰어 물리와그네 감자빼떼기엔 해가지고 그걸 공판했주게.

101008 #1 감저빼떼기, 그 감저 감저빼떼기 하여그네, 저 썰언 거난 기계로 썰어그네, 기냥 막 물리와그네 그 저 그건 공판했수다, 그건. 그건 공판해서. 감 감저 공장 그 어디서산디 오라그네, 어디 그 술공장에서 오란에 받아감젠 험명, 그때 경굴안게. 농협의선 아니.

101008 @ 예. 술.

101008 #1 응 술공장에서 오란에 받아감젠 험명, 그때덜 해. 농협의선 받는 것이 어서난 이젠 농협이 다 받읍네다만은 그땐 공판해도 농협의서 받아보질 안 했어. 켄디 여기서는 예 장이 모실포, 모실포라노난에 모실포장에 게난마나 콩 혼 말이고 쓸 혼 말이고 게난 모실포 강 사는것도 모실포장에 어디 강 사오고 낭.

101008 #2 낭 죽은 낭 정도 가곡, 구루마에 실영도.

101008 #1 낭 하여그네 정 모실포 강 풀아그네 그디 강 이 고기 하나 소곰 하나도 상오곡. 구루마로 시경 가지는 사름은 험쓸 기광이라도 험쓸 신 사름. 딱시 경안 한 사름 허두순 사름은 숫이라도 구영 혼 가맹이 정 모실포까지 정 강 풀아그네 그걸로 쓸도 두 돼 반양오는 사름도 싯곡, 고기라도 요 자리라도 그자 혼 툴 못 사곡 혼 빵을씩 사오랑그네 기자 아기덜 험곡 어느 쥬.

101008 @ 그 숫도 해낫수광?

101008 #1 예게 숫도 해낫수다게.

101008 @ 아 어디서?

101008 #1 이 동네서 해낫수다게 이 동네서.

101008 @ 그 과정 혼 번 말해줍서.

101008 #1 나양 처음에 오라네.

101008 #2 숫? 숫은 그 과정이, 저 지금 이 곳밧디 낭 신거 쫄라. 쫄랑 한 오십센치 길이 에 뽐으로 한 세 뽐 기러기 쫄랑, 그걸 촛곡촛곡 영 행 저 세우멍 싸그네 또 어욱 하여당 검질로 짝 세왕 흑으로 더평 바껏티 담다멍 하여그네 걸 불질르면은 불 부뜨기 시작하면은 그게 제일 처음 불 부질 땀 제일 꼭대기에 흑을 완전히 안 더뜨는거라. 그 왜냐면 불은 윗트레 공기 순환돼렌. 경험민 연기 광광광 낭 불 완전히 부튼 거 달므민 우의 완전히 더꺼부러. 더꺼 거세기 하면은 이노무게 안네서 그 마르지 안혼 낭이 숫 돼가는 과정이지. 반정도 타가면은 썩 조금 내려. 게민 우위로 꼭꼭 눌러멍 하여그네 내중에 완전히 이제 탕다하면 그 구역을 전부 막아버리는 거야. 막아그네 하루 내지 이틀을 시민 불이 완전히 끄거든. 끄면 돌 아시멍

치와똥, 그걸 이제 옛날 가맹이로, 가맹이에 담는디 불 잘 꺼지지 안흔 걸 담양나두
민 막 불 부떠그네 또 경 흥곡 했는디. 그걸 에 가망이도 가망이도 오통가망이가
잇곡 스통 가망이가 잇거든. 스통 가망이는 작은 거 오통 가망이는 큰 건디. 것에
담양 정덜 가그네 혼 가마에 얼마 흥영 풀양 보리쌀도 혼 돼박도 반곡 저 감즈도
혼 말도 반곡 쟁 헤영덜 바뀌여당 먹엇지게.

101008 #1 감저나 싯건 바꿉서. 감제 시건 슯에 바꿉서. 경 텅기명 가인 집 텅
기명 정 텅기명 감저 저 감저 싯건 슯에 흥쌀 바꿉서, 바꿉서, 경 텅겨낫수게.

101008 @ 거난 감저흥고 슯흥고 바꿉수광?

101008 #1 예게. 그냥 감저갑 슯갑 흥여그네, 쌀도양 슯 가정가그네 저 집집마
다 텅기명 양 쌀도 흥쌀 바꾸곡, 고구마도 바꾸곡, 쌀도 바꾸곡, 경 헤낫수다.

101008 #2 그 적에는 양식이 아주 딸려가지고 이 감, 생감저 가공 그 흥는 저
전분공장이엔 흥는디 그디 가그네 그 주시를, 버리는 주시를 해당 걸 들 우의 물
짜똥 난 저 놔두민 물르민 걸 부쌍 그 다 그루 부쌍 먹엇거든.

101009 @ 경 흥고양 그 동광리 이 자랑할 거 이시민 글아줍서.

101009 #1 동광 자랑, 동광 자랑할 게 뭇이 시코?

101009 @ 여자삼춘이 경흥여도 동광리 경흥여도 살만 흥난 사는 거 아니우짱.

101009 #2 어, 자랑할만 흥지. 왜냐면 제일원에서 제일 저 크기 편한 데가 동광
리라.

101009 #1 아 그저 이제 교통?

101009 #2 저디 올라가민 최고. 저기만 가면은 저 옛날말로 제주성내 저 서귀포
저 모슬포 한림 못갈 데가 어시니까 교통 흥나는 최고.

101009 #1 요새 교통 자랑, 교통 좋은 거 하나. 자랑할 것이 어서 나윈.

101009 #3 옛날엔 막 고생흥명 살앗수다. 이디.

101009 #2 경흥디 그거 흥나만은 자랑할 만흥디, 교통.

101009 @ 교통? 다른 건마썸.

101009 #2 다른 것은 이게 지금 스방이 막 오합지졸 돼가지고 웬 거 안 웬 거
다 들어가불니까 자연이 다 훼손웬서.

101009 #1 각처에 사름덜 문딱 모두아 살아.

101009 @ 옛날 그래도 자랑할 만흥거, 옛날, 옛날.

101009 #1 옛날이사 인심이 좋앗주게.

101009 #2 상당히 좋앗지. 인심, 옛날 인심 지금 백분의 일도 따라가질 못흥여.
옛날엔 이 사름이 굴머죽어가면 그 사름을 좀 살리젠 헛지만 이제는 그냥 너 죽어
라.

101009 #1 옛날에는 인심이 좋앗수다게.

101009 @ 여깃 아이덜은 어디 강덜 공부흥니까?

101009 #2 여기 아이덜은 조금 어느 정도 좀 교육에 신경쓰는 사름은 시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101009 @ 고등학교도 그래 가고.

101009 #2 응 중학교부떠도 글로 빠져부리고. 켄디 그러지 아니 흘 수가 없어. 초등학교 어릴 때 보내면은 숫자가 이삼십 명 미만 쉰 게 전교생이 쉰디 그디 강해불면은 내중에 중학 들어갈 때 저 숫자 많은 디 가면 왕따돼부러. 활동을 못 해 부러 졸들어부러.

101010 @ 동광리 아까 말 다 못흔 거 이시민 더 말해줍서?

101010 #1 다 말 다 못흔 거?

101010 @ 응. 여자삼춘은 뭐?

101010 #1 옛날은 양 우리 못살 때 양 이디서 구루마, 구루마, 뭇구루마 햏여그네, 뭇구루마 햏여그네 저 돌오름팻디 돌오름팻디 낭 햏레 멩겅수다. 아기덜 아기덜.

101010 @ 돌오름?

101010 #2 돌오름.

101010 #1,2 저 광평리에 저 한라산 우에.

101010 #1 저 우리 집 영감햏고 동네사름덜이 구르마 신 사름은 전부고 가 돌오름팻디 낭 햏레 아니 간 사름이, 춤 워낙 잘사는 사름 웨엔 거의 갓수다, 그때, 그 시절에. 게그네 돌오름 가그네 낭 헤다그네 낭 헤당 낭 햏오라그네 그날즈낙인 요만씩 무꺼, 단으로. 단으로 햏끔씩 햏끔씩 무껍 햏 단에 얼마 햏영 뒷날 장에 풀레 가젠. 뒷날 장에 풀레 가젠 낭으로 햏 줌 햏영 오라그네 그날 즈낙인 밤에 줌을 안 자. 이만씩 무꺼그네 뒷날 풀레 장 모실포장에 가젠 햏민. 쟁헤네 그추룩 햏여그네 폴아오랑 오곡. 폴아지는 햏는, 폴아지는 날은 재수가 좋은 날, 못 픓는, 못 풀면은 딱시 그디 햏쓸 아는 디 머쳤다그네 다음 장에도 강 폴아오곡. 폴아지는 날, 싸게라도 폴아지는 날은 좋은 날, 재수가. 풀지 못흔 날은 이녁 쓸이라도 햏쓸 상오젠 햏당 못 상오민 즈낙인 오면은 쓸 상오카부덴 햏당 번쩍 기냥 오면은 어두운 지 후 제라도 어디 강 아기덜 배고파가민 어디강 쓸을 햏 뉘 봉가다그네 아기덜 죽썰 멕이곡 경 헤낫수다. 나도 경 헤나서, 나도 경 헤나서.

101010 #2 게난 김교수안티 지금 연령 차이가 얼마 업다 햏지만 내 살아온 거 비교햏면 춤 지금은 지름떡 먹을 때라. 우리 집윗 아이덜토 그런 햏기 햏면은 그때 라면 엇을 때라 햏여. 라면은 글자도 업엇어. 웨냐면 여기 훈련소 딱 떠난 다음에 사격장이 잇거든. 사격장 에염의서 총 그 꺾트머리 잇자녀 뽀랭이. 그 저 녹색 꺾질만 툃툃 뵈겨정, 나 그거 주스레 여기서면 아마 멧 천 뉘나, 저 민오름엔 햏디가. 거기 강 점심도 안 먹으멍 주서그네 그거 걸머져왕 여기 풀면은 그때 돈 멧 십 원. 경 햏멍 그걸, 것도 돈이렌 햏고.

101010 #3 쉘뽀랭이도 주성 풀곡. 고사리도 잇지에.

101010 #2 켄디 내, 나가 열아웁 슬에 아까 햏기햏지마는 저 돌오름이엔 햏디 쉘냥을, 진 냥을 강 집지슬 냥을 비여단에 열아웁에 초집을 지은 사름인디, 여기서 그니까. 이제 열아웁에 집지스렌 햏여봐. 날 죽이젠, 죽으렌 햏수광, 이영 흘거라.

젠디 나는 열아홉에 집을 지었어. 애달애달. 젠디 이게 요즘은 참 살기 좋은 때지 알고 보면.

101010 #1 햅여당 아이 푼는 게 셔서? 고사리 빨리도 케영 풀곡. 딱시 저 그세 기 저 어욱도 비어당 풀곡. 똥, 똥똥, 쉼똥, 그 똥똥 쉼똥도 주서다그네 풀곡. 그거 받으레웁디다. 그 저 동네에서 그 미짱냥 햅는 사름덜.

101010 #2 저 저 그 하우스 안네 뭐 걸름용으로.

101010 #1 똥똥이영 쉼똥이영 주성, 똥똥이영 쉼똥이영 하영 주서당 그런 것도 풀곡. 뭐 아니 푼는 게 셋수광. 낭도 햅당 풀곡. 상동도 봄 나가면 삼동 익으민 삼동도 똥당 풀레, 슷 바꾸레 쫄 바꾸레 집집마다 똥기명 가곡.

101010 #2 젠디 여기서 그 빈 몸으로만 걸어도 햅디, 걸머정 거 슷 오통까맹이 나 햅나 정 강정법환ㄷ지 걸영 강 풀거든. 풀양 걸영오곡.

101010 #1 예휴, 살아온 그것사 녀으나 녀엇주.

101010 #2 또 에 저 해변가에 저 감자 심영 캐분디 그거 주우레 똥겅거든. 그 파난 디 들어 그느명 미쳐 그 빼트린 그거 하나씩 주어당 먹젠 여자분들 그거 주우레.

101010 @ 수고햅수다. 거난 마을에 대한 건 마치쿠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저 여자 삼춘안티 먼저 물으쿠다. 그 낱고 자라온 과정 영 곱아줍서.

102001 #1 어느 때부터 자라온 과정 곱읍니까?

102001 @ 태어날 때부터.

102001 #1 태어날 때부터 자라온 과정마썸. 우린 묵은동광에서 태 태어날 때부터 우린 묵은동광에서 태어났주게. 무등이왓서 무등이왓서 태어나신디 무등이왓서 태어나신디 난 나 게 우리 무등이왓에서 태어날때는 햅망 하르방 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햅고 슷춘 하나 잇엇고 계난 나가 제일 손지로 나 햅나 뿐인디 나가 태어나신디 나 밑에로 나 알로 저 오래비덜이 셔. 오래비 오래비덜이 슷 성제가 잇어나서. 슷 성제가 셋고 나도 이디 나도 초등햅교 이디 국민햅교 여기 똥겅수다, 여기. 국민햅교 여기 똥겅 일햅년 동안은 똥겅수다. 똥기단에 그땐 일햅년 동안은 똥기단에 슷삼사건이 나분 거라. 일햅년 동안 똥기단에 슷삼사건 나부난에 이젠 일햅년 슷삼사건 나부난에 내려간 살당 초등햅교 똥기단에 내려간 살단에 또 여기서 살 때는 또 오래비덜 너이 햅고 너 오노이가 햅쫄 아방이영 ㄱ쫄 햅쫄 쫄차녀게 살아서. 경 살아신디 슷삼사건 때문에 이젠 아래 내려간 살단에 아래 내려간 사는디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불고 죽어부난에 이젠 어머니 햅고 이제 난 화순서 동광을 씨집은거 라마썸. 화순살단에 동광을 또 시집오란에 이 동광을 씨집 오란에 이 동광 오란에 살명 우리집의 하르방을 만난 씨집오랑 사는디 그건 살명 살명 아기덜 햅 슷 남매

난에 느 오누이 난에 사는데 그 사는 과정이 험쓸 힘들어십주게. 어멍 씨어멍 아방도 웃고 아무도 웃언에 그 우리 집의 하르방 하나 신디, 나도 어멍 아방 엇고 우리 집의 하르방도 어멍 아방 엇고 혼디 오랑 시집오랑 살 아무것도 어신 디 오랑 살젠 혼난에 잘도 하영 고생험명 살아수다게. 고생험명 스뭇 살단 베련보난 이제까지 살아져신디. 에이구 산 생각을 험민 참 기가 막히고 웬장도 엇어그네 웬장도 어서그네 소곰에도 밥 먹어나고. 시집은 후에 소곰에도 밥 먹어나고. 쓸 어서그네 멜첻로 범벅도 험연 먹어나고. 저 감져주시 들린 것도 험명 다 먹어나고. 갖은 고생 다 험명 저 어뎡어뎡 험연 살단 살단 보난에 이제까지 살아점신지. 나가 이제 나라 대통령까지 살아점수다만은.

102001 @ 계민 큰아들은 뭐험수과?

102001 #1 예 우리 큰아들은 이제 저 한라봉 험수다게, 한라봉. 요 육커리서 육커리 하우스 지슨 거 우리 큰아들 한라봉. 큰아들은 한라봉험고. 둘째아들은 어디 저 바다에 바당에 그 저 바지선 타그네 그 저 축항작업험는 크레인 크레인 타고. 우리 죽은아들 어디 시에 살명 그럭저럭 그자 호텔에도 뎡이곡 어디 관광지 무신 거 그럭저럭 밥 먹영 사는 거 뿐 험여서 살곡. 딸도 하나 웨도에 시집 간에 그자 이녀 그 이녀 먹을 만이 살곡. 이제 나 하나만 동광 살암수다게. 나 하나만 동광 살명 그 살아난 과정이 다, 아이그 생각도 하곡 말도 못 험명 살아난, 계난 나예, 나가 예 우리 어멍 아방 죽어부난에 우리 남동생이 아웁 슬이라마썸. 계난 그 남동생을 나가 들양 살젠 혼난에, 씨집 오란에 아기도 혼나토 안 난 때, 남동생을 들양 살젠 혼난 어멍 행 살아질 겨우짜? 경 험명 그 살 때는 오레비 들양 살젠 혼난 시집 오난 아무 거 어신 집의 씨집 오란, 누민 이만이 혼 구들 혼나에 구들 옆의 저 정지 영 험여그네 솟 솟도 보난에 씨어멍 솟이엔 험명이네, 말치 하나 터진 거, 그것도. 터져났지 췌물 녹여그네 부찢 거. 그것도 다솟테기 하나 경 험연 두 개 선 주난에 그것에만 밥험 먹으멍 험여그네 오레비영 살젠 혼난에 아멍 좋은 신랑도 좋덴 흘 리가 엇주. 마음 속으로 늬도 부끄롭곡. 잘도 아니혼 고생험명 살명 험당 보난 살아지고. 에휴 나 그때는 그때 살아난 곱아가민 노시 곤지 못험여 목 백혀그네. 이제는 눈물도 안나고 웃으멍 곱아지는데 기가 막혀. 경험명 살이신디. 이제 오레비도 잘 살고, 아기덜도 그자 그럭저럭 잘 살고, 하르방은 혼 오년 전의 죽어부난 이제 나 혼자 살암수다게.

102001 @그 다음에 우리 남자삼촌 낳고 자란 과정 혼번 이야기 험봅서?

102001 #2 나 나기는 무등이왓디서 나십주. 무등이왓디서 나가지고 우리 동기간은 칠남매라. 일곱 오누이. 겐디 그제 중에 내가 제일 막둥이, 막둥인데, 스삼스건 태어나기는 아웁 슬 때 스삼스건이 발달뻘고 낳고. 경 험여네 그 다음에 스삼스건 피난쳐는 저 사계에 강 살단 제주시 수양소 걸천에 그제 직 말험면 스삼스건때 피난.

102001 #1 수양소에도 가나서 무사?

102001 #2 예, 가나수다. 여기에 지금 부락 설립웨니까 여기도 올라온디가 나가

열다섯 살 때 여기로 와네. 요 서광초등학교엔 흐는 디 거기서 졸업흐연. 경 헤네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내가 나가 저 군인 가는 것도 왜냐 흐면은 군인 가기 전의 결혼을 흐연, 스물둘에. 에 장가를 강 그다음 그해에 나가 군인가기를 육십이년도 갖주게. 육십이년도 간에, 에 논산 훈련수 걸천에 저 기성부대엔 흐는 거 육사단 간, 강원도 원통서 인제 걸천, 또 정기도 가평서 제대헤네. 나가 지금 저 제대행 완. 여기 완에 지금 살아오는 과정이 부락에 제대흐영 온지 후에 직책이엔 흐 건 저 청년 회장을 더퍼씨왕. 써가지고 청년회장 걸천 새마을지도자에 흐 그 직책이 이성 새마을지도자 써네 성남 중앙연수원 강 거기 강 교육받안. 게헤네 들어완 그 해에 또 부락 그때 당시에 구장이엔 흐 거 그걸 또 부락심부름을 마탕 흐영 그게 이년을 끄난. 에 살아오는데 또 지금 노인회장이엔 거 마타달라 흐연에 지금 삼년 구물영 스년 쟈 새해 접어 들영 지끔까지 살아웁시다.

102001 #1 무사 군 무시거 안 흐여서? 목장조합장은 안 흐연?

102001 #2 아 목장조합장도 흐여십주.

102001 @ 것도 곱아줍서.

102001 #2 게난 왜냐면 요게 이장직을 딱 끄나난에 목장조합장 그 해달렌 흐연 목장조합장 해십주. 흐연 그게 목장조합장 흐는 해에 이노무 부락 그 목장을 풀 게 뒤편에서마썸. 풀게 뒤편에 그걸 풀아나니깐 분쟁이 그 싸움이 나가지고 재판 소송이 일어나서마썸. 일어나가지고 제주지방법원에서 그게 재판을 혼다 해서 어 챗번 거 세기는 이겨서마썸. 게난 이심 고등법원이엔 흐 것에 그만 저부러턴말입니다. 지나 까 또 상고흐연에 서울 대법원까지 그 점 그 소송을 그 끌어온 바가 잇는디 결과적 으론 경흐연 그게 목장은 이제 끄나버리고 그르 후에 노인회장직이라는 게 마탄 잇는디. 지금 나이가 이게 지금 새해로 이룬으섯 으섯 경흐연 살아웁십주. 겐디 자세 흐 그 거세기는 살아올 때 뭐 이것저것 헤놓은 거 다 이제 말흐자민 흐정이 없고 대충 갈 점 추려가지고 얘기햐십주.

102001 #1 혼자 살아온 경흐 어떻 과정이 곱을 수가 엇주.

102002 @ 여자 삼촌 예 부모님은 그 어떤 일 헤낫수과?

102002 #1 우리 어떻게마썸?. 우리 어떻게도 양 저 우리 어떻게게 그자 흐여튼 여기서 보리농사 조농사 그뎨 저 조. 옛날은 옛날은 조가 보린 이딘 보린 잘 안 뒤편 양. 보리 우뜨르 땅이 그뎨 보리 잘 안 뒤편다게. 보리도 흐민 저 뚝길름에 보리에 찌그네 보리에 찌그네 영 사름 손으로 영영 툇아놔그네 쉼로 갈아 그때 보리 해 십주게. 겐디 좋은 밭 이신 사름은 보릴 흐여떡곡 그냥 저 식은 땅 폭삭폭삭흐 땅 그런 땅엔양 기추룩 보리에 걸름에 줍아놔도 보리가 잘 안 뒤편어마썸. 게난에 그런 건 보리는 잘 안 뒤편에 게도 하영 안 갈아도 그자 조뎨 먹을 만이만 흐여그네 흐 곡. 조그튼 거 하영 햏수다, 조. 조, 모멸, 쫓, 콩도 콩도 잘 안 흐고 그때는. 옛날에는 콩도 잘 안 흐고. 산뒤 우리 어떻게 흐는 거 보민 그때 산뒤, 조, 쫓, 모멸, 그거 하영 햏수다게. 감저도 감저도 경 하영 안 흐여그네 그냥 먹을 감저만. 그 옛날에 옛날엔 우리 어떻게 흘 뎨 먹을 감저만 흐여그네 가을 뒤편 감저를 파다그네 기자

옛날은 풀, 그때 그 시절은 풀지 안 햏엿어. 감저 햏여당 구뎡이 멧 구뎡일 구뎡일 파그네 구뎡일 파그네, 그래 저 무신거 영 햏여그네 어욱이나 새나 영 세와그네 가 운디 영 햏여그네 무신거 영 햏여그네 무꺼그네 어욱ㄴ쁜 거 영 곧짜 햏영 무껍 숨 통 바깳디 네여그네 이레 감저 막 놉그네 안네 어욱대나 영 햏영 싸그네 바깳들로 혹 더꺼그네 우의 짐나게시리 그 묻음네다. 그 감저를 묻으민 겨울에 잘 묻으민 썩 질 아녀여마씨. 경 묻으민. 경 햏여그네 죽 죽은 구녁, 큰 구뎡이 죽은 구뎡이 감저 서너 구뎡이에 물어그네, 기려울 때는 그 영 꼭대기로 꼭대기에 숨통 티운 달로 손 질렁 파다그네 떡곡 떡곡 햏민 기추룩 햏곡. 감저는 경 햏명 감전 주 양석으로 햏 여십주, 감절. 여름 나면은 봄 나면은 가는 건 지슬, 옛날엔. 지슬도 영 햏영 햏민 그때는 무신 거 엿인 때난에 똥 주서다그네 케와그네 불체 불체 영 햏여그네 밧고 량에 그 똥을 쭈욱햏게 끌아. 끌아그네 그디 불을 질러. 불을 질러그네 헤민 불을 문딱 칸 다음에 그디 제가 복삭햏 거 아니우파. 게민 그래 지슬 도록도록도록 놉그네 그걸 영영 물어그네 저 지슬 햏여십주게. 기추룩 비료ㄴ쁜 것은 오줌 싹다그네 오줌을 싹영. 싹여그네 그거 지슬 놉놓은 더래 오줌을 조룩조룩 영 그거 걸름으로. 오줌 햏쌀 바깳디 안 싹수다, 그때. 걸름으로 오줌 싹다그네 그 지슬을 주룩주룩 잘 준 지슬을 그런 것도 잘 준 지슬을 경 안햏 지슬은 준준햏여그네. 먹을 거, 그뎡 먹을 것만. 푹는 것이 어서. 먹을 것만 그자 입에 먹을 것만 경 햏곡. 조 ㄴ쁜 거 조 도 만이 갈곡 푹도 좀 햏영 갈곡. 저 뭐 우리 아버지 이실 뎡 모멸햏고 저 산디가 햏영 갑디다, 모멸햏고 산디. 이 웃드르는 모멸 산디가 잘 웨는생이라마썸. 보리는 안 웨도. 콩도 안 웨곡. 그옛날은 콩도 안 웨곡. 콩도 햏민 그자 장 담을 콩이나 담 주 장 담을 콩이나 담주. 풀 콩은 담지도 안 햏곡. 풀 콩은 웨지도 안 햏고. 햏여난 조 ㄴ쁜 거 보리 ㄴ쁜 거 산디. 그치룩 양석만 안 받아 먹어도 좋은 거. 기추룩 햏 거 갈아그네 양석만 아이 받아먹어지민 좋은 거. 그때 떡곡 사는 거 백인 곡석에 돈 햏젠은 생각도 안 햏고. 그자 떡곡 사는 거. 아방네도 경 햏명 살앗수다. 아방네도 농사만 지영.

102003 @ 경햏고 저 어머님 고향은 어디우짱?

102003 #1 우리 어머니 고향은 조숫맛을 저 한경면 조수. 게난 조씨. 어멍네 고향은 조수 우리 어멍 어멍네 웨가는 딱시 검약.

102004 @ 경햏고 저 어린 때 무신 거 햏명 놀앗수가?

102004 #1 우리? 우리 어릴 때는 공기 공기 잇지에 공기. 어릴 때는 햏 일곱 살 여섯 살 그치룩 햏 때 돌덜 이만씩 햏 거 돌덜 햏여그네 득득득 멧아그네 공기. 공기 주로 햏곡 공기 햏곡. 딱시 비오라나면은 그 저 요 우리 사뎡서 영 정밧더래 쯤 옥 햏게시리 오면은 각시든밧이 그디 햏민 춘훅이 이서마씨. 역볼로 그때 아이덜 햏여그네 그디 오라그네 춘훅 파당 영 햏영 썸그네 썸그네 공깃돌 동글락동글락 햏게 만들아그네 돌고망에 놉그네 돌고망에 놉나민 그거 바싹 들르민 멘들락멘들락 그거 춘훅이난에 벌러지지도 안 햏고 공기 좋읍네다. 큰 공기 죽은 공기 햏명 공깃돌 멧 개, 그 뎡 다섯 개가 햏 팀이라 햏나가. 큰 공기도 다섯 개, 죽은 공기도 다

셋 개, 흐쓸 막 여라 개 흐영, 그거 한 사름은 아이덜 그거 하영흐 사름은 나 멧개
싯져, 멧개 싯져 그추룩 흐명 경도호고. 방찰락. 돌로 흐영 영영 발로 차는 거. 방찰
락. 방찰락호곡. 줄 영 베떨락. 이녀냥으로 영 흐는 베떨락. 이녀 혼자 영영 흐는 베
떨락. 흑교썸 땡겨가민 흐주만은, 일곱 술썸 땡 땡 베떨락. 베떨락호곡 베떨락호곡
공기호곡. 그런 거 주로 했주, 그런 거, 어린 땡 몰라, 스나이덜 흐여가민 자치기도
흐어나서. 자치기 흐명도 흐쓸 놀곡. 저 진또리. 진또리도 잇수다. 진또리.

102004 @ 진또리는 어멍흐 거우짱?

102004 #1 진또리는데. 이거 여영 흐민 이디 사곡, 일로 일로 영 흐민 이딘 흐
쓸 널버. 이딘 흐쓸 널브곡. 따시 이디 상. 이디 신 사름덜이 이레 넘어가는 거, 이
레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상 막는 거. 진또리. 막는 거. 영 흐영 이디 사름이 올레
직흐민 일로 이레 사뎡서 이레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 그런 그런 장난도, 그런
것도 장난 이서낫수다. 경 흐고양 따시 봄 나가민 어욱 새에 땡이 나지 안흐니까
땡이. 땡이를 땡이 빠다그네양 땡이치기. 아이덜양 땡이 땡이치길 흐젠 땡이덜 이만
큼 이녀만씩 하영 밧디 강 빠다그네 나뒤그네 땡이치기덜 흐젠 흐명양 영 흐여그네
멧 개씩 내와그네 착 흐게 돌리민 그디 고망 큰 디 이녀 땡이 그레 율의 건드리지
못 흐게 경흐연 톡흐게 건드리민 그 아이 그만큼 받아오곡. 나가 지면은 내여놓곡.
그런 것도 봄 나가민 그런 것도 호곡. 베떨락 호곡. 어린 때는 그자 땡이, 봄 나가
민 땡이치기, 그자 베떨락, 공기 그자 어린 땡 주로 그거주땡. 일곱 술 으답 술 그
때. 겨곡 그때 우리 예실곱 술에도 물지르레 땡겨나서. 예실곱 술 흐 때, 흐 일곱
술 흐 때도 저 췍에 흐여그네 술췍 이만이 큰 거, 흐 땡짜리씩 이만이 흐 거 차롱
착에 흐여그네 차롱착에 흐여그네 그레 췍 톡 놔그네 어멍이 저 물 강 질영 오렌
흐민 저 우리 스춘성님신디 물 질영 오렌 흐민 그 성님이영 그췍 물 질으레 가그네
난 게벼우니까 정보다 제게 돌아오주게. 제고 어리곡 흐난에. 제게 돌아오민 어멍신
디 착흐텐 말 듣젠. 조로룩 흐게 정보다 아피 돌아가그네 아이 일등으로 제게 왓젠,
착흐텐 그런 말 듣젠. 일곱 술에도 물 질으레 땡겨나서.

102005 @ 남자삼춘 예 일제강점기 때 공출, 공출에 대흐영 압니까? 일본놈덜안
티 영 바치는 거.

102005 #1 물을 걸. 우리는 알아져. 우리는 공출홀 때 양 공출홀 때에 그때 나
으답 술에 헤방뵈신가 알거우다. 으답 술인가 아웁 술에 헤방, 으답 술에 헤방뵈실
거라. 경흐디 그때에 공출받젠 흐면은 우리 어멍넌예 놏뚜경 그쁜 거 낭푼이 그쁜
거 문 곱집디다. 어디서 완젠 흐민 막 곱져부런게. 우리 어머니 나 낳지 안흐 때 우
리 어머니호고 우리 아방호고 저 일본 살아십주게. 일본 강 살명 그릇덜이 하낫수
다게. 하난에 일본서 그릇덜 하영 오고, 경흐연 와나신디. 이불 그쁜 것도 모비단
양단 그런 이불덜 나 컨 브라보난에 어멍 일본서 흐영 온 거옌 흐연 싯곡. 그릇덜
이 경 막 한. 우리 스삼스건 날 때부떠도 그 종지도 요만씩 흐, 종지도 곱이 이만씩
이만씩 높은, 종지가 이만씩 높은 종지게. 험방울은. 곱이 막 노파. 그런 종지덜이
막 이서난. 그걸 대왓디 놔, 대왓디 그런 거 스못 그런 일본 그릇덜 스못 대왓더레

농민 불나카 아나나, 대왔더레 문딱 집 안네 거 문딱 대왔더레 문 놔부난에 문딱 거기서 불칸 부서전 치와부난에 시국 꺾나난에 대왔디 간 베려보난에 부서진 거 서도 급난 것덜이영 봉가당 멧 개 쓰당 데껴불언.

102005 #2 일곱 술인 때 공출호여실거우다. 나 아홉 술 때난, 이디 저 석주, 여하간 그 어른덜이 공출돼지말젠 거세기 헛단에.

102005 #1 아이고 경호난에 우리 일곱 술에썸 경호난에, 매 마지명 홀 때 그 공출 때문에 매 맞질 안 호고 세금 내지 안 호염텐 경 호 거 아니라, 세금 내지 안 호염젠. 경호연에 그때 우리 아버지도 심어다넌 우리 진선이 아방네 우리 아방네 기호 아방네 이디 문딱 심어단에 쉼치 두드려부난에 사름이. 그때 나 일곱 술썸 에라. 경호연 계난 이곱 술이고 으섯 술이고 어느 정도 알아져. 계난에 우리 아버지네 기호 아방네 동녘집이 진선이 아방네 문딱 이디 심어단 갈리 열 개씩 심어단 막 두드려서. 막 두드려부난에 이젠 그뻐 이제 죽은 것덜 문 끄서가렌 문딱 들 사름덜 호연 들러단에 끄스멍 들러단에 계도 어떻 기추룩 맞아도 살긴 살아서. 검은쉐똥 주서다그네 스몯 막 검은쉐똥으로 막 올리곡. 그뻐 무신 약이 싯수과? 검은쉐똥 주서다그네 먹으민 좋곡. 경호여도 세월이 가가난 어떻어뻐 호여네 그때 맞은 건 건 즈 좋아도. 좋아도 얼마 어성 시국 톱 돼난 경 돼불더라고.

102005 @ 계난 공출 무신 거 바쳐수과?

102005 #1 그때에 양 그때에 공출을 잘 바찌지 못 호여부난에 기추룩 뭘 맞아 신디. 공출을 바찌지. 그때덜 그때 영 베려보난 모관서도. 모관 켤당이 하나 신디 밤중의 우리 집의 왔더(라고). 완 그디서도 공출, 심으레 심으레, 이녁 곱안 텅기노 렌 호명 우리 집의, 저 애월선가 어디선가 우리 집의 좃안 와서, 밤의. 밤의 좃안 완. 우리 집의까지 곱으레 와신디. 경호연에 곱양 텅긴 사름은 메덜을 안 맞아네 살고 경 안호 사름덜은 그때 경 메만 죽게 맞안에 저.

102005 #2 저게 공출이엔 호 계. 일본놈덜이 이 놯췌 종류는 다 거두왔거든. 경 호니까.

102005 #1 응. 놯냥푼이고.

102005 #2 저 일반 집의서 먹는 술궤락도 놯췌. 밥 푸는 것도 놯췌. 호여 노니.

102005 #1 다락 궤뜯 것도 놯다락이주게.

102005 #2 놯췌 그릇은 다 내여노라 호니까 걸 아니 내여농젠 김추왓당 걸리민 두드려맞곡.

102005 #1 경헛수다.

102006 @ 그 다음에 그 사삼사건양. 이 동네도 소개돼지 안 호우짱?

102006 #1 예. 문딱 소개돼여부러주게.

102006 @ 그 사삼사건에 대호그레 영 곱아줍서.

102006 #1 스삼사건 처음엔, 스삼사건 처음엔 양 아래서가 이 면사무소에서나 경찰서에서나 이장신더레 통지를 오지 안 호우짜? 어느 제 어느 때까지 소까이 호지 안 호민, 동광 오라그네 어떤 사름이, 빨리 동네 부락 사름덜 문딱 소까이 시킵

서, 시킵서 통지서덜 막 와. 경흥디 그 이장이엔 흥 사름이 저 더런 아들 어느 정도는 산쪽이고 어느 정도는 순경이곡 경 흥여실거라 그때에. 순경이곡 경 흥여신디 그 온 것을 이녁이 딱 물어낸에 발표를 안 흥여불어서마씨. 발표를 안 흥면은 동광 사름덜은 소까이 가질 못 흥여서마씨. 그걸 발표 안 흥여부난. 곁아줘시민 소까일 갈 건디, 곁아주지 안 흥난 소까이 가지 못 흥 거라. 소까이 가질 못 흥여부난 이젠 아래서 켤당덜이영 신 사름은 밤내로 오란 솔솔솔솔 돌아가곡. 메틀기지 안 내려가민 동광 불태와불곡 사름 다 죽인덴 흥난. 아래 켤당덜이영 아기영 친척덜은 신 사름은 오랑 돌아가불곡. 우리 그든 사름은 켤당도 엇고 친척도 아무도 엇고 아는 사름도 엇고 흥난 그런 사름덜은 우리만이 아니고 든 사름덜도 아자뒤서 그만이 네부난에 메칫날은 오란에 그자 집을 그자 아니 메칫날은 뤼연 오란에 집을 우리 그뻐 우리 무신 거 흥단에 아방은 이장네 집의 세금 내레 가켤 흥명 가불, 세금 내게 가켤 흥명 가분디. 흥쉴 시난 순경덜이 바름하게 담아들언. 아방 어디 가지넌 흥난, 아방 나갓젠 흥명 어떻 조반 혜 먹언에, 흥쉴 늦은인 때라 이제 생각흥민. 이제 조반 혜 먹언에 아방은 세금 내레 가켤 흥명 가불곡, 어명은 무신거산디 정지 검질 깔안에 영 흥는디, 방석 깔안에 그레를 앞전 뭘 곁 때라 그때에. 곁 때 순경 오란 아방 엇덴 흥난 확확 곁안 대답말 어시난 가부런. 야, 이거 큰일은 남직흥다. 오닐은 사름 멧 개 죽엄직흥다, 죽엄직흥다 흥명, 흥연에 이젠 아방도 나가불곡 흥연 어뻤일이로 흥연 이젠 이덜 그만이 산 시난 흥쉴 흥 얼마 시난 총소리 팡팡팡팡팡 나가난 아고 느네 아방 죽엇저, 느네 아방 죽엇저 흥명 흥연에. 켤 오란 우리 어머니 죽은 사름덜 문딱 혜천 봐서. 아방은 들어오지 안 흥곡. 혜천 봐도 우리 아방은 아니. 우리 아방은 아니고.

102006 #2 흥 군데서 경 총살시켜부러주.

102006 #1 아웁 사름이 그때 죽엇주. 열 사름인디 흥 할으방은 총 쏘아가난 무죽은 들은 거라. 총 쏘아도 산 할으방이엔 우리 곧주 이제도.

102006 #2 그때 구장이엔 흥 사름은 강썸디 제비 강썸디. 웨냐흥면 당한 스춘 조카는 경찰로 잇곡, 또 육칠춘 거세기 즈식덜은 산측에 부편단말이여. 흥니 이거 그레도 못 흥고 저레도 못 흥고 곁아아자분 거여. 경흥니 공문을, 내려와라 흥는 곁 곁아아자부니까 부락주민덜은 몰라노니까 내려가지 못 흥 거라. 그 바람에 와 가지고 기흥을 딱 지나니까 와가지고 그적에 이 저 경찰만 온 것이 아니라, 저 이 그때 저 응원대거든. 저 군인 일종이라. 그 사름덜 싹 완 포위해가지고 그자 딱 지정 잡안 두드리곡 못양 아웁 사름을 한 군데서 총살시긴거라.

102006 #1 거난 그때부터 사름 죽음 시작흥였주. 처음의 시작은 그 아웁 사름 죽고. 그것이 처음 시작 죽음. 시국에 죽음 시작을.

102006 #2 그뻐 무쭈근 게엄령 내려노니까. 계속 죽어났주.

102006 #1 그루후젠 시 슬난 아기고, 병 난 할으방이고 봐지는 건 다 다 죽여불곡. 딱시 집은 오란에 그자 흥를에 갓다가 밋밋 불 부쩌부난, 영 그디 영 곁아두서, 우런 그때 곁아십주게. 게 흥여가난. 게 흥여가난 집을 떠난에, 동광 우웬이 곁덜,

일본 사름덜 판 굴이 있어, 넷도굴. 넷도굴에 곱아서 그때. 넷도굴에 곱아두서 보민 양 하늘이 흰혀. 하늘이 윈. 이디양 চে염 도싸가지고 삼스방이, 동광만 불 부뜬 게 아니고, 그때는 조수 낙천더레도 다 불 부뜬수게. 검악이고 어디고 그때. 다 불 부뜬수다 그때. 조수 낙천 검악 이 청수 당므르레 그때 다 이제 상명 그쪽더레 다 불부뜬수다 그때.

102006 #3 서광더레도 다.

102006 #1 서광이사 물론이주만은. 검악 아래 저 어디까지도 문딱 불부뜬부러트수다. 청수 당므를 어디 이더레 다 불 부뜬수게. 이제 이제 그뜨민 저 바당굿만 버서 난 딴 거의 불 부뜬서. 저 인행이네 인행이 저 어드레 다 불부뜬서 그제. 경혀어나 난 하늘이 별경혀 밤의. 밤의 메날 하늘이 별경혀. 아고 저디 어느 부락쫘 불감저. 어멍 막 굳는 말이 저건 우리 어멍네 조수레 우리 어멍네 집 불감저. 그 동네도 불감저, 불감저. 흐멍 어멍이 기추룩 막 곱으멍 혀어나신디. 경혀연에 그때 곱양 살 멩 그디 집, 게난 그때 영 흡디다게. 사름덜이 그때도 우리 동네도 산에 땡기는 절민 사름덜, 으망진 사름덜은 산에 그 신 사름덜이 셋주게. ‘아고 삼춘네 내려가민 이 아기덜광 어멍 살쿠과? 이제 그 사름덜 왕 집만 불 태와불민 어멍 안힙니다. 집만 불태와불민 어멍 안힙니다. 집 불케울 동안만 살암십서. 살암십서.’ 흐멍. 집 불케와도 더 점점 머 스못 집 오랑 불케와부러도 사름, 바지는 사름은 문딱 죽여부난 이제. 곱양 사는디, 곱양 살단 이젠 집이영 다 불케와분 다음에는 이젠 우리 뒤침의 뒤침의 사름은 새집 지선에, 김분필이엔 혀는 사름인디 새집 지선에, 오란 혼 삼 년 백이 안 산 사름인디 그뻬 저 도새기 집을 크, 도새기 집, 도새기 살 디를 막 크게 크게 혀엿어. 뜬 다름네보단. 새로 혀난 신식으로 것도. 크게 집을 지스난에 그딧 어멍이 ‘난 아래 가도 죽을 거, 이디서도 죽을 거. 난 이 집 절대로 떠나지 안 혀영 그냥 살켜, 그냥 살켜.’ 흐멍, 그 돛칩 속읍, 아들 아들혀고 저 거세기 메누리 혀고, 손주덜은 그 거세기 누구 웨가로 혀연 순경이난에 그때 돌아가불곡. 어멍혀고 아들은 안 간 거라. 아들은 어찌혀단 아들은 죽여부난, 이제 돌아가젠 혀난 그딱 안 가 켜 혀연 그 돛칩 쏘급에 강 살앗수게, 그 할망. 거난 죽장 우리 아버지네가 그디 가 그네 뒤침이난에 불 저 먹을 것도 혀여당 안네곡, 딱시 거세기 멘도롱이 가그네 밤이만 낮인 안 가, 불 혀여주곡 기추룩 혀단 그때 막 므스완에 가지 못혀연, 겨울에 어멍혀연 가지 못혀연 혼 메틀 싯단 간 보난 그 할망 돛칩 쏘급의서 죽여부런. 돛칩 쪽의서 죽여시난 멧 사름 들양 간 이제 할망을 파다내연 그 집터에 묻어십주게. 딱시 아들도 그 집터에 예점 그냥 예점 묻영 내불고. 할망도 등겨단에 그자 그레 묻영 내불고. 경혀멍, 그때 경혀연 이제 시국, 건즈 건즈 혀연 이제 혼 어마 안 혀연 살암신디, 혼 메틀산디 시난에 또 이제 사름이 그뻬 막 아기고 어른이고 막 그자 우리 큰빳디서 막 모아다 뵈에 영 혀연에 벵혀게 모아뵈에 그 우터레 죽창으로 콕콕콕콕 쫓르멍 그자 막 그냥 사름을 죽여난에 반 죽지 안 혀연. 반은 죽은 사름덜이고 그자 더러 죽은 사름이고 불 그자 우터레 모멸냥이영 막 검질 씨와난에 불 탁 부쪼분거라. 검질 씨와난 불 탁 부쪼그네 그 사름넌 멀리, 냄새나곡 혀난 ㅂ

뜬디서 지켜사게, 멀리서 영 둥굴어나는 거 망보다그네 둥굴어남져, 돌아나민 콧 찻 러뒤그네 또 들곡 경호명, 또 경호연 경호엿젠 흡니다게. 경호엿젠 혼디 그때 송치 우엔 혼 사람이 나영 동갑이라, 가이가. 나영 동갑인디 이건 영호민 질이 영 요거 호민 께는께는 가네 집더레 가는 질이 셔. 가네 집은 요 안네고 우리 집은 이디고 불칸빚은 이디. 질 이디서 호면은 대왓더레 그 질 넘언에 막 불칸 호여부난에 잘 못 보난에 대왓더레 팽팽팽팽 가이가 둥굴언. 둥굴어난 가인 살아네. 가이네 어명이 누이영 아시덜이영 그때 으섯 식권가 거기서 죽어서마썸. 겐디 어명은 확 든단에 그 할망 죽어난 돛칩더레 활짝 들어간에 어명은 그 돛집 속읍의셔 살고, 아들은 둥 굴언 그 대왓디서 살고. 가이가 이젠 우리영 ㄴ찌 곱아신디, 가네 어명이영 ㄴ찌 가 이가 곱아신디. 이 영둥이가 보난에, 영둥이가 궂인 디가 어서게. 문딱 기냥 막 죽 창으로 찢러부난양 그 때에, 가이영 나영 동갑이난에 혼 열혼 슬의썸이주게. 막 찢 러부난에 영둥이가 궂인 디가 엇고양, 뉘 줌 자는 것이양, 줌 자는 거 아니라 눈 흰 하게 텅게 줌자는 것도. 눈 자는 거 영호영 눈 흰하게 텅. 그 줌 잠젠 호난, 줌 잠 져 호명. 게난 가네 어명 그때 심방 뒤여서. 그때 경호연 심방, 막 그냥 밤의 그 집 터에 가그네 녀드려다그네 아들신디 들어 빌곡, 가이 큰아들이라 그 집의셔. 들어, 아니 그때에 아들 성제에, 딸 싯 개산디 다섯 개 죽고, 씨어멍 죽고 그때 문 죽언에 일곱 식권이 수정에, 그 어멍호고 아들만 그때 살아신디. 경호연에 그디 간에 멧번 빌멍호난 그 아인 살아난. 그 아이 살안 우리영 ㄴ찌 곱양텅기단 살아난. 이제 우리 요 압작지 오란 말젠 호쓸 그 저 어디, 호쓸 미오름도 강 곱아나곡, 저 큰넙케도 강 곱아나곡. 큰넙케 곱은 때도 조그만이 헤서?

102006 #2 경호난에 그, 그추록 사름 죽이는 걸 본 후에 이 큰넙케엔 혼 거, 이 지슬이엔 혼 영화에 나온 굴에 모여든 겹주게. 거기 한 상하동 부락 저 사름덜이 한 삼백 명 그레 들어간 거여.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탄로가 나부니까, 이제 오후 혼 네 시 아니문 다섯 시 경에 발각이 댜니까, 토벌대안테 발각이 댜니까 이제, 그걸 진압작전을 그만 어두워서 못 하게 댜니까 출입굴 딱 막아부러서마썸, 저 돌 호여단에. 막아부니까 다음날 와서 다 잡아가젠 호연 놔두니까

102006 #1 그때에 굴 안에 들어갈 때 베려보난에 질 처음에 굴 안에 들어갈 때 베려보난에 삼밭구석 사름덜만 그딜 점령호영 사는디 우통덜 다 벗곡호여그네 짝, 마께로 호여그네양 짝 두드렘십디다, 짝. 신 숨아그네 댜길 때 신덜 신젠. 짝덜, 겨 울이난에양 굴 속엔 막 득사마씨. 득스난양 우린 갓 들어간 베려보난양 우통 벗고 호연에 짝덜 두드렘선게. 짝 두드려그네 신 숨을 사름은 신 숨곡, 베 꼬아그네 신늘 이영 호젠, 신 숨곡. 우리는예 동광 사름은 말제에 들어가난에 기영 영 호연 가단보 난 영 엷더정 기연 가는 디가 혼 십 메단 충분 댜여. 경 기연 간. 인젠 기연 간 보 난 막 높은 디 이선게만은 딱시 이젠 알로 영 호연에 딱시 사다리 뉘 올라가는 디 가 이선마씨. 영 남쪽더레. 영 호연 사다리 뉘 올라가는 딴 간 그딴 강 베려보난 그 굴은 노프지도 안호곡 영 웬 굴이라, 영, 영. 영 웬 굴인디 요 가운데는 어느 정도 사지는디 옆더렌 영 누움백이 못호여. 거기가 동광 사름 사는 디라마썸. 무똥이 사

름 사는 디. 계민양 물 ㄱ쁜 거 기루우민양 그디양 물이 토크토크토크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는 디가 쉽디다, 그 굴 속읍의난. 계난 호강이로 물이, 토크토크 물로 떨어지민 그 물을 빨아먹으멍 살앗수게. 그 돌 호강이에 떨어지는 물덜.

102006 #2 기어가는 그 목다릴 지나가지 못하게

102006 #1 아니 그때에 그디 저 연락하는 연락병이 잇주게. 연락병이 썰린 거라 토벌대덜안티. 굴을 ㄱ리치렌 ㅎ난 굴을 ㄱ리치레 오난에 굴을 ㄱ리치난 그디까지 오난 앞이 오멍 이녁 조름에 ㄱ라오렌 ㅎ멍. 경ㅎ연 ㅎ난 그 사름덜이 앞더레, 막 튀렌 ㅎ멍 연락병이 온 거주게.

102007 @ 다시 시작ㅎ쿠다.

102007 #1 예.

102007 @ 저 결혼은 중매결혼 ㅎ디강 연애결혼 ㅎ디강?

102007 #1 중매결혼 ㅎ엿수다, 중매로. 중매결혼 ㅎ수다. 그 옛날엔 연애가 그뻐 연애가 연애 잘 어섯수다. 중매 결혼ㅎ연에 그뻐 그 중매 결혼을 우리 씨하르방이 이 저 우리 어멍신디 무근동광 살단에 무근동광 오라그네 일ㅎ레 자꾸 ㅎ기는 거 보난, 일ㅎ는 거 봐나난에 ‘손지랑 날 쥐, 날 쥐’ ㅎ멍 우리 씨하르방 ㅎ난에 우리 어멍은 ‘에유 고생ㅎ멍 산 것도, 아무도 아무것도 어신디 가그네 고생ㅎ민 어멍ㅎ여’ ㅎ멍 경ㅎ당 ‘에구 아무것도 어서도 느네 웨로와그네 저 ㅎ당도 어신디 살아나난 웨로와그네 아무것도 어서도 사는 건 살아진다. ㅎ당덜 한 디 어서 가라가라.’ ㅎ머근네 ㅎ당덜 신디 ㅎ당덜 ㅎ젠 ㅎ연 이 동광으로 온 거라마씨 ㅎ당덜 ㅎ젠ㅎ연 ㅎ당덜 한 디 가라가라ㅎ연에 요 동광으로 씨집을 와신디. 아이구 씨집을 때는 씨집을 때는 어멍ㅎ연 씨집을 와신디 씨집을 때는 그 신랑이엔 서방이엔 ㅎ 사름은 그뻐 군인 가분 때라마씨. 군인 가분 때 휴가 오란에 군인은 휴가 오란에 장개가는 디양 군인은 장개가신디 옷을 빌언 옷을 입영 그뻐 멩지바지저고리 ㅎ연에 입영오는다 신랑이엔 ㅎ 사름은 멩지바지저고리 입는다, 저 스춘옷 빌영 스춘 멩지바지저고리 스춘 장가갈 때 입어난 거 빌곡, ㅎ고무신 ㅎ나 상 신곡 ㅎ여그네, 운동화도 아닌 ㅎ고무신 ㅎ나 상 장개오란. 저 들레, 새각시 들레. 아이고 이거 무신(웃음) 경ㅎ연에, ㅎ난 나 들레 온 나 들레 오는 사름은 저 거세기 우시, 우시. 우시 오라그네 새각시가 무시거 화장시키곡 무신 거 어 ㅎ텐 ㅎ멍 ㅎ난에 우시엔 ㅎ 사름은 장방대가 나자네 화장을 시키는 ㅎ ㅎ난 장방대가 나잔, 장방대가 나잔에. 집은, 우리 사는 집은 정지새끼 ㅎ만 ㅎ 거 ㅎ곡, 구들새끼 ㅎ만 ㅎ 뿐이고, 마당도 무시거 별로 ㅎ끔혜전, 장방대가 나잔에 아멍ㅎ여도 장방대가, 화장시키는 ㅎ ㅎ여그네 씨집을 때 테도롱 그뻐 ㅎ 테도롱 치마 ㅎ 거 ㅎ연에 입언에 ㅎ곡, 우의는 푸린 장옷 푸린. 그뻐 우리 어머니 그뻐 장옷 ㅎ나, 저 신 것이 아니고, 것도 우리 어머니가 일본 간에 저 거세기 어멍신디 장옷을 우리 어멍덜 문딱 시난에 장옷을 어멍신디 ㅎ여주난에 어멍은 ㅎ시 친정 어멍은 이제 난 이제 일본 ㅎ이영 막 이제 장옷 ㅎ와 시난 이거랑 느 어서부러시메 이거 느 갖당 입으렌 ㅎ연에 어멍을 준 거라. 계난 그 장옷이 어멍신디 신거난 그 장옷입영 나가 씨집을 온 거주게 ㅎ 장옷 입영 에그

춤. 경호연에 그때 씨집을 오는디양 그땐 저 추력으로 하여서. 군인 추력 빌언, 군인 추력 빌언 이제.

102007 #2 쓰리코다. 저 쓰리코다엔 흔 거.

102007 #1 아 그 그때 저 막 큰 차드라.

102007 #2 큰 차 그거우다게.

102007 #1 아 몰라. 무신거산디 큰 차엔 빌언 씨집은디, 집을 어시난에 이디 동광 오라도 집을 어시난에양 동광은 막은방이엔 하여네 그때 멩살이엔 하여나 오는디가 멩살이엔. 멩살이엔 하여네 동광의 오지 못하여 감산의 우리 육춘이 살았수다 고센균에. 그 육춘이 사는 이젠 그 고센균이 집을 빌언 그래 간 거라, 그 잔치집을.

102007 #2 처육촌, 저 씨육촌.

102007 #1 게매 그 우리 저 하르방네 육춘이주게. 게난 그 고센균에 집의 씨집을 그디 강 씨집왕 그날 츠낙은 그디서 씨집 완에 상 저 밥상이영 그디서 반안에 그디서 하여밤 잔에 이제 뒷날원 우리 딱시 친정에 오라신디 친정 오라네 이제 밥 먹언에 밥이영 하여 주난에 떡곡 하여네 동광은 이젠 건 그자 가치로 동광은 그자 어디 갈 디가 서게. 동광 오란 씨하르방 사는 구더레 오란 하여 잔.

102007 #3 아이구.

102007 #1 아유 씨하르방네 구더레 오란 하루 잔에, 아이구 춤. 늬우 옷 빌어입 어그네 장가가는 사름이 무신 신 말이라.

102007 #3 아이구.

102007 #1 아이구, 쫓쫓.

102007 @ 경하여도 시집가난 좋읍디게양?

102007 #1 오게. 경하여 이젠 이젠 군인가난, 군인 간에 휴가오난 가불 거 아니. 가부난 나백인 아니아니. 경하여에 우리 씨하르방네가 이젠 이 이디 저 뒤침의 이제 저 구들 하나 빈 집 시난에 구들 주인네신디 이착 구들 하나 이착 구들 하나. 이디 이디 살렌 날라. 그 구더레 살렌 하여나 그 구들엔 이젠 그 구들 하나 빌어단 그 구더레 이이 하여네 사는다. 이젠 살레 간 보난 솟 점 그 마치 하나 하여곡, 마치도 벌러진 마치하여곡 그 저 솟 다스섯기 솟 하여고 주난 그건 이젠 굴목 어귀에 그 영 돌아가는 그 굴목 어귀에 앞전 하는데. 딱시 물항은 딱시 물항도 하나 쥬게 우리 죽은어명. 물항 하나 주난 물항 헤농곡, 허벅하여곡, 물항하여고, 솟하여고, 사발 멧 개 하여고, 수까락 멧 개 하여곡 죽은씨어명 든 쥬게. 주난에 그거 하여영 해신디. 아방도 군인가부난 그디 사는다 그때에 살단 경 정 흔 멧 달 살아서 그디서. 멧 달 산디 이젠 한림 씨아주방 살았젠 한림 식게 먹으렐 강오란 베려보난에 저 거세기 돌 털어전 허벅은 특히 벌러져부런. 돌 털어정 허벅은 특히 벌러져부런. 경하여 이거 허벅 이서? 물질레 가젠 하여도 늬의 허벅 빌령 멧겨서. 나 이거 춤.

102007 #3 잘도 고생했져.

102007 #1 에유 거난 말도 못하여, 말도 못하게 했수다게. 경하여 춤 살아온 생 각하민 기가 맥혀.

102008 @ 스주 톱디강?
102008 #1 소주? 손주?
102008 @ 사주, 사주.
102008 #1 사주?
102008 @ 예
102008 #1 사주 봐놔수다. 그 씨집은 후에.
102008 @ 아이 거난 씨집을 때.
102008 #1 씨집을 때 사주 아이. 난 안 봤수다게.
102008 @ 아 안 보곡?
102008 #1 예 그자 그작 헝난 기냥 그저 사주 씨집을 때 사주 아이 받.
102008 @ 응.
102008 #1 그냥 떠만 영 헝여그네 무신 저난 아방이영 동갑이주게, 동갑. 난 십
이월들의 나곡 아방은 칠월의 나곡 ㄹ뜨 동갑. 동갑이라도 물광 무신 물광 물이엔
헤신가 흑광 흑이엔 헤신가.
102008 #2 딱 헝게 사주보는 책이 이신게.
102008 #1 기추룩헝명 경 굴으명 헝연 헤도 저 쁘차녀댄. 어떻 안헝, 가도 어떻
안헝댄 헝난 갓주게.
102008 @ 무슨 떠우짜?
102008 #1 범띠.
102008 @ 범띠?
102008 #1 응.
102008 #2 범띠 범띠 결혼했주게.
102008 @ 계난 저 결혼한 후에 사주봤구나양?
102008 #1 아 결혼하기 전의도 봤지.
102008 #2 전의 그거 본 거지.
102008 #1 전이 어떻네가 영헝영 막 구지민 가지 말렌 헝명 헝연 봐신디 흐으
니 경 곳진 안헝댄 경 곳진 안 헝매 쁘당덜신디 봐도 경 곳진 안 헝매.
102008 @ 멀로 톱디강?
102008 #1 응?
102008 @ 사주?
102008 #1 책으로 봤주게.
102008 @ 무슨 책?
102008 #1 스주보는 책.
102008 @ 응.
102008 #1 스주보는 책으로 어떻이 간 보안 오고렌.
102008 @ 응.
102008 #1 스주보는 책으로 어떻이 간 반 와난에 무신 물광 물인가 흑광 흑인

가 경 돼난에 저 가도 켜찬여댄, 임시 고생혀도 켜찬여댄 험시때 저 가능하나 켜당덜신디 그 우리 어명이 웨로 켜당이 하나도 어서 사춘도 육춘도 팔춘도 어서 우리 친정에 강 아방이 멧대 독즈라부난. 아무도 어시난에 켜당덜 신디만 풀젠혀명. 돈이랑 싯곡 엇고. 나도 늬우 아이덜 멧질 먹으레 텡기는 거 보민 예휴 ‘어떻흔 사름덜은 저추룩 켜당도 성 멧질먹으레 텡기곡’ 막 경혀여났수다게. 경혀난에 켜당덜 한 디만 가젠원. 거 그추룩혀명 혀연에 살안. 켜당덜 한 디 오란 보난에 좋음은 흙디다만, 멧질먹으레 텡기난.

102009 @ 경 혀곡 그 저 결혼할 때 혼수품?

102009 #1 혼수품이 어덧수광.

102009 @ 계난 혼수품 게 계도 이불 ㄴ뽀든 것도?

102009 #1 아 내가 헤영오는 거.

102009 @ 예 혼수품.

102009 #1 혼수품. 나 이불은 나 그때에 이불 두 개 혀곡 요 혀나 혀연 와실 거라. 이불 두 개 혀곡 요 혀나뻬이 뽀든 건 아무것도 안 혀연.

102009 @ 거 무시 것도 잇지 안 혀우파?

102009 #1 뭐?

102009 #2 퀘?

102009 @ 요강 퀘?

102009 #1 응. 아 퀘도 안 혀곡 요강.

102009 @ 예 그건 혀주.

102009 #1 응 요강혀곡 세숫대혀곡 세숫대혀곡 요강혀곡 이불 두 개 혀곡 요 혀나혀곡 방석 두 개산디 이 경뻬이 뽀든 건 아무것도 어서.

102009 @ 집에서 소개갈양?

102009 #2 사단 했주.

102009 #1 소개갈양 아니. 저 소개갈양 아니고 그것도 더런 우리 웨가에서 웨가에서 숨 덜어, 아무것도 우리 다 소까이 헤부난 웨가에서 우리 어명 강 소개 혀쓸 빌어당, 소개 혀쓸 빌어다놓곡 뽀든 혀꿈 사놓곡 빌어다놓곡 혀영 이불 두 개 혀곡 요 하나도 저운 거.

102009 @ 응.

102009 #1 빌어당 더런 웨가에서 빌어 이불하나쭈 빌어당.

102009 @ 광목으로 멧글앗지양?

102009 #1 광목으로.

102009 @ 이불?

102009 #1 광목으로. 힌광목으로. 집광목혀그네 바레혀그네. 집광목혀영 바레혀그네, 겹테긴 무신 인주산디 혀곡. 저 이온새뽀뉴 혀 거 알아져. 인지 인주주 인주로만 했주게 인주로.

102009 @ 인주?

102009 #1 응 인주. 이 기지는 이 우의 겁테긴 인주, 밑에건 광목.
102009 @ 광목?
102009 #1 광목. 그거 그거 혼스엔 혼 건 그거우다. 혼스엔 혼 건. 요강호곡 저 세숫대호곡 그거 그거.
102009 #3 것도 하영 혼 거라.
102009 #2 그때 그 당시엔 그 정도면 하영 혼 거.
102009 #1 그거 하영 혼 거 아니. 그때 혼는 사름은.
102009 @ 예물은?
102009 #1 예물이 어딿수과? 예물이. 십 원 하나 예물이랑 말고 이제 쫓쫓.
102009 @ 그건 어섯고?
102009 #1 양, 고무신 신어그네 장개가는 놈의 예물? 놈우 옷 빌령 장개가는 사름이 예물?
102010 @ 결혼할 때 어디서 했수과?
102010 #1 화순 난 화순 살 때난.
102010 @ 집이서?
102010 #1 집이서.
102010 #2 아이 집이서 혼주게.
102010 #1 어멍 집도 무신 우리 어멍네 스삼사건 내려가당 아방도 죽어불고 혼 난에 무신 집은 셋수과. 집도 이녀 집이엔 혼 게 이상혼 막사리 지선에 그디 살안. 놈의집 보다는 잘도 좋읍디다게.
102010 #2 그 당시에 예식장 싯곡 혼거 어디 강 빌영 혼 정신이 어디서.
102010 #3 에이구 어느 저를에.
102010 @ 그 저 뭐 보리냥 끝아네?
102010 #1 보리냥 끌고.
102010 #2 예 보리냥.
102010 @ 보리냥 끌고 그 다음 펥퐁 들르곡?
102010 #2 아 저 앓는다?
102010 @ 아이 사진 찍젠 혼민게.
102010 #1 아 우린 사진도 안 찍엇수다게. 요 아지방.
102010 @ 아 사진도 안 찍곡?
102010 #1 사진도 안 찍언. 어느 저를에 사진 찍곡 하간거? 케난에 저 우리 스춘은 오랏단에 어휴 사진도 안 찍는 줄 알아시민 나 카메라라도 가져오랑 사진찍으 쥬 혼명 경헤낫수다, 우리 웨스춘은.
102010 @ 옷은 무슨 옷 입언?
102010 #1 광목옷 저 거세기 저 데도롱 데도롱.
102010 @ 데도롱.
102010 #1 나 난 힌데도롱 옷 입언. 힌 데도롱 하양혼 데도롱덜 그때들은 주로

입었수다 그 데도롱덜도 힌 데도롱.

102010 @ 남자는?

102010 #1 남자는 스춘 멩지웃 빌영 입영 가곡.

102010 @ 빌언?

102010 #1 빌언. 두루막하고 그 무신 거영 문 스춘 거 빌언. 신만 이녁 거 힌고 무신 하나 상 신언.

102010 #2 바지저고리, 멩지바지저고리 빌영 입어나십주며.

102010 @ 계민 가까운 디서 햇수과? 가까운 디서?

102010 #1 아이고 동네서 동광에서 햇주게.

102010 @ 계난 머 걸언?

102010 #1 쓰리꼬당인가 차 가십디다. 차 탕.

102010 @ 아 그때도 차 이서서 마씨?

102010 #1 어.

102010 #2 이 아주망은 화순서 살고 그 새서방은 여기난에.

102010 #1 군인 휴가오란 가네, 휴가왔단에 흐는디 어뎡 차 빌언와십디다, 계도. 차 와십디다.

102010 #2 응.

102010 #1 차 오난에 시집은 감산이레 갖주게.

102010 #2 그때 다.

102010 @ 사진은 안 찍곡?

102010 #1 사진도 안 찍곡. 사진이랑마랑 어느 저를에. 사진 안 찍으난에 우리 웨스춘은 왔단에 ‘아이 카메라라도 가져왕 사진 찍을 건디 사진 아이 찍을 거카부덴 아니 그냥 와신디’ 흐멍 경흐여낫수다게.

102011 @ 신혼살림은 어디서 햇수과?

102011 #1 신혼살림?

102011 @ 응 결혼하난.

102011 #1 신혼살림, 이 동광서게. 동광서 구들 흐나, 구들 흐나 흐고, 부억은 어신 디. 구들 흐나 흐곡 굴묵. 구들 뒤에 굴묵 잇지 안흐니까게.

102011 @ 응.

102011 #1 영 흐민 영 돌아가민 이디 굴묵 짓는 굴묵. 이디 똥 데미곡, 불체 농곡 흐민 굴묵짓는 굴묵. 이디서 밥 흐여 먹언 이디서.

102011 @ 계난 ㄱ찌 헤 먹읍디강 씨어멍흐곡?

102011 #1 씨어멍이 어섯주게. 씨어멍이 셔시민 씨어멍이나 서방이나 어섯주게. 군인 가부난 나 흐나뿐. 씨아지방 십디다, 씨아지방. 계난 씨아지방 시난에, 씨아지방이 나보다 다섯 슬 아렌가 경 헤실꺼라 우리 씨아지방.

102011 #2 일문이가?

102011 #1 일출어.

102011 #2 아 일출이. 다섯나 알.

102011 #1 응 다섯나 알일거라. 다섯나 알인디 그 씨아지방 십다다게. 그 다섯술. 계난 그 씨아지방이영 ㄴ찌 아방 안 ㅎ여도 ㄴ찌 살앗주게. 씨아방, 씨아지방 영ㅎ난. 그 씨아지방 어떻ㅎ명 살냐ㅎ민 나영 ㄴ찌 밥 먹으명 그자 사는디, 그자 늑의 쉼뻬이레도 텅기고양. 쉼뻬이레 텅겻주게. 쉼뻬이레도 텅기곡, 거ㅎ고 우리 씨지방도 고생 안 ㅎ영 쉼뻬이레도 텅기곡 ㅎ명 살단에 ㅎ졸 옥아가난 이젠 아방 군인 간에 군인 간 제대ㅎ명 오질 안 ㅎ연에 우리 저 거세기 이디 제대ㅎ연 오질 안 ㅎ연에 나가 아방이영 ㅎ 얼마동안 일 년, 일 년인가 행에 살다낸 저 나 혼차만 육지가부러서, 육지 가부런. 육지 가부런. 육지 공장에 가부러주게. 공장에 가부난에 아방신더레 이디 잇노렌 ㅎ연 전활 ㅎ연 저 지편지 아니 아방 실 때는 전화안ㅎ곡 저편지 안 쓰곡 동광 저.

102011 #2 시집더러게.

102011 #1 저 누게게 해리아지방네신더래영.

102011 #2 아.

102011 #1 해리아지방네신더래영 ㅎ 번 ㅎ연 ㅈ두난, 그 주소를 저 우리 집의다 하르방 신더레 보내연. 계난에 제대ㅎ연 오지 안ㅎ연에 나신디 누님네 집 누님이 서월 사난에 누님신디 ㅎ아간에 누님이영 ㅎ안 나 사는디 와선게. 나 사는 디 와시난에 누님네 집의서 구 개월 살앗수게. 누님네 집의서 나 들안 가명 일ㅎ지 말아그네.

102011 @ 동광서 살단에?

102011 #1 아니 그 나가 육지, 이디서 나만 살단에 군인간 어선 나 혼자뿐이난에 씨아지방이영 살단에 나 안 ㅎ연에, 이젠 나 육지레 가부러주게. 육지레 그냥 나 혼자 이디 안 살첸 ㅎ연에 군인 가분, 군인, 나만 돈 벌레 육지 가분거라. 경ㅎ연 갈 때에 우리 죽은씨어명이 보리졸 두 말인가 얼메 가그네 ㅎ영 먹으렌 ㅎ명. 나 보리 ㅎ덧 목, 저디 ㅎ여 논 거 갈아 논 거 내불어똥 갖주게. 내불어똥 가난에 그저 저 보리졸 두 말인가 서 말인가 그때 나 ㄴ꺠게 죽은씨어명이. 가다그네 강 ㅈㅈ이라도 행 먹으렌 ㅎ명 ㅈ똥 주난에 그 ㅎ 가정 간에 이젠 어멍네신디 내불어똥 난 돈 ㅎ연 해줍서, 차비 ㅎ연에 육지 간, 육지 간 자리잡안에 ㅎ졸 살명 태대 아지방신디 이디 오랑 ㅎ노렌 ㅎ명 ㅎ디 전화 저 ㅈㅈ지 헤나곡, 받아신고라 그 ㅈㅈ지 ㅈㅈ시 우리 집의 하르방신더레 ㅎ난에 제대ㅎ연 오명 시누이신디 들런에 시누이영 ㄴ찌 나 ㅎ으레 온 거라. 나 ㅎ으레 오난에 저 가겐 ㅎ난 나도 ㄴ찌 왓주게. 계난 시누이네집 의서 ㅎ 일 년은 ㄴ찌 살아서마씨. 시누이네집의서 ㅎ 일 년은 ㄴ찌 살단에 이제 ㅈㅈ시 시누이네집의서 나오란 집 빌영 나오란에 이젠 그디서 집 빌영 그똥 씨아지방도 불런 또 그 육지레. 불런에 씨아지방 오란에 씨아지방은 문공장의 텅기곡 이젠 집 빌영 나오라네 영 사는디 아 그디 그냥 ㄴㅈ만이 텅겨시민, 미군부대게. 미군부대에 그 미군부대에 그 쓰레기 ㅎ는 디 미군부대 쓰레기 ㅎ는 디, 상당이 벌이 진짜 ㅎ는 디라게. ㅎ디 얼마 잇단 것이 ㅎ라져부런. ㅎ라져불민 이디 ㅎ당 차비도 어성

고향도 못간텐 헝명 그 찰라전에 그 차비도 어성 돈 떨어지민 일도 들어가지 못헝
곡 집은 뭐 고향의도 못 가곡 헝텐 헝명 그자 차비 신 때 가젠헝명 빈털터리로 딱
시 동광 돌아온거라게. 계난 동광 오란 그르후젠 동광 오란에 동광 오란 사는디 요
디 원효네 집 빌언 살앗주게. 그때 구들새끼 하.

102011 @ 음.

102011 #1 으응 구들새끼 하나 헝곡 저 정지새끼 하나 신디 그디 그디 빌언 오
란에.

102011 #2 일간 막살이 셔나서.

102011 #1 일간 막살이 그디 오란 빌영 사는디, 그디 오랑 사는디. 얼마 살아서.
얼마 살지 안흔디 어명이 갑자기 경 아픈 거 아니. 어명이 갑자기 아프난에 이젠
어명 아팠젠 헝명 화순 그 승민이가 어명 아팠수덴 헝명 헝연 전화오난에, 아 전화
와서 걸언 곱으레 왔주. 걸언 곱으레 오난 간 베려보난 어명은 문 아광 버드락버드
락 헝시난 이제 스뭇 아명아명 해봐도 절대로 뉘지도 안 헝곡 헝난 그때에 이제 수
술 해사 좋젠 헝난 수술 헝젠 헝난 보증자가 서야 헝텐 헝명 헝여도 보증자 이제
수원 우리 스춘오라방 언제 뉘민 보증 아장 해주켄 복막염 걸렁 죽어서 복막염 걸
련에.

102011 #3 이거 시다.

102011 #1 딱 병도 아니곡 복막염 걸련에.

102011 #2 이제 ㄱ뜨면 살켜.

102011 #1 이제 무신 복막염 것도 빙이라게. 복막염사 빙이라게. 죽어부난에 이
젠 우리 오래빈 아웁 슬이주게. 오래빈 아웁 슬인디, 아방 우리 친정아방은, 우리
오래빈 유월 초엿셋날 나곡 우리 친정아방은 팔월 쓰무이틀날 죽어부난에, 난 두
돌인가 석 들만의 오꼳 아방 죽어부난에 그 오래비 들앙 어명은 어뎡 살거라게. 경
살안 그 오래비가 그 오래비가 아웁 슬 나난에 어뎡도 죽어분 거 아니. 경헝명 아
웁 슬에 죽어부난에 이젠 오래비도 이젠 나가 돌아당 살아야 흘 거 아니.

102011 #3 예유.

102011 #1 예휴 춤.

102011 #3 잘도 고생 햇수다양.

102012 @ 경 헝고양 아이덜은 어뎡 뉘수광?

102012 #1 우리 아이덜마씨?

102012 @ 예.

102012 #1 우리 아이덜 잘 살암수다, 다.

102012 @ 거난.

102012 #1 우리 큰아들이 이제 이제.

102012 @ 뎡 남매?

102012 #1 나 사남, 저 너 오누이 너 오누이에 딸 하나.

102012 @ 거 자식더레 대헝여그네 헝번 말해봍서.

102012 #1 우리 너 오누이에 딸 하난다. 우리 큰아들도 큰아들도 이제 서귀포영
땡기명이라도 이제 이녁 살 만흐연 살기 들양 한라봉 흐명이영 잘 살고 이제 저 가
이도 딸 성제에 아들 하나 흐연에 서 오누이 흐연에 잘 살곡. 우리 셋아들은 딱시
요 서광 장개 간에 아들 성제 난에 아들덜 다 군인덜 간오고 다 손지덜 다 간오고
잘 살고, 딸도 웨도에 시집간에 오누이 난에 다 칸에 다 잘 살곡. 죽은아들도 장개
간에 오누이 난에 제주시에 살안 아이덜이 이제 이녁 밥먹으멍 살암수다. 계남양
이제 살당보난에양 살당보난에 우리 땡 나도 이 만흐연, 아방 하르방신디 경 골았
지, 더 살지도 말곡 이 만이만 살다그네 곳인 꼴 보지 안 흐영 이 만이만 살당 죽
어지민 막 좋수다 좋수다 이만이만 살아지민 이만이 살아지카부덴 했수과. 이만이
만 살아지민 우리 막 좋수다 흐명 경하당보난 하르방이 특히 죽어부 거라, 막 살기
좋은 때. 막 살기 좋은 때 하르방이 톡하게 죽어부난, 흐 오류 년은 흐쓸 잘 살았주
게, 하르방도 편안하게. 흐 오류 년, 칠팔 년은 편안하게 살아서 농스도 다 치와불
고 흐난에.

102013 @ 그 다음에양 시집살이흐명?

102013 #1 응.

102013 @ 기억나는 것덜?

102013 #1 시집살이흐명 기억나는 것덜?

102013 @ 예예.

102013 #1 예고 시집살이흐명 기억나는 거 예고 시집살이흐명 어성 살젠 흐난
기억나는 게 죽읍니까?

102013 @ 거 쪽 고라줍서.

102013 #1 아이고 낭.

102013 #2 거 나는 거 이서. 이 아주망 기억나는 거 잊주게. 저 하르방이 브름
부편 저 저디 저 광평이 간 흐난 눈 우의도 새백의 그디 가 난거 알주기.

102013 #1 예게 그것사 그것사 영광이라?

102013 #2 그거 기억이주게 그계.

102013 #1 아이고 그거 그런 건 영광이고. 그건 좋은 거. 이제 생각흐여보민 그
건 좋은 거. 저 그 성 어신디 눈 우의 가그네 낭 흐레 가민 눈은 산에 가민 눈 이
만이 눈 와불민 우의 꺼 믈른 걸로만 쫓라. 이 눈 물어불민 우의 눈 우의로만 땡기
명 낭을 흐여. 눈 우의로만 땡기명 낭 흐여그네 그거 흐영 낭 구루마에 흐여그네

102013 #2 이디 하르방이 난봉이주게.

102013 #1 저 영 흐여그네 저 물구루마 흐영 오라그네 그거 흐영 오라그네 그
낭 흐영 오라그네 이제 그날 저녁은, 뒷날 장에 가젠 흐민 그날 저녁에 그거 꼭 걸
어다그네 이만씩 이만씩 흐 단씩 흐 단씩 무꺼그네. 흐 단에 얼마씩 흐영 문 무꺼
그네, 아칙이 이제 ㄱ뜨민 어두룩흐 때 어두룩흐 때 나갓주게. 모실포 물구루마 흐
여그네 도롱도롱 가젠 흐민 모실포 가젠 흐민 걸어도 흐 시간 받은 갈 거라.

102013 #2 계.

102013 #1 경흐난 어두룩흐 때 가야 흐여. 어두룩흐 때 가야 흐주게. 그 낭 놓는 자리라도 출리젠 흐민 어두룩흐 때 가사. 가그네 그 낭 풀아지민 다행이고, 못 풀민 더러만 풀앙 싸게라도 흐여그네 쓸이라도 어떻 받았 와사 저녁.

102013 #2 낭 장시 하영 했지.

102013 #1 기추룩 흐명 낭장시 진짜로 하영 흐여그네 낭장시덜, 낭 바꾸레, 슷정 가그네 무신거 바꾸레도 가곡. 낭 정 가그네 쓸 바꾸레도 멩기곡. 벨걸 다 흐영 살았수다. 에이구.

102013 #3 이제 사름덜은 경흐영 살렌 흐민.

102013 #1 에이구 경흐여그네 이제 검질메레 딱시 검질멜 때는 흐 들 더 마은 날씩 쉰 날씩 검질멧주 여름 나민. 검질 만날 검질 메봐도 그을 들영 헤들이는 건 아무짱도 엇곡. 안 돼여그네. 비료도 주지 안 흐곡 브름도 불어불곡 흐민 농사가 됩니까?

102013 #2 그때 비료가 어실 때주게.

102013 #1 경 흐곡 딱시 제초제도 안 흐곡 사름 손으로만 검질을 이기젠 흐민 초불 메곡 두 불 메곡 세 불 멧수게게.

102013 #2 햇빛에 물렁 검질을 죽일 때난게.

102013 #1 응 경흐엿젠 햇빛에 나곡 쉰 맨날 저논 밋이난 흐곡, 밋도 이녁 밋 벌어접시민 이녁 밋도 못 벌어그네 늡의 밋 벌곡. 늡의 밋 벌민양 풋양 영 흡디다. 늡의 밋 벌 때, 나 늡의 밋 벌 때, 줌의 밋 벌민 풋이 흐난에 그때 풋이 솔박으로 흐난에 솔박으로 풋 영흐영 헤난에 노놉불민 저 두 개는 나 갖곡 흐나는 밋임재 그 맨 갖더라고. 반작흐단에 흐솔.

102013 #2 삼분패.

102013 #1 삼분패. 삼분패라고 흐여그네 삼분패라고 흐여그네 두 솔박은 나 갖곡, 흐 솔박은 밋임재 주곡. 그추룩그추룩 흐명 솔박으로 그 늡의 밋 벌민 그.

102013 #2 수확해난 갈랐주게.

102013 #1 그 저 수확해나그네 그거 갈르멍 그추룩 흐명 늡의 밋도 벌어서, 이녁 밋 어성. 이녁 밋 어성 늡의 밋 그추룩 흐연 벌영 흐민 흐솔, 어떤뎡 그 반 솔박 흐 것도 흐 빵울또 나가 요 반 흐 솔박 남은 것도 그걸 갈라가는 사름이 셔. 야 경 흐연 야 이거 흐 솔박 남은 것사 이걸랑 니네 부쩌그네 먹으라 흐여도 좋을 거주만 은 그거아울라 갈아갈 그 생각을 흐면은.

102013 #2 경흐영 살멍도 밋 사고 거세기 흐영 살았수게게.

102013 #1 게메 그추룩흐명 그추룩 고생흐명 살아도 늡의 집 살멍.

102013 #2 즈냥흐난에.

102013 #1 늡의집 살멍 낭장시 흐곡 그때 여즈가 낭장시 흐곡. 그추룩 고생흐명 늡의 밋 벌멍 살민 돌 이제 물을 이젠 저 물이 셔사 무신거 셔사 구루마라도 흐여그네 낭을 헤울건디 물을 율방 하르방네 물을 흐나 웨상에 사서. 웨상에 산에 흐난 아 그늡의 물구루마만 잘 돼시민 좋을 건디. 이야 물 부량흐 건 이 드러뉘그네 귀

에 불부쨌도 ㄱ딱 안 일어나, 귀만 ㄱ딱ㄱ딱 ㅎ명. 게 이 물구루마 체와그네 식 ㅎ
게 물면은 ㅅ ㅎ게 앞더레 듣는 건 좋은디.

102013 #2 물 뭉쭈시 지독 ㅎ여.

102013 #1 축 ㅎ게 ㅎ영 딱리건 앞더레 가민 좋은디 탁 드러뉘부러. 드러누민 ㄱ
딱 일어나지 안 ㅎ여. 뭉물게. 그런 물이 이십니까. 게난 ㅎ단 ㅎ단 안 돼난, ㄱ리치
당 ㄱ리치당 못 고찌난 미쨌 그걸 뜯 사름신디 풀앗다. 풀안은에 그 물로 그 물 그
때에 이자 칠푼 이자 때 이자 물곡 물갑 물곡 ㅎ당 보민 아명 ㅎ여도 그걸 문 못,
유채영 들어 갈아봐도. 유채 들어 늬의 밧 빌명 갈아봐도 유채밧 이자 물고 ㅎ단보
민 원전을 못 문거라. 아이구 게난 일 해봐도 헛거 일 해봐도 헛거. 어떻 어떻 먹
영, 야 이녁 밥만 먹공 살아지민 돈을 벌어질건디원. 이녁 밥 먹지 못헨. 그땐 멧
년후에 강 멧 년후에사 이녁 밥을 먹어신고 ㅎ민, 우리 막둥이 난에 우리 막둥이 ㅎ
두 슬쭈 돼난에 그땐에 물보리가 나난 ㅎ 열 섬 ㅎ더라고. 그땐 우리 막둥이 난 후
에사. 우리 막둥이 난 후에사 물보리가 한 열 섬 ㅎ난 그땐부떠는 ㅅ을 안 받아 먹
어서.

102013 #3 경 ㅎ난 살아진거주게.

102013 #1 그땐부떠 ㅅ 안 받안, 우리 막둥이가 이제 오십 ㅅ들.

102013 #2 그땐 경 ㅎ연 보리 ㅎ민 무신 기계로.

102013 #3 막둥이가 마은 여섯인가.

102013 #1 이제 마은 여섯이난 그땐에.

102013 #2 기계로 장만헨 ㅎ여서 ㅎ타그네.

102013 #1 게매게 ㅎ타주기 게민 그땐부떠 보리 이녁 밥 이녁 밥 먹곡 ㅎ여가
난 ㅎ썰썰 ㅎ썰썰 ㅎ 귀 턴에.

102013 #3 살앗주게.

102013 #1 응 이녁 밥 먹어가난 귀 턴에 살앗주. 어이구 이녁 밥 먹지 안 ㅎ여
시민, 이녁 밥 경 빗도어성 빗도 어성 그루후제 빗도 어느 때까지 빗 셔시민 빗이
그걸 그걸 문 마무리 ㅎ젠 빗을 ㅎ젠 ㅎ난 우리 안중이 풀 때까지도 빗이 ㅅ어. 겐
디 그 안중이 풀 때까지도 빗도 어떻 어떻 사명 이추룩 이추룩 ㅎ여 가네 빗이 잇
더라고. 그추룩 ㅎ명 우리 안중이 풀 때까지도 빗이 이선게마는 저 어떻어떻 ㅎ연
에 빗도 문 물고. 그루후젠 어떻어떻 ㅎ영 새도 잘 ㅎ썰 돼고.

102013 #3 게고 밧도 하영 사고.

102013 #1 게매 게매 밧도 ㅎ 사명 살아지고 이제 거세기 빗도 ㅎ고 ㅎ여가난
ㅎ썰 ㅎ썰 ㅎ썰 눈 트기 시작 ㅎ난에.

102013 #3 터져.

102013 #1 응.

102013 #3 서른들에 낫주이 안중이.

102013 #1 응 서른들에 낫주게. 경 게난 서른들까지, 서른셋 난땐부떠사 보리,
ㅅ 안 받아먹어져실꺼라 아이구.

102013 #3 잘도 고생헌연.

102013 #1 계난 그추룩 헌명도 경헌명도 그때영 경헌명도 어떻어뎡 헌명 그르 후젠 헌썰썩 밧도 사고 어떻어뎡 헌명에 살기 시작헌 게, 우리도 막 으라게 사서.

102013 #3 예구 문딱 사난.

102013 #1 예 문딱 샷주게. 경헌명 헌난 이제도 아이덜도 헌썰 췌안헌고.

102013 #2 거 밧 셔낫수과.

102013 #1 아 이디 이노매기 밧 기주게 이디 상호들밧.

102013 #2 아.

102013 #1 이제 상호들밧 하나 싯곡 그 아래 쉼팡 그거 스백멧 췌짜리 그거 하나 싯곡. 무근동에 집도 싯곡.

102013 #2 무근동에 살안 그디만 벌어낫네이.

102013 #1 응 밧 그거 싯곡. 딱시 저 육지사름덜 풀아분 디도 그디 칭게칭게 저 버무돌 앞의 거 하나 이서.

102013 #2 음.

102013 #1 그디 그거.

102013 #2 그거 스삼사건 전에부떠 셔난거라.

102013 #1 응 전의부떠 셔난거 거.

102014 @ 경 헌곡 자식덜 결혼 어떻헌연 했수과?

102014 #1 우리 아기덜?

102014 @ 큰아들부떠 헌번.

102014 #1 우리 큰아들은 우리 큰아들은 저 중매로. 큰아들은 중매로 헌연에 난 드룻아이신디 메누리. 난드룻아이신디 헌연에 중매로 장개 가신디 메누리 착헌고 잘 살암수다 아기 경 잘 남고.

102014 @ 두 번째 아들은?

102014 #1 두 번째 아들도 중매로. 중매로 서광. 서광 헌연에 아들 성제 낳고 헌연에 잘 살곡. 또 시 번째 메누리는 연애결혼 그 호텔에 뎡기멍 그디 그튼 직원 헌연에 연애 결멍, 연애 결언 가네 오누이 낳고 잘, 잘 살진 안 헌고 그건.

102014 #2 아이 그거 뭐 이상 어시 살민 잘사는 거지 뭐.

102014 #1 아니 사는 게 그거민 잘사는 거주게. 무신 크게 베려져게. 살곡. 딸도 저 웨도에 중매로 헌연에 중매로 헌연 가서. 짓도 우리 스춘.

102014 #2 아 그디도 잘 살곡.

102014 #1 응 우리 딸도 그만헌민 그자 이녀 먹을 만이 헌영 살민.

102014 #3 고생 곳에 행복이 싯는 거라.

102014 #1 예 계난에 고생헌명 살아난 건 이저불곡, 이제 이 정도만 살면은 나 좋구나 해집니다. 아기덜도 그자 살곡. 고생헌명 살아난 거 이젠 다, 고생헌명 살아난에 이젠 고생헌명 살아난에 이젠 난 막 잘사는 걸로 계산헌멘(웃음) 하르방신디 도 ‘아이구 하르방 이제 우리 이만 헌연 살아지민 걱정엇수다. 이만이만 살당 죽어

지민 더 바레지도 말곡 막 좋수다.’ 흐멍 흐연 ‘게메 좋다’ 흐멍 흐단 베려보난에 그
놈의 뺨은 들어부난 확 하게 죽어부런.

102015 @ 경 흐곡 저 메뉴리 흐고 사위, 사위의 대해 말해줍서.

102015 #1 우리 사위? 그런 것도 글아?

102015 @ 예 메뉴리 흐고 사위.

102015 #1 어여 어떻 글아?

102015 @ 여 거 사위 착흔 지 안 착흔 지.

102015 #1 아 사위?

102015 #2 메뉴리도 마찬가지로.

102015 @ 예 메뉴리도 마찬가지.

102015 #1 아 사위.

102015 #2 사위도 착해주머.

102015 #1 사위도 사위는 지금 사위는.

102015 @ 사위 잘해줍니까?

102015 #1 사위는 흐쌀 흐쌀 준샘은 경 어서.

102015 @ 잘 글아줍서.

102015 #1 준샘이 어서, 준샘이 어서. 우리 사위는 그자 생일 때, 멩질 때, 식게
때, 그런 때만 오주 그 웨에는 오지 안 흐여. 어 딱시 저 아버지 행사 때.

102015 #3 그것만 오민.

102015 #2 그것만 오민 잘 오는거라.

102015 #1 아버지 행사 때, 나 생일 때. 아 아버지 행사 때도 합동으로 흐여그
네 저 웃 흐는 따문에 저 오곡, 나 생일 때도 딱시 셋아들네가 다 출영 다 식게 모
영 흐난에 오곡. 멩질 때 오곡, 식게 때 오곡, 경 그추룩 흐 것만 오지. 그거 웨엔
요흐루기 전할 와서. ‘야 술 먹언다? 전화흐연.’ 가이는 전화 생전, 가이는 전화 잘
아이주게.

102015 #2 예게 보통 흐는 건 그자 딱 사름이 흐는 거 한둘이지머.

102015 #1 야 가인으로 야 술먹언자 흐젠 흐난 우선게.

102015 #2 예 게난 술 먹영 생각나난 어떻흐연 생각나난 전화했구나.

102015 #1 예. 그디도 이제 멩질흐는 디가 신고라 ‘양 이디 양 멩질 이제양 흐
는 디 친구네 집 그디 강 멩질 먹으레’ 간에.

102015 #2 요사이 양력 멩질 흐는 디가 싯구나.

102015 #1 응. 싯젠. 멩질, 멩질. ‘멩질 흐 사름, 멩질 흐는 디 오랜 흐연 간에
그디강 흐잔 헛수다’ 흐멍 경흐연 전화왔더라고. ‘복 만이 받으라이 올리랑’ ‘예 고
맙수다’ 흐멍 우서. 어치냐 딸 와선게마는 ‘어떻흐단 전화헤시니?’

102015 @ 메뉴리도 자랑홀 만흔 거.

102015 #1 우리 메뉴리? 우리 큰메누리는 아이가 저 완전 부지런흐여, 완전 부
지런흐여. 완전 저 그자 촌에 살림꾼이라, 우리 큰메누리.

102015 #2 게고 차분히지게.

102015 #1 응. 아이 좋아. 촌에 살민 일등 아이라. 또 욕심이 썩곡. 욕심도 썩지
혀여 야이. 욕심도 썩곡.

102015 #2 죽은메누리도 부지런 안 혀여?

102015 #1 응 죽은메누리? 아이라 우리 죽은메누리, 우리 죽은메누리는 아이가
잘도 이 저.

102015 #2 간세혀여?

102015 #1 아니 간세혀는 건 저 서광메누리?

102015 #2 예. 셋메누리.

102015 #1 아 서광메누리는 나신디 잘 혀여. 나신딘.

102015 #2 예 거 시어멍이신디 잘 혀민 좋은거라.

102015 #1 나신딘 잘 혀여, 나신딘. 요번에도 정월 초혀룻날도 떡국, 떡국 혀연
에 문딱 끌련에 거 앓곡, 딱시 누물 채로 썰언 무천혀연 갖고 딱시.

102015 #2 잘 혀는 거주기.

102015 #1 떡국도 딱시 저 저 진공포장 웬 거 혀연 농곡, 딱시 뭐이냐 유즈츠도
흔 통 사농곡, 과자도 큰 거 흔 통 사농곡.

102015 #2 어구 게민 쥘 잘 험구나게.

102015 #1 아 그거 그런 거 막 잘혀여 가이. 수박ㄱ뜬 것도 여름나민 사지 안
혀여. 이만큼 큰 수박으로 가져오랑. ‘야이 무신 흔 사름 먹는다 영 큰 수박 사오라
시게’ 경혀여.

102015 #2 게난 이제 죽은메누리 자랑만 혀민.

102015 #1 우리 죽은메누리는 막 생각혀는 것도 많고, 존샘은 셔도 쫄라, 쫄라.
쫄라그네 이녁이 막 부끄러왕 혀곡, 이녁이 막 혀쫄 츠헤저그네 막 그것이 걱정돼
영혀그네 경혀 따문 나가 항상 가이 생각을 헤저, 죽은메누리. 시에 사는다 이녁은
저 저 서방도 경 돈벌지 못혀고 딱시 이녁도 경혀영 혀난 아기 신디만 신경 썩. 경
혀난에 어멍신디 잘 헤주젠은 혀는다 즐라부니까 뜬 사름신디 혀쫄 야쿠가 죽는 거
달마. 가이 존샘은 좋아. 겐디 씨야지방네 집이고, 웨삼춘네 집이고 무신 것사 문딱
적어놔당 웨삼춘네 집의도 식게 먹으레 꼭 보내여.

102015 #2 어.

102015 #1 왕하르방 식게에 ‘오닐은 안 와도 좋다게’ 헤도 꼭 보내여.

102015 #2 잘 혀는 거주게.

102015 #1 그런 거 딱 어디 무신 셋메누리 큰메누리 그런 거 몰라. 그런 건 몰
라.

102015 #2 아이 죽은메누리 알고?

102015 #1 죽은메누리 다 써놔다그네 놔당 서방신디 ‘오닐은 누구네 제사매 이
제 갑서, 갑서’ 그추룩 흔 거 그런 건 잘 혀여. 그런 거 그런 거 혀는 거 보민 막
겐디 쫄라그네 이녁은 알주만 난 어서그네 어머니신디 우리가 대신 어머니신디 해

드려야 흘 건디 이거 양심 무신 이녀이 받아점덴 그런 생각을 막 하여.

102015 #2 어.

102015 #1 그추룩 하는 때문에.

102015 #3 돈 어성 못하는 거구나.

102015 #2 게멘 착하구나게 다 착하게게.

102015 #1 젠디 나 죽은메느리가 더 착하여.

102015 #2 (웃음)

102015 #1 어서도 (웃음) 아니 줘도.

102015 #3 아니 줘도 좋아?

102015 #1 응 아니 줘도 생각하는 것이 착하여빠여.

102016 @ 아까 그 저 말한 거 왜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시면.

102016 #1 (웃음)

102016 @ 아무거나 그냥 골아줍서.

102016 #1 하고 싶은 말은 뭇을 하여? 하고 싶은 말 나 하고 싶은 말 옛날에 못 살 때에 나가 이제 우리 요 준비나레 출을 갈아서. 준비나레 우리 밧 아니라게.

102016 #2 음.

102016 #1 우리 밧디 출을 갈아, 아방은 저 산에 낭 흐레 가곡, 나는 아기구덕, 아기 저그네 출을 비었어. 흐를에 가민 흐루에 출 혼 밧, 아기 들곡 흐민 흐루에 혼 밧 비기가 어려와. 경 오닐 강 비어그네 뒷날은 강 혼 밧에 무꺼뒤그네 딱시 무경 데며두어그네 또 뒷날 강 혼 밧 혼 밧 흐곡. 우리 성집이는 이제 글로 준비나레로 걸어그네 서광 학교 강 준비나레로 걸영 불근오름 앞의 오라그네 아기 들레 딱시 즈물아가민 오주게. 게민 얼마 돌아게. 경하여그네 그추룩 흐명 아기 돌아서. 그추룩 흐명 아 경하여신디 출 그때 세 바린가 네 바린가 하여 하여나둔 거 강 베려보 난 오꽃 시꺼가부런게.

102016 #3 아이고.

102016 #1 출 비영 놔똥 무건 하여연에 데며 놔둔 거.

102016 #2 도둑맞아부렀구나.

102016 #1 멧틀 비연 놔둔 거 오꽃 도둑맞아부런. 야 찾아사크라라.

102016 #3 에이구 거 시꺼가는.

102016 #1 경하명 그때 출 그추룩 하명 비어신디 그때 흐번은 아방도 이젠 산에 낭 흐레 아이간에 이젠 가신디 이젠 점심을 하여가사 점심을 먹어야할 거 아니. 점심을 흘 것이 무신거 실 말이라. 그때 점심을 흘 거 어시난 그때에 무신 범벅인고 그때에. 범벅을 행가신디 저 잔이 없어 잔이 어시난에.

102016 #2 모멸핍벽일테취 무신.

102016 #1 어이구 모멸 흘 때 경 맛좋은 범벅?

102016 #2 게민 보리범벅?

102016 #1 맛좋은 범벅이 아니라. 범벅을 헤 간 범벅을 헤 가신디 범벅에 밧을

소곰이라도 이서야 흐 거 아니우파. 소곰이 아니꼭 보리 곶아난 저난 그 막불 ㄱ리 에 소곰 영 행 버무런 그걸 웬장으로 그걸 가져갓어.

102016 #2 게만 맛좋지 않으면 멜켓범벅일테주뒤.

102016 #1 그걸 버무런에 이젠 그걸 보명 그 저 보리ㄱ루 보리ㄱ루에 소곰 낀 버무린 거 그거 웬장으로도 현 먹었수다, 우리. 겨난 이제 누게 그때양 누구 오라 가민양 그거 부끄르완에 곱져부러주게. 곱져부러나난 그 어느 사름은 밥떡다그네 지네가 강 곱진텐 말도 해낫수다게. 맛좋은 거 행 먹어진 때는 자랑을 흐주만은 남 부끄르왕 그걸 뵈우지 못 현 곱져부러나난에.

102016 #2 먹, 저 그거 가가민 먹는 거 곱져부러지예.

102016 #1 어 그추룩 해나서. 나이 그 말 곶라난 생각해보민 진짜 녀의 속을 몰라.

102016 @ 오늘 수고했수다(웃음) 다음에 양.

3. 밧일

103001 @ 저 오늘은 양 그 밧일에 대해서 물어보쿠다. 밧일에 대해서 밧일은 어떤 것들이 잇수광?

103001 #1 밧일?

103001 @ 예 밧디서 일하는 거?

103001 #1 밧디서 일하는 거 뭐 문딱 밧디서 일하는 거지 무신 밧디 가사.

103001 #2 밧디서 일하는 거, 검질도 메곡, 비료도 주곡, 또 정운기로 밧도 갈곡.

103001 #1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103001 #2 처음에 가민 예염 비어십주, 예염.

103001 #1 처음에 가민 호미로 예염, 예염 뱅하고 돌아가고 예염 비어냥. 예염 비어나그네 저 말젠 쉼을 가나 경 아녀민 경운기를 가나. 옛날은 쉼갈 때는 쉼로 갈 때는 우선 예염부떠 먼저 비어난. 이젠 제초제 시난 제초제 현난 예염 안 비는 디 옛날은 가민 우선 미룻 아시날부떠 가그네 예염을 밍니다, 예염을 우선 예염을 우선. 비영 비영나뒗다그네 뒷날은 가그네 밧을 쉼로 가나 멋으로 가나 경운기로 가나. 옛날엔 쉼주게 옛날에 쉼 옛날엔 쉼로 밧갈아그네 씨 빠곡. 하르방은 밧갈고 할망은 씨 빠곡. 처음엔 그추룩 현여그네 이제 그 보리 갈 때는 돛걸름 현여그네 찌그네 보리갈아십주게. 처음에 밧디 보리 갈젠 현영은. 밧디 도새기 질루당 도새기 질화난 걸름을 마당더레 퍼내여 곶체로. 퍼내여그네.

103001 #2 보리씨 빠영.

103001 #1 펜펜하게 곶라와그네 보리씨 빠영. 그때 비료 어느 때난에 보리씨만 빠영.

103001 #2 쉼로도 불리고.
 103001 #1 쉼로 막 불령.
 103001 @ 계란 여기선 주로 보리농사양?
 103001 #1 예 그때는 보리홀 때.
 103001 @ 다음에 보리농사 다음에는 조농사?
 103001 #1 조.
 103001 @ 그 다음.
 103001 #1 저 산디.
 103001 @ 산디 그 다음?
 103001 #1 풋. 옛날에는 그거 주로 했수다, 옛날은.
 103001 @ 그 다음 콩?
 103001 #1 콩은 이글레사 콩은 햄서.
 103001 #2 콩은 그때 저 장담을 콩이나 조깁 했주.
 103001 #1 장담을 콩백이 예.
 103002 @ 경흐민양 저 보리농사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
 103002 #1 저 옛날 거?
 103002 @ 예예 보리농사에 대해서 물어보크메양, 그 보리농사 짓젠 흐민양 뭐
 가 필요 헤신고마썸?
 103002 #1 걸름이주게 걸름.
 103002 @ 걸름? 거 흐번 말해봅서.
 103002 #1 걸름? 쉼, 우리가 쉼막에 쉼질루민.
 103002 #2 거난 옛날에 웨냐면 쉼를 질르면은 에 쉼출 쥬 출. 출 쥬그네 쉼.
 103002 #1 떡당 나머지 데추.
 103002 #2 똥 썩 거흐고 남은 것고라 쉼 데취엔 했거든. 근데 그걸 또 통지레
 집어놔. 사름 저 똥 싸는 통지 맨들아 잇는건디, 집어노면은 거기 똥웨지가 도야지
 를 질러주게 도야지. 질르면은 그걸로 불려지고 뭐 흐여그네 보리갈게 웨면 그걸
 또 사름으로 퍼내영. 골체에 담양 마당에 뽕돌양 놔그네. 이젠 보리씨를 걸름 우터
 레 빼영 훌어놔 저 소스랑이엔 흐 걸로 그걸 막 서꺼. 혼합시켜그네 서꺼그네 그
 다음엔 쉼로 불려 그게 좀 직 말흐민.
 103002 #1 불리민 끈닥끈닥해 걸름이.
 103002 #2 밀가루 영 찌듯이 썩놔 그 다음엔 밧디 실러강 낱 또 그다음엔 골체
 에 담양 조금씩조금씩 툷양 밧디 던져놔그네 그걸 갈아 엮엇주게.
 103002 #1 밧디 실러갈 때는 옛날에는 멩텅이 이만씩한 걸름착이엔 흡니다, 멩
 텅이ㄴ라. 저 걸름 담는 건 걸름착 곡석 담는 건 창맥 뭐 그추룩 흐는다. 그 걸름착
 에 그자 장남 흐 사름 굴리기 좋게 담아그네 탁흐게 쉼에 두 망텅이, 멩텅이를 두
 개씩 세와그네 양쪽에 시꺼가그네 걸름을 골로루골로루 밧디 문딱 뿌려, 그영 흐여
 노민 그레 가는 날은 여자덜이 골체 이 앞에 차그네 저 골체 앞에 차그네 그 걸름

을 막 부수와 영영 걸름을 부수와그네 골로루골로루 밧디 뿌려. 골로루골로루 밧디 뿌려와그네 뿌리면은 그다음에 쉼로 갈아. 쉼로 갈아그네 쉼로 갈아나민 그 고량 잇지 안 흐우파, 고량. 그 고량에는 딱시 저 고량보리라고 뎡기멍 여자덜이 예펜덜이 뎡기멍 툯툯 요만씩 방 벌여가멍 하나씩 툯툯 툯아와. 그 조름에 걸름을 딱시 발로 툯툯툯툯 뎡기멍 발로 문딱 더껏수다게 발로, 발로. 사름으로 고 밧 간 다음에 고량에 툯아논 건 사름으로 툯툯 툯아난 사름으로 문딱 그 보릴 흐여그네 더경 나 두면은 경행 이삼월 나가면은 뽏족뽏족뽏족하게 보리가 나가면은 흐쉴 커가민 이제 검질을 떼기 시작흐여그네 그자.

103003 @ 지난 보리 걸름 보리밧걸름 맹글 때 어떻 맹글엄수과?

103003 #1 보리밧걸름 맨들 때는 저 쉼막에 쉼 질루민 쉼출 준 거 쉼출 먹다 남은 거 뎡구리덜 나머지 뎡구리덜을 쉼 두터 문 깔아, 쉼 두터레. 게민 쉼 툯 싸고 오줌 싸고 흐민 질팍질팍 지난해 먹어난 대추를 갖다가 쉼또꼬망더레 깔아 그 것이 쉼 불리면은 쉼걸름이 웨여. 으라 날 으라 날 오래오래 헤가면은 예 이만씩 노릅니다. 이만씩 노파. 걸름이 쉼막에서 이만씩 노프민 그걸 통지에 담앗주기. 글체로 딱시 흐 글체씩 흐 글체씩.

103003 @ 글체로 들렁?

103003 #1 쉼스랑으로 내영 글체레 와그네 딱시 그거 흐민 흐루종일 역 벌여그네 통지레 담아. 통지레 담아그네 통지에 가면은 도새기가 딱시 그걸 먹으멍 걸름을 불리면 딱시 도새기걸름이 그런 게 됩니다.

103003 #2 게난 통지에 담아, 쉼걸름을 통지에 담아놓는 것은 통지에서 그걸 티얌주게, 직 말흐면.

103003 @ 통지엔 흡니까?

103003 #1 예 통지.

103003 @ 통지?

103003 #1 예.

103003 @ 통시가 아니고?

103003 #2 예 통시엔도 흐고 통지에도 흐는 디도 잇곡 그 두 가지고 거의 ㄴ뎡거.

103003 #1 통시엔 흐는 디도 잇곡 통지엔 흐는 디도 싯곡. 게난 통지에 담아그네 도새기 걸름을 막 도새기가 불리민 쉼걸름 문딱 도새기 걸름이 더 걸어.

103003 #2 불그스름하게 막 터.

103003 #1 막 터그네 걸름낼 때는 불그스름하게 터그네 짐이 팡팡 납니다, 그 걸름이.

103003 #2 요즘 ㄴ뜨면은 그게 발효시켰다는 거주게.

103003 #1 경 흐여그네 그추룩 흐여그네 걸름을 경흐난 만약에 걸름을 경흐다 그네 쉼도 잘 안 질루고 죽은 집은 목장에 가그네 쉼걸름이영 저 거세기.

103003 #2 쉼뎡, 뎡뎡이영.

103003 #1 쉼똥이영 뭉똥이영 문똥 주서다그네 통지에 디리쳐 도새기 불리게. 걸름멘들젠. 경 헤낫수다.

103003 @ 거난 이제 돛통에 이신 걸름을 보리밧흐젠 흐면은 내야 텔 거 아니우파?

103003 #2 글체, 글체?

103003 #1 쉼스랑으로 글체로 하나하나 쉼스랑으로 하나하나 낱 두 번이나 시 번이나백인 들르지 못흐여. 들러그네 마당더레 강 뽕뽕흐 디 즈근즈근 뽕흐게 돌아 가명 뽕흐게 마당으로 도새기가 걸름이 흐면은 지각흐게시리 문똥 흐루종일 퍼내 여. 흐루종일 퍼내나민 그날 다 못흐민 뒷날이라도 그레 씨뿌려그네 딱시 쉼로 불 려.

103003 @ 물로는 안 불렛수과?

103003 #1 물로도 불리고.

103003 #2 물로도 불렛주마는 거의 쉼로 불렛주게.

103003 #1 쉼발통이 크니까 끄막끄막 쉼로 주로 불렛수다게, 쉼로. 물로도 불리 는 사름은 불리주마는 쉼로가 주로 불려.

103003 #2 물로 갈 때는 조갈 때 밧디 불리는 거.

103003 @ 경흐여그네 다 불리민.

103003 #1 경흐여그네 흐번 불려난 쉼스랑으로 다 뒤집어. 불려는 걸 다 뒤집어 쉼스랑으로 걸름을 뒤집어.

103003 #2 텔싸 낱 또 불령.

103003 #1 다 뒤집어 낱, 잘 골라낱, 또 흐번 또 불려. 불려놔그네 그걸 또 흐 군데레 영 무드락흐게 메와. 흐루만에 시꺼가지 못홀 거난. 무드락흐게시리 메와 메 왕나뒤서 기자 그날 못 시끈 거 뒷날까지 시끌거난, 메왕나뒤서 그때는 쉼로만 시 끌 때난에 흐루에 문 시끄지도 못흐여.

103003 #2 계난 밧디 ㄴ져가는 것은 멍텅이.

103003 #1 계난 걸름착.

103003 #2 걸름착이라고도 흐고 멍텅이라고도 흐고.

103003 @ 돛걸름착.

103003 #2 거 ㄴ라 완전 옛날 말로 멍텅이라. 멍텅인디 것에 담으민 꼭 ㄴ쁜 분 량을 두 개 담아.

103003 @ 멍텅이 막 큰 거 아니우파?

103003 #1 멍텅인 큰 거고 돛걸름착. 요만씩 흐 거 죽은 거 돛걸름만 담은 돛걸 름착 이서.

103003 #2 양쪽이 비등흐게 담아 두 개에 담아놔, 두 개에. 두 개에 담아놔 쉼 양쪽에 지우는 거라. 질매흐영 지우는 거라.

103003 #1 질매에 양쪽으로 이쪽으로 하나 시끄곡, 둘리가 들어야주 ㄴ찌 사야 흐여. 둘리가 ㄴ찌 상 시꺼야 흐여.

103003 #2 혼 사름서 시끄지 못혀여 양쪽으로 저 똑같이 가야 췌 우에 얹어놓지. 못혀여.

103003 #1 경혀연에 그 베로 딱딱 얼그는 공쟁이덜이 이서. 그 질매에 그 공쟁이덜이 이짜 거 영혀영 혀곡 이짜 거 영혀영 혀곡. 오량줄 영 혀여그네 오량줄 매어노면은 그 오량줄을 매여사 새가 든든해그네 걸을 때도 혀쓸 그걸 중심 잡아그네 잘 걸어.

103003 @ 그 돛걸름착 혀여그네 밧디 강 풀꺼 아니우파?

103003 #1 예.

103004 @ 밧디 강 퍼그네 거난 밧 같고?

103004 #1 밧디 강 평.

103004 #2 밧갈기 전에 여자덜이 이 글체 이렇게 조그만 거 혀여그네 그걸 뿌수명 뿌려놓는거라 밧디에.

103004 @ 밧갈기 전의.

103004 #1 밧갈기 전의 씨를 다 뿌려야주게 그 걸름을.

103004 #2 뿌려 놓으면 다 더프는 거지, 밧 가는 것이.

103005 @ 거난 여자삼춘네는 걸름 뿌리고 남자 삼춘덜은 저 밧갈고?

103005 #1 계난 걸름을 다 뿌려, 초불 걸름을 다 뿌려져그네 걸름을 이제 고량놀 걸름을 좀 냉겨나뉜. 이 고량보리 혀젠 혀민. 뿌리다그네 멧 군데 혼 밧디씩은 고량 걸름을 냉겨 밧갈명 둥그렁 낫다그네 밧 다 갈아난 다음 고량 걸름 툯툯 툯아노명.

103005 @ 계난 옛날은 보면은 그추룩 걸름 빼여그네 그 밧 갈아그네 선비로 영끄서그네 꺾 혀여부는 경우도 잇곡 그다음에 밧 갈아그네 고량에 그 즈베기꺾 저 돛걸름 툯아그네 영 어프는 경우도 잇지 안우파?

103005 #1 계난 골보리가 잇곡 그냥 산파로 혀는 고량혀는 보리가 잇는디 옛날에도 골보리는 갈 때 보면은.

103005 #2 툯아놓곡.

103005 #1 아니 아니, 고량을 넘죽혀게시리 고량을 넘게 혀여그네 그렌 만이 뿌려. 만이 뿌려그네 그걸 영 이추룩 더뵙니다, 이추룩. 이추룩 그냥 서로 혀영 영 더퍼그네 그건 가운디 웃게. 그추룩혀 보리가 있어낫수다.

103005 #2 건디 아까 선비로 꺾는 거 잇곡 저 즈베기 모양으로 툯아낱도 혼덴 혀여신디. 그게 그 밧 그 땅 그 직 말혀민 건 밧이나 걸지 안혀 밧이나 그 차이거든. 건밧은 걸름 안 혀여그네 씨만 뿌령도 같았거든. 것꺾라 췌시전이엔 헤서. 췌시전이엔 혼 것은 걸름 안 혀영 씨뿌려도 헤 먹는다 그 밧이 워낙 밧 힘이 좋은 밧이니까. 좋은 밧이니까 혀고 걸름 내여다 혀는 것은 밧이 힘이 없는 밧, 걸지 아니혀 밧은 걸름을 안 혀민 보리를 못헤 먹어서.

103005 #1 계난 그 이추룩 씨빼여그네 혀는 밧은 건 좋은 밧이고.

103005 #2 선비질 혀는 것은 보리씨를 물어지게 혀기 위혀영 그 선비를 꺾는

거난계. 계난 쉘시전이 잇곡 이 걸름 햅여그네 박전이 잇는 거귀.

103005 #1 이 알리레 저 범환 강정 쪽더레 저 춘흑밭덜 그런 밧덜은 쉘시전 쉘시전 햅여그네 그때덜은 보리만.

103005 @ 계난 씨로만 뿌리는 것도 잇곡 그 다음에?

103005 #2 걸름에 허터그네 썬그네.

103005 @ 그다음에는 저 걸름 뿌려난 다음에 씨뿌령 쉘로 가는 것도 잇곡.

103005 #1 계난 보리가는 게 딱시 골보리엔 햅는 건 그냥 골보리엔 햅는 것은 그냥 고랑에만 잇는 보리가 잇수다, 골보리. 고랑에만 짝 햅게시리 보리, 걸름이영 비료영 놔나그네.

103005 #2 웨냐면은 쉘로 밧가는디 쪽햅게 고랑 나게끔 쪽 갈아노면은 그레만 툷아놔그네 그 선비로 묻는 수가 있어. 썬스민 후 덮어져 햅는다.

103005 #1 아니 옛날 옛날에 간 보난 골보리양 넘죽햅게 골보리 이십디다.

103005 @ 계난 넘죽햅는 것도 잇곡 그다음에 그냥 보섭으로 갈아서 보섭고랑에 햅는 것도 잇곡?

103005 #1 경햅는 것도 잇곡 딱시 경 안 햅여그네 막 그자 뿌려그네 갈면은 그냥 그영 햅 보리도 잇곡. 보리 가는 것이 멧 가지라마씨. 쉘시에 보리씨만 햅여그네 가는 보리씨도 잇곡.

103005 @ 계난 씨만 뿌리는게 쉘시?

103005 #1 예 쉘시. 건 쉘시. 건 쉘시전. 건 일토백이. 좋은 밧.

103005 #2 일등밧.

103006 @ 경햅고 보리 종류는 머가 잇수과?

103006 #1 보리 종류도 하.

103006 @ 여자삼춘이 고라톱서 그 뭐 솔오리여?

103006 #2 옛날 중요햅는 건 곁보리가 주장이랏주게.

103006 #1 곁보리엔 햅는 건 솔오리 달뜨멍이라도 쥘랑쥘랑햅게.

103006 #2 고고리가 질어.

103006 #1 고고리가 질곡 솔오리 달뜨멍이라도 영 네 개로 부떠그네 고고리가 질곡. 저 이 썬복에 보리알이 맥주보리추룩 쥘랑쥘랑 맥주보리 담지 안 햅영 쥘랑쥘랑햅연 여물이 경 어서 햅니다. 맥주보리는.

103006 #2 옛날 중요한 게 세 가지주, 세 가지.

103006 #1 솔오리 곁보리 맥주보리.

103006 @ 거 다른거 없수과?

103006 #2 밀 밀.

103006 @ 건 다른 거고 보리햅고?

103006 #2 보리는 그거 말안 없어.

103006 #1 보리는 맥주보리햅고 곁보리햅고 솔오리. 예 그거뻘이 우린 모르쿠다. 툷 거 신디 우린 몰라.

103007 @ 보리밭 뽕아났지양?
 103007 #1 예게 보리밭 불르곡말곡. 보리가 예, 정월에 불릅니다.
 103007 @ 여긴 더 하영 블라야 흘 거 아니우파?
 103007 #1 예 여기 인력 으성 실평 아이 불르주, 불르젠만 흐민 여긴 더 하영 블라야 흐여.
 103007 @ 거 불를 때 어떻 불밤수과?
 103007 #1 보리 포기마다 그냥 텅기멍 불리지.
 103007 @ 사름이 뽕아?
 103007 #1 아니 어떻 쉼로도 불립네까.
 103007 #2 쉼로도 톱는 디가 잇는다.
 103007 @ 보리 톱는 거 흐번 말흐여봅서.
 103007 #2 난 뽕아보지 안 흐연.
 103007 #1 우리도 기냥 대강은 블라도 경 일부러는 블라보지 경 흐 어시 안 흐여신디. 밧되서 보리 불르는 거 보민 해변 사름덜도 불르는 거 보민 쪽 흐게덜 사그네 막 불르는 사름덜도 십디다게. 막 경흐난 땅이 부꺼부는 때문에. 들러져부러 들러져부는 때문 땅이 문 고사그네 벌러져부는 때문에 땅을 불르는다. 어떤 딘 쉼도 물 ㄱ쁜 것도 지려냥 불리고 흡니다머. 물 ㄱ쁜 것도 머 먹지 못흐게, 곡석 먹지 못흐게 흐여그네 디려냥 불리곡, 쉼덜도 들어강 불리고.
 103007 #2 건디 보리밭 불린덴 말은 흐여도 육지 사름덜은 저 곤는 거 들으민 뒤 보리밭 톱는 노래도 잇곡 흐디, 우리 제주도에선 노래 불르멍 보리 톱는 거 못 봐바서. 근디 노래 보리 톱는 노래가 잇다는다.
 103007 @ 일홀 때 노래 하영 부릅니다게.
 103007 #1 예게 일홀 떠 하영 불르주게.
 103007 #2 건디 검질 메멍은 여자어른덜 노래 불러.
 103007 #1 예게 사대소리게. 사대소리 부릅니다. 검질멜 때는 사대소리. 물질홀 때는 뜯소리로.
 103007 #2 앞 멩에랑 들어오곡 뒤 멩에랑 저.
 103007 #1 나흐고 나가라.
 103007 #2 나흐고 나가라 흐멍(웃음) 그런 검질 메멍은 노래를 불르는 걸.
 103008 @ 보리밭되 검질 이젠 뒤 제초제 해서 흡디다만은 보리밭 검질 멧 번 맴수과?
 103008 #1 보리밭 검질 두 번은 맴니다.
 103008 #2 두 번 매는 것고라 두불 맨덴 흐여.
 103008 #1 두불 맨덴 흐주게, 두불.
 103008 #2 흐 번 매는 것고라 초불 두 번 매는 것고라 두불.
 103008 #1 초불 매곡, 두불 매곡. 두불ㄱ지 맴니다, 보리검질.
 103008 @ 세 불은 안 맴니까?

103008 #1 세 불ㄱ진 아니 가. 조킴질은 세불 매는데, 조킴질 흐고 산뎃검질은 세불ㄱ지 매는데 보리검질은 두불. 매당 못 버치민 흐불 매당말곡.

103009 @ 보리밧디 그 검질도 잇지 안우파 그 어떤 검질들 잇수과?

103009 #1 최고 하영 나는 건 사사라검질. 이 봄의 나는 검질 사사라검질.

103009 @ 사사라 검질?

103009 #1 예 사사라검질.

103009 #2 이게 저 옛날은 숙이 만이 나지 숙. 저 물룻이엔 흐 게 잇어.

103009 #1 옛날엔 물룻. 옛날은 이제 물룻 씨 가불언 엇수다, 이젠.

103009 #2 물룻 그거 막 승년 들민 슬망도 먹엿주게. 슬망 흐민 막 목 아프곡 흐여.

103009 #1 빨리 이만씩 흐 거.

103009 #2 근데 이제는 물룻도 어서점서.

103009 #1 보리검질은 보통으로 옛날은 물룻 숙 딱시 대우리.

103009 @ 숙이 쪽이우파?

103009 #1 예 숙. 옛날은 숙검질이 주로 핫수다.

103009 #2 보리가 흐쓸 큰 다음에는 대우리.

103009 #1 제초제도 근사미도 엇곡 흐난에 그때는 속흐고 물룻 대우리 그것이 제일 하서 어떤 땐 드룻느물.

103009 #2 드룻느물이엔 흐 것도 옛날은 먹을 거 어서노난 들어 캐당 먹어부니 까 그것도 흐흐진 안해서.

103009 #1 제일 한 거 드룻느물 속 물룻 그것이 보리밧디 제일 한 거. 대우리.

103009 #2 대우리 보리 흐쓸 크기 시작흐면은 나타난에.

103009 #1 그것이 검질 중에 제일 나쁜 검질이주 보리엔 제일 나쁜 검질.

103010 @ 이제 보리 검질도 매고 수확흐여야 될거아니우파 보리 수확할 때 과 정.

103010 #2 호미 가정 가그네 비엿주게.

103010 #1 보리가 예 옛날은 양 보리 익어가면은 뱅뱅 돌럿주게 흐번에 문 익 영 비젠 흐민 자우라지질꺼난.

103010 @ 언제쯤 돼민 보리가 익습니까?

103010 #1 스오월초? 양력으로 오월초?

103010 #2 야튼 웨냐흐면 옛날은 음력 주로 셋으니까 스월초면은 솟보리 비엿 지.

103010 #1 아이구 말도. 스월초에 무슨 보리를 빌 말이우파. 당초 아니우다.

103010 #2 오월초 웨야 될건가.

103010 #1 스월말이민 흐 이십오일경 돼면은 솟보리 비어당 먹을 때고.

103010 @ 망종 때 빡니다. 망종 때 망종이 절기는 양력으로 흐는디 6월6일 현 충일 근방 여기서도 현충일 근방?

103010 #1 망종 때는 보지말아그네 비렌 햇수게. 망종만 넘으면 선 보리고 익은 보리고.

103010 #2 그전의 숯보리 비어당 먹어서 양식 어선에.

103010 #1 계난에 숯보리 빌 때는 유월 육일 현충일날이라흐민 오월 십오일만 돼가민에 양력으로 오월 십오일만 돼가면은 숯보리 비어당 먹었수다. 숯보리는.

103010 #2 덜 익을 때 비어당 먹으면 숯보리라 하여.

103010 #1 노리롱만 하여그네 그 보리가 고른가뒤그네 흐쫄 쫄알맹이 생기젠만 하여가면은 비어다그네 그것을 여기서 웃드르선 문딱 소까이 하여난 어렵고 흐난에 그 시절에는 비어다그네양 그것을 하나하나 고고리 하나씩하나씩 이만씩 조져, 조져그네 그것을 무꺼그네 불에 확확확확 흐민 고시락만 확확 그시려뵈 그시려뵈그네 그걸 이제 막 보며 명석에 놔그네. 막 흐민 보리알만 털어집니다게. 보리알만 털어져. 보리알이 그처럼 막 하영 하여집니까. 그자 막상 했자 흐 말이주게. 흐 말. 흐두 말.

103010 #2 정상적인 보리알이 돼지 아니흐 때 해당 먹는 거난게.

103010 #1 그걸 그처럼 하여다그네 어떤 사름은 확하게스리 습는 사름도 십니다. 확 하게스리 물 췌와그네 확하게 돌르는 사름도 싯곡. 경 아니흐 사름은 숯창에 놔그네 더운 숯창에 놔그네 막 젓으멍 보까, 보리를, 턴 보리를. 보까그네 흐번에 보끄지 못합니다며 카부는 따문. 흐번 보깁 식영, 그거 다 식으면은 또 흐번 숯디냥 또 보깁. 나도 경헤봤수다게. 세 번까지 보끄니까 그것이 3레에 갈 수 잇게끔 들릅디다. 나가 그걸 헤보난 알쥐.

103010 #2 그걸로 밥이나 경 배흐 뵈도 아니고 걸로 죽 췌 먹엇주게.

103010 #1 예게 죽이주게 죽. 거 누를 놓곡 하여 죽 췌민에 경 코소하여 맛줍네다.

103010 @ 계난 보리를 수확할 때 빌 거 아니우파?

103010 #2 비어냥 흐쫄 들르민 강 무경.

103010 #1 흐 못씩 흐 못씩 무경.

103010 #2 흐 못씩 무경. 것도 췌에 시꺼온단 말이야, 질매 하여그네. 질매하여 시꺼오고. 또 쫄쫄 잇는 사름은 구루마로 강 시꺼오고. 구루마 없는 사름은 천상 지곡 췌에 지곡.

103010 #1 흐 줍씩 흐 줍씩 집의 저오곡 집이 저당 마당에 막 나뒤서 보리클로 흘탕.

103010 #2 시꺼당 놔다그네 가래기 영 헤진 거 것에 홀트주게.

103011 @ 가래기클?

103011 #1 가래기클 이서.

103011 #2 가래기클이엔 흐민 췌로 동글락동글락하게 박아진 것고라 가래기클이엔 흐곡 녀석흐 췌로 만들어진 건 기냥 클이라 했는디 옛날 건 낭에 박앙 가래기클이이엔 흐 걸 만들엇거든.

103011 @ 낭에 박앙?

103011 #2 낭에 쪽 박앙 만든 걸 가래기클이라고 해서.

103011 @ 췌로 만든 건 보리클이고 낭으로 똥 건?

103011 #1 아니 아니 낭더레 이만씩 쪼작쪼작하게 낭더레 박아.

103011 #2 낭더레 박은 건 가래기클이고, 이 낭에 부착을, 낭에 에완져도 녀석
 혼 췌로 쪼작 해진 건 기낭 클.

103011 #1 짓고라 무신 클이엔 햇저만은 짓고라.

103011 #2 그제 가래기클 난 다음에 난 거주게. 쪼끔 저 신식, 가래기클.

103011 #1 그건 불매대장 하는 사름덜이 건 맨든 클이라. 그 클은 녀작혼 클 영
 영 하여그네 맨든 클이고.

103011 #2 그건 기계에서 나와서, 기계에서. 어디 맨들아 나온거라 녀작혼 거
 쪼작 해진 거. 저 가래기클은 불매에서 맨든거라. 하나하나 낭에 박은 거난게.

103011 #1 과작 낭에 박아노면은 거기서 영영 보리를 흘탕주게.

103011 @ 보리 흘타그네 어떻게수과?

103011 #2 흘탕 췌로 불랑도 장만도 해나곡. 이저 메탁이엔 혼 거 셔나서.

103011 #1 아이고 메탁기 전윈 다 췌로 불렛주게.

103011 #2 췌로 불랑 도깨로 두드리곡.

103011 #1 도깨 어서그네 어떤 할망은 막깨로 두드리멍 장만하고.

103011 @ 췌로 불령 장만도하고?

103011 #1 췌로 막 불리멍 우리 시국 전의부떠 췌로 불리멍 장만했수다.

103011 #2 도깨로 두드리멍 장만하고.

103011 #1 도깨로 맥주보리덜은 양 도깨로 두두릅니다게 도깨로.

103011 #2 마깨 마깨로도.

103011 @ 덩더렁 마깨로?

103011 #1 예 덩더렁 마깨로 막 장만하고 덩더렁 마깨로도 두드리곡 도깨로도
 두드리곡 혼술 하여그는 집은 췌로도 불려그네.

103011 #2 멀체에 주로 그것이 많은 분량은 거의 췌 물로 불랑 장만했주게.

103011 @ 그다음에 매탁기로는 안 해봤수과?

103011 #2 매탁으로 혼 거는 조금 기계화되니까 매탁 온지 후엔 흘타나그네 그
 기계를 올령 장만하고.

103011 @ 그 가와에 영 올려그네?

103011 #2 예 올령 장만하고 쪼끔 더 발전웨난에 흘트지 안 하여 막바로 그것
 이 최고 저 쪼끔 발전웤 때. 그냥 흘타난 때는 그보단 전에. 게난 흘타낭 기계로
 흘 때만도 조금 발전웤 때고. 그냥 흘트지 안 하여 막바로 흘 때는 최고로 발전웤
 때.

103011 #1 아이고 흘타낭 기계로 우리가 흘타난에 기계로 올린 그건 완전 좋
 습디다. 손으로 두두리다 장만하고.

103011 #2 그것ㄱ장도 좋았는디 낭더레 확확ㅎ난 더 좋앗주게.

103011 #1 막 것도 좋안ㅎ단 베려보난 ㅎ쫄 살아가난 낭채 기자 확확 올리면은 뽕만 ㅎ민 보리가 되는 거난.

103011 #2 이젠 또 더 서가니까 무슨 콤바인이엔 ㅎ 거 와가지고 비지도 안 ㅎ 고 착착 비명 장만돼거든. 게난 흘탕 흘 때쫄은 웨냐면 그거 보리흘타나면 풀도 저 리곡 허리도 아프곡.

103011 #1 보리 흘틀 때는 장만 하영ㅎ는 사름덜은 이디 보리 흘트는 사름 싯곡. 클러놓는 사름 싯곡. 제는 사름 싯곡. 이디 뒤에 빠는 사름 싯곡. 멧 사름 걸쳐 야 ㅎ여.

103011 #2 근디 그것이 저 스무 못씩 ㅎ 바리라 했거든.

103011 @ 멧 못이? 스무 못?

103011 #1 쓰무 못.

103011 @ 것도 지역마다 틀리지 안습니까. 여기서는 ㅎ 바리가 스무 못?

103011 #1 예.

103011 @ 보리는 스무 못?

103011 #1 출은 마은 못.

103011 @ 출은 마은 못.

103011 #1 새는 열두 못.

103011 @ 새는 열두 못. 그 조는?

103011 #1 조는 여섯 못. 여섯 못씩 ㅎ 바리 텔 거우다.

103011 @ 게난 세 못씩.

103011 #1 예 세 못씩.

103011 @ 양옆에 질매우민 여섯 못?

103011 #1 예 세 못씩.

103012 @ 보리쫄 멩글젠 ㅎ민 어뎡 멩글앗수광?

103012 #1 옛날에 보리쫄 멩글젠 ㅎ민 보리를 물컷어.

103012 @ 보리 태작ㅎ 거 물컹?

103012 #1 태작ㅎ 걸 물커. 태작ㅎ 걸 물커그네. 옛날은 남방애 ㄱ뜬 디, 저 남방애가 아니고 물ㄱ래 물방애 찍어낫수다게.

103012 #2 물컷당 물를르민 그걸 꺼내영 ㅎ민 물이 빠지거든.

103012 @ 게난 물방애 강 그걸 맨들아마썰?

103012 #1 예.

103012 @ 물방애 돌리멍?

103012 #1 예 우리 두린 때는예 물방애에서 젓수다.

103012 #2 물로도 방애 배왕 ㅎ곡 췌도.

103012 @ 게민 보리쫄이 까져불 거 아닌가마썰.

103012 #1 꺾테기만 까져. 꺾테기만 ㄱ지계끔 물을 쫄쫄 우찌우민, 너무 우찌우

지 말양 조금만 꺾데기만 깎지게끔 물 우찌와그네에 물방에 가그네 그걸 흐민양 어느 정도 흐여지민 안 흐여그네 이젠 어느 정도 다 까졌구나 흐면은 이젠 아이 정. 아이정 집의 오랑 그걸 널영 물리와. 물리와사 젓어부니까 쉐 나가지 못흐주게. 게난에 물리와나사 물리와나그네 푸는체로 막 퍼. 퍼나그네 체는 체대로 가고 쓸은 쓸대로 오게 흐면은 그처럼 흐면은 잘 젓으지 아이주게. 잘 젓으지 안으면은 그걸 딱시 바삭 물리와. 물리와그네 그걸 또 방에에 놔그네 두불을 까까. 두불을 저, 두불. 보리쌀 까까온 거 두불 저. 두불 저그네, 두불 전 온 보리쌀은 맛이 좋곡 초불만 흐 보리쌀은 입이 꺼끌락거끌락흐곡. 경흐연 두불 정 두불 저그네 문막 다 골려 놔그네 그걸 아래에 골아.

103012 #2 게난 저게 많은 저 양식을 흐젠흐민 물방에 강 쓸을 맨들곡. 그때그때 죽은 건 아래에 거피흐여.

103012 @ 아래에?

103012 #2 예 아래 아래 아래 흐여그네 급흐민 죽도 헤 먹곡 보리범벅이라는 범벅도 헤 먹곡.

103012 #1 근디양 한 것도양 물방에 저 온 것덜양 문막 집의서 큰 덕석 흐여그네 막 큰 아래에 겁집니다. 보리쌀을 겁저. 겁저그네 훙은 보리쌀 줌진 보리쌀 딱시 그디 헤가민 아래도 나오곡 흡주게.

103012 #2 멧 가지 나오주게.

103012 #1 멧 가지로 나오면은 훙은 보리쌀은 좋은 보리쌀로 헤그네 거세기 헤 먹곡 줌진 보리쌀은 흐쌀 식귀덜이나 흐여그네 영 흐영 먹곡. 아래덜은 그자 간식이라도 무시거 영 흐여그네 범벅이라도 흐영 먹곡. 영 헤나서.

103012 #2 게난 아래도 범벅도 는쟁이범벅 진아루범벅 두 가지라게 는쟁이범벅이 나쁜 아래라게.

103012 @ 아래로도?

103012 #1 예, 아래로 흡니다게.

103012 @ 그다음에 연자매 것도 해낫수과?

103012 #1 남방앤디 보리는 초불은 못 저. 보리는 초불은 못 저. 두불 보리는 초불 저디 강 흐여난 거 두불은 남방애라도 흐여그네 두불은 남방애 저그네 잘 저지민 아래에 흐여튼 아래에 골아.

103012 #2 아래엔 초불이건 머이건 즉즉흐 거세기 헤 먹엇거든.

103012 @ 물방에서도 흐고 남방애 그다음에 아래?

103012 #1 경 흐영서 아래에 깎지 골아사 먹는 거 입더레(웃음).

103013 @ 그다음에양 보리쌀 가져그네 말하쿠마다마는 보리쌀 가져그네 무신 거 만들어먹엇수과?

103013 #1 보리쌀로?

103013 #2 보리쌀 맨들멍 아래에 헤나민 아래 쉐 나쁜 거 는쟁이범벅 쉐 꼰끄러운 아래 그게 는쟁이범벅. 그다음 진아루범벅.

103013 #1 그건 모멸로 하는 거.

103013 #2 아니 보리범벅도 해 먹었수게. 경호난 그 ㄱ루로 일부로 보리떡을 만들어 먹젠흔 거 아니라. 그 쓸 맨들단 ㄱ래에 ㅎ단 굴멍 쓸로 떡을 맨들안 보니까 ㄱ루범벅이여 보리떡이여 영 헛거든게. 그 양식 어실 때 보리떡 맨들아 먹젠은 일부러 안 헛거든.

103013 @ 계난 젤 좋은것이 보리쌀?

103013 #2 예.

103013 @ 그다음?

103013 #2 그다음 진ㄱ루.

103013 #1 아니 줌쌀.

103013 @ 줌쌀 그다음에?

103013 #2 진ㄱ루에 잇는 건 제일 좋은라.

103013 @ 나쁜 ㄱ루는 머라.

103013 #2 는쟁이 는쟁이ㄱ루.

103013 @ 좋은 ㄱ루가 진ㄱ루 그다음에 나쁜 ㄱ루가 는쟁이 경호민 좋은 쌀로 는 밥 행 떡곡 거 ㅎ번 곱아봅서.

103013 #1 좋은 쌀로는 일이라도 빌영홀 때 일이라도 누게 눕 빌영 일을 홀 때, 어디 특별ㅎ게시리 밥ㅎ젠 ㅎ곡 이녀이 ㅎ쌀 맛 좋게 떡곡 싶을 때는 ㅎ은 보리쌀로 ㅎ에 ㅎ곡. 경 안 ㅎ여그네 보통으로 밥은 줌쌀밥 감자라도 썰어놓곡 지슬이라도 그레 놓곡 ㅎ여그네. 줌쌀밥은 맛어서(웃음) 경행떡곡 보리ㄱ루로는 감저 ㅎ여그네 슬마그네 그냥 보리ㄱ루 낱 보리ㄱ루범벅을 ㅎ나. 지슬 슬마그네 ㅎ여그네 보리ㄱ루범벅을 ㅎ나. ㅈ시 경 ㅎ곡 또 즈베기도 해떡곡 경ㅎ주게.

103013 @ 나쁜 는쟁이로는?

103013 #1 게매 걸로 즈베기도 해 떡곡.

103013 #2 는쟁이 즈베기엔도 ㅎ고 는쟁이범벅이엔도 ㅎ곡.

103013 @ 도새기는 안 줏수과?

103013 #1 도새기는 체 도새기는 보리 까까난 우의 체 보리체 껍데기.

103013 #2 보리껍데기 ㅎ곡 사름 똥 썩 거나 도새기 줏주게. 어느 저를에 쌀 도새기 줄게 어디 셔. 사름 먹을 것도 어신디.

103013 @ 계역은?

103013 #1 맥주보리 보까.

103013 @ 맥주보리로? 맥주보리가 걸보리 아니우짜?

103013 #1 걸보리 ㅎ고 맥주보리가 틀려. 걸보리는 보리 중에도 아주 나쁜 보리. 맥주보리는 좋은 거 걸보리는 나쁜 거.

103013 @ 계난 계역만들때는 맥주보리로?

103013 #1 맥주보리로 이딘 맥주보리로 ㅎ수다게. 해변더렌 슬오리 고단이난에 슬오리로 ㅎ주만은.

103013 #2 슬오리 이신 사름은 슬오리로 계역 헤 먹엇고 슬오리 어신 부락은 맥주보리로.

103013 #1 맥주보리 햅여그네 맥주보리 솟창에서 보깡 그래에 골양 소곰이 햅 쫄 놔그네 그냥 물 탕 먹엇주. 설탕 농곡 하간 거 난 먹엇수과, 그때엔?

103013 #2 계난 이 방애공장 난 뎨 기계가 문작햅게 그루 만들어단 먹엇주만은 이 주로 이용한 게 그래주게 그래.

103013 #1 그래에 곶아, 그추룩 꺼끌거끌거끌흔 그래에 곤 그루도 어느 저를에 맛만 좋아그네 여름에는 두어 수까락 그 그루 놔그네 물타그네 밧디 갈 때 먹어도 좋양 햅수다.

103013 #2 보리로 만드는 게 만햅엿주.

103014 @ 보리체로는 뭘로 햅용햅수과?

103014 #1 보리체는 주로 도새기것이우다게. 주로 도새기것. 쉼도 못 쥘 도새기. 집집마다 도새기 햅나두 갠 질루왓주게. 도새기 안 질루민 뒤처리가 문제니까. 사름 뒤처리가 편안햅.

103014 #2 거 도새기 없으면 통지에 냄새냥 어뎡살아.

103014 #1 계난 도새기가 잇어야만 햅난에 햅 집의 햅나 아니민 두 개 경 아니민 햅균으로 햅나는 다 잇어서. 계난 보리꺾테기는 도새기것.

103014 @ 보리냥으로는?

103014 #1 보리냥으로는 뎡감.

103014 #2 걸름으로도 햅곡 뎡감도 햅곡.

103014 #1 저 그걸 헤 주로 밥햅 먹엇수다게. 밥도 햅영 먹곡 정지에 곶곡. 정지에도 곶곡 마당에도 낱예 날래 널젠 햅면은 보리냥, 계난 보리냥을 막 애겨 썬수다, 애겨 썬서.

103014 #2 귀햅 걸로 썬주.

103014 #1 놀영 낱다그네 보리 햅타난 거 놀영 낱다그네, 거세기 지들커 어슨 뎨 것도 햅쫄 빠당 때곡 정지에도 곶곡, 마당에도 곶곡.

103014 #2 보리냥 많은 집은 저 집 부즈엔 햅곡, 보리냥 어신 집은 저디 가난햅 집이엔.

103014 @ 놀 빵 햅구나예?

103014 #2 햅스햅는 사름은 금년에 햅난 보리냥 놀엿다그네, 새보리냥 햅오민 그 우데 놀엿거든. 그 양을 크게 보이게. 경햅니까 보리냥 만이 놀어잇는 집은 부즈 집이다 경햅냓주게.

103014 @ 출덜도 경햅나지 안 햅수과?

103014 #2 예 출은 놀면은 들어 빼영 쉼 맥햅부니깐 금방 어서지지만은 보리냥 은 요눔의거는 오래 가거든.

103014 @ 계면 보리냥으로 밥 햅 먹어난 다음에는 불치 이실 거 아니우파 불치 불치는 뭘로 썬우과?

103014 #1 불치는 밧디 걸름이지.

103014 #2 저 불체로 흐는 게 이른 봄 나면은 지슬 감자엔 흐 게 지슬이주게. 그거 놓젠 흐면은 짝 낄앙 고히양 불체를 짝 흐터낭 씨를 낭 더프면은 그 지슬 잘 들렁 헤떡곡 불체라도 안 놓면은 지슬 들리지 안 흐여. 경 오줌싸도 그레 강 쪽 비 우곡.

103014 #1 게난 우리가 밤에 오광을 해그네 옛날사름덜은 밤에 오광을 해그네 바깳더레 눅질 안 흐여. 딱 오줌싸 오광에. 오과에 오줌 싸민 흐 단지 돼주게 아침 은. 아침은 식귀 한 땐 흐 단지 돼면은 양 그거 불체에 강 다 비웁니다, 불체에 영 봐그네. 불체레 오줌싼 것을 불체에 문딱 제려. 게민 불체가 그추록 겁니다.

103014 @ 옛날 도통에 자릿도새기 나민 물 골른 도통에는 보리낭 던져줘야.

103014 #2 어린 도새기를 자릿도새기라 흐는디 자릿도새길 머해흐젠도 던져쫓 주만은 걸름 팬들젠도 보리낭을 막 던져낫주게.

103014 #1 보리낭도 걸름흐젠.

103014 #2 걸름도 막 욱심부렁 부즈칩이엔 흐면은 백 바리 이백 바리 했거든. 망탱이에 걸름착에 담아그네 쉼 흐나에 싯그는 게 흐 바리거든. 저 걸름착 두 개에 흐 바리니까 백 바리엔 흐면은 이게 이백 개 흐여야 백 바리라. 게난 부재칩은 걸 름도 백 바리 이백 바리 했거든.

103014 @ 저 고시락 고시락으로는 뭘 했수과?

103014 #2 고시락은 주로 캐와.

103014 #1 고시락은 예 고시락도 헤가지고 굴목도 짓곡, 고시락도 캐와그네 불 체걸름도 흐곡. 고시락도 내불지 안 흐영 다 씩니다. 어신 땐 쉼똥 주서오지 못흐영 고시락으로 막 불 땡니다. 고시락으로 굴목도 때곡. 게민 오래가지는 안 흐여도 고 시락으로 굴목 때그네 카가민 와그네 덧담곡 덧담곡, 두 번 담는 것고라 덧담음이 엔 흐여. 덧담곡 덧담곡 흐명 고시락으로 굴목도 짓곡, 또 도새기 통지 ㄱ땐 디도 질면은 그런 디도 끌아주곡.

103014 #2 게난 농사지어난 내부는 게 어섯주게.

103014 #1 예 고시락도 다 필요이서 옛날은 고시락도 내불 것이 어서. 다 걸름 으로 쓰던가 밧에 이것에 이용하던가 어떻흐여그네 흐명 다 필요하게 씩니다, 고시 락도. 내불 것이 어서. 어떻어땡 행보민 경 헤져신게. 그땐 뭇 달마베지 안 흐연게 만은.

103015 @ 그 다음에양 보리농사 지명 기억나는 일이라던가 재미 이섯던 일 이 런거 이시면 흐번 곱아봅서.

103015 #1 나 처음에 시집을 오란에 걸름을 노랭흐난 걸름 안 놔보난 몰르주게. 걸름 안 놔보난 몰르는디 우리 웨삼춘 빌어단에 걸름 놓는 식을 ㄱ르쳐줍셴 흐명으 네. 것도 무신 걸름 거 무신 놓는 식 흐곡 하간, 영영 허데기만, 골로루 허데기만 눈 이신 사름이 허데기만 흐민 돼는거주. 눈으로 보명 흐는 거주 것도 무신 흐여 보명 흐느냐. 영영 흐여그네 영영 흐여그네 영영 흐민 웬다. 그추록 흐명으네 웨삼

춘신디 그거 그처럼 흐멍 배완에. 이거 무신 그 어느 거 걸름 놓는 거 배우곡 하간, 골로루 뿌리기만 흐민, 눈이신 사름이 눈으로 보멍 흐는거주 흐멍 나 그때에 처음으로 배와그네 그거 흐어나고, 걸름 놀 때는.

103015 #2 이제는 저 머 흐여도 이 옛날 스삼사건 직후에는 귀신이엔 흐 게 상당히 머하게 얘기해주게 얘기했는디. 이 보리 갈게 돼면은 그날 저 걸름을 다 못 갈면은 밤에도 실렁 텅겨서. 실렁 텅기는디 췌는, 이 물을 귀신 봐가지고 겁을 내는 디 췌는 겁을 아이넨텐 흐거든 췌도 겁나는거라고. 근디 근디 한 아침새벽 흐 세 시경에 구루마에 걸름을 시건 저 무등이왓이엔 흐는 디 사름 죽어난 동네에 우리 살아나니깐 그 디 밝이난 그걸 꼬성가는디 요 돌드리엔 흐 던 가니까 췌가 갑자기 가지를 안 흐여. 아 이게 걸름을 시켜 가는디 앞더레 꼬서줘야 밝디 강 퍼똥 올 건디, 흘 수 어시 췌석을 고비천 때렸거든. 때리니까 코 숨소리가 췌흐멍 똥을 짝 굴기멍 가더라고 가는디. 아 올라간 퍼똥 완 아버지신디 그런 얘기 흐니까 그디 뭐 잘 난다. 근디 그다음엔 낮의도 췌가 무시데. 근디 화약냄새 나민 저 귀신도 옥황에 올라분텐 말도 헛말이라고.

103015 @ 수고했수다 다음에라그네 조농사에 대해 알아보쿠다.

103015 #2 경흐주머.

조 농사

103016 @ 거민양 그 조농사에 대해서 물어보쿠다. 조농사 그 조농사 흐젠 흐민 머 어떤 걸 준비흐여야 됩니까?

103016 #2 조농사 흐젠 흐민 우선 조 갈 밝을 갈앙 해야지. 갈아 놔그네 놔뒤야 그 흐지 단번에 조농사 못흐여.

103016 #1 초불에 갈아놔 초불에 갈아놔 나뒗당.

103016 #2 갈앙 나뒗당 또 갈멍 갈아놔 좁씨 빼여그네 물로 불려야흐여.

103016 #1 선비.

103016 #2 어 선비로 췌던가.

103016 #1 선비를 낭을 해그네, 저 개광낭 ㄱ튼 그처럼 왕그랑흐 가시돋은 낭들에 흐여그네 선비를 미리 매여그네 이거 영 흐여그네 흐민 영 흐영 선비를 풍채추룩 맨듭니다. 풍채추룩 맨들앙 선비를 맨들아그네 딱딱 저 너 덩으로 얼거. 너덩으로 얼거그네 그 낭 들러지지 못하게 얼경 담을 딱딱 지들랑놔두는 거라, 버쩍하게. 지들랑 놔두민 몰라도 그거 돌 아사내도 그냥 선제추룩 푸채추룩 영 헤지게 낭을 선비를.

103016 #2 그 선비를 저 낭 가지 행 맨드는 거난게.

103016 @ 거난 우선 밝이 잇어야 돼고?

103016 #1 예 밝이 잇서야 돼고.

103016 @ 그 다음에 그 좁씨?

103016 #1 예 좁씨 우선 잇어야 흐고.

103016 @ 그 다음에 선비?
 103016 #1 예 선비.
 103016 @ 그럼 선비는 무슨날로 만듭니까?
 103016 #2 선비는 주로 오래 가게.
 103016 #1 개짱냥.
 103016 #2 저 오래 사용홀라고 저 쓰젠 하는 건디 개짱냥 어시민 아무 날도 웨여 저 풋벌레날도 웨여.
 103016 #1 근디 주로 개짱냥. 개짱냥 선비 함직 함 거 시민 미룻 함여당 놔뒤 거.
 103016 #2 시민 개짱냥 함지만 어시민 뜯 날도 웨여. 가지만 막 벌려진 거민.
 103016 #1 개짱냥은 오래가고 그제 가쟁이 웨그네 안 그러면 저거 함니까 계난 개짱냥을 주로 흡니다, 개짱냥.
 103016 #2 저거 만들민 일 년 쓰는 거난에.
 103016 #1 개짱냥 함여그네 미룻 함여그네 해당 낫다그네 딱 돌로 제경 놔두면 은 버쩍 몰르면은 버쩍 함여그네 함민 고만이 그냥 요영 들러그네. 그거 선비 맨들 아그네 물에나 췌에나 이 멩에 매와그네 저 이레 선비레 돌 시끄곡 함여그네 그걸로 끄섬주게. 씨 함 묻어지게.
 103016 #2 그제 저 선비 끄는 것이.
 103016 #1 골로로 가게.
 103016 #2 이 좁씨가 즐질 안 함여게. 즈니까 그걸 저 미리 함여냥 뿌리는 사름도 잇곡 좁씨 빼여놔가지고 끄는 사름도 잇는다. 조금 뤄한 사름은 선비부떠 끄서 나그네 거 빼어냥 돌로 불러. 계민 골ㄱ루 머함게끔 선비질 함는 거지.
 103017 @ 그저 조팍도 걸름 쥐야지양?
 103017 #1 옛날엔 조팍디 걸름 안 줘수다. 불체 ㄱ뽀든 거나 불체 ㄱ뽀든 거.
 103017 #2 불체나 시면 뿌릴까 몰라 걸름 어서서.
 103017 #1 불체 ㄱ뽀든 거나 함여그네 조가 이 종즈가 영 함여그네 함썰 누릿누릿해가민 불체.
 103017 #2 보리는 통지에 걸름이라고 농곡 조농사는 걸름 불체나 어시민 안 줘서.
 103017 @ 무사 조는 걸름 안 줘신고양?
 103017 #2 어시니까 안 주지 보리갈 걸름도 어신디 조 걸름 놓젠함민 어디 성홀 거라.
 103017 #1 조는 걸름 어서도 어느 정도 조는 웨니까 보리는 걸름 어성 안 웨주만은 조는 걸름 어서도 줘 뿐이주 함지 안 함영 줘 뿐이주 조는 해먹어. 조는 해먹으난에 조는 걸름 어서도 웨여. 계난 영 함여그네 함썰 셔 가면은 황비 지칭. 황비 지칭 노랑해볼어그네 조가 종자로 죽읍니다. 노랑해가민 경 해가민 불체 갖다그네 영영 뿌리면은 또 살아나곡.

103017 #2 그땐 비료가 어서시난게.

103018 @ 거난 조는 언제 갑니까?

103018 #1 유월절. 유월절 전의. 옛날에는 유월절 전의 같았수다. 유월 메칠날? 유월 칠일날? 유월절 박아논 거 아니라 유월절이 그 유월절 전의 같았수다 혼 삼일 전이라도 흐를 전이라도 유월절 전의.

103018 @ 보리 낫당?

103018 #2 예예 보리 낫당.

103018 @ 보리 낫당 조 같지양?

103018 #1 예 보리 낫나그네 보리 그르에 조 같았주게.

103018 @ 계민 조 같젠 흐민 어떻 같았수과?

103018 #2 계난 그거.

103018 #1 번 흐영 낫당.

103018 #2 저 보리 비어난거 저 쟁기로 강 갈양 어푸거든. 번 혼 거라. 번 흐엿 당 보리 낫나면 조 갈 밧은 미리 강 번 흐여야 돼여. 조 농사 흐젠 미리 준비흐는 거라. 경 헛다그네 조 같게 돼면은 또 강으네 또 같아. 또 같민 걸 웨 가느냐 흐면 보리 저 그르도 썩은 그르 저 풀 죽이젠 그걸 같아 어푸는 거거든. 계난 경 헛다그네 두 불 갈양 그때는 예 썩끔 뭐흐 사름은 아까 말흐 그 선비로 초불 그 우의 끄 서냥 썰 빼엿던 그냥 썰 빼여그네 선비질 흐엿던 흐민 이제 저 쉼진 물이건 불려.

103018 #1 지깅 불려.

103018 @ 계난 씨부리기 전의 선비를 끄습니까?

103018 #2 예예.

103018 #1 아니 씨 뿌렁냥도 뿌리고 그 뿌리지 전에도 같고 그 골루게 그 땅을 골루게 흐젠.

103018 @ 계난 두 번 씨를 뿌려마씨?

103018 #2 아니 아니흐번.

103018 @ 계난 밧 같아그네 씨부려그네 선비 끄습니까 아니면?

103018 #2 아니 나말은 이해가 아이 감꾸나 저 쉼을 밧을 같면 울통불통홀 거 아니라게. 경흐면은 저 줍씨는 준준흐 거니까 걸 뿌리면은.

103018 #1 쏘곶더레 다 들어가.

103018 #2 모여지는 수가 잇곡 쏘곶더레 다 들어가불거든. 계난 그게 골루 이 저 가렌 그 선비를 짝 끄서나그네 뿌리면 썩헛헛 데 뿌리면 골루 같 거 아니라 게. 경 흐는 수가 잇곡 막바로 뿌려그네 또 선비질 흐는 사름도 이서. 근디 경흐여 냥 쉼로 불리는 사름이 잇곡 주로 물로 벌렛쥐.

103018 @ 계난 어느 것이 더 좋아마씨?

103018 #2 거 선비 헤여냥 씨 뿌려냥 물로 불리는 게 좋아.

103018 @ 계난 선비흐지 안 흐여그네 씨뿌려난 다음에 선비질흐는 거보다는 선비질 해난 다음에 씨뿌렁 불리는 것이 훨썩 낫다?

103018 #1 계난 데깅 불립니다.

103018 #2 저 이계 흑교 운동장 모양으로 튼튼하게 씩아. 물 발통으로.

103018 #1 조팍은 데깅하게 잘 불려.

103018 #2 에 물 숫자 하민 멧십 므리 집어낱 흐민 데깅해불주.

103018 @ 무사 불밤신고양?

103018 #2 그것이 웨냐면 준준흐 씨 밥지 안 흐면은 큰 비라도 오면 씨가 모이 쳐져불곡 이 뿌리가 보리광 틀려서 이 땅에 백히는 것이 약해여. 블라주면은 튼튼 흐디. 경흐민 죽는 수도 웃곡 저 종자가. 근디 덜 불르면 어 종자가 녹아부런 녹아 부런 영해서. 근디 나오멍 다 죽어버리는 수가 이서. 경흐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흐 영, 저 방지흐젠 저 경 블라난생이라 옛날 어른덜이.

103018 #1 잘 불른 조팍은 종자 나오는 것이 무클무클무클하게 훑고 흐썰 웨염 직하게 나오곡. 잘 불리지 못흐 조팍은 조가 노릿노릿노릿흐여그네예 종자가 황 당 흐여. 종자가 황 당흐곡. 잘 불린 조팍은 흐썰 종자가 흐썰 보록보록 처음에 날 때 도 흐썰 보록보록하게 흐썰 웨염직이 나곡.

103018 #2 거난 저 조 종자가 딱 그 놉으게 나오민 뿌리가 막 약흐는생이라게. 근디 안 블라진 디 거 보민 햇빛이 짱짱 비칠 때는 이견 물라부는생이라. 우에 물 끼 신디깅장 발을 벗지 못흐난. 경흐난 그걸 막기 위흐연에 옛날도 블라난생이라. 계난 잘 블라진 디는 그계 죽는 게 어서.

103018 @ 거난 저 선비 끄슬 때 사름으로 끄습디강 쉼나 물로 끄습디강?

103018 #2 어 쉼 그 밧 갈아난 쉼는 매양.

103018 #1 쉼 바쁘민양 사름으로도 끄습니다. 쉼 바빠그네 밧 갈젠 흐민 그 쉼 머 흐영, 옛날은 쉼가 여러 개, 흐나만으로 밧 같고 선비질 흐고 흐젠 흐민 쉼가 힘 들고 흐민양 조름으로 사름으로 들리가덜 어깨에덜 매그네 나도 끄서나서. 들리가 덜 어깨에 매명양 들리가 동경 끄곡, 경 끄서낱수다게.

103018 #2 계난 쉼로 끄게 크게 맨들아노니까 혼자만은 벗쳐 끄지 못흐주게. 들 리서 끄서.

103018 @ 계난 선비 웃티 돌도 놓을 거 아니우파?

103018 #2 예 돌로 낱. 놼야 짝 끄서질 거난, 쉼쉼흐여지게.

103018 #1 계난 잘 끄젠흐민 돌을 만이 놓곡. 흐썰만 그자 어느 정도 골르젠 흐 민 줍 개법게 흐젠 흐민 흐썰 죽게 놓곡.

103019 @ 줍씨 어떻 뿌립니까?

103019 #2 손으로.

103019 #1 줍씨도 손으로.

103019 @ 계난 손으로도 막 꺾꺾 던져불 순 엇지 안 흐우파.

103019 #1 아니지.

103019 #2 한줌 딱 쉼면은 최소한도로 스물다섯 번 이상을 던져야 잘 뿌린덴 흐여. 이계 잘락잘락 던져불민 막 좃아부러.

103019 #1 스물다섯 번은 열 번만 데껴져도 좋은 거우다 열 번.
 103019 #2 계난 잘 데끼는 사름은.
 103019 #1 여거 흔 줌 췌 거. 영 해그네 착착헝게시리 뿌리민 헝쫌 영 거세기 나가주게.
 103019 #2 거난 이게 던지는 게 스물다섯 번 이상 던지는 사름이 잇곡 열다섯 번 던지는, 열 번 미만에 가면 그건 막 저 좇아그네.
 103019 @ 거난 보통 한 열 번?
 103019 #1 예 보통은 열 번 이상.
 103019 @ 열 번 이상 뿌려야 잘 뿌리는 사름이로구나양?
 103019 #2 계난 으런 트명으로 짝금씩 나간다는 거지.
 103019 @ 계난 손트명으로?
 103019 #2 어어 영헝영 데끼지 안 헝영.
 103019 #1 아니 손 톱으로 나가는 건 아니 손 톱으로 나가는디 영 췌민 일로 나가야지.
 103019 #2 계난 영 췌민 일로 다 나가.
 103019 #1 이거 몰라서 일로 나가는 건 이진 흘쳐부는 거 일로 나가는 건.
 103019 @ 계난 엄지손가락 헝고 요 두 번째 손가락 사이로?
 103019 #1 예 일로 영헝명 일로 영헝명 일로 내쳐야 헝여, 일로. 일로 줍씨로 이녁 손으로 짐작헝명 내쳐야 돼여.
 103019 @ 계난 하트모양 영헝명 헝여야겠네.
 103019 #2 계난 이게 이 사이가 가되지질 안 헝.
 103019 #1 계난 울로 저 줍질아노난 울로 트명으로 하나씩 나가는 때문에.
 103019 #2 계난 이거 아주 줍질아노니까 계난 데겨그네 만이 나가면은 좇앙 못 헤먹어.
 103019 #1 계난 머 헝젠 헝민 손으로 다 골라야 돼여. 좇인 건.
 103020 @ 조팻 붉을 때 어떻 붉읍니까. 아까 말했수다만은?
 103020 #2 조팻 붉을 때 물, 물.
 103020 #1 췌 붉을 때 췌 붉을 때양 이추룩이추룩예 영 사름 막 헝젠 안 헝영 어느 정도 체 요만흔 건 영 헝여그네 이디 선장 하나 영 헝여그네 췌빨을 무꺼 선장 상.
 103020 #2 영 짹 무꺼.
 103020 @ 췌를 계난 어디를 무릅니까?
 103020 #2 빨, 빨. 빨마다 연결시켜 연결.
 103020 #1 빨 영 헝여그네 사름 이끄는 거 이쪽으론 딱시 췌에 새끼를 딱시 빨에 빨을 빨을 영 헝여그네 야가지로 헝명다가 간격 뒤그네 문딱 이어그네 다 무꺼.
 103020 #2 경헝민 짹 돌 때 이게 군대가민 사열헝는 식으로 돌아갈 때도 경 돌 아가고 짹 헝게 뭉쳐져 가질 안 헝여.

103020 #1 경 하여그네 뒤에서는 딱시 쉼 뜨게 걸어가민 몽똥이 하나 들러그네 빨리 글렌 막 때리는 아이나 어른이나 한 사람 뒤에 조치곡 쉼 조름에. 잘 안 가는 건 몽똥이로 막 때리멍.

103020 #2 뒤에 모는 아이가 부지런치기 몰아야지.

103020 #1 계난 이 모는 사람이 지동삼아그네 안 불러진 데는 영 하여 별리멍 안 불러진 쪽더레 영 하여 땅 보멍 지동삼앙 이 사람이 가민 이 사람 조름에 이추 록 행 뒤에 사람 가멍 아이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몽똥이 하나 들러서 막 때리멍 그 사람 조름에 가게끔 막 때리멍 하지게. 계난 돌아난 디 돌아 돌아난 디 돌아 해면 은 직작 불러져.

103020 @ 멧 번 정도 뽀아야?

103020 #2 에이 이견 수정을 셀 수가 없어. 땅만 잘 불러져시민 열 번 해도 낫 내불곡 경 아녀민 스무 번까지도 뽀아야 웨여.

103020 @ 근디 가운데는 잘 뽀아질건디 구석 구석지 안 뽀아진 디.

103020 #1 구석지도 몰아가멍, 쉼 그레 몰리멍 보냅니다게.

103020 #2 계난 그레 막 몰아부찌그네.

103020 #1 예 쉼, 구석지도 다 몰아부찌멍 지동 이 선장 가진 사람이.

103020 @ 잘못하당 담 넘어져볼지 안 하여?

103020 #2 아니 아니 자그네끼리 버치멍서도 절대 담 넘어져볼게 하지 안하여.

103020 #1 쉼덜도 그거 해나난에 다 알암신고라 경 안함니다게.

103020 @ 계난 들로는 안 해봅디가.

103020 #1 무사 들로도 흠주. 들로도 흠니다.

103020 @ 들은 어떻 들은 뽀 어신디 어떻?

103020 #2 들은 하나 제일 선상 메영 그거 하나만 딱 걸리민 뒤에만 사민 그 들 가는 디는 다 가.

103020 #1 경 조름에 사람덜 한 둘리만 더 사그네 선장 가는 더레만 물면은 예

103020 #2 들은 뒤에 모는 사람은 들은 하여야 웨여.

103020 #1 들은 들은 해사 웨여.

103020 @ 계난 쉼보다 물이 말 안 들엄구나.

103020 #2 아니 물이 숫자가 해주게. 쉼은 무꺼지니까.

103020 #1 숫자가 하고, 쉼은 무꺼니난에 하지, 들은 무꺼지 안 함수게. 선장 하나만 무꺼.

103020 #2 쉼은 뽀로 무꺼지니까 허터지지 못하거든. 들은 제일 선상 하나만 석 하지 그 나머진 무꺼질 안 하니까.

103020 @ 무꺼지 안 해도 누가 따라 부뜨는구나예.

103020 #2 응 하나 가는대로만 제일 앞 선발대 가는대로만 가. 물이 영리하여.

103020 #1 선발대 가는대로만 가곡, 경 안하 때문에 사람덜이 뜬 데로 가가민 사람덜이 몰암주게.

103020 #2 계난 물을 경발 때 어러어러어러 나긋나긋 뽕으라 흥명 노래불러가
명 물이 시작흥민 기계식으로 돌아가(웃음).

103020 @ 거 흥번 더 불러봅서 뭘 불러는 거?

103020 #2 어러어러어러 이 물을 가지더라 즈근즈근 뽕아라 어러어러어러어러
어러 영흥여그네 노래불르기시작행.

103020 #1 어러 흥여그네흥곡(웃음).

103020 @ 다음에 흥번 부르랭 흥쿠다양(웃음)?

103020 #2 응.

103021 @ 경 흥고양 그 조팍디 그 검질 아까 보리는 두불 맨덴흥고?

103021 #2 조는 세불깎지도 매여.

103021 @ 세불?

103021 #1 예 세불깎지 조는 세불깎지 매사.

103021 #2 초불 두불 세불.

103021 @ 무사 보리는 두불이고 조는 세불이파?

103021 #2 여름풀이니까 계속 나주게.

103021 #1 계난 예 보리는 영 흥영 몽쳐져도 보리는 흘기로 흥는 거난에.

103021 #2 일 웃고.

103021 #1 조는 몽쳐지면은 조 고고리가 줄야. 계난에 조 고고리틀, 딱 간격을
영 텡. 이만씩 두물게 흥는 사름은 이만씩, 좃게 흥는 사름은 이만씩, 이만씩 간격
을 뒤그네 살립니다게.

103021 @ 계난 초불은 검질 메곡 두불은 스까?

103021 #2 초불에 스끄는 거 초불에.

103021 @ 초불에 조를 스까?

103021 #1 예.

103021 @ 거 스꾼 거는 드문디양 싱거야 뵈 거 아니우파?

103021 #1 싱그는 건 별로고. 싱그는 건 , 둥그는 건 별론디, 하여튼 저 두 개
부튼 것도 흥고 영 좃은 것도 뽕아불곡 검질도 시민 검질도 메곡 조도 메곡 초불은
그추록 흥엿다그네 흥 열 보름 쓰무날만 시민 또 매사 흥니다. 쓰무날만 셔가민 여
름엔.

103021 #2 그때 뵈가민 조도 귀머구리엔 흥여그네 저 이 고고리 안 나오는 병
신 조가 이서.

103021 @ 무슨 병걸린덴 흥다만은 거?

103021 #1 귀머거리조 귀머구리조엔 흥니다.

103021 @ 귀머구리조?

103021 #2 그것도 뽕아불곡 풀도 뽕고.

103021 #1 구머구리조도 뽕곡 풀도 메곡.

103021 @ 그거 무신거 아니우파 ㄹ랏?

103021 #1 아니 ㄹ랏 말고.

103021 #2 아니 고라는 ㅌ로 이서.

103021 #1 ㄹ랏은 ㅌ로 ㅅㅌ ㄹ랏 말고 귀마구리조엔 ㅎ 거 이신디 귀마구리조는 이 우의 ㄷ이 ㄷ어나질 안ㅎ니다게. ㄷ어나질 못ㅎ여 그냥 명구쟁이 저부러.

103021 #2 ㅅ이 크질 못ㅎ여. 그런 거 ㅼㅅ아부러야지 죽지도 아녀곡, 그것이 셔 노민 ㅅㅌ ㅌ물만 ㅼㅅ아떡곡 그 ㅌ ㅌ에 ㅌ해만 주주게.

103021 #1 ㅌ ㅌ 때문에 그런 ㅌ는 ㅼㅅ아불민 ㅌ ㅌ가 ㅌ금 한결ㅎ게. ㅌ는 두물면은 두물수룩 ㅌ가 좋아마씨. 고구리도 ㅎㅼㅅㅅ ㅅㅌ. ㅌ이민 고구리가 즐고 요만큼 ㅅ.

103021 @ 게민 ㅅㅼㅼ릴 때 ㅅ 하영 안 ㅼ리면 ㅅ 거 아니우파.

103021 #2 아 경도 못ㅎ여.

103021 #1 아니 경 ㅎ여도에 안 ㅼ리면은 예 ㅌ가 안 사불면은 것도 문제라마씨, ㅌ가 안 사불민, ㅅ가 안 사불민, ㅌㅅ가 안 사불민.

103021 #2 것도 ㅌ 어신디 ㅌ 그대 당ㅎ영 ㅌ 강 ㅅ ㅼ리면 안 ㅅ거든.

103021 #1 게난 ㅌ아도 ㅌ아그네 ㄷ어 ㅼㅅ아부러도 ㅅ ㅼ릴 때에 골로루 ㅼ러그네 사름 손으로 골르는 거.

103021 @ 게난 초불 때 스ㅌ고?

103021 #2 두불 때도 스ㅌ고 저 귀마구리.

103021 #1 두불 때도 저 아이 메진 것도 ㅼㅌ 그런 빙신조 ㄹㅌ 것도 시민 ㅼ고 ㅌ시 ㄹ랏 ㄹㅌ 것도 ㅅ지민 ㅼ고 세불 때도 세불 때는 ㄹ랏이 잘 나타나 세불 때 가면은.

103021 @ 세불 때가 ㄹ랏.

103021 #1 ㄹ랏은 그거 막 가달 벌겨.

103021 @ 게난 ㅌㅎ고 ㄹ랏 차이점 머ㅅ?

103021 #2 ㄹ랏은 이 ㅌ디가 불룩불룩 대 ㅌ냥으로 튀어나 어릴 때부떠 요정도만 ㅅ가민 가지가 벌겨.

103021 #1 가달 벌겨. 가지 차, 가지 차. 근디 ㅌ는 가지 안 차.

103021 #2 ㅌ는 웨, 하나로 올르는데 ㄹ랏은 막 ㅅ기명 올라.

103021 @ 가지 치명?

103021 #1 예 가지 치명.

103021 #2 경 행 나타나.

103021 @ 아 가지 치명 게난 ㅌ는 하나로 ㅌ 올라가는데 ㄹ랏은 막 가지 치명 올라가?

103021 #1 예 가지 치명 올라가.

103021 @ 나 오닐 처음 배왔네 거?

103021 #1 그거마씨.

103021 @ 예 ㄹ랏ㅎ고?

103021 #1 다 차이 이십입니다.
103021 @ 그저 조 차이점.
103021 #1 조도 저 이 굽으로부터 저 새끼차는 거 어찌다 잇긴 이십니다게. 잇
긴 이서도 조하고 그랏은 보민 딱 알아집니다. 알아져.
103021 @ 그거 이파리는 어느 것이 더 넓어?
103021 #1 조가 더 넓주게.
103021 @ 아 조가 넓어 그랏은 좀 좁고.
103021 #2 근디 어느 정도 웰 뎨 이파리는 구분 못혀.
103021 @ 어느 정도 커야 아는구나양 가지들 쳐야.
103021 #1 두린 때는예 요멘이 혼 때는 잘 몰라. 흐쉴 영 커사 알주.
103022 @ 이 조팍디양 어떤 검질들 나마씨.
103022 #1 조팍디 검질나는 거. 여름 검질덜 뭐 속도 만이 나고 그전에 주로 속
이엿주 절완지 절완지하고 속이 만이 나낫주게.
103022 @ 또.
103022 #1 딱시 어떤 뎨 절완지하고.
103022 #2 푸께냥.
103022 #1 푸께냥도 나고 딱시 저 무신 낭 저 무신 푸께엔 하여 저 개삼동냥도
어떤 뎨 나고 개삼동냥.
103022 @ 저 열매 꺼멍흔 거?
103022 #1 예 열매 꺼멍흔 거 개삼동냥도 씨진 밧은 막 나곡 푸께냥도 나곡 보
쿨도 나곡 풀 종류가 여러 가지주 뭐 풀 종류도 여러 가지라.
103022 @ 곶아줍서게 그거 풀 종류 아는 대로.
103022 #1 풀 종류 보아사 알주 지금 생각냥 곶아지카게.
103022 @ 아니 생각해서.
103022 #1 풀 종류가 저 절완지 보쿨 딱시 이제 저 속.
103022 #2 개미탈.
103022 #1 딱시 이제 그 저 머시야 그거.
103022 #2 고내할미도 나지.
103022 #1 고내할미 고내할미 하영 나.
103022 @ 고내쿨이구나 고내쿨.
103022 #1 고내쿨이 고내할미우다 거.
103022 #2 그건 돌 우의 나뒤도 잘 아이 죽는 거.
103022 #1 예 고내쿨 그거.
103022 #2 탁탁 짤랑 나뒤도 잘 안 죽어.
103022 #1 들모작쿨은 그거 밧디 잘 안 나는 거 건 예염의 나.
103022 #2 하여튼 고내할미는 잘나.
103022 #1 고내할미 여름 질 하영 나는 건 고내할미 속 보쿨 절완지 푸께냥.

103022 #2 또 개삼동냥.

103022 #1 딱시 저 거 곤젠 흥난 모르켜.

103022 @ 나중에랑 골아줍서 생각나면.

103022 #1 예 핫주게 하서.

103023 @ 조 수확 어떻 흥니까?

103023 #2 거 비영으네.

103023 #1 호미로 비영.

103023 #2 거 어느 정도 들르민 무경 저 보리 흥여 오듯이 쉼에 실령도 오고 쳐도 오곡 흥여그네 집의 오면은 고구리 일일이 골르명 호미로 짚랑. 짚랑 들방애 에도 강 장만흥는 수도 잇곡, 마당에서 도깨로 장만흥는 뿔도 잇곡. 또 저 쉼로도 블라나서. 블라난디 경흥디 똥 싸블민 똥 다 묻곡 경 해낫는다. 주루 들방애에 가그네 고구리 틔아다 낱 경 흥여그네 장만흥는 수가 잇곡. 도깨로 때려그네 장만흥는 게 거의 주로쥐. 근디 그르후에 그 기계엔 흥는 게 매타 나니까 틔아낱 매탁에서 장만도 해서.

103024 #1 매타에 장만햇주만 우리는 저 조 혜단에 트단에 들방애, 들방애에서 주로 둥그럿수다, 우리. 클 동안 클 동안 아이 시집은 후에깁지도 아기 멧 개 난 때 깁지도 들방애에서 주로 둥그려서. 들방애에서 저 가그네 둥그려정 문 흥민 또 새로 놔그네 딱시 그거 흥영, 흥영 올라그네 각매기, 조각매기는 조 쓸 조 돌아져난 고구리. 그거는 쉼 양석.

103024 #2 체는 도애지 양석.

103024 #1 딱시 그것에 딱시 고구리 혜나그네 그 혜나민 그건 붕뎡이라고. 붕뎡이 조풍뎡이엔 흥여서 것고라. 그 붕뎡이는 도새기 양석. 조풍뎡이는 도새기 양석. 것고라 조풍뎡이엔 해서. 조 그 각매기 조 흥여네 들방애에 둥그려난에 둥그려난 그건 조각매기. 건 쉼 주고. 경흥고 그것에서 나머지는 저 붕뎡이. 풍뎡이는 저 흥여난 체. 그 체덜은 그건 풍뎡이엔 흥여그네 도새기 양석.

103025 @ 계난 조 장만흥면은 처음 줍쓸.

103025 #1 예 줍쓸 내우는 과정?

103025 @ 줍쓸 나오고 그다음.

103025 #1 계난에 그 붕뎡이 문딱 흥여그네.

103025 @ 계난 들방애에 줍쓸 고르고.

103025 #2 건 내중에.

103025 #1 건 내중에주게 조고구리를 흥여다그네 들방애서 문 흥민 조고구리에 서 조만 빠지는 거주 쓸 빠지는 게 아니주게.

103025 @ 계난.

103025 #1 조만 빠지면은 걸 문딱 푸는체로 퍼. 그걸 딱시 물려 그 조를 벳디 흥 이틀씩 물리와. 그냥 흥지 안 흥영, 흥 이틀 잘 물리면은 들방애도 쉽게 쳐지곡, 잘 물리지 안으면 쓸이 잘 아이 나는 따문에 흥 이틀을 잘 물리왕 조를 잘 물리와

놔그네 그걸 딱시 몰방애에 가그네 또 둥그려.

103025 @ 계난 몰방애 두 번 가야겠네.

103025 #1 예 두 번 강 둥그렁 받은 둥그려지면은 체가 너미 만앙 골로루 아니
지난에 그걸 아사나그네 그걸 또 푸는 체로 퍼 체를 평 아사뒤그네 또 놔.

103025 @ 조를 노는 거?

103025 #1 그 햅여난 거 햅여난 조를 또 놔.

103025 @ 계난 푸는체에 처난 다음에.

103025 #2 계난 안 벗겨진 꺼풀을 벗기젠 햅 거지게.

103025 #1 계난 조를 햅 반더레 영 햅영 노면은 햅 번에 쓸을 판씩 쓸을 나지
안 햅는 따문에 체 따문에. 계난 체를 퍼 뒤그네 새로 또 두불을 노는거라 두불을
놔그네 두불을 저사 그때사 쓸을. 니, 니엔 햅여, 니. 쓸 아이 지어진 것고라 니.

103025 #2 꺾데기 아니 벗겨진 걸 니엔 햅거든.

103025 #1 꺾데기 안 벗겨진 조를 보고 니엔 햅여 니. 니가 햅나씩 영 햅영 뵙
시면은 더 둥그려그네.

103025 #2 그때 걸로 밥햅민 꺾끄렁 못먹주게.

103025 @ 멀로 둥그렁 다시?

103025 #2 그 몰방애.

103025 #1 아니 그 몰방애서 계속 둥그리는 거. 니 안나 니 어시도록. 경햅영
저. 거 문딱 영영 햅영 저지면은 경 햅영 지노렝 햅여도 몰방애서 니가 햅나씩 십
니다게. 니가 셔.

103025 #2 하나씩 이서.

103025 #1 기계에 지는 거 답지 안햅영 니가 이서. 경 햅영 저그네 그걸 딱시
이제 문딱 저그네 집의 오라그네 그걸 퍼. 체를 퍼. 푸는체로 퍼. 불리난 경 햅영뒤
그네 경 햅여사 그게 진짜 쓸이 뵈는 거. 그게 쓸이 뵈면은 그걸로 밥 햅영 딱꼭
아무거라도 햅영.

103025 @ 계난 쓸 나오고 그다음에 풍뎡이?

103025 #1 그건 처음에 조코구리홀 때 햅 것이 풍뎡이고.

103025 #2 푼건 체.

103025 #1 이건 쓸에서 나오는 건 체. 조코구리에서 나온 건 풍뎡이. 쓸에서 나
오는 건 체. 조 체, 조 체.

103025 @ 계난 쓸 다음에 체 그다음에 풍뎡이.

103025 #2 체. 그 다음 풍뎡이. 그 다음 각매기.

103025 #1 각매기는 고구리 돌아져난 것이 각매기, 질 처음. 두 번째는 조 고구
리 햅영 풍뎡이는 각매기 돌아져난 틈에 조 돌아져난 그게 풍뎡이.

103025 #2 쓸 나온 게 체.

103025 #1 응 쓸 나온 것이 체. 체가 쉐 말제.

103025 @ 그다음에 쓸.

103025 #1 그다음에 썰.

103026 @ 좁쌀로 무신 거 만들어 먹었수과?

103026 #2 좁쌀로 만든 거는 하지.

103026 #1 좁쌀론에 시루떡도 옛날에는 시루떡이우다, 좁쌀시루떡. 좁쌀시루떡
 햅영 떡곡 소상 때 식게 때 영장 때고 무신 때고, 좁쌀 물컹다그네 그런 남방애서
 찻곡, 남방애서 멧 사름 햅여그네 찻곡. 그런 들방애에도 강 둥그리고 소상 때는 들
 방애 가그네 좁쌀 물컹다그네 들방애 가그네 저오곡. 식게 때 ㄱ쁜 때는 들방애에
 서 서너 개 찍는 거 거 무신 방애엔 햅느니.

103026 #2 남방애.

103026 #1 남방애. 남방애서 찻곡. 햅영 햅는 건 물ㄱ래 가그네 물로 햅여그네
 ㄱ루내와그네 영장 때 ㄱ쁜 때, 소상 때 ㄱ쁜 땀 저 물ㄱ래 가그네 ㄱ루내오곡.

103026 #2 좁쌀로 햅는 게 해주. 저 조매기 햅여그네 농주도 담양 떡곡.

103026 #1 조로 햅는 건 해주게. 시루떡도 햅곡. 옛날에 웬술 오마기술덜양 오
 마기술덜 그거 참 맛 조아서. 오마기술 햅 때도 그거 좁쌀ㄱ루로 햅여그네 오마기
 술 햅곡. 떡 햅곡. 어디 부주햅영 갈 때도 좁쌀로도 부주 햅영 가곡.

103026 #2 난 오매기술엔 햅 게 거기서 썰 머햅 게 청주엔 햅 게 잇엇거든. 지
 름 동골동골햅게.

103026 @ 질 조은 거.

103026 #2 어응.

103026 @ 청주 그다음에.

103026 #2 그다음 탁배기.

103026 #1 청주 빼난 다음 탁배기주게.

103026 @ 그다음에 저 뭐냐 감주?

103026 #2 감주는 그거 저 웨냐햅면.

103026 @ 보리골로.

103026 #2 보리골 낱 햅는디 근디 그것이 좁쌀이 들어가야 웨여.

103026 @ 게난 보리골 햅고 좁쌀 들어가야.

103026 #1 예예 감주는 좁쌀로 햅여그네.

103026 #2 근디 그것에서 또 옛뜨민 맨들거든. 그거 딸리면 옛 웨거든. 저 감주
 우에서 또 짜 낱으네.

103026 @ 아 거난 저 조로 옛 맹글진 안 햅지 안햅우파?

103026 #1 좁쌀 옛이 무사 으서. 좁쌀옛 맨들주게. 좁쌀로 옛 맨들곡.

103026 @ 난 보리골로만 옛 햅는 줄 알앗수게.

103026 #1 보리골은 우축에. 보리골 안 들어가민 옛 안 웨지게 보리골 햅여그네
 감주 만드야그네 감주 저 보리골 놔그네 좁쌀밥 햅여 놔그네 보리골 놔그네 저서그
 네 그것이 저 메칠 햅 이틀 쉬면은 그거 보약햅게 걸면은 그거 짜놔그네 그걸로 옛
 을 햅는 거주게.

103026 #2 그걸 팔려야 옛 돼는 거.
 103026 #1 그것이 팔려사 옛 돼는 건디 옛이 경 좋읍니다게.
 103026 #2 게난 좁쌀하고 보리골이 합작돼여야 옛이 나오지 안 나와. 감주도 그 령고.
 103026 #1 좁쌀옛은 좋은 거.
 103026 @ 좁팍도 헨 먹어낫지 안하우파?
 103026 #1 아이고 좁팍 행 떡곡말곡.
 103026 #2 좁팍도 흐린 좁팍 모인 좁팍이 잇서. 나룩도 찰나룩, 찰쌀 뒤 잇듯이 조도 흐린 건 찰조, 모인 건 거세기 헤 가지고 두 가지라, 것도.
 103026 #1 흐린 존 검은흐린조, 옛날부터 개바시리라고.
 103026 @ 게난 조 종류 말해봅서.
 103026 #1 조 종류는예 옛날에는 마시리.
 103026 #2 개바시리.
 103026 @ 마시리?
 103026 #1 마시리.
 103026 #2 개바시리엔 혼 게 이서.
 103026 #1 아니 마시리. 옛날부터 잇는 건 마시리. 개바시리는 요 중간에서 나온 것이 개바시리고.
 103026 #2 개바시리는 저 끄트머리가 두 영 가려.
 103026 #1 그건 중간에서 나온 거고 옛날에는예 개바시리 나오지 았은 때는예 우리 아방네는예 맞시리라고. 맞시리엔 혼 조는 보난에양 고구리가양 쫄랑쫄랑 혼 게 이만씩 하게 쟈쟈헿 즐아, 즐아.
 103026 #2 즐아, 즐아.
 103026 #1 막 즐아. 쟈쟈헿 즐아. 이만씩 즐아. 경헿민 맞시리는 그냥 좋지 았은 밧디 막 씨 뿌려그네. 뒤면은 헿여떡곡 아이 뒤면은 쑤주곡 헿젠 그 맞시리를 갈아그네 헿여신디 그 맞시리는 헿여단에 막 헿나헿나 즈난 툷지 못 헿여그네 무 쥌쥌헿게 무껴그네.
 103026 #2 막 도깨로 때려.
 103026 #1 마당에 쭈 헿게 놔그네 그냥 도깨로 두두려 고구리 신디만.
 103026 #2 그 개바시리 낭이건 머이건 그대로 낱 때려서 장만헿여.
 103026 @ 낭도 막 즐구나양?
 103026 #2 예예.
 103026 #1 낭도 막 즐아. 그 맞시리 낭도 막 즐아.
 103026 #2 크지 못헿는 종류라.
 103026 @ 고구리도 즐고 낭도 즐고.
 103026 #1 검질도 그냥 절완지 검질이고 무신거고 ㄱ찌 비여그네 ㄱ찌 무껴다 그네 도깨로 그냥 두두려그네 저 어느 정도 털어져그네.

103026 @ 마시리 그 다음에 개바시리?
103026 #2 예 개바시리.
103026 @ 개바시리는 어떻거우파?
103026 #2 꼬트머리가 두 개로 영 거러.
103026 #1 개바시리는 낭이 막 붙어.
103026 @ 아 낭이 붙어?
103026 #1 응 개바시리는 낭이 붙어. 낭이 붙고 그 꼬트머리가 딱 흐게시리 두 가달이라. 두 가달도 벌리곡 세 가달도 벌리곡. 개바시리가.
103026 #2 제일 꼬트머리가.
103026 #1 개바시리는 이제 흘러온, 이제도 완실 거우다.
103026 @ 그다음에 게민 맞시리 개바시리 그다음에 머가 잇수과?
103026 #2 모인조.
103026 #1 모인조가 잇주게. 노란 거 노랑조, 노랑모인조. 것ㄴ라 노랑모인조 흐 난. 노랑모인조는예 너무 모여.
103026 #2 고구리도 훑어.
103026 #1 고구리도 훑고, 막 모여. 게난 밥도 흐민 막 살락살락흐곡 저 흐린조 는 막 저 흐러그네 노랑줍살은 옛날에 감저 놓곡 흐영 흐 밥은 아으덜 막 실어 흐 엇주게.
103026 #2 노랑모인조가 잇곡 노랑찰조도 이서. 근디 까만흐린조 노랑흐린조 했 거든. 찰조 보고 흐린조엔 해서, 흐린조.
103026 @ 찰조?
103026 #1 이젠 노랑모인조도 싯곡 노랑흐린조도 싯곡 따시 개바시리 잇곡 검은흐린조도 싯곡 처음엔 무신 처음에 나오는 거 ㄴ째 곱아난.
103026 #2 개바시리.
103026 #1 아니 개바시리 말고 그.
103026 @ 맞시리?
103026 #1 맞시리. 맞시리는 이제 어서져부런, 건 어서져부런.
103026 @ 게난 수확량이 어서난 어서져부렀구나.
103026 #1 예예 수확량이 어선 어서져부런. 이젠 조덜도 거의 어서졌수게양. 넘 은혜 산방 두에 조 잘도 조안 하영 갈아선게 늦두룩늦두룩 흐지 안 흐여선게 얼마 나 헤가신고.
103026 #2 건 흐린줄거라.
103026 #1 건 흐린조. 잘도 조안게만은 생이 다 먹어부런.
103026 #2 참새가 뭐 어디서사 연락흐영 가는지.
103027 @ 조짱 머에 사용홉니까?
103027 #2 거 췌.
103027 #1 거 췌출이주게 췌출.

103027 #2 쉼양식 거 잘먹어 쉼.

103027 #1 우선 조찍은 쉼출. 쉼 먹당 막 훑은 거 쉼가 씹어먹지 못햏영 남은 건 쉼 두터레 또꼬망더레 새 대치로 끌고.

103027 #2 계난 햏단 버치니까 그 저 조냥도 써는 거 기계 사당 햏민 요만씩 쫄라지거든 경햏 건 다 먹어. 그냥 저 찰르지 안 햏영 준 건 쉼가 거 찰르지 못햏영 냉기주만은 기계로 찰랑으네 준 건 싹 다 먹어.

103027 @ 거 조냥으로 불 습진 안햏수과?

103027 #2 불도 습주만은 쉼 먹을 게 어신디.

103027 #1 쉼 벅이젠 햏난 불을 경 습지 못햏연마씨, 아까왕.

103027 @ 계난 조냥 쓰는 건 쉼?

103027 #1 예 쉼 먹당 나머지는 언주와당 더러 불도 습주게.

103027 #2 쉼 앞에 가난 다음 불 습으민 습지 거 막바로 불 습을 생각이 없었서.

103027 #1 조도 내불 것이 하나도 어서 조도 생각햏보난 내불 것이 하나도 어신게.

103028 @ 다음에 조농사 지으명 재미잇섯던 일이라든가 기억날 만햏 일?

103028 #2 아니 조농사 지으명 햏는 거 이게 저 여자분덜은 거게 검질 메젠 햏면은 수누름 검질이라 햏가지고 멧 집이 서로 간에 돌아가명 햏는디 짝 앗양 검질 메명 검질 메는 노래 불르명 스뭇 햏는디 즈미 잇서서. 그것이 예 머리서가 돼 가지고 피곤햏 걸 모르는 거라.

103028 #1 거양 어기녀랑사대 햏는 그거 어기녀랑사대 햏는 노래를 불러가민 검질 메지 실뫓다가도 막 잘 메져.

103028 @ 거 햏번만 불러봍서?

103028 #1 그거? 어깃녀랑 사대야 앞 멏에랑 들어나 오라 뒷멏에랑 무너나 나라 어깃녀랑 사대야.

103028 @ 아이 잘 불렵수다. 나중에 그거 다 잘 불려야 됩니다양. 그 다음에 디 잇걸라그네 어햏.

103028 #1 곁으민 알주만은 곁지 안햏 건 멏산디 머.

103028 #2 지금 얘기햏 게 거의 주루.

103028 #1 조کم질 멜 때 재미진 거는 그자 오늘 이 집의 강 메민 내일은 저 집의 돌아가명 열 집이고 열다섯 집이고 쓰무, 돈 쥘 햏 생각은 안 햏고, 그냥 수늘영.

103028 @ 조کم질이 제일 힘들지양?

103028 #1 예 조کم질 계난 여름나민 쉼 날씩 멏수게.

103028 @ 나도 검질 메냏주만은 조کم질ㄱ지는 나도 메냏수다.

103028 #1 아.

103028 @ 가장 검질 중에 쉬운 것이 감져검질.

103028 #1 아 감저검질.

103028 @ 감저검질은 경혀여도 메다그네 감저 이시민 감저 것도 주서 떡곡 경혀명 재미나게 해낫수다만은.

103028 #1 우리 아이덜도 검질 메개혀영 밧디 들앙가민 메끼렌. 메끼면은 이녀 고지만 확확 메여뒤그네 이녀 고지만 메여지민 집의 오꽃하게 오라불곡. 딱시 경아니흔 아인, 우리 큰아들은 그자 나영 ㄱ찌 죽으나 사나 ㄱ찌 메곡, 우리 셋아들썸은 '나 나 멜거만 메똥 가불켜' 이녀 검질만 틀어시 확확 훤은 것만 메여똥 집의 오곡 해나서.

103028 @ 좀 쉬영 ㅎ쿠다.

103028 #1 예(웃음).

콩 농사

103029 @ 거민양 거 이젠 저 콩농사에 대해서 알아보쿠다 우선 그 콩농사 ㅎ젠 ㅎ민 준비할 거 머 잇수과?

103029 #1 콩씨(웃음).

103029 #2 준비 우선 콩씨.

103029 #1 콩씨 ㅎ곡 밧 ㅎ곡.

103029 #2 밧 콩 갈 밧디.

103029 #1 에염 비곡.

103029 #2 에염 비곡. 그 풀 난 거 풀 죽이는 제초제 ㅎ곡 요즘.

103030 @ 콩은 언제 갈아마씨?

103030 #2 콩이 에 양력.

103030 #1 오월 이십일 돼가민 갑주게. 오월 십오일 이십일 돼가민.

103030 #2 하여튼 조금늦어도 ㅎ 이십 칠팔일 ㄱ지는 헤야주.

103030 @ 그 무슨 그루에 갑니까?

103030 #2 보리 그루에도 ㅎ고.

103030 @ 보리 그루에.

103030 #2 근디 요즘은 보리 저 같지 아인 밧은 그냥 놀렷다그네 그냥 ㅎ주게, 그냥 농사 안 지엇당.

103030 @ 계난 밧 ㅎ고 콩씨 ㅎ고?

103030 #2 검질도 비료 준비혀야주게 요즘은 비료덜 낱 헤부난 옛날은 비료 안 ㅎ주만은.

103030 #1 옛날은 비료 안 ㅎ수다. 옛날은.

103030 @ 콩씨 밧 갈아난 다음에.

103030 #2 아니아니.

103030 #1 그냥 생밧디.

103030 @ 생밧디 저 콩씨 뿌련?

103030 #1 예 콩씨 뿌런 감만 흐민 되는 거. 콩씨는데 잘 안 묻어져도 돼여. 그
냥 대강만 쉼로 갈 때는 콩씨 뿌려그네 그자 아싯날 가그네 예염 비곡 예염 비곡
문 흐영 낫다그네 뒷날은 가그네 콩씨만 가정 가그네 빼여그네 감만 흐민 콩은 되
는 거, 옛날은. 이제는 비료 주곡 하간 거 햐주마는 옛날엔 비료 ㄴ쁜 거 콩갈 댜
안 줘낫수다며.

103031 @ 그냥 콩밭 걸름은 엇구나양?

103031 #2 걸름 없어. 이젠 저 비료 남주만은 옛날은 걸름 없어.

103031 #1 옛날엔양 콩씨 빼여그네 콩 갈아그네 콩 걸름 콩 비료 콩걸름비료
갈아그네양 비연, 콩 갈아그네 막 낭 나가시리 걸름비료 걸름 해놔그네 그거 비여
낭 깎아그네 보리 갈았수다. 걸름 콩 비료.

103031 #2 옛날은 흐여 먹을 콩광 걸름콩이엔 흐 게 두 가지라낫거든. 걸름콩이
엔 흐 건 비여냥 보리 갈젠 걸름콩 같고 흐여 먹을 콩은 별도로 구분흐영 갈곡.

103031 #1 걸름콩이 싯곡 흐영 먹는 콩이 싯곡 흐난에 걸름콩은 갈아그네 흐쌀
재게 갈아그네 낭 막 덩방흐게 좋으면은 고량더레 콱콱 비여놔. 그레 보리씨영 흐
여그네 보리 갈민 보리가 좋곡. 그냥 콩은 그저 씨 빼여그네 그자 검질 메곡 씨 빼
여그네 그자 검질만 댜주.

103031 #2 씨빼영 그냥 갈아어푸민 검질만 댜 거. 옛날엔 콩에 약도 안 흐여시
난에.

103031 #1 검질만 메민 되는 거, 콩은. 콩 흐고 풋은 경 해서.

103032 @ 콩씨 어떻 뿌립니까?

103032 #2 콩씨 손으로 빼주 어떻 흐여게.

103032 #1 콩씨 콩썬예 조 ㄴ쁜 건 열 번 쓰무 번 빼주마는양 콩씨는.

103032 #2 콩씨는 두세 번이민 흐 줌예 쉼 거 데껴사.

103032 @ 콩씨는 두세 번?

103032 #2 예 높이 데끼민 착 퍼정 나가주게. 떨어지주게. 떨어지는 거 보고 데
끼는 거난.

103032 #1 착착 눈으로 흰흐게 보이는 거난. 두서너 번 씨빼영 데껴부난.

103032 #2 콩씨는 여러 번 흐줌 갖영 데낄 수가 없어 씨가 골ㄴ루 안 가.

103032 #1 이젠 기계로 햐주마는.

103032 #2 흐 줌 쉼민 두세 번이민 던져야. 알으게 데끼지 말앙 노프게 데끼민
다 떨어지명 다 골ㄴ루 다.

103032 @ 아 거난 줍썬 보름에 불러불카부덴 야트게 뿌리고?

103032 #2 야트게 뿌리곡 여라 번 데껴야 이거.

103032 #1 여라 번.

103032 @ 콩씨는?

103032 #2 두세 번에 던져부러야.

103032 @ 우티 우터레 빼영?

103032 #2 예.

103033 @ 콩밭 검질 몇 번 땀니까?

103033 #2 콩밭 검질도 며 옛날 막상 해봤자 혼 번 아니면 두 번이주.

103033 #1 옛날은 혼 번 아니민 잘 메민 혼 번 아니민 두 번.

103033 #2 콩은 이게 저 이파리로 밑에 그늘 쳐부니까 혼 번만 땀 다음인 콩이 자라기 시작하면 풀이 커질 못하여 커질 못하여.

103033 #1 콩밭은 예 혼 번만 검질 메도 됩니다, 콩밭은.

103033 #2 콩밭은 주로 혼 번이라.

103033 #1 이제는 막 걸리우곡 하는 때문에 두 불덜 막, 혼 번만 검질, 약 했다 그네 검질 메고.

103033 #2 손으로 메지 아녀엄서 요즘.

103033 #1 경흙주마는 전의는 콩검질이나 풋검질이나 혼 번이민 땀엇수다, 혼 번 전원.

103034 @ 콩밭디 검질들 어떤 검질 잇수과?

103034 #2 그것도 주로 거의 숙.

103034 #1 숙.

103034 #2 절완지. 절완지, 푸께냥, 이거 주로라.

103034 #1 조팍디 나는 거 예.

103034 #2 조팍디 나는 거 거의 나.

103034 @ 혼 번 더 곱아줍서. 조팍디 나는 거?

103034 #1 조팍디 나는 거 콩밭디 나는 거 이제 저 잘 죽지 않는 거 머라 거.

103034 #2 고네할미.

103034 #1 어 고네할미. 고네할미 진짜 곳인 거.

103034 #2 고네할미 숙 절완지 푸께냥 저.

103034 #1 보쿨.

103034 #2 저 보쿨 저 개삼동 주루지뒸.

103034 #1 주로 그거. 보쿨 하영 나고. 보쿨 하고 제일 요새 제일 하영 나는 거 보쿨하고 저.

103034 #2 이 게범벌레라게.

103034 #1 게범벌레 범벌레냥.

103034 #2 풀 종류가 하서.

103034 @ 보쿨 하면 어떤 풀인고 마씨?

103034 #1 보쿨. 썩이 똥골똥골혼 건디 낭은 깎늘고.

103034 #2 젠디 씨가 하기를 쟈쟈혼영 씨가 문제 한 거라. 저거 그것이 문제라.

103034 @ 하늘쿨은 안 나낫수광?

103034 #1 하늘쿨 무사 안 낫니까. 하늘쿨도 낫니다. 이제도 하늘쿨 이제도. 하늘쿨이 저 무신 거고라 하늘쿨 하는 거 아니.

103034 @ 천상쿨?
103034 #1 천상쿨.
103034 #2 어 천상쿨.
103034 #1 이제 하영 납니다.
103034 #2 거 콩밭디도 천상쿨 만이 나.
103034 #1 천상쿨 하영 납니다 천상쿨.
103034 @ 여긴 천상쿨이라 흐는구나양?
103034 #1 여긴 천상쿨 여긴 천상쿨.
103034 @ 영 가까운디도 틀리네예?
103034 #1 그딘 하늘쿨이엔 흡니까.
103034 @ 위엔 하늘쿨.
103034 #2 이딘 천상쿨.
103034 #1 천상쿨도 잘 납니다 여름의 하영 납니다.
103034 #2 콩밭디건 뭐 옛날에 조팃디건 천상쿨 나서.
103034 #1 낮주게 천상쿨 낮수다.
103034 @ 거난 고네할미. 우리 동네에서는 고니쿨 고니쿨 흐주. 계난 저 작지
우티 검질 거꾸로 뿌리 하늘에 영 흐여그네 던정내불어도 아 저 죽어가당도 비 오
민 살아나.
103034 #2 옛날도 오죽해서 그거 하영 죽이젠 돌 우트레 흐 줌 흐여단 골갱이
로 딱딱 두드려 때령 막 즐랐거든. 즐란에 밧디레 픽 데경내부니까 그게 다 살앙
더퍼져부렀다는거라.
103034 @ 거난 그거 양 마디마다 마디사이로 빨리가 또 나와?
103034 #1 예 마디마다 마디 글로 문 싹이 나와 무신거 흐민.
103034 #2 계난 믹디믹디 지금 물둥이 역할을 혼다 해가지고 물 담아질 정도거
든.
103034 @ 경흐 거 달마마씨 그 저 마디마다?
103034 #1 고네할미 하늘쿨고라 천상쿨 아.
103034 #2 천상쿨고라 하늘쿨이엔 험구나.
103034 @ 계난 하늘천자 씨그네게 천상이나 하늘이나 마찬가지로 말입주게. 왜냐
면 하늘을 천상이라고 흐영 한자로.
103034 #2 계난 옛날도 하늘쿨이라 헤신가 그레.
103034 @ 예 하늘쿨.
103034 #2 근디 일루 저 목안터렌 천상쿨이엔 흐더라고.
103034 @ 하늘쿨. 하늘은 우리말이고 천상은 저 한째주게?
103034 #2 거난 옛날 어른덜 경 흐니까 천상쿨이라 지어실테지.
103034 @ 예.
103034 #2 계난 고네할미엔 흐 거 저거 그레 무슨 풀?

103034 @ 고니풀.
103034 #2 계난 건 거의 ㄴ뜨네.
103034 @ 예.
103034 #2 고니풀이나 고네할미나.
103034 @ 할미엔 ㅎ네양 여기선.
103034 #1 고네할미 이딘 고네할미.
103034 @ 고니쿨. 계난 쿨이나 풀이나 마찬가지로.
103034 #2 푸께낭은 그레 멋이렌 ㅎ여.
103034 @ 그냥 푸께낭이라 흡니다 거난 저디 강보민 풍처귀엔도 ㅎ여.
103034 #2 개삼동낭도 마찬가지로?
103034 @ 개삼동낭은 확실히 모르쿠다. 계난 우리 그 저 개푸께, 개푸께 ㅎ실 거라.
103034 #2 개푸켄 그 푸께낭 종류가 개푸께가 잇곡.
103034 @ 개푸켄 저 거멍흔 거?
103034 #1 아니 저 색깔이 저 남색.
103034 #2 색깔이 속에 남색이 잇곡 그냥 저 부께낭은 저 똥고랑 ㅎ여 푸께 속에 거세기 모양도 틀려. 개삼동낭 ㅎ고 틀려.
103034 @ 계난 저 옛날 저 이 푸께 타 먹으레 땡겨신디. 저 푸께낭 이신 디 꼭 뭐가 이서. 춤웨스춘 뭐라?
103034 #2 저 간잘귀.
103034 @ 예 간잘귀.
103034 #1 간잘귀.
103034 #2 씨 번지기 시작ㅎ민 관리 못ㅎ여.
103034 @ 쿡밧디 간잘귀도 이서나지 안 ㅎ우파?
103034 #1 아이구 이제도 십니다.
103034 #2 이제도 셔.
103034 #1 우리 오래비네도 올이도 간잘귀 ㅎ 푸대 주서나서.
103034 @ 주성 뭐 흡니까?
103034 #1 씨지카부덴.
103034 #2 씨 끈지젠 게.
103034 @ 아 저 씨 하주게 거?
103034 #1 예 씨 그차, 씨 ㅎ솔이라도 죽게 ㅎ젠. 아이덜 공일날 오란에 주서나지 안 ㅎ여서.
103034 #2 저 영어도시레 가는 디 질 확장ㅎ명 우리 요 질 어염밧 어염에 그거 으라시난에 저 도청 건설국장 왔단 요 귀흔 거 양 이거 멧 십년 만의 봐점수다 봐점수다 ㅎ명.
103034 #1 간잘귀.

103034 #2 예 이거 타당 먹읍서 하 이거 무공해우다양 이거 탕 먹으멍 곶아라
만은.

103034 @ 무공해엔 흐민 다 좋아 흡니다게 간절귀?

103035 @ 콩 수확할 때 어떻 흡니까?

103035 #1 콩 수확할 땐 익으민 호미로 딱딱 꺼경.

103035 @ 꺼끄지양 거 빈텐 안 흐지양?

103035 #1 빈텐 안 흐고 콩은 꺼경.

103035 @ 콩 꺼경 그다음?

103035 #2 도깨로 장만했주게.

103035 #1 그 밧디서라도 멩석이라도 폐와그네 두두리던가. 흐꿈 흐 건.

103035 @ 멀로 두두려?

103035 #2 도깨.

103035 #1 망땡이로도 두두리곡 도깨로도 두두리곡.

103035 @ 경흐영?

103035 #1 경흐영 망땡이로도 두두리곡 도깨로도 두두리곡 문 털어지민 따시
냥은 이펜드레 쳐내뒤그네 각마기도 따로 쳐내뒤그네 그 알멩이 신 딘 그 무신 체
털 신 거.

103035 @ 무신 체로?

103035 #2 그냥 불러 불러 브름에.

103035 @ 얼멩이로도 영 치지 안흡니까?

103035 #1 얼멩이로도 치긴 쳐도 거의 얼멩이로도 치긴 칩니다, 얼멩이로도, 한
사름은 하민 하민 얼멩이도 치주마는 어느 정도는 도깨로 두드령 잘 두드령 초불
두드령 뉘쌍 또 두드령. 초불두드령 뉘쌍 낱 또 두드리곡 흐여그네 문 두드려지민
그냥 만 바깳더레 쳐 내뒤그네 따시 잘 이제 손봐그네 흐 번 더 두드려. 흐 번 더
두드려그네 각매기 문딱 손으로 어느 정도 쳐내뒤그네 보름 쉼 날은 불림만 흐민
뉘는 거.

103035 @ 그 각매기 건 멀로 흐연 썬수과.

103035 #2 쉼.

103035 #1 각매기 쉼출.

103035 #2 콩낭도 쉼출 각매기도 쉼.

103035 @ 그 저 옛날 저 콩낭으로 갈치 쉼 먹어나지 안 흐엿수과?

103035 #1 갈치쉼 먹으민 그추룩 맛 좋아마씨. 자리.

103035 @ 콩낭으로?

103035 #2 콩낭에도 갈치 쉼 먹엇주마는 그거 무신 다 쉼양식 주루주게.

103035 #1 아니 밧디 가그네 콩 두두리레 강 콩 두드리레 가그네 늘고등에라도
흐나 가정 가그네 점심 반찬 어시민 콩 두드려난 것에 그 놘그네 고등어라도 구,
그추룩 맛 좋주게 경 맛 좋아. 경 흐주만은 그추룩 흐 것이 멧 번이나.

103035 #2 근디 이젠 경 구워 먹으면 맛 어시메.
103035 #1 그땐 경 흔 것이 최고 맛 좋았수다.
103035 @ 그 다음 도깨질 흥곡.
103035 #1 도깨로 흥곡 망땡이로 두두리곡.
103035 @ 망땡이로 두두려그네.
103035 #1 도깨로도 두두리곡 망땡이로도 두두리곡 흥여그네 초불 두불 두두려 사주 흥 번만, 콩은 멧 번 두드려사 흥여.
103035 #2 이제 옛날 그 밧전웬 게 맥타로 장만했주게.
103035 #1 멧 번 두드려사 흥여 콩은.
103035 #2 좀 기계화웨니까 맥타로.
103035 @ 그 맥타기로 흥 때가 멧 년대 칠십 년대?
103035 #2 칠십 년.
103035 #1 아니 그르 후에우다.
103035 #2 아니아니 맥타로 흥건디가 내가 보리 맥타가.
103035 #1 보리맥타보단 말제 나왔주게.
103035 #2 콩맥타가 말제 낫는디 칠십 년대 나와서.
103035 #1 아이 칠십 년대 안 나와서.
103036 @ 그 다음에 저 콩 종류 어떤 것들 잇수과?
103036 #2 옛날 거세기는 저 장콩류엔 흥여그네 메주콩 흥곡 푸린콩 흥곡 거세 기 콩늬물콩 여간 했주 무신.
103036 #1 콩 종류는 옛날은 검은 콩도 어서낫수다. 옛날은 푸린콩은 셔나서. 푸린콩 흥고 힌득새기콩 흥곡 푸린콩 흥고 힌득새기콩 흥곡. 딱시 걸름콩 가는 그 런 걸름콩 그런 콩 흥곡.
103036 @ 그 저 조팍 에염에?
103036 #2 아 저 머드레.
103036 #1 머드레콩.
103036 @ 둔비?
103036 #2 둔비, 돛비.
103036 @ 돛비?
103036 #2 응.
103036 #1 근디 조팍되도양 조팍되도 고량마다 콩 낫수다. 머드레콩.
103036 @ 머드레콩 흥민 어떤?
103036 #1 머드레콩 흥 건, 머드레콩도 ㄱ땨 우리 가는 콩인디 조팍 가운데 흥 나씩 가운데 아니고 고량에 고량마다 고량마다 하나씩하나씩 새 띄와그네 요만씩 새 띄와그네 흥나씩흥나씩 노명 흥민양 그디껴 장국 거 흥은 콩 그렇게 심어그네
103036 @ 그저 어디 조팍 사이에?
103036 #1 조팍 그 고량 고량 사이에.

103036 #2 고량 사이에.

103036 #1 옛날에는 쉼로 갈안에 다 고량이 이섯주게. 막 불러부러도 고량 고량이 이셔신디 그 고량사이에 머드레콩 낫수다.

103036 #2 띄엄띄엄 놔.

103036 #1 하나씩 하나씩 흐민양 그 콩이 두물고 흐난 경 잘 올라마씨.

103036 @ 계난 밧 에염엔 돛비 돛비 같고?

103036 #1 돛비나 두불콩이나 돛비.

103036 @ 그 다음에 조팻 사이에는 머드레콩.

103036 #1 예 조팻사이에는 머드레콩.

103036 @ 계난 콩 종류가 아까 돛비도 콩 종류고 돛비.

103036 #1 돛비도 콩 종류고 두불콩도 콩 종류고.

103036 @ 두불콩?

103036 #1 으응.

103036 @ 두불콩 흐민.

103036 #1 두불콩도 에염에 놓는 거.

103036 #2 밧디 돛비 놓는 디 심는 게 이저 훑은 알맹이에 담어진 것이 두불콩이라.

103036 #1 빨강 알맹이 요만한 거 납작납작한 거 두불콩 잇수다.

103036 #2 근디 준 건 팻 종류 비슷한 거 돛비고.

103036 #1 딱시 돛비는 팻추룩 쫄랑쫄랑하고 두불콩은 똥골똥골한 나풀나풀한 거 흐곡 꺾테기도 흐쌀 질지 안 흐영 요만큼씩백이 안 흐곡. 돛비는 요만큼씩도 지는 게 잇주마는 그거는 요만큼씩백이 안 흐곡 동골똥골하여.

103036 @ 계난 돛비는 막 줄 벌은 거 아니우파?

103036 #2 막 줄 벌은 거.

103036 #1 막 줄 벌은 거. 돛비는 막 이디서 저 방까지도 줄 벌어그네 간 때마다 타다그네 깡 먹는거고 두불콩도 경 흐는거.

103036 #2 두불콩도 줄 벌영 올라.

103036 @ 아 경 흐곡 그다음에 독새기콩?

103036 #1 독새기콩 독새기콩 ㄱ똥 건 조팻디 머드레 놓는 거 머드레콩.

103036 #2 거 저 파란 장콩 흐는 거 그 종류 그거나 거의 그거.

103036 #1 계난 흰콩이나 흰콩 머드레콩이나 푸린 독새기콩이나 콩밧디 머드레 놓는 거.

103036 #2 거 장콩 경 심으민 머드레콩이엔 햏주게 그게 장콩이라.

103036 @ 계난 콩 종류 흐면은 이제 정리 흐면은 돛비 두불콩 머드레콩 흰독새기콩.

103036 #1 푸린콩.

103036 @ 거민 나도 옛날 저 밧디 가그네 감저 팡 오곡. 오다그네 돛비 툃앙오

라 하여그네 거 솔마 먹어났수다.

103036 #1 예 경힙니다.

103036 @ 감저 우의 돔비 놔그네 그거 하여그네.

103036 #2 아이 두불콩은 아이 난 솔마 먹어서? 두불콩도 낱 솔마먹엇주.

103036 @ 돔비보다는 나중에 나오지 안 했수과?

103036 #1 에이 옛날부터 나오는 거 두불콩도 옛날옛날부터.

103036 @ 돔비 그거 선 거 하여그네.

103036 #2 아 저 또 콩 종류에 강낭콩도 이서서. 강낭콩이엔 혼 건 그 큰 거 넙 석넙석혼 거.

103036 @ 예 .

103036 #2 그땐 그거도 몰아서 서서.

103036 @ 경흐민 양 콩 가져그네 맨드는 거 하지 안 허우파?

103036 #1 합주게 맨드는 거.

103036 @ 무신 거 맨듭니까?

103036 #1 체제는 두부주게. 아 체제는 장이주게 체제는 장.

103036 #2 장도 담곡. 콩죽도 썬 떡곡. 머 돔부도 맨들아 떡곡. 머 다 했주게.

103036 @ 그 다음 장 맨들고?

103036 #2 글아당 콩국도 헤 떡곡 콩죽도 썬 떡곡 또.

103036 #1 콩국도 헤 떡곡.

103036 #2 두부도 헤 떡곡.

103036 @ 또 그 무신 거 헤 먹엇지양?

103036 #2 뭐.

103036 @ 그 콩지름?

103036 #1 예 콩지름.

103036 #2 콩지름 콩나물낱.

103036 #1 식게 때 콩지름 낱 시루에 시루에 하여그네 콩지름도 헤 떡곡.

103036 #2 그것도 했주.

103036 #1 콩으로 하는 건 핫주뭐 콩 보깡 콩지도 헤 떡곡.

103036 @ 예 콩지.

103036 #1 콩지도 헤 떡곡 콩지 그거 보까그네 장물 파시식 하게 등가그네.

103036 #2 콩지도 헤 먹지만 콩 보깡 그냥도 먹어서게, 보게또에 담양 땡기멍.

103036 #1 원 주루 거세기로 먹는 건 콩지로도 하영 했주게. 밧디 갈 때도 콩지 우선 하여그네 밧디 가져가곡.

103037 @ 콩 그 껍데기 아 콩낭 콩낭 콩쩍 콩낭으로는 뭐했수과?

103037 #1 췌 줏수다.

103037 #2 췌 양식.

103037 #1 다 췌야 물이건 췌야.

103037 #2 물이건 쉼건 집의 길르는 거 거세기는 거 양식이 돼어서.
 103037 @ 다른 건?
 103037 #1 그 콩 껍데기 말고.
 103037 @ 콩낭 콩낭.
 103037 #1 콩낭은 쉼 양식.
 103037 @ 그 태작해난 다음에.
 103037 #1 태작해난 다음에는 쉼 양식. 딱시 그 태작해난 준 거 그 준 것도 다
 흐쓸도 내불지말양 다 쉼 양식. 그 저 각매기 ㄱ든 거. 각매기엔 흐지 각매기 콩각
 매기.
 103037 @ 껍데기양.
 103037 #2 맞추게.
 103037 #1 어 콩 까난 껍데기 각매기.
 103037 @ 각매기?
 103037 #1 콩 각마기도 다 쉼.
 103038 @ 그 콩 농사할 때 얽힌 이야기양 그 콩 농사 지으멍 재미났던 일 잇걸
 량 글아줍서.
 103038 #2 콩검질 메당 누구 베염 문 사름은 어수과.
 103038 #1 재미났던 일을 생각을 잘 못 흐킨게. 콩밭디 흐멍 재미났던 일은.
 103038 @ 콩밭디 일 흐당보민 옛날 저 춤웨 춤웨도 가끔 이서양?
 103038 #1 예 검질 메당보민 춤웨 다 먹을 수 잇수다 콩밭디.
 103038 @ 누게 강 싸분 거?
 103038 #1 예예.
 103038 @ 거 돌아나그네?
 103038 #1 예예예.
 103038 #2 그거 주로 간절기가 핫주.
 103038 @ 예 근디 누게가 싸부런양.
 103038 #1 예예 게메양.
 103038 #2 그건 특수흔 거.
 103038 @ 오늘은 여기까지 흐쿠다 수고했수다.

밭벼 농사

103039 @ 오늘은 그 저 산디농사 산디농사에 대해서 들어보쿠다. 그 산디농사
 흐젠흐민 어떤 것덜 준비헤야 됩니까?
 103039 #2 거도 조 모양으로 저 조 갈때 모양으로 것도 어염 비곡 번 햇당 흐
 여야 돼여.
 103039 @ 거난 씨도 이서야 돼고.
 103039 #2 어 씨.

103039 @ 뭐 곱아줍서.

103039 #2 씨 이서야 튀고, 뜯 거 들어살 거 어서. 조 모양으로 산디도. 뭐 저 보리 같듯이 걸름 낱 하는 거 아니난애.

103039 @ 그 저 산디 흐젠 흐면은 그 산디 저 나룩홀 때 식으로 흡니까?

103039 #1,2 아니 아니아니.

103039 #2 조 갈 때 식으로 그냥.

103039 #1 조 같듯 갑니다.

103039 #2 밧산디는 경백이 못 해주.

103039 #1 조 같듯 갈곡. 조 같듯 불리곡.

103039 #2 그 것도 불리곡.

103039 #1 불리곡.

103040 @ 거난 산디 언제 흡니까?

103040 #2 그것어.

103040 #1 산디는 사 삼월 말광 음력으로 사월 삼월 초 삼월 말광 스월 초. 그 거 쥔 빨리 가는 거, 산디는. 저 보리 홀 때 그거 술가린텐 해주게. 보리 밧 때 그 거 술가려그네 보리영 비여난 다음에는 쫓나면은 산디 검질 우선 메곡. 계난 산디 가 제일 먼저 혼 약 음력으로는 삼월 말광 스월 초에 갑니다 뭐 이제 생각해 보민 경해서.

103040 #2 거난 보리 비기 전에 파종을 하는 거주.

103040 #1 경 하고 씨 빼곡 불리곡 것도. 불리곡 씨 빼곡.

103040 @ 거난 씨 빼어 난 다음에 밧 같지양.

103040 #1 예 씨 빼어 난 다음에 밧 같아. 씨 빼어 난 다음에 밧 같아.

103040 #2 아니.

103040 #1 아니 씨 빼어낭 밧 같아. 씨 빼어낭 밧 같아 산디.

103040 #2 산디?

103040 #1 계. 산디 씨 빼낭 밧 같아.

103040 #2 아니우다게. 산디도 불리는 따문.

103040 #1 계메 불리곡.

103040 #2 번흐민 같아놔그네 씨 뿌려낱 걸 불람주게. 거 보리 같 듯이 씨 빼어 낭 같아불민 산디가 됩니까게 안 돼주. 불리질 못해주게.

103040 #1 경흐가?

103040 @ 경흐민 밧 같아난 다음에 씨 뿌령?

103040 #2 응 씨 뿌령 불려.

103040 #1 선비질 흐여.

103040 #2 선비질 흐여 불려. 이 쉼루건 들루건 불려야 돼여.

103040 #1 야 건디 나도 흐여난 디 하도 오래웨난.

103041 @ 거민 그 저 산디 걸름.

103041 #1 산디 걸름.

103041 @ 걸름 어떻?

103041 #1 산디 걸름 안흐니다. 산디 씨만 빼여. 산디 씨 산디 씨만 빼여. 걸름 안 흐여. 그때는 보리가 걸름 쥐, 옛날은 산디에는 기냥 산디 씨만 데경 흐주.

103041 @ 그 나중에 클 때에는 뭐 비료 그쁜 것 안 줍니까?

103041 #2 에이 그때는 비료가.

103041 #1 비료가 옛 옛날에는 비료가 엇어난 비료도 안 줘서. 씨 씨고 검질 메는 것이 비료라. 검질 검질을 메어 놔두민양 산디가 요만이 흐 거 하나가 거리멍 흐 풀기씩 거려그네양, 흐 풀기씩 거려. 흐나 영 흐 것이 검질만 잘 메민 땅을 복삭 하게 검질만 잘 메민 흐 두 개 두 풀기만 채민 흐 줍씩 거립니다, 산디도. 보리산디엔 흐여그네 옛날 그 흐쓸 보리산디엔 흐 건 흐쓸 산디 중에도 종자가 흐쓸 준 거.

103041 #2 그디 걸름 쓰는 거 이 중간에야 비료 난지 후에 비료를 걸름으로 썬 줘. 그뎐 걸름이 어서난.

103041 #1 게난 검질만 잘 메주민 산디는 검질만 잘 메주민, 산디 검질은 세불씩 맵니다. 검질만 잘 메주민 흐 세 풀기, 세 개만 흐면은 흐 줍씩 뒤편 거립니다, 산디도.

103042 @ 경흐고 그 저 산디 씨 어떻 뿌릅니까?

103042 #2 손으로.

103042 #1 손으로 확확흐게 뿌리주게.

103042 @ 뒤에 답아그네.

103042 #1 멩탱이에 답아그네. 영 흐영 조그만흐 멩탱이가 이서.

103042 #2 멩탱이에 답양 둘러메영.

103042 #1 걸름 멩탱이 아니 씨 뿌리는 씨 멩탱이가 잇섯서. 조고만 흐영 야가기에 톱 흐게 두러메곡. 야가기에 두러메곡 흐여그네 영 흐영 잡아줘서 영 잡아그네 씨 뿌리는 씨 멩탱이가 이서서. 걸 싯멩탱이엔 흐여, 싯멩탱이. 싯멩탱이가 이서. 씨멩탱이에 나뒤서 그 저 뿌리는, 그냥 확확흐게스리 골로로 뿌리는 거.

103042 @ 흐 주먹이민 멩 번 뿌렷수광?

103042 #2 흐 주먹이면은.

103042 #1 네다섯 번.

103042 #2 다섯여섯 번은 나가야쥐.

103042 #1 네다섯 번.

103042 #2 산디는 거리기 때문에 좇이면 못 쓰주게. 이 좇게 나면. 게난 어느 정도 그 뭐 흐젠 흐면은.

103042 #1 검질 멜 때도 막 스파부러.

103042 #2 검질 멜 때도 막 스파불곡 흐 따문 이게 저 번흐여그네 한 주에 씨 뿌릴 때는 훗흐게 나타나 떨어지는 게. 이 어느 정도 좇갓다 두물갓다 흐는 게 다 나타나 씨 떨어지는 거.

103043 @ 검질 산디검질.

103043 #1 응 산디검질.

103043 @ 아까 멧 번 메마썸.

103043 #1 세 번 맵니다, 산디 검질도.

103043 @ 세 번.

103043 #1 예 세불궂지 흡니다. 세불을 메여사 풀기도 잘 앓곡 산디가 좋아마썸. 검질메지 못ㅎ영 두어 번 메는 체 ㅎ영 내분 검질은 산디덜은 좋지 아녀곡, 검질 잘 메그네 잘 손 본 산디덜은 ㅎ 줌, 세 개만 ㅎ민 ㅎ 줌씩 풀기가 앓곡.

103043 #2 세 번 덴다는 게 이게 저 산디가 나록 그 종류라노니까, 나록 스춘이라노니까 처음 씨 빼여가지고 날 때궂지는 이 땅을 뵙아줘노니까 단단ㅎ여 가지고 뿌리를 단단ㅎ게 뿌리 받거든. 뿌리 뵙으면 그 다음 검질 메멍 그너주니까 이제 뿌리에서 뿌리를 거렁 뵙어노면은 그 산디냥이 여러 개로 거려 나오거든 그 거려그네. 게난 그때 당시는 걸름 으서도 비가 자주 와지며은 산디가 좋앗서. 경ㅎ니까 요게 옛날 하르방덜토 그게 머리를 잘 쓴 것 같아. 건디 처음 산디 갈 때는 불려주고 그다음 검질 메멍 그너주니까 물도 잘 스며들고 게난 그게 걸름 대체물로 ㅎ 모양이라 아마도.

103044 @ 산디 밧 그 검질 검질 어떤 검질덜 잇수과?

103044 #1 절완지 절완지가 주로.

103044 #2 절완지는 고네할미.

103044 #1 절완지가 주로 합네다. 여름에는 절완지 ㅎ곡. 절완지, 보콜 그 저 여름 검질덜은 주로 조팍디 나난 검질, 산디밧디도 나곡. 경 흡니다며.

103044 @ 그날 어떻 검질덜 이신 거 자세ㅎ게 곶아줍서.

103044 #1 절완지 ㅎ곡, 고네할미 ㅎ곡 딱시 보콜 ㅎ곡, 딱시 천상쿨. 천상쿨 그거 ㅎ곡, 푸계낭 ㅎ곡 주로 그런 거 만이 납니다, 그런거. 경 ㅎ곡 피가 이서마썸 피. 산디밧된 피가 하.

103044 #2 산디 조으민 산디 스춘이라.

103044 #1 피가 피는예 피가 하면은 그 피가 산디에 서꺼지면은 방해웨도, 피는 열두 번 저도 쓸 아니 난텐 흡주게. 열두 번 저도 쓸 아니 난텐, 겹데기가 열두 불이 싯젠 ㅎ여. 피 알지양?

103044 @ 산디ㅎ고 피 ㅎ고 구분해봅서.

103044 #1 아이구 산디ㅎ구 핏낭은 비슷ㅎ게시리 산디냥 비슷ㅎ고, 고고리는 산디궂궂 산디궂궂 영 ㅎ여그네 궂궂 오름의, 올라오면서도 또 조 줍쓸 달믄니다, 줍쓸 달마. 산디 그 씨는. 줍쓸 달마. 고고리는 비슷ㅎ게 산디추룩 올라오곡 그 그 쏘복에 그 피는 줍쓸을 비슷ㅎ게 줍쓸 조 스춘이라. 조보다 더 즐주게 즐아. 조팍울보다 더 즐아, 그 피가.

103044 @ 커울 때.

103044 #1 커울 때는 잘 몰라. 산디영 푹 궂따부러.

103044 #2 어느 정도.

103044 #1 종자 때 커울 때.

103044 @ 어느 정도 돼여.

103044 #2 하아.

103044 #1 그 종자 요만씩 혼 종자 혼민 얼랑얼랑하게 얼랑얼랑 혼여그네 산디 도 얼랑얼랑 영 혼민 잘 알아지는, 메노렝 혼여도 잘 보지 못혼여그네.

103044 #2 혼 육칠십 센치만 크면은.

103044 #1 아는다.

103044 #2 그렇게만 하면은 대로 알아져. 이 므디, 므디가 생겨 대 모양으로.

103044 #1 어린 때는 잘, 필 때는 어린 때는 몰라.

103044 #2 건디 산디는 므디가 안 생기거든. 피낭은 므디가 생겨. 경혼영 구분 돼여.

103044 #1 경 혼곡 딱시 잘 혼지 못혼 것은 고구리 피여가민 딱시 확실하게 아 나네 그 고구리 피여갈 때 또 메곡.

103044 #2 고 저노무 피 고구리가 조 저 므랏 비스툼혼주. 조 저 그 열매는 조 팡울이나 거의 비슷혼여 웨여.

103044 #1 더 좋아, 더 좋아.

103044 #2 고구리 모양이 틀리쥬.

103044 #1 응 고구리 그 생김새가 고구리 생김새가 산디 비슷혼게시리 나오명 낭도 산 산디초록 나오곡. 혼디 그 쏘복에 그 피 알맹이는 조 비슷혼여. 낭은 산디 달마도.

103044 #2 그노무 피가 열매 껍죽이 열두 껍이라고 말덜 혼디 열두 껍은 아 니라. 아니테 오죽혼여야 그게 거풀 방아져그네 쫄 멘들젠 혼민 어려우니까 그게 열두 거풀 입어다고 혼지만은 재료가 쫄 만들어 먹기가 상당히 어려왔주게. 힘들어 서.

103045 @ 산디 수확 어떻 혼니까?

103045 #1 산디 수확은 예 보리산디 좋으면은 보리 만이 난덴 혼니다. 보리 만 이 나. 수확 막 잘 납니다.

103045 #2 잘 웨게 나는 건 마찬가지로.

103045 @ 여기서 혼 평은 멧 말지기?

103045 #1 여기서는 백오십 평이 혼 말지기주게.

103045 #2 아니.

103045 @ 아 백오십 평?

103045 #2 아니 지금은 헤도 저 옛날에는 저 백이십 평.

103045 #1 옛날은 백이십 평이 혼 말지기고 이제는 백오십 평이 혼 말지긴디. 백이십 평이 혼 말지기라도예 산디 좋으면 열서 말, 혼 섬까지도 납니께. 좋으면.

103045 @ 혼 말지기에.

103045 #1 예 흐 말지기에. 막 산디 수확 잘 합니다게. 보리산디 좋민. 나록 시 더지듯, 나록도 오죽 하영 나는 겨우파게.

103045 #2 자알 웨민 나록밭보다 나록 저레 가라 하여. 저 비기 전의 보면은 그렇게 잘 텔 뎨 잘 웨여.

103045 @ 거 수확 흘 때는 어떻?

103045 #2 것도 호미로 비영게.

103045 #1 호미로 비여 저 거세기.

103045 #2 들리왕 무경. 모양 또 가레기에 훤아. 훤앙 장만하여.

103045 #1 훤아. 보리 훤으는 그 가라기클, 가라기클 말고 저.

103045 #2 저 납상흔 거 잇서.

103045 #1 저 저 것고라 저 정동 그 그집 그것이 야 그것 일름이 신디 일름을 모르켜. 가라기클보다 줌진 것이 잇수다. 췌로 췌로 영 넙짝하게 하여진 것이 이신디.

103045 #2 영 영 첩관으로 만들어진 것.

103045 #1 그걸로 훤읍니다. 보리 훤으듯.

103045 @ 기계클.

103045 #1 기계클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손으로.

103045 #2 아니 그것 기계클.

103045 #1 기계클 아니 그냥 훤아.

103045 #2 저 난 때는 저 흔참.

103045 @ 클이엔 하지 안훤니까? 클.

103045 #1 예 기계클 말고 그냥 저 그냥 손으로 훤앙 그 클에 손으로 훤앙, 훤아그네. 맥주보리 훤으는 가라기클은 슬오리 훤으는 가라기클이고, 췌로 넙짝흔 것은 영 하는 것은 맥주보리클이주게. 게난 맥주보리클로 산디도 훤아야 웨여. 산디도 맥주보리, 저 저 슬오리클론 안 웨여. 기냥 나와부러. 기냥 나와. 맥주보리클로 산디 훤아그네 걸 훤아그네 그것 딱시 막 독개로 두두리나 막개로 두두리나 두두려. 두두려그네 잘 두두려지면은 또 흔번 딱시 영 하여그네 잘 두두려. 우의 것만 두두리지 쏘복엔 안 두두리주게. 게난 쏘복에 걸 막 짓어. 짓어그네 짓어그네 또 두두리고 뒤 번 짓영 두두리민 폭삭하게시리 ㄱ시락이 문딱 꺼꺼지민 그 다 꺼꺼진 다음에는 말제에는 어디 좋은 브름 나는 디 가그네 불털 겨주게.

103045 #2 경하여 자 저 나록을 장만하던 육칠십년 때에 그때에는 이 저 맥타엔 기계가 나오니까 그대로 이 보리도 그렇고 이 맥타로 장만했주게.

103045 #1 옛날 우리 하르방적 옛날 하르방적부떠도 그 훤으고 기추룩 망 하여엔 이제 저 산디도 하고 보리도 하고.

103045 #2 응 저 맥타엔 흐 기계가 나건디가 육칠십년도 웨영 낮지 그 전에 맥타엔 하는 것 어섯주게.

103045 @ 그 여긴 저 나록은 안 텔 것 아니우파.

103045 #1 나룩은 나룩은 논밭디만 나룩이 나는 거고.

103045 @ 물 어시난애?

103045 #1 물 으시난애 나룩은 논 밧디만 나룩이 싯곡. 이견 이견 저 밧디만 흐는 나룩이주게, 산디가. 밧디만 흐는 나룩.

103045 @ 거난 여기서 주로.

103045 #1 예 밧디는.

103045 @ 산디.

103045 #1 산디, 산디. 산디도 흐다그네, 산디도 양 산디 곶량애, 산디 곶량애 풋, 머드레풋이엔 흐여그네 그디.

103045 #2 풋 놔.

103045 #1 머드레 풋을 놓니다, 산디애. 콩은 조팍디 농곡, 콩은 조팍디 흐나씩 흐나씩 곶량애 놔가곡. 풋은 산디밧디 흘 때 곶량애 흐나 각씩 노민양, 옛날은 버랭 이도 경 엇곡 그추록 풋이 잘 올라. 좋아.

103045 #2 산디, 산디 갈명 경 풋 머드레 노는 사름도 잇곡 안 노는 사름은 안 농곡.

103045 #1 우리 어멍네 보민 잘 놔. 게그네 풋 산디 흐기 전의 풋을, 가서 미룻 흐나씩 탕기멍 흐영 저다그네 그거 두두렁 장만흐곡.

103046 @ 경 흐고 산디썰 흐여그네 뭐 뭐흐영 먹읍니까?

103046 #1 산디썰은 예 산디썰을 남방애 옛날은 남방애에 젓수다. 남방애에 지곡, 딱시 들방애, 들방애애, 하민 들방애애 지곡 죽으민 남방애애 지곡. 경흐여그네 임시 식게, 식게라도 흐썰 행 먹젠 흐민, 지지 못흐민 남방애애, 우선 덕석의 널영 흔 말썸이라도 널영 돌리와그네 남방애에서 독독 흐영 정, 어느 정도 저지민 푸는 체로 퍼뒤그네, 또 썰 비와나그네 또 저그네 저그네 딱시 푸곡 흐여그네, 흔 번애 체 셔부난 판쩍 지지 못흐난 게그네 흔 서너 번 저그네 썰을 흐영 그거로, 식게 때만.

103046 #2 그난 먹넨 흐는 게 그게.

103046 #1 식게 때뻬이 안힙니다. 식게 때.

103046 #2 그때 뵤민 그 꼭 그때는 곤썰이엔 흐여그네 거 어려운 썰이니까 이 큰일 제사 때 흐고, 또 특별한 저 손님 온 적애 웨방서, 온 적애나 대접흐젠, 그 춤 곤밥을 했쥐, 그냥 평상시엔 곤밥을 먹지 못했주게. 게난 그게 경흐영 밥은 그렇게 흐영 먹곡, 그게 주루 떡, 또 곤죽이엔 흐여그네 그 죽, 그게 주루. 게난 그게 흔한 그 곡식이 아니라노니까 폐상시엔 못 먹엇주게.

103046 #1 긴디애 그거 곤썰로 흐여그네 우리 할망 하르방 돌아가는 그때 삼 년까지 흐지 아녀엿수과. 삼 년까지 흐민 그 산디 우선 흔 밧을 갈아 소상이영 먹젠 흐민. 게민 산디 가그네 들방애애 강 저당 멧 불 멧 불 저당 흐명애. 그걸로 침떡 흐고 풋 농곡 흐영 침떡 흐곡. 또 그걸로 솔벤 절벤 그 산디썰로 된 힙니다. 오메기 맨들아그네 저 절벤도 그냥 찌근, 오메기 맨들아 찌그네 절벤도 흐곡. 딱시 솔

벤도 하고 그 곤살로 그 집의서 집의서 그처럼 그거 곤살로 문 하곡. 딱시 그 좁쌀
조 진 조카루 하곡 곤살 ㄱ루 하곡 하여그네 그건 저 무신 떡이엔 하느냐 하면은
고달입진떡이엔, 고달입진떡이엔 하여그네.

103046 #2 시루떡이다.

103046 #1 시루떡이다, 고달입진떡이엔 하여그네 반, 삼분에 이는 이는 좁쌀, 삼
분에 일도 못하게 우인 곤살ㄱ루로 하여그네 영 허꺼그네 곤살ㄱ루 우터레 딱시 풋
더꺼그네 하여 하면은 요영 하쌀 해또록 하게 그 곤살 이서마씨, 고달입진떡이라고.
경하면은 그 고달입진떡은 하쌀 저 특수한 디 하쌀 고달입진 곤살ㄱ루 들어간 시루
떡, 시루떡은 하쌀 하쌀 특수한 우의 하쌀 어른덜신디 하쌀 특별하게시리 경한 떡
경 하고. 곤살이 그처럼 어려와십주게. 곤침떡은 양 곤침떡은 그 옛날 시절에 곤침
떡은.

103046 #2 거 먹어보기 어려와주게.

103046 #1 잘도 어려와십주게 어려와서.

103046 @ 거난 그 조 하고 저 산디 하고 하여그네 곤살 하고 반반하여그네.

103046 #1 산디 하고 곤살 하고 하여영은 반반 아녀여. 곤살은 삼분에 일쫘 곤살
ㄱ루는 한 저, 아 좁쌀ㄱ루는 두 두 돼 노민 곤살ㄱ루는, 좁쌀ㄱ루 두 돼 노민 곤살
ㄱ루는 한 돼 정도도 보짜 놔그네 우의만 해또록 하게시리 영 입저그네 그 우터레
딱시 저 풋 슬민 거 풋 슬민 거 거 뻐사그네 것도 체로 쳐 이젠 그냥 온채 남주만
은 옛날엔 풋 슬망 뻐사그네 체로 문 쳐. 쳐그네 붙게시리 하젠. 게그네 영 하여그
네 부뜨지 아녀여 우터레.

103046 #2 계난.

103046 #1 그건 고달입진침떡.

103046 #2 계난 고달입진다 고달입진다 하는 게 이 칭기칭기 해 가지고 이 힌
그 곤살ㄱ루만 우선 놔그 다음 이 저 좁쌀ㄱ루로 웬 거 하여그 다음 풋 낱 이
게 그 칭기칭기 놓는 거지 다 혼합한 거 아니. 계난 에 좁쌀ㄱ루 먼저 하여그 우
의 저 힌쌀ㄱ루로 하면 우의 힌 저 곤살ㄱ루로 저 고달 입히고 또 그 우의 풋 하여
하민 또 풋으로 또 고달 입히는 거난 이거 저 칭기칭기 해그네 맨들단 말이주게.
어 거 세 가질 한 뻐에 막 서꺼가지고 맨드다는 게 아니라.

103046 #1 계. 세 가지 서껍 하는 건 아니.

103047 @ 그 다음에양 그 산디 그 짝으로.

103047 #2 응.

103047 @ 뭘 햇수광?

103047 #1 산디 짝으로 하는 거 해주.

103047 #2 명석도 맨들곡 명석도 맨들곡 저 덕석도 맨들곡 망텅이도 맨들곡.

103047 #1 걸름착이고 무신거고.

103047 #2 응 걸름착이고 뭐이고 걸로 다 엮어주게. 베, 베도 꼬곡.

103047 #1 신 숨양, 초신 숨아그네, 그걸로 저 찍신도 숨안 신곡. 찍신도양 찍신

도 그거 항상 그거 산 산디 찍으로 놀아지민 하르방덜이 베 짜. 그 부근데 그 부근 데 가면 그 부근데 영 잡아그네 부근데 부근데 쳐똥 부근데 쳐똥그네 이만이 무꺼 그네 그걸 물 축축하게 적져 적져그네 초근하게 낫다그네 덩더렁에 막 두두려 덩더 령에 두두리민 그 폭삭흐주게. 폭삭흐민 폭삭흐민 그걸로 저 베 짜, 깎노시롱 하게. 저 이보단 더 깎늘게. 흔하게 옛날 하르방덜은 저것추룩 깎늘게 찻수다, 그 찍으로 도. 산디 찍으로 저렇게 저추룩 저추룩 짜그네 그걸 그걸로 계난 계속 방에 앓앙 놀아지민 명석 좃젠 흐여도양 이 저 명석 좃젠 흐민 그 대가 오죽 하영 됩니까. 계 속 하르방덜 놀아지민 겨울에덜은 그 저 베 꼬는 것이 일이라. 명석도 좃곡, 맹탱이 도 좃곡.

103047 #2 덕석도 좃곡 또 방석도 즐아.

103047 #1 방석도 좃곡 신발 신 신는 것 우선 신 신.

103047 #2 첫째는 예 저 옛날엔 이 고무신 ㄴ쁜 거 귀한 때 찍신이엔 흐영.

103047 #1 예구 다 찍신 다 찍신 다 잘 신엇수다, 나도. 찍신도 곱게시리 잘 습 앙 신는 신은 어디 곱게시리 어디 갈 때나 두껍게시리 곱게시리 곱닥흔 험벅이영 뉘그네 영 흐영 뉘그네 흐명 흔 건 흐곡. 산디 찍으로만 흐여그네 아명 흐영 곱게 해도 곱지 아녀여. 야리곡.

103047 #2 계난 신 습을 때는 이 저 신사라엔 흐는 그 저 풀 종류가 잇주게. 그 게 그걸로 베를 짜. 베를 짱 그걸 신 습는 늘을 흐곡.

103047 #1 늘.

103047 #2 백이는 산디 찍으로 흐곡. 젠디 산디 찍으로 늘 흐영은 그게 메칠 아 이 가그네 신이.

103047 #1 신 흐루에 다 그차져부러주 무신.

103047 #2 다 끈어져부러. 계난 이 저 놀이엔 흔 건 중간에 직 말흐민 신줄이 지. 신줄이엔 흔 건 신사라로. 거로 노 꼬아야지. 경 안 흐영은 신 흐여그네 머 흐 루.

103047 #1 계난 산디 찍 흐영 내불 것이 하나도 어서. 기추룩 흐당 나머지는 그 부삭흔 북탱이 ㄴ쁜 건 쉼 앞더래 깔곡. 불도 습곡. 그 북세미는 북세미엔 흐여 것 고라. 북세미는 쉼 앞더래나 깔고 불이나 습주. 그 북세미는 필, 계난 그 대만 필요 흐주. 계난 그건 경흐여그네 쓰곡. 그 고시락 ㄴ쁜 것도 산뎃고시락은 굴묵 짓곡. 헤 굴묵 지더서 산뎃고시락은. 내불 건 엇곡. 굴묵 지뎃주, 굴묵.

103048 @ 경흐고 그 저 산디농사 지으명 저 재미나던 일.

103048 #1 산디농사 지으명 재미났던 일.

103048 @ 예 잇걸라그네 곱아줍서.

103048 #1 산디 농사 지명 재미났던 일은 산디 농사 지민 산디 농사 우리 처음 에 올라 오란에 묵은동 강 집터에 간에 산디 갈아신디 산디 흐레 간 베려보난에 오 쫓 쉼덜 들언 다 먹어부런. 쉼덜 들언 쉼, 산디밭디 갓단 쉼덜 들언 다 먹어부런 재 미남이랑 마랑. 울멍 울멍 쉼 먹단 나머지 하나씩 주선에 헤 난 것뻬이 기억 안 남

수다. 재미난 기억은 아니 나고. 산디 흐레 간 보난 쉼덜 들언 막 바랑밧 헤부난 머.

103048 @ 그 쉼 임자안티 머 뭐엔 안흐디강.

103048 #1 쉼 임자 알아지민 머엔 흐주만은 양 쉼 먹어불민 그 옛날은 양 쉼 밧디 들영 먹은 거 받아나 무신 거 흐질 안흐니다. 그자 경 먹엇구나.

103048 #2 저 하늘에서 그 먹으라 흐연 먹어부럿젠 헤가지고 거 밧 저.

103048 #1 요즘은 이제덜은 스몫.

103048 #2 쉼 먹은 거 내노렌 소털 흐지 아니 해서.

103048 #1 이제덜은 스몫 쉼먹은 것덜 들어가그네 이제 흐주만은 옛날은 양 쉼 먹어도예 머셴, 쉼 들어서렌 곧긴 곧주게. 우리 밧디 쉼 들어났젠 곧긴 곶아도 저 밧진 안흐니다.

103048 #2 그냥 말로 기자 그거 무는 셴으로 아이고 미안흐우다 영흐민 거로 꾀 했 주.

103048 #1 미안흐다 흐민 건 고마운 사름이고. 밧 이제 줄바로 담 줄바로 다왕 놔두주게 쉼 들지 못 흐게 경흐는 사름도 이서마썸.

103048 #2 그뻘 법이.

103048 #1 쉼 들지 못 흐게 담 잘 다왕 놔두주게 밧 들은 밧 들은 거 쉼 아이 들어 해불민 흐쉴 부애나도 흘 수 어신거 건.

고구마 농사

103049 @ 경흐고 저 이 고구마, 감저, 감저농사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 이 감저농사 흐젠 흐민 준비흐여야 텔 것덜 뭐뭐 잇수광?

103049 #2 감저 메 놔야지 머 우선.

103049 #1 감저 씨를 잘 우선 잘 놔둬야주게.

103049 #2 감저 씨를 잘 보관헸다그네.

103049 #1 감저 씨를 이추록 보관헸다가.

103049 @ 감저 씨 어떻 보관흐니까?

103049 #1 감저 씨양 옛날엔양 이제는 영 흐영 놔두지만 옛날에는 놀레 놀엇주게 밧디. 밧디 구텡이 팡 구텡이 파그네 구텡이 흐쉴 파그네 영 해그네 이레 어욱 세와, 어욱. 어욱이나 경 아녀민 진 새나.

103049 #2 새나.

103049 #1 새난 진 새나.

103049 #2 영 짝이나.

103049 #1 짝이나 새나 영 흐영 세우곡 가운데렌 따시 이만이 득지게시리 그 저 숨통 흐젠 딱 세와그네 이 곳더레 감저덜 비와 슬슬 비와그네 감저 영 비왕 ㄱ 득아 가민양 영 흐여그네.

103049 #2 흑 올려.

103049 #1 영 햏여그네 영 햏영 햏 올려그네 이쪽으로도 영 햏영 더끄멍 이쪽으로 햏 올려곡 이쪽으로 영 햏가느냥 감절 그레 ㄴ득여. 경 요까지 ㄴ득여. 경 햏 낫다그네 중이도 췌미라불지 안 햏곡. 중이 잘 췌미라그네 물 들어그네 잘 췌읍니다게, 계난에. 중이 췌미라불지 안 햏곡 씨가 잘 햏 놔두면은 이저 봄나가면은 이저 봄나가면은 감저씨 요 구텡이로 보민 잘 놔둔 건 뽀족뽀족힙니다, 싹 놔그네. 계민 그때는 그걸 햏싸 구텡이를 햏싸그네. 이제 저 옛날은, 이젠 판이고지로 햏주만은 옛날은 판이부로 햏지 안 햏여서. 그냥 영 햏연에 고티으로 영영 햏연 싱것수다. 이제는 이만이 너븐 고지 햏주만은, 고티으로 햏나씩 햏나씩 햏나씩 감저 싹건 영 햏영 걸름 낄앙. 걸름 고티에 쪽 걸름 낄앙. 걸름 낄아그네 그레 감저 하나씩 하나씩 놔그네 햏 더끄곡. 영햏여그네 걸름 그 낄아그네 경 햏여그네 저 싹 계그네 순이 막 나민 순 나민 순 나가면은 순 나가면은 그걸 막 햏영 길러사 감저를 햏영 심을 거 아니우파. 계민 그레 오췌 갖당 지치고양 오췌 갖당 지치멍 그 줄을 막 잘 나가 옛날은 이제 감저 담지 안 햏영 옛날은 토종 감저덜 줄은 잘 나. 경 햏그네 그거 햏여그네 이제 어느 만이 질루민 어느만이, 이만씩 질주게. 계민 그 싹 세 개 네 개, 싹, 그 싹 네 개 세 개 네 개 돈을 만씩 이만씩 췌라. 이만씩 췌라 이만씩 췌라. 이만씩 췌라그네 이만씩 햏 사름은 감저씨 그 췌르는 사름이 잇서야 돼여. 그 이만이 긴거 경햏민 요만씩 췌라그네 기냥 감저뵤뵤 햏 갈아그네 감저 싱것주게. 계민 햏갈아그네 그냥 췌욱 햏 고지씩 갈앙 감저 싱거. 경햏연 싱것주.

103050 @ 다음에 그 감저 그 감저줄 햏여그네 언제 싱급니까 그거?

103050 #1 유월달에.

103050 @ 유월달에예?

103050 #1 예 유월달에.

103050 @ 유월 유월 장마 때.

103050 #1 예 유월 장마 때.

103050 #2 계난 보리끄르에 주로 심으난게.

103050 #1 응 유월 장마 때 계난 장마에 살리젠. 장마에 살류젠 유월달에 싱급니다. 유월달에 봄에 싱거그네.

103050 #2 봄에 봄에 메 낫당.

103050 #1 메 낫다그네 봄에 메 낫다그네 그때까지 키워그네 장마 때 나면은 싱급니다. 보리끄르에 보리끄르. 보리 비여뵤그네 보리끄르 딱시 번햏영 번햏영 낫다그네 또 갈아그네 두블 갈아그네 감저 심거.

103050 @ 그 감저줄?

103050 #1 응.

103050 @ 그 끈어분 다음에 감저를 머온 힙니까?

103050 #1,2 구감저.

103050 #2 구감.

103050 #1 구감.

103050 @ 거기에 새끼 돌은 감저도 잊지 안으우파.

103050 #1,2 응 가 응 아 아 아.

103050 #1 구감저는 새감.

103050 #2 새감.

103050 #1 구감저 구감저는.

103050 #2 구감저 새감저 흐주기.

103050 #1 구감 구감을 이제 구감을 관직 아녀여그네 오래 흐여그네 대강은 다 썩어불주게 줄 놔나민 썩어부는디 썩지 안 흐여그네 잘 흐연 건 오랜 놔두면 새감이 막 감 새감저도 막 들어. 새감저도 막 들고 그 구감도 딱시 막 부꺼부꺼 커. 막 부꺼부꺼. 게그네 그것도 슬망 먹곡 새감저도 시민.

103050 #2 부끄, 부끈다는 게 이 저.

103050 #1 새 슬 피어그네 그때는 새 슬 핀텐 흐여 새 슬 피여.

103050 #2 새 새 새 슬이 생겨가지고 그 구감 감저 자체가 경 흐여그네 이 쪽 내부가 바빠져부러 이제 그 이제 그 구감이엔 흐는 때광 그노무 게 부껍 저 뭐 흐여그네 새 슬 부꺼불면은 더 탄탄흐 고구마 웨여그네 감저가 웨영 맛이 더 좋아. 예 그 거 부끄기 전이나 흐민 물이나 질질 흐고 머 먹을 게 별루고.

103050 #1 줄만 낭 까차분 때 슬민 때는 줄 막 나불면은 그 물만 질질 낭 먹을 게 어서. 먹을 거 어스는디 오래 놔두민 그 감저가 새 슬 부꺼그네 그 새 슬 부꺼그네 감저가 새 새 맛이 돌아와게 그 구감저가. 경 흐고 딱시 오래 놔두민 두불줄 난 것도 비여그네 또 심그곡. 비어난 다음에 딱시 순 난 것도 내중에 비영 또 심그곡. 게민.

103050 @ 그 감저줄 밧디 저 가야 웰 거 아니짱?

103050 #1 감저줄 저 가야주게 췌에 시경 가곡.

103050 #2 췌에 시경 가곡.

103050 #1 췌에 시끄곡, 지곡. 췌에 시꺼, 췌에 시끄곡 지곡 흐여그네 정 가삼주 게. 게민 그디 가민 집의선 그디 가민 감저줄을 끼차그네 옛날 그 산디 찍으로 산디 찍으로 저 저 무웨미 무웨미가 아니고.

103050 #2 못 못 흐 못 흐 못 흐는 거.

103050 #1 산디 산디 찍으로 흐여그네 무신 것 맨들양 산디 찍으로 그 무신 것 저.

103050 #2 께.

103050 #1 께. 산디 찍으로 께 맨들아그네 멧 못이나 흘 건가 흐영 께 맨들양 가는 거라. 산디 찍으로 께 맨들아그네 밧디 가그네 그 께로 그 무꺼그네 무끈 거 그 산디 그 저 감저 영 흐여그네 줄 끼치는 사름이 어느 정도 끼차지민 심거 흐면 서 툭툭 갖다노면은 심그는 사름은 그냥 아시명 심그곡.

103050 #2 게난 갖다 놓는 게 감저줄 저 놀라 흐주게 놀라 흐민 심글 거세기로 미리 갖다 노렌 말이주. 놀라.

103050 #2 감저 감저줄 저 다 떨어점시메 감저줄 오랑 놀라 흐면은 그 저 감저 줄 졸르는 사름이 그거 흔 단 확 가정 가그네 확 흐게시리 가져가그네 그레 툽툽툽 놔 주민 심그는 사름은 심그곡.

103050 @ 그 저 감저 심그는 날 그때 저 밧갈멍 심그는 거주양.

103050 #1 예 밧갈멍 심그는거주.

103050 @ 남자 어른덜은 밧 갈고?

103050 #1 남잔 밧 갈곡 여자덜은 심그곡.

103050 @ 심그고?

103050 #1 예. 심그곡.

103051 @ 그다음에 그 저 감저 걸름 어떻 마련힙니까?

103051 #1 감저 걸름 잘 놓지 안힙니다. 감저 걸름 안 놔.

103051 #2 걸름 안 놔.

103051 #1 감저 걸름 놓지 아니영 기냥 밧 갈아그네 기냥 고량 고량더레 고량 더레 이렇더레 그냥 심그는 거.

103051 #2 이젠 펜안흐난 흐지.

103051 @ 계난 높은 디가 고량.

103051 #1,2 높은 디는 이렇 이렇.

103051 #2 이렇더레 심거.

103051 #1 높은 디는 이렇 이 고량 갈아난 그 고량 이 고량 이딘 고량 높은 딴 이렇. 계난 이렇엘 감저 심그는 거주게.

103051 #2 이렇을 저 심어야 돼여. 건디 이젠 저 비료 나니까 비료 걸름 뿌령 흐주만 걸름 어서.

103051 #1 전의 지슬 놀 때는 그 불체 노명 흐여도 감저는 아무 것도 아니 놔. 기냥 감저줄만.

103051 #2 경 흐여도 잘 달려.

103052 @ 계난 그 감저 심글 때?

103052 #1 예 심글 때.

103052 @ 그 과정을 흐번에 말해봅서 감저?

103052 #1 감저 심글 때 양 그 감저 심글 때 영 흐면은 감저를 감저를 영 줄 영 흐영 난 거 요만이 흔 줄 아니우파. 이걸 심어그네 툽 흐게 영 흐여그네 툽툽 눌러그네 심경 영 흐영 흑 툽 더끄민 요 요짜더레 또 심글거 아니. 계민 요 이 감저 이 감저 끏트머리광 이 감저 끏트머리영 영 흐게 심급니다, 영, 영 흐썰. 계난 이 끏트머리로는 안 나. 이 끏트머리로만 나는 거난. 이 등체기론 안 나는 거주게. 영 흐면은 영 흐민 앞의 심근 요건 등체기주게. 계난 요거 올론 감저 나고 요거 등체기난 영 흐민 요 감전 감저 아이 들은 거. 요걸로 감저 들어. 경흐 따문 이거 영 이추록 흐명 심급니다. 감저 심글 때.

103052 #2 계난 줄광 줄은 연결흐는 그 상태가 돼는 거주게.

103052 #1 응 영 영 흥영 심거. 영 흥영 심곡. 이 난 처음에는 몰라그네 감전 등체기로 드는 거카부덴 흥난 끄트머리로 감절 드는 거라, 끄트머리로. 끄트머리로 순 나는 디로 감저 드는 거 순 순 안 나는 디는 감저 안 들어. 순 나 끄트머리로 순 나는 건 순 나는 디로 감저 들어.

103053 @ 감저 검질 멧 번 뻘니까.

103053 #1 에 감저 검질은 멧 번 안 뻘니다. 흥 번만 메민 뉘여. 줄 놔그네 탁 더꺼져불민예 흥 번만 메불민 뉘여, 감저 검질은. 감저 검질은. 감저 검질은 흥 번 뻘이 안 뻘니다. 감저 검질은 따시 경 하영 나지도 안힙니다. 거 줄 놔분 다음원.

103054 @ 저 감저 밧디 검질덜 어떤 검질덜 잇수광?

103054 #1 감저 밧디 나는 검질은 예 숙이나 흥고양 숙이나 흥고 절완지나 그런 거뻘인 저.

103054 #2 감저 감저 밧디는 별로 뜯 검질덜 별로 안 나.

103054 #1 절완지 흥고 숙이 제일 만이 나. 감저 갈아난 밧은 양 뒷해까지 저 검질 안 납니다. 감저 파나민양 검질 어십니다.

103054 #2 이 검질 씨가.

103054 #1 감저 줄이 어떻사 흥염신지예 어떻사 흥염신지양 감저 밧디 검질 어서.

103054 @ 감저 줄로 영 막아져부난 경흥거 달마양.

103054 #1,2 예 예.

103054 #2 막아져부난 해 받지 못흥영 다 썩어부는 모양이라.

103054 #1 경 흥염신고라 감저 밧디 감저 밧딘 검질도 멜 것도 흥 번만 메불민 뉘곡, 경 여라 종류 나지도 안 흥곡. 따시 따시 그 말제에라도 검질 그 감저 파난 그르에라도 봄 나도록 검질은 아이 나.

103054 #2 아니 나, 아니 나.

103054 #1 아이 나.

103054 @ 거난 감저 검질 멜 때가 가장 쉽지양.

103054 #1 예. 감저 검질 멜 때가 아주 젤 쉬운 거. 감저 검질은 거 수 웨로 생각힙니다. 뜯 조컴질 그런 것이 스뭇, 감저 검질은 경 흥영 같지도 아니영 아녀주만 은 저 감저 검질은 검질로 생각을 아녀여. 트멍 나민 강 메여그네.

103054 #2 거 감저는 검질 에이 메어도 헤 먹어도 뉘고 흥는디머.

103054 @ 나도 감저 검질 하영 메엇수다 옛날에.

103054 #1 제일 쉬운 감저 검질이주게.

103055 @ 예 빨리빨리 메영가그네 멧 멧에질 강 줌 쉬젠 빨리빨리 메영. 경 흥고 그저 감저 수확 어떻 힙니까?

103055 #1 감저 수확은 예.

103055 #2 수확.

103055 @ 음.

103055 #1 감 감저.

103055 @ 이제 파악할 것 아니잖?

103055 #1 감저 파젠ㅎ민 줄을 걷어야 ㅎ고.

103055 #2 줄을 걷어.

103055 #1 줄을 전원 호미로만 걷었수다게. 호미로. 호미로. 전원 호미로. 아싯날 가그네 아싯날 미룻 미룻 ㅎ 돌리고 서이고도 ㅎ여그네 그 아싯날 가그네 감저 줄을 막 걷어. 경 ㅎ여그네 저 ㅎ ㅎ루쫘 시들황 시들황 내불어. 거 걸음만 ㅎ영. 그 손으로만 이제는 막 하간 걸로 걷는다 그때는 손으로만 걷었주게.

103055 #2 감저 수확할 때는 줄을 걷어낭으네 여 두 가지라. 두 가지로 ㅎ는디에 쉼 쟁기로 한복판 갈앙으네 감저 파는 사름이 잇곡 경 못ㅎ민 손으로 거의 파악돼여.

103055 @ 거난 처음에 감저줄 걷엉?

103055 #1 처음엔 감저줄 걷엉. 처음에 감저줄 걷엉 ㅎ르쫘 이틀쫘 시들황. 이제 사름덜 감저 팔 때 ㅎ쌀 저 수누렁 강. 이웃집의 사름이라도 수누렁 강. 게네 골갱이로 감저를 파는 거라. 감저를 파 파그네. 파그네 멩탱이에도 담곡. 그 머 옛날은 대구푸덴가 무신 푸대에도 담곡. 그추록 ㅎ명 이제 집이 쉼 시꺼왔주, 시꺼와서. 쉼로 시꺼오곡, 세로 시꺼오곡. 경 ㅎ여그네 문영낫당도 먹곡. 그때는 옛날은 문영낫당 먹는 게 주르고 중간에 빼떼기덜 ㅎ여네 풀앗주만은.

103055 #2 게난 옛날에사 경.

103055 #1 응응 옛날에.

103055 #2 감저 심근덴 ㅎ여도 경 하영 심그진 못해주게.

103055 #1 게난 그냥 먹을 거, 옛날옛날은 먹을 거 정도 그저 ㅎ 두 구텡이, 두 구텡이.

103055 #2 감저 썰영 물리우는 게 경 쉽질 아녀주게. 옛날은 경 만치 아니영.

103055 @ 거난 저 그냥 감저 이 머야 저 전분공장에?

103055 #1 그때는 전분공장이 어서.

103055 #2 썩, 썩.

103055 #1 어싯수다 어서.

103055 #2 경 ㅎ여그네 그르후에 중간이주게 중간.

103055 @ 응 응 생감저.

103055 #1 생감저. 그때는 어선 어선. 그냥 감저 빼떼기, 감저 감저 ㅎ여그네 물러그네 빼떼기 맨들앙 낫다그네 물방애 강 뻥사다그네 멩질 저 소상 때 ㄱ튼 때 걸로 감저침떡 ㅎ곡. 감저 썰어놓곡. 감저 기냥 늘 체 거 그냥 구텡이 판 디 거 과당 물어낫다그네 과당 만약에 우리 하르방이 이제 그뻐 삼 년 ㅎ 때난에 소상이고 이제 올리 죽으민 새해 소상 대상 그추록 ㅎ 때라부난에 어느 때 돼민 소상이난 소상해 먹젠 ㅎ민 감저를 잘 묻주게 구텡이 멧 개에 ㅎ여그네 물어낫당 물어놔두고 감저를 물리왕 빼떼기 ㅎ여. 낫다그네 빼떼기를 ㅎ영 빼떼기를 잘 빼떼기 ㅎ영 낫다

그네 그걸 물방에 가면은 ㄹ를 뺏습니다, 빼떼기를. 빼떼기를 뺏사그네 ㄹ루 저 ㄹ루 뺏상 치 저 ㄹ루 치는 체로 치곡. ㄹ루 치는 체로 치곡. 거고 ㄹ루 맨들아그네 이제 그 소상 때 ㄹ뽀 때는 그 감저 ㄹ루로 ㅎ여그네 저 떡 시루떡 저 거세기 저 감저 썰어놓곡 ㅎ여그네 그것 진짜 맛좋은 떡. 게 아녀여그네 ㅈ시 ㅎ금씩 ㅎ금씩 ㅎ금씩 ㅎ는 떡은 그 남방애라도 담양 독독독독 ㅎ게 남방애에 그 감저 떼떼기 뺏사그네 그걸로 조베기도 ㅎ영 떡곡 ㅈ시 영 ㅎ여그네 다데 떡. 그 개떡초록 개떡초록 감저ㄹ루로 개떡초록도 떡곡. 개떡초록 하영 ㅎ영 먹었수다, 그거. 개떡초록 개떡초록 ㅎ여그네 그 집의서 그자 ㅎ끔씩 뺏슨 건 개떡초록도 ㅎ영 떡곡. ㅈ시 감저 범벅도 ㅎ영 떡곡 감저 조베기도 ㅎ영 떡곡. 감저 감저로 시루떡도 ㅎ곡 머 못ㅎ는 것이 셔 머. 감저로도 다 ㅎ여져 다 ㅎ여져. 그거 ㄹ르 물리왕 ㄹ르 내영 ㅎ젠 ㅎ민.

103056 @ 감저 그 보관 때.

103056 #2 보관할 때 아니 그냥.

103056 @ 아까도 말해주마 감저 구덩이에 ㅎ여그네 그거 다시 ㅎ번 말해.

103056 #2 구덩이에 ㅎ영.

103056 #1 아.

103056 #2 감저 그것이 저 땅 파그 파그네 ㅎ는 게 구덩이거든 구덩이면은 어욱나 새나 해당 옆에 쪽 세와. 웨 세우느냐 ㅎ면은 그게 그 감저를 그 안트레 저 놓면은 흑을 그레 들어가지 못 ㅎ게 하기 위해서 거 세우는 거주게. 세우면 이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돼면은 이 저 새건 어욱이건 즉 말ㅎ면.

103056 #1 숨통.

103056 #2 숨쉬 숨통 만드는 걸로 영 무꺼그네 한복판에 영 세와. 감저씨 저 비와 논 한복판 한가운데 세와 또 감저를 비우는거라. 비우멍 이 저 츠침츠침 흑을 옆으로 계속 올려주는 거라. 경 ㅎ여야 이게 즉 말ㅎ면 저 망탱이 모양으로 돼는거주게. 이 망탱이 안에 감저건 뭐이건 담는 식이라 이건. 경 ㅎ여그네 제일 마지막엔 오면은 그 새건 머이건 톱 ㅎ게 이거 숨통굽 이신더레 톱 모두와그네 그걸 씨와. 씨와그네 그 다음엔 머 하느냐 ㅎ면은 비가 와도 그레 침투 아이 ㅎ게 저 노람지 ㅎ영 옆으로 두루는 사름도 잇곡 또 경ㅎ영 새로 영.

103056 #1 새 새로 새로 ㅎ여그네 노람지를 만들어.

103056 #2 경 ㅎ여그네 덮영 놔두면은 이게 항상 이 저 온도가 그 벤 저 벤동 안 돼영 딱 맞아. 맞이면은 온도가 잘 맞을 정도로 경 묻으면은 썩질 아녀고 잘 못 돼면은 그 안에서 썩어부러러가지고 이게.

103056 #1 새로 영.

103056 #2 버릴 때가 많고.

103056 #1 새로 영 ㅎ여그네 둘러그네 그 감저 구덩이 새로 우의 영 ㅎ영 더끄면은 그 주쟁기 새로 ㅎ여그네 주쟁길 잡니다. 주쟁기를 새 ㅎ 못 ㅎ여그네 딱 무꺼그네 주쟁기를 짜. 주쟁기엔 ㅎ여 것고라. 옛날 주쟁기 주쟁기 따 딱 짜와나그네

탁 베르싸그네 탁 각블라그네 영 해그네 영 행 무끄고 영 행 무끄고 햅여그네 이디
것이 탁 벌려지게시리 햅여그네 그 감저 놀 제일 곱대기레.

103056 #2 톡 덮어.

103056 #1 톡 더꺼. 게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렌 절대 비 안 들어가주기. 경
해영 경 햅곡. 경햅여그네 얼마에 혼 번씩 날 좋으민 그 주쟁기로 줌 열아줘.

103056 #2 열아줘.

103056 #1 응 열아줘. 주쟁기를 열아줘야 그 숨이 햅쓸 쉬, 날 좋아그네 거세기
햅민 영 주쟁기를 햅쓸 열아주곡. 경 잘 관리햅면은 썩질 아녀곡 또 관리 잘못 햅
여곡, 중이나 들어그네 막 옆의 쉼미러가곡 해블민 썩곡. 경 햅민 햅나에만 놀지 안
힙니다. 햅영 놀지 안햅여. 저 문 썩어볼카부덴. 햅영 놀민 썩기가 저 하난에. 그 햅
끔씩 햅낌씩 멧 구덩이에 눕니다. 이 햅집의도. 그거 저 빼따기나 쪼끔 햅민 그거
양석으로 그거 양석이영 큰일 때도 쓰고 햅젠 저 햅영 묻읍니다게.

103056 #2 한 군데 그 만이 들어가게 묻영은 온도 조절이 안 돼주.

103056 #1 예 안 돼여. 게난 으라 구덩일 묻어. 으라 구덩일 묻어그네 주쟁기를
경 싸그네 노람지 새로 햅여그네 노람지 둘렀다그네 우의 주쟁기 햅여그네 톡 더끄
곡. 그추록 햅명 햅여그네 관리를 잘 햅면은 썩지를 아녀곡.

103056 #2 주쟁기엔 햅 게 알고 보면 저 페랭이 식이주게. 사름 쓰는 페랭이 식
으로 우터레 썩우는 게.

103056 #1 것고라 주쟁기엔 햅여, 주쟁기.

103056 @ 그 주쟁기 그 노남진 안 햅수광?

103056 #1 노람지.

103056 #2 노람지 햅영 햅여놔 우터레 썩우는거라.

103056 #1 노람 노 노람지는 곳으로 벵 햅게 영 햅영 츄츄 츄츄 츄츄 들렁 요
까지 가면은 요디 구멍 날게 아니우짱양 구멍 나면은 그 우터레 주쟁기 썩우는 거
라.

103056 @ 비 들어가지 못햅게?

103056 #1 예 예 아 비들라 비들지 못햅게.

103056 #2 비들지 못햅게.

103056 #1 예 비들지 못햅고 브름들도 곳인 브름들지 못햅게. 저 쥐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 저 브름 곳인 브름 들어가지 말고 물들지 못햅게 주쟁기로 톡 썩
우는거라 경 씨와블민 톡 막아져블주게. 경 햅난에 요 주쟁기를 혼 얼마에 햅쓸씩
영 햅영 저 열아줍니다, 주쟁기를. 경햅는 거. 경햅영 보관햅는 거.

103057 @ 그다음에 양 그저 감저로 뭘 멩글안 먹엿수광?

103057 #2 감저.

103057 #1 감저 감저로.

103057 #2 감저.

103057 #1 감저, 감저 썰어그네 밥에 낵 밥에도 낵 떡곡 밥에 감저 주로 밥에.

좁쌀에 좁쌀에 보리쌀에 농곡 경 아니면 좁쌀에 감저만 낱 먹어. 옛날 옛날 아기들은 좁쌀에 감저 논 것 제일 굵어 해서. 우리도 좁쌀에 감저 논 거 제일 굵인 밥이라 그거.

103057 #2 감저 썰어낱 범벅도 행 떡곡.

103057 #1 계난 감저 썰어낱 범벅도 행 떡곡. 밥에도 낱 떡곡. 뭐 감저로.

103057 #2 범 범벅 감저 썰어낱 해 먹는 건 모멸.

103057 #1 모멸범벅 감저 썰어낱.

103057 @ 빼떼기도 호고 양?

103057 #1 예 게 빼떼기도 빼떼기도 하영 호여그네 빼떼기도 하 감저가 하면은 빼떼기도 하영 호여그네 ㄹ로 호여그네 경 저 시루떡도 호여그네 큰 소상 때영 대상 때영 시루떡도 행 떡곡. 따시 뭐 다 튀고 그 다 튀, 그 개떡 ㄹ튼 것도 행 떡곡. 범벅도 행 떡곡. 조베기도 행 떡곡.

103057 #2 거.

103057 #1 감저로 못 행 먹는 것이 어섯수다 어서나서.

103057 @ 그 감저로 즈배기도 행 먹어판마씨?

103057 #1 예. 감저 ㄹ르 즈배기 감저 ㄹ르 즈배기.

103057 @ 지슬이 아니고?

103057 #1,2 아니게 감저.

103057 #1 감저 감저 즈배기.

103057 @ 아 거 정 햇수광?

103057 #1 예. 감저로.

103057 #2 감저 ㄹ루로 즈배기 행 먹지만 지슬 ㄹ루로 즈배기 행 먹기 쉬운 거 아니 저거.

103057 #1 계난 감저 ㄹ루 즈배기 잘 옛날에는 감저 ㄹ루 즈배기 잘 행 먹엇수다 범벅.

103057 #2 지슬은 저 지슬 ㄹ루는 이게 맨들라 보지 안 해서 감저 ㄹ루 지주.

103057 @ 거난 감저 구텡이에는 그 씨감저 양.

103057 #2 아 씨감저도.

103057 #1 씨감저도.

103057 #2 기냥.

103057 #1 놔두어 저장소 먹을 것도.

103057 #2 예 양식 먹을 먹을 것도 경 호고.

103057 #1 씨감저도 경 행 놔두곡 그추록 저장해 놔두곡. 그추록 구텡이 호여그네 기추록 행 저장해 놔두곡. 먹을 것도 그추록 호영 저장해 놔둬서 먹젠 기루우민, 먹을 감저는, 싯감저는 거시지 못홀 거고 먹을 감저는 영 호여그네 거세기 호민 그 저 가운데 주쟁기 주쟁기 올라그네 그 가운데로 손 디밀아그네 감저 영 퍼 내여그네 메 개씩 퍼 내영덜 먹읍니께. 주쟁기 행 그 가운데로 꺼내어.

103058 @ 그다음에 감저줄은 뭘.
103058 #1 감저줄 흔 거?
103058 @ 예 감저줄.
103058 #2 췌 췌 췌 양식.
103058 #1 췌 양식.
103058 #2 췌 출게.
103058 #1 췌출. 감저줄은 서양식은 췌 좋은 거. 췌 감저줄만 주민 내불지 아니 그네.
103058 #2 저 물리와그네 딱 하게 저 겨울 췌 양식으로 싸여놓기도 좋곡 감저 줄은.
103058 @ 저 물렁나뭇당양?
103058 #1 예 바삭 물려그네 바삭 물려그네 흔 못씩 흔 못씩 다 무꺼. 이만씩 이만씩 뽕게시리 다 무꺼.
103058 #2 그거 저 빙떡 모양으로 영영 물양 툇 무끄기도 좋곡 감저줄은.
103058 #1 게 무껍쌌다그네 그걸.
103058 #2 물리곡.
103058 #1 췌신디 양념으로 줏주. 뜯 트명에 흔 두어 번씩만 췌. 췌 양념으로.
103058 #2 야 뜯 저 출 주다그네 그걸 가끔 주면은 그렇게 반기주게.
103058 @ 저 췌로 치민 저 곤밥이네 곤밥.
103058 #2 예 곤밥.
103058 #1 곤밥이우다. 곤밥. 저거 사름 치민 곤밥.
103058 #2 저거 하나 버틸 것이 어시, 그 이파리 부서진 거 아올라 다 주서 먹 어분다고 췌는. 그렇게 그걸 곤밥 모양.
103058 #1 바삭 물려그네 행 놔두민.
103058 @ 집의 실러다그네?
103058 #2 예.
103058 #1 예 집의 실러다 낱 놀어. 놀영나뭇당 감저줄 높은 딱로 놀어야주게. 감저줄 높은 딱로 놀어그네 하루 흔 번 췌만 췌 줍주게, 맛 좋게, 감저줄 높은. 췌디 영 해불민.
103058 @ 먹어보지 안읍디가.
103058 #1 감저줄?
103058 @ 응.
103058 #1 감저 그 무신 거 흔젠.
103058 @ 요즘에 막 먹어.
103058 #1 텅구리? 그저 무신 거 이파리? 이파리?
103058 @ 껍데기 영 베껴똥?
103058 #1 예 그 텅구리 영 흔여그네 해똥그네 췌 타다그네 그 텅구리 그거 해

뒤그네 이제 고사리ㄴ찌 이젠 먹엄수게.

103058 @ 그때 안 먹어봤지예?

103058 #1 그땐 아니 먹어봤수다. 그땐 아니 먹어뵤.

103058 @ 이제난 먹엄주.

103058 #1 예 그땐 아니 먹어뵤. 그땐 그런 거 먹는 걸론 알지도 못 흥연.

103058 #2 그거 머 먹을 생각이랑마랑 저 등나물 깨당 먹젠만 머.

103059 @ 그다음에 저 감저 농사 지명 재미났던 일 잇걸랑 말해줍서.

103059 #1 감저 농사 지명 재미났던 일?

103059 @ 저 감저 파명게 주녕이도 영 잡양 떡곡.

103059 #1 아 감저 감저.

103059 #2 옛날 주녕이 받지 아니난에.

103059 #1 옛날은 주녕이 받지 아니난에 주녕이 ㄴ쁜 거.

103059 @ 중간에?

103059 #1 중간엔 주녕이 받았주게. 중간에는 주녕이 바지만 저 그 흥여그네 저 양말더레 영 낫다그네 오랑 풀곡.

103059 #2 중간에도 이 저 올리려 저 지슬 저 비니루 더깁 놔둔 디가 주녕이 하영 나오지 감저뵤보다.

103059 @ 아이고 감저 뵤되도 양?

103059 #1 예 감저 뵤되도 나옵니다.

103059 #2 감저 뵤되도 나오긴 나오주.

103059 @ 돌맹이 영영 흥니까?

103059 #1 예 나옵니다. 감저 뵤되 주녕이 나옵니다. 감저 뵤되 주녕이 나와도 감, 그 저 감저 뵤되는 주녕이 나와 잡곡, 그런 것사 해십주게. 건디 난 감저 뵤되 제일로 그때 감저 뵤되 모스운 건 풋버랭이. 감저 뵤되 풋버랭이.

103059 @ 하하.

103059 #1 그것만이 모스운 것이 어서나서. 그거 감저 뵤되 감저 뵤되 가민 그 풋버랭이만 어시민 감저 보고 살아지주게. 감저 뵤되 풋버랭이는.

103059 #2 그것도 어릴 땐 그 감저 뵤 강, 늪의 뵤 강 오비어다그네 저 도둑질 해당, 똥 주서다 놔다그네 꿩도 떡곡.

103059 #1 게. 우린 그추룩은 아녀뵤주만은.

103059 #2 이 스나이덜은 쉼 뵤이레 강 그 장난덜을 잘 했주게. 쉼 뵤이, 이 출 먹는 거 보명 감저 강 오비어다그네 쉼똥 ㄴ쁜 거 주서당 불 피와그네 그레 짚영 내불민.

103059 @ 감저 꿩 먹는 거양?

103059 #2 예.

103059 #1 감저.

103059 #2 또 경도 흥곡. 저 깡통, 큰 깡통 해그네 툭툭 고망 툭랑 끈 돌아그네

그래 똥 놔그네 감저 이거 영영 흔들어 가민 연기 팍 팍 불고 그 자연적으로 감저 귀져. 경 흐영 떡곡.

103059 @ 감저 도둑질은 안 해 봅디가?

103059 #2 예.

103059 @ 감저 밧디 강.

103059 #2 아 도둑질은 이 저 아까 곧듯이 어디 썩 먹는 거나 멧 개씩 흐취 집 의 ㄱ정 오는 거 아니라.

103059 @ 우리 학교 흘 뎨양 학교 갖다오당 막 배 고프민 영 감저밧 이시면은

103059 #1 아 그때덜 경 했주.

103059 #2 아아 하나 판.

103059 @ 그때 하나 태역밧 우의 막 밀어그네?

103059 #1 아아 그거.

103059 #2 그거 아무 때도 잇수다.

103059 #1 그거 경흐지 아녀도, 전의도 그거 넘어가당 감저 배옥 흐게시리 땅 벌러져시민 땅 벌러진 디 톱 흐게 감저 흐나 파다그네 에염의 태역에라도 박박 썰 어그네 떡어낫주게. 그거 경은 흡니다게.

103059 #2 그거 아무 제도 마차가지주게.

103059 #1 그거 경은 해나고.

103059 @ 거 수고했수다 또 쉬엇당 흐쿠다.

기타 농사

103060 @ 예 밧일 허쿠다예.

103060 #1 예.

103060 #2 밧일?

103060 @ 이젠양 그 저 앞의서 머 알아봐신디 이제 저 수박농사 수박농사 해낫 지양?

103060 #1 수박 농사 이디 잘 안흡니다.

103060 @ 게민 그 안 흐더라도 수박 농사에 대해서 흐번 말해줍서.

103060 #1 아 수박 수박농사는 잘 해보진 아네신디양 수박을 잘 알지 못흐영. 수박은 잘 몰라 잘 몰르는데 수박 순 따레 흐번 가 봐신디. 저 수원 수박 순 따레 가 봐신디. 흐는 것 베려보난에 순 나는 것 흐 흐 줄만 냉경 옆의 어느 정도 이만 이 따로 흐 거, 이 이 짝을 순난 걸 다 찰라봅디다. 다 찰라 톱톱톱 그 무슨 ㄱ새 로 흐연에 순 나는 것 톱톱 찰라 다 찰라. 어느 정도 큰 다음엔 이제 멧 가달만 살 리는 거라. 흐 두 가달 아니민 세 가달만 영 살련에 기냥 가는 겁디다. 경흐디양 그 수박에 대한 거 잘 몰라, 수박에 대한 거. 그추록 순 따고 딱시 바닥에 보리냥 깔아 그네 보리냥 깔아그네 땅에 그 줄 부뜨지 아이흐게 줄 부뜨지 이이흐게 보리냥 그 자 수박밧디 보리냥 깔고 보리냥 깔곡 밑에 줄은 다 찰라그네 흐 서너 개 영 흐트

머리레 영 흥영 받은 이편더레 가그네 흥 세 가달, 두 개나 시 개나 정도만 저 살려그네 그건 계속 살리곡. 나머지 불리 나는 순은 쫄라불곡. 딱시 수박에 딱시 올만큼만 온 다음엔 것도 쫄라불디다. 멧 개 올면은 그 다음부터는 쫄라부는 거라. 그저 다시 열지 못하게. 그 수박 크게 허젠 경흥는 정도는 알아집니다만은.

103061 @ 경흥면 춤웨 춤웨 갈아봅디가.

103061 #1 아 춤웨도 갈아보지 아녀신디 춤웨는.

103061 @ 춤웨 잘 모르민 저 물웨라도?

103061 #1 아 물웨사게 들어 갈앙 먹는 거난에.

103061 #2 춤웨나 물웨나 거의.

103061 #1 거의 ㄴ쁜 거.

103061 @ 경흥민 물웨에 흥번 곶아줍서.

103061 #1 성대 아방 잘 한 잘 곶아.

103061 #2 거디 저 저저가 잘 알아.

103061 #1 에헤헤 물 물웨는 저 이제 봄 어 허 유월 육 흥 오월 때에나 싱글 건가. 오월말 썸에 싱글 건가. 물웨 오월말 유월초에 싱글거라.

103061 #2 예. 경 웰 거우다.

103061 #1 예 경 싱거. 경 행 싱그민 영 흥여그네 그 구텡이, 그전의는 구텡이를 낫수다. 구텡이를 구텡이엔 흥 거는 영 영 흥여그네 영 흥썰썰 동골락 동골락 흥게 파그네, 그자 가운데 흥 복삭흥게시리 이디 걸름 농곡. 걸름 농곡 흥여그네양 흥썰 봉오롯 흥게시리 흥영 봉오롯 흥게시리 흥여그네 씨를 그레 흥 세 개나 영 하 영 찢르민 나쁜 걸랑 뽑아불렌 다섯 개, 세 개 다섯 개 정도만 찢러그네 영 흥여그네. 이제 저 순이 저 우터레 흥 얼마 웨영 올라오민, 올라오민 웨염직 흥 것은 살류곡, 그디서 좀 나쁘게 나온 것덜은 뽑고 흥여그네, 구텡이 흥나에 세 개 정도만 살려마썸. 구텡이 흥나에 세 개정도만 살리와그네 에 그것이 저 경흥영 사려그네 막 줄 번어가면은 혈꽃도 막 피곡 흥주게. 혈꽃도 막 피고 해도 혈꽃 피영, 혈꽃 피영 떨어지곡, 혈꽃 피영 떨어지곡 해도 물웨는 질 쉬운 거. 그자 들어 요라가는 양 요라 요라가나 동메여 가는 양 타 먹곡 타불민 또 동메곡. 동메곡 흥명 줄 번어가는 양 줄만 죽지 안이영 살곡 막 오래 먹어집니다, 거. 거 칠월까지라도 먹어져.

103061 #2 제일 쉬운 게 물웨주. 저 다정흥 게. 게난 저게 그 아까 곶앗주만 굳 흥여그네 씨를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썸더라 해도 게난 이건 뿌리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하나씩 썸아야.

103061 #1 꼭꼭 찢러야.

103061 #2 경흥여야 흥는다.

103061 #1 츠레로.

103061 #2 에 성냥개비 잇자나 성냥개비 성냥쌀 그거 높이보다 약간 더 커면은 거기 숫자를 어 이게 두 개 냉기느냐 세 개 냉기느냐 해서 뽑아부러, 그 나머지는. 그 성냥까지 기러기 정도만 크면. 게면 그게 그 다음부터는 이거 물웨는 손볼 게

업서. 겐디 춤웨도 간옥 춤웨는 보니까 순을 멧 개 찰라줘야 흐는 생이라.

103061 #1 순 딱다. 순 딱다.

103061 #2 겐디 수박도 그러고. 수박도 이제 농사는 안 지어 봐시디 수박도 한 줄에 이 뿌리 수확 한 줄에 멧 개 당기느냐 흐는 게 잇는 모양이라. 크게 맨들젠 흐면은 둘 아니면 하나 냉겨. 주로 겐디 그 이상 그 열매 메 저 동메는 걸 냉기면은 수박이 굳지 아니여, 크지 아니여.

103061 #1 줄 하나에 하나 수박도. 줄 하나에 해사 커.

103061 #2 그 마지막 끝에 그 동메는, 마지막 끝에는 요걸로 더 이상 열지 못하게 흐겟다 흐면은 에 다섯 이파리뻬이는 절단시켜부러 그 끄트머리는. 더 자라지 못하게. 게민 그 힘이 그 저 수박열매레 간다는 거지. 제일 쉬운 게 물웨.

103061 @ 물웨 흐젠 흐민 씨가 이서야 웰 거 아니우파.

103061 #2 씨는 에 저기 저 종묘사에서도 푸는 디 잇주만 흐번 저 물웨 집의 심어 나면은 그게 씨 흘 것 멧 개 냉겨 내불어. 냉겨 내불면은 노랑게 익으면은 그 걸 따그네 저.

103061 #1 수까락으로.

103061 #2 반착 딱 쪼개면은 두 개로 갈라질 거 아니야. 갈라지면은 수까락으로 이 저.

103061 #1 글경.

103061 #2 글거그네 머 그릇에 낱 나누면 부각이.

103061 #1 줌 썩어, 썩혀.

103061 #2 썰여. 줌 썩여. 썩이면은 씨 씨는 안 썩고 그 씨에 부떠단 거는 다 썩어불거든. 썩으면은 그걸 시더. 시더그네 그걸 체에건 머이건 거 하면은 씨는 안 빠지고 썩은 건 다 빠져불거 아니. 경흐면은 플리와그네 나뒹당 그 것도 종자흐는 거주. 씨영.

103061 @ 게난 집이서?

103061 #2 영.

103061 @ 종자를 멩그는 거 아니짱?

103061 #1 예 집의서 종자를 맨드는 거.

103061 @ 그 저 줌 크게?

103061 #2 응.

103061 @ 그거 씨홀 거?

103061 #1 예 씨홀 거 익으면 이만씩 커. 익으면 이만씩 커그네.

103061 #2 씨홀 건 곱게 들리꼭 큼직흔 걸로.

103061 #1 멧 개 나지 아니영.

103061 #2 땅 먹지 아니영 내불민 그게 씨 웨는 거.

103061 #1 다 익으면은 그거 경흐영 별황. 이제 수까락으로 복복 글거그네 복복 글거그네 무신 그릇에 똑하게시리 놔두민 흐 메칠 시민 부각하게시리 이제 줌 썩

어. 썩으면은 그 저 그 어울덜 거울덜 거울덜이 문딱 우터레 떠. 거울덜이 우터레 문 뜨면은 그걸 이제 거울덜에 영 하여그네 흐민 씨는 곱에 골라앗곡 흐면은 물 놔 그네 그걸 곱닥하게시리 씻어. 걸 곱닥하게시리 씻으면 그 거울 싹 빠져불민 투룩 투룩투하여 씨만 이시민 그 씨를 이제 어디 저 체 ㄹ뜨 디 머 구덕 ㄹ뜨 디 비어나 그네 그거 펜펜하게 하여 무리와그네, 빠짝 물리와그네 그릇에 잘 어디 저 낫다그네 뒷해 봄 나민 걸로 또 씨 흐곡. 다음 해도 그처럼 하여그네 그걸로 또 씨 흐곡. 이 물웬 잘 사지 안합니다, 촌에선. 물웨 씨. 이녀 집의서 맨날 경 받았.

103061 @ 계민 그 메칠 정도 썩입니까.

103061 #2 썩이는 거.

103061 @ 어.

103061 #2 야튼 이삼 일이주게 이삼 일.

103061 #1 막 오래 해사 닷새, 오래 해사 닷새.

103061 @ 경 하여그네 그걸 이제 시찌그네.

103061 #1 시찌. 썩인 다음에 시쳐.

103061 @ 시찌그네 이?

103061 #2 멀리왕.

103061 #1 차롱착에 낱.

103061 @ 이 물리왕.

103061 #1 응 차롱착에 놔그네 물려. 물려그네 그걸 씨 하는 거라.

103061 @ 거난 이거 보관 할 때는?

103061 #1 보관 할 때는 무신 저 종이에 놔. 무신 봉 봉투에 놔.

103061 #2 경 아녀민 머 깡통에 담양 놔뒤도 돼여.

103061 #1 경 하여그네 어디레 보관해. 그냥 그 썩 하지 아녀도 돼난게. 요만이 이거 하나민 오죽 하여 흡니까. 요걸로 하나만 해도 잘도 하. 이걸로 하나만 흐민 멧 집이 먹주게 멧 집이. 경 흡니다. 경하여. 씨 놔두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씨도 물웨 씨도 하여 장만행 놔두는 것도 완전 간단하게 좋곡. 그처럼 하는 거 막 간판 흡니다. 거, 씨.

103061 @ 물웨 그 걸름 걸름은 불치로.

103061 #1 예 걸름은 불체로. 걸름은 불체 하여사 그 줄이 잘 나사 줄이 윤정 잘 나사 웨도 흐곡. 또 잘 열곡. 이 웨도 웨줄이 황당하여그네 노랑흐민 웨도 존존 하고 저 맛도 엇곡 뿐도 엇곡. 저 거세기 경흔 때문에 저 불체.

103061 #2 불체하고 저.

103061 #1 경 아니면은 썩 걸름이라도.

103061 #2 저 오줌도 거세기 하여 썩여그네 그레 그 곱더레 강 비왓주게

103061 #1 응 옛날은 썩걸름이라도 불체라도 오줌이라도 옛날에 경 했수다

103061 @ 농약도 하여야지양.

103061 #1 어느 옛날 농약이 어디 잇수과.

103061 @ 그것이 막 이 잎 뜯아 먹는?
103061 #1 아 그거.
103061 #2 아 저 그것ㄴ라 머쎌 흔다마는.
103061 #1 그거 허꺼.
103061 @ 저 노리롱흔 거 무신?
103061 #1 놀이롱흔 거 놀아 텡기는, 그거 해가민양 불체 허큘니다. 불첵 허꺼.
103061 @ 거난 저 잎.
103061 #2 아 아 거 그거 이 송둥이엔 ㅎ나.
103061 #1 송둥이라 흔 거 이맨씩 흔 거 놀아텡기는 거, 웨 뜯어 먹는 거.
103061 #2 송둥이 그 저 나비 종류 송둥이.
103061 #1 나비종류가 아니지.
103061 #2 저 개통이 ㄴ쁜 거.
103061 #1 요만씩 흔 거. 저 쉬프리 달민 거. 이만씩 흔 거 놀아텡기는 거. 거세
기 그거 ㅎ여그네 막 웨에 하가민.
103061 #2 끈어져불어.
103061 #1 그거 예 불체 허큘니다.
103061 #2 이파리 우터레.
103061 #1 이파리 우터레 그거 끈지 못ㅎ게. 이파리 우터레. 옛날에 약이 어섯
수다. 이파리 흘 때 그거 먹어가면양 막 불체 허끄곡 호박도 막 그런 거 ㅎ영 문
뜯아 먹어 가민.
103061 #2 계난.
103061 #1 우터레 불체 허꺼.
103061 #2 물웨 종자가 어린 때 그거 들러부떠그네 머ㅎ지 크기 시작ㅎ민 그거
오나마나.
103061 #1 계난 크기 시작ㅎ민 오나, 종자 키우젠 ㅎ면은 그거 들러들어가면은
불체 허꺼서, 옛날엔 불체.
103061 @ 나도 작년이 저 호박 묘종 사단 저 갈아낫수다게 그냥 호박 엄청 올
앗더라고.
103061 #2 호박추록 무정흔 거 어서.
103061 @ 예 호박 무정흔 거.
103061 #1 예 호박 무정흔 거. 호박도 무정ㅎ고 물웨도 무정흔 거. 물웨도 막
무정흔 거. 옛날은 불체 허꺼, 이제 농약 대신 불체 허껏수다, 불체.
103062 @ 경 ㅎ고 저 고치농사 에 대해 곱아줍서.
103062 #1 고치 농사, 고치 농사는 옛날에는 이제는 ㅎ주마는 옛날에는 고치를
이제 저 토종고치덜 이난에 저 경 막 풀 것이 아니 기냥 집이만 집이서 행 먹는 것
덜 ㅎ면은 고치 ㅎ여그네 씨 어평사 ㅎ연 구ㅎ염신디 고치를 해단에 고치 멜 ㅈ.
고치 메를 이제 밧디 무신 어지렁흔 거 검질덜 어지렁흔 것덜 저 검질덜 영해 밧디

모아다냥 똥 ㄱ똥 거라도 영 행 모아다냥 그 걸 불캐와. 밧되서 불캐와부러. 게민
검질도 좋곡 흐쓸 걸곡 경 험신디 그레 고치 씨 빼여그네 저 골갱이로 영영영영 흐
여그네 고치 메를.

103062 #2 글경 내불어.

103062 #1 영 흐여그네 글거그네 그냥 내불니다게. 경 내불면은 고칫메 검질도
업고 불캐와나난 산디 좀 걸어그네 해민 고치가 이제 종자가 이제 종자 돼여가 흐
쓸 검질도 나민 뽑고 흐여그네 요만큼 크민 그걸 소파. 그걸 소파다그네 이제 또
고치 싱글 때 뜬 데로 웅겨 싱그는 거취. 이만씩 해그네. 웅겨 싱거, 쪽 흐게시리
웅겨 싱경 놔두민, 이젠 사당 싱검주만은 그전원 기추록 흐연 싱거서. 고칫메 이녀
냥으로 경 불캐왕, 고칫메 냥, 고칫메가 크면은 요만씩 흐면은 밧 흐쓸 켱이로라도
무신 거 때비로라도 켱이로라도 밧을 익혀그네 흐쓸 복삭하게 흐여그네 그 고칫멜
뽑아그네 그레 싱것주게. 그레 싱그면은 이제 그뎨 약도 어섯수다게. 그냥 싱그민
그자 브름만 불지 아녀민, 잘 열지 아녀곡 좋지 아녀도 다 거시거 타명 풀고치로
타명 먹곡, 익여그네 딱시 물려그네 이녀 짐친 그 곳되서 흐곡 경했수다.

103063 @ 그 배추농사 저 붓디가?

103063 #1 배추사 이녀 먹는 것사 집의서게 장사하는 거 아니, 이녀 먹는 것사
다 배추 다 갈주. 주.

103063 @ 그거 어떻 그 갈안 먹엄수광?

103063 #1 배추 잘 흐는 사름.

103063 #2 저 배추 거세기 저 씨는 이 옛날 담지 안흐영 이젠 종묘사에 강 사
온다 말이여. 거 사다그네 흐는디 그걸 밧을 쫓옥하게 배추 심을 디 흐면 저 이렇
을 맨들야. 이렇을 맨들양 간격을 어느 정도 흐여그네 그 저 흑을 부드럽게 영 흐
쓸 부수와그네 병덩이진 거 가정 부수왕 그거 옛날 거세기는 굳 흐영이나뻗이 업서
단 말이여. 옛날은 흐민 씨이 멧 방울 흐영 툭툭툭툭 때렁 놔두민 그게 다 나와. 나
면은 이게 그디 그 자리에 저 살릴 것도 흐곡 나뉘그네 뽑아부러 나머지는. 뽑아불
면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저 마지막까지 속 앓곡 흘 누물 커주게. 겐디 그 이 누
물도 처음은 그 간격별로 딱 떼영 흐는디 이 하나만 씨를 떨어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떨어지와 그디. 그기 중에 제일 나은 걸로 남겨뉘 뽑아불주게. 뽑양으네 흐
면은 그게 뽑아뉘 굽 들러지는 수도 잇곡, 그것도 저 아까 저 웨 거세기 흐 거 것
도 일메. 것고라 아까.

103063 #1 송둥이.

103063 #2 어 송둥이 거도 일메. 거도 잇곡 그거 말고 계숨부리엔 흐 벌레가 잇
서. 그게 또 잇으면 그놈의 건 또 굽으로 강 툭 쫓라버린단 말이여. 게난 이 여러
개 뿌려놔 저 씨를 떨어지와 놔두는 이유가 그거주게. 그게 중에 찢라불지 안흐 거
젤 웰 품 잇는 걸로 살령 내분다. 경흐여그네 먹주게.

103063 @ 그저 짐치도 행 먹곡?

103063 #2 에 짐치도 행 먹곡. 국도 끌령 먹곡. 그냥 썩누물도 먹어서.

103063 #1 그 옛날은 예.

103063 @ 피대기늑물?

103063 #1 그 옛날은 양.

103063 @ 쪽 앓인 거 해 밥디게양.

103063 #2 어.

103063 #1 쏘 앓인 것도. 그 옛날은 예 늑물 배추엔 혼 늑물이.

103063 #2 요즘처럼 쪽 아니 앓아서.

103063 #1 저 쌍나말이라마씨. 배추엔 혼 늑물이. 서체늑물 달민 거 서체.

103063 @ 피대기 피대기?

103063 #1 피대기 서체 서체하여그네 갈면은 이제처럼 쏘 앓질 아녀주게. 피대기, 피대기. 그것이라 쌍나말이엔 호곡, 그냥 당배치엔 하여. 당배치 늑물 갈면은, 절면은 호쓸 어랑어랑하여그네 호곡. 걸지 안으면 베짜베짜한 거, 경하여도 그걸로 바깥의 영 푸린 썸은 북북 툭아다그네 국 끌렁 먹곡, 따시 호쓸 하여 간 디 거 좇인 디 거 해다그네, 그 옛날에도 소곰 하여그네 죽여그네 그냥 짐치도 행 먹곡. 그 쪽앓인 짐치 이제사 쪽앓인 짐치 호주 옛날에서 쪽앓인 짐치 햇수광. 기냥 그자 갈민 그냥 간 늑물 그냥 해다그네 그자 쪽 앓고 아니 앓고 그냥 그디 걸로 짐치도 해 먹곡 짐치 출리곡 기자.

103063 #2 계난 옛날 늑물 중에 제일 좋은 늑물이 당배추주게 당배추.

103063 #1 당배추 당배추 씨는 그거 집이서 받아 늑물 하면은 메 개는 씨호젠 먹지 아니영 그건 살령 놔둬. 호쓸 좋은 늑물 혼 멧 풀기는 씨호젠 멧 풀기 살령놔 뒀다그네 갖디 걸로만 툭아 먹으멍 하여그네 내불면은 봄 나가면 막 퍼져그네 그것이 동지 사그네 저.

103063 #2 씨.

103063 #1 꽃 피여그네 썸 받아집니다. 계난 그 씨로 호곡 그처럼 행 낫다그네 그 씨로 씨 받곡. 경 씨 저 사당 그런 것이 어선.

103063 #2 요즘에나 종묘사에 가그네 씨 사왓주 그때사 씨 어디 저 종묘사가 셔서..

103063 #1 계난 놉빼도 놉빼도 씨 살려그네 씨 그처럼 쪽 하게시리, 요건 씨호 늉빼 하여 살리왕 낫다그네 놉빼 씨도 그처럼 하여그네 받곡 배추씨 배추도 그처럼 하여그네 받곡.

103064 @ 계난 놉빼도 해나신게양?

103064 #1 예 놉빼도.

103064 @ 그럼 놉빼에 대해 말해줍서.

103064 #1 놉빼도 게 놉빼도 하여그네 그처럼 하여그네 씨 기처럼 해주게 썸 하여그네 미릇 하여그네 썸 행 놔두면은 혼 방울씩 혼 방울씩 툭툭 하여 싱경 놔뒀당, 싱경나두민 이제 그것이 막 펴기 지서그네 크면 놉빼가 들 거 아니짜. 들면은 이 씨호 건 혼번 웅겨 싱거사 하여. 그 자리에 말아 어린 때 혼번 저 썸더레 뒀더

레 요건 씨홀 거 햏여그네 그 종자 때 웅겨 싱경놔뒤사 그 낱물씨가 햏쓸 좋넨 햏니다. 그추록 웅겨 싱것다그네.

103064 #2 게난 저 놉뻘는 이 저 짐치 담은 배추낱물 궤종보다는 조끔 달라. 겐디 이견 웨냐햏민 간격이 배추는 어느 정도다 딱 햏여그네 이 클 것 생각햏지만 이거 조끔 좃게 햏여그네 내중에 어느 정도 클 때 뽑아부러. 게 뽑아 그걸 버려부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 그 이 츠마기 햏여그네. 경 햏단에 배추보다 저 짐치 담은 낱물보단 이게 저 농사짓기가 좀 쉬운 것.

103064 @ 게난 낱물보다는 놉뻘가 쉬와마씨?

103064 #2 응 쉬운 거.

103064 @ 그 놉뻘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광?

103064 #1 놉뻘 종류는 쉘뻘놉뻘도 싯곡, 단지놉뻘도 싯곡. 그 옛날은 쉘뻘놉뻘 햏곡 단지놉뻘뻘이 몰르컨게.

103064 #2 아 이젠 뉘 알타리 무니 뉘니 햏는디 옛날은 두 가지.

103064 #1 응 쉘뻘놉뻘 햏곡 단지놉뻘 햏곡.

103064 #2 쉘뻘 놉뻘엔 햏는 건 우터레 짹짹 올라와 크는 거 요즘도 그 놉뻘 종류가 거인디.

103064 #1 건 고사불어그네 겨울엔.

103064 #2 그 단지놉뻘라는 건 밋터레 드는 거.

103064 @ 게난 쉘뻘놉뻘로는 뉘 햏 먹어수광?

103064 #2 것도 짐치도 담아먹곡.

103064 @ 단지 놉뻘도?

103064 #2 마찬가지로.

103064 #1 게난 마찬가지로 햏디 쉘뻘놉뻘는 겨울에 나지를 못햏는 거주게 고사 불어.

103064 #2 고사불어.

103064 #1 고사불어 게난 겨울 들기 전에 수확 쉘뻘놉뻘는 수왕수왕수왕 햏여그네 맛도 좋곡 수왕수왕수왕 햏여그네 그거로 탕쉬도 햏영 먹곡 끌렁 먹곡 빙떡도 빙떡 쉬도 햏곡. 머 놉뻘로 햏는 것도 하주게.

103064 #2 게난 옛날도 그 쉘뻘놉뻘도 조끔 에 저 부지런한 사름은 이 저 감저 감저 구텡이에 문뉘이 문어단 그걸 저 하나씩 꺼내어 먹는 먹는 집도 셋주게. 게난 놉뻘는 이 꺼꾸로 저장햏여. 가게 꺼꾸로 세워가지고 저장하다고.

103064 @ 아.

103064 #2 게 안햏민 동지가 나와가지고 커부리난에 꺼꾸로 햏버리면은 숨이 꺼꾸로 쉬니까 동지 안 산다는 밑에서 경햏거든. 게난 이 겨울철에 먹젠햏면 감저 문뉘이 구텡이에다 저.

103064 #1 감저 햏 듯이 문영 물어.

103064 #2 그런 사름덜 잇서서. 게난 놉뻘도 이 모뉘궤루에 놉뻘 범벅 햏영 먹

어서. 계난 이게 저 이 빙떡이엔 흐는 거 잊지 안 흐여. 놤삐 낱 흐여야 제라흐 빙떡이 맛이 나듯이 이 저 모멸핍떡도 놤삐 노면 맛 이서.

103064 #1 놤삐로 못흐는 게 잊수광계. 놤삐모멸침떡도 놤삐가 만이 뇌야

103064 #2 침떡도.

103064 #1 모멸침떡에 놤삐를 예 얼마나 모멸침떡에 놤삐를 흐 다락 놓면은 ㄱ루는 저 그 뿔박으로 흐나만 뇌도 뿔니다. 그 저 놤삐에 부뜸만 흐민 뿔여. 놤삐에 부뜸만 흐게 영영영영 흐영 놤삐에 부뜸만 흐면 저 시리떡 흐면은 놤삐가 어서저부런에 모멸침떡만 남읍니다, 모멸침떡, 놤삐가. 놤삐로 모멸침떡에도 머 흐영 떡곡. 탕쉬도 흐영 떡곡 생기리도 해여 떡곡. 국도 끌령 떡곡. 김치도 흐영 떡곡. 무신 머.

103064 #2 생기리이엔 흐는 건 놤삐 썰어그네 물리운 거. 그저 감저 빼떼기 모냥으로 들린 게 생기리주게.

103064 #1 게 생기리.

103065 @ 경 흐고 그 저 지슬 지슬 지슬농사에 대해 곱아줍서.

103065 #1 으응 지슬 지슬.

103065 @ 여기 하영 흐지 안우파.

103065 #1 지슬은 옛날에는예 옛날에는 밧 갈앙 밧 갈앙 밧 갈앙에 저 뿔덜을 막 주서다그네 그 곱앙에 곱아.

103065 #2 짹악.

103065 @ 무슨 뿔?

103065 #2 쉼뿔.

103065 #1 쉼뿔이나 뿔뿔이나게 뿔른 거. 쉼뿔이나 뿔뿔이나 짹짹 곱아 곱곡.

103065 #2 불 부썰.

103065 #1 경 아녀민 따시 구뿔이 영 영 흐여그네 하영 놓지 아이냐네 구뿔이를 요만씩 구뿔이를 맨들아. 그 구뿔이레 쉼뿔을 갖다 뿔른 것 갖다 뇌그네. 지 지슬은 흐 내일모레썰에 지슬을 놀 거민양 오늘썰더렌 다 뿔기뿔 그 불 부썰. 그 지슬 구뿔이 다 불 부썰 게민.

103065 @ 무사 불 부썰수과?

103065 #1 케와그네 불체로 불체로 지슬 놓젠. 이제 게그네 불 부썰는 거라, 불체 맨들젠. 걸름 맨들젠이주게 걸름 맨들젠.

103065 #2 거 불체 맨들젠. 켄디 그게 옛날 어른덜이 가만서 보면은 두뇌가 춤머리뿔이 좋은 어른덜이라. 거기서 불케와불면 그 뿔이 그디 충 ㄱ뿔 것덜이 데여 부렁 다 죽어불 거 아니. 계난 에 지슬에 거름도 뿔주만은 그 머시 연구를 했던 모냥이라. 계난 옛날에는 이게 저 지슬 뇌 먹은 봄지슬 저 심어떡켄 흐 건 밧을 공짜로 썰거든. 그 뿔 주서당 걸름 해가지고 밧이 건텐. 지슬 파난 다음에 그다 뿔 농사를 해도 그렇게 잘 뿔여. 경 흐여그네 그걸 다 타면은 지슬 툫툫툫, 이젠 머 이모작이여 무신 거여 벌린 햇주만은 옛날은 벌르지 아니영도 뇌거든.

103065 #1 지슬 계난 흐나씩 툫툫툫툫 흐나씩.

103065 #2 쪼개지 아니영. 칼로 끈지 아니영 난에 했는디. 이제는 그노무 눈 하나니 머니 돌로명 푹푹 놓는디. 경 흥영 푹푹 뉘나그네 흑 덮으면 그거 꺾이라. 옛날 그 지슬 놓는 건, 지슬 저 농사짓는 건. 겐디 옛날은 약흥곡 없어. 약이 어디 서게. 계난 기껏 흥여야 그노무거 저 우영팻디 흥솔은 흥 거라 저 오줌이나 받았당 그레 강 데김백인 걸름이엔 흥 거 그런 건 업거든. 거 불 저 똥똥 쉼똥 주서당 케우민 그 불챙이 걸름. 파 먹을 때깁장.

103065 @ 계난 똥똥 쉼똥을?

103065 #2 응 주어당.

103065 @ 불 질러그네.

103065 #1 불 부짱.

103065 @ 불 부찌그네.

103065 #2 계난 목장 ㄱ쁜 디 저.

103065 #1 ㄱ쁜 똥을 주서다그네 뉘뉘야지.

103065 #2 머 저 가면 ㄱ쁜 거 할게 아니라게. 이게 머해도 하면은 그거 저 가망이로 영 머 흥여그네 주성 왕 쭈욱 비와 놓면은 그거 불 질르면 동네 한복판에 가면 동네가 연기로 ㄱ득이라.

103065 #1 ㄱ득이주게 ㄱ득이라.

103065 #2 머 몇 시간 타니까.

103065 @ 지슬 농산 두 번 짓지 안핍니까?

103065 #1 이젠 두 번 저도 옛날은.

103065 #2 이제는 두 번 저도 옛날은 흥 번백이 못해서.

103065 @ 옛날은 언제 언제?

103065 #1 스삼사건 전에.

103065 @ 계민 언제 지슬 싱것수과?

103065 #1 지슬 두불 흥 거 두불 흥 거?

103065 @ 아니 아니 옛날.

103065 #2 아니 아니 저.

103065 #1 아 옛날부떠 지슬이야 십주게.

103065 #2 아니 지슬을.

103065 #1 옛날부떠 지슬은 신디.

103065 #2 지슬을 언제.

103065 @ 언제 낫수광?

103065 #1 아 놓는 거, 지슬 놓는 거? 지슬 놓는 건 이월달에 이월 삼월에 했습니다. 이월 삼월.

103065 @ 이월 삼월?

103065 #1 예 이월 삼월 했수다.

103065 @ 이제는 저 거난.

103065 #1 십이월달에도 농주게 이제는.

103065 @ 이제는 십이월달에도 농곡.

103065 #1 예 근디 그때는양 이월 삼월에 농네다, 지슬, 이월 삼월에.

103065 @ 거난 요즘은 두 번 흐는 모양입디다.

103065 #1 예 이제는 두 번 햄수게 그저 이.

103065 @ 지슬도.

103065 #1 그때는 이월 삼월에 지슬 농면은 저.

103065 #2 요즘은 두 번 흐는 이유가 비니를 더깝주게.

103065 #1 저 묘.

103065 #2 이 저 봄에 저 파는 건. 겐디 경 흐영노니까 비니류로 싸 주니까 딱 뜻해노난게 주쟁이 엇주게 추워그네 이 지슬 순이 머 안 올라오거나 멀 못 흐주게. 경 흐난 두 번 돼는다. 옛날은 어디 비니류가 어디 실 말이라. 저 봄에 흐면 흐면은 지슬 꺾이지 머.

103065 @ 지슬은 종류 엇수광?

103065 #1 아 지슬 종류 여러 가지우다.

103065 #2 잇어 지슬 종류.

103065 #1 지슬도 예 지슬이 히마여 저 옛날은 히마바라여 돼지마여 딱시 그 옛날 토종은 무신거옴 흐느니. 경 흐고 양 지슬 색깔도 저 가지색도 십디다. 옛날도 양 옛날도.

103065 #2 가지 가지 색깔도 잇어서.

103065 #1 우리 가지 색 놔바신디 옛날에 가지 색깔로 술랑술랑술랑헨 눈이 후막후막헨 게 가지 색깔. 그 그거 그건 그때 일본서 온 지슬이옴 흐명 그때 옛날에 덜 흐명.

103065 #2 그게 돼지마 종류주게.

103065 #1 아니 아니 돼지마 종류는 그거 아니.

103065 #2 히 히마바라는 저 동글동글 흐 게 먼디.

103065 @ 그거 일본서 온 거게.

103065 #2 응, 히마바라.

103065 #1 예 예 예 그때 그 옛날에 히마바라여 돼지마여 그 무신 빨근 지슬은 그 무신 지슬이옴 흐명 흐어나고, 빨근 지슬 아녀도 지슬이 여러 가지라. 그냥 흰지슬도 술랑술랑흐 지슬이 이서마썸. 똥골똥골 흐지 안흐영 술랑술랑흐 지슬이 이서. 경흐 지슬 그 지슬 멧산디 윈.

103065 #2 주루 기자 우리 나가 알아지는 건 히마바라 흐고 돼지마뻘이.

103065 #1 히마 히마바라여랑 돼지마 지슬 종자는 흐 네 가진 돼여.

103065 #2 아 이거 저.

103065 #1 우리 알아지거니.

103065 #2 일본 거세기로 요즘 말흐연은 저 나까사끼옴 흐는 게 잇서. 그 지슬

종모으로 계난 그 세 가지 계난 히마바라도 저거 일본거고 저.

103065 #1 일본서 씨해나 와시나 머 옛날에.

103065 #2 돼지마엔 혼 게.

103065 #1 그 옛날에 육지사름은 일본 오죽 텅겅수과예.

103065 #2 제주에 어 돼지마여 혼 게 우리 한국산이지 먼 지 모르겅서 저거.

103065 @ 아니 토종 토종호명 이디.

103065 #2 토종이엔 혼 건 꺼풀이 데실데실 혼 거 그게 셔났는디 그거 이름을 모르커라.

103065 #1 그 이름을 옛날 토종 지슬양 훅지도 아녀고 훅지도 아녀여 요만씩백 의 저 저 미깡 저 미깡 저 저 미깡만이백의 그보다 줌도 호곡, 미깡. 훅어사 저 미깡 혼디. 껌데기가 데실데실호여. 막 사락사락호여. 게민 그거는 솔므면은.

103065 #2 맛은 좋아서.

103065 #1 머 솔므면은 헤양게 다 벌러져불어, 옛날 토종은. 게혼디 이 저 이 중간엿 지슬덜은 기추록 벌러지지 안호고 경 맛이 엇는디, 옛날 토종은 맛은 상당히 좋앗수다. 저 훅지도 아녀고 껌데기가 데실데실데실호게 솔므면은 헤영헤불어.

103065 #2 옛날 농사 진 건 다 무공해난게.

103065 @ 경 호고 저 감저로 아니 지슬로 머 주로 헤 먹어수가.

103065 #1 지슬 존존혼 건 쫄여그네 반찬호곡 쫄영 막 쫄영 지슬 존존혼 건 지슬 쫄영 반찬 쫄여그네 장이영 놔그네 쫄영 반찬호곡. 밥에도 낱 먹곡.

103065 #2 지슬 범벅도 행 먹곡.

103065 #1 딱시 슬망도 먹곡. 범벅도 행 먹곡. 주로 그거주 머 저 쫄여.

103065 #2 지슬도 저거 저.

103065 #1 밥에 놔 먹곡.

103065 #2 저 보까네 저 저 보까 먹는 것 반찬도 해 먹곡.

103065 #1 게메 보까그네 그 쫄여먹는 것이 쫄 좋은 지슬은 쫄 좋은 반찬이 하영 이서, 지슬 반찬. 경 호고 딱시 호쫄 훅은 것도 놉 빌영이나 밧디나 가젠 호면은 그 지슬 저 보까그네 보까그네 썰어놔 보까그네 그자 보깡먹곡. 슬마 먹곡. 밥에 낱 먹곡.

103065 #2 즈배기 호는 디도 지슬 낱.

103065 #1 즈배기 호는 디도 지슬 디리쳐 놔그네도 먹곡. 밥에도 디리청 먹곡. 먹는 건 아무것에라도.

103065 #2 저거 머 아무것에도 놔서 먹는 거.

103065 #1 겐디 마루 호영은 안 먹어 봐서. 지슬 마루.

103065 #2 지슬 마루.

103065 #1 예 지슬 마루.

103065 @ 전분마루 해나난.

103065 #1 예 전분 마루덜 해나난 그때는 지슬 마룬 아니 행 먹어봐서.

103065 #2 그때는 지슬이 썩어그네 내버릴 게 어신 때라노난 전분을 맨들지 아니 했주게.

103065 #1 전분 ㄱ루 전분ㄱ루 그러건 아니 행 먹어 봐서.

103066 @ 그다음 에 그저 피 피 농사 저 지어봅디가?

103066 #1 저보진 안 했수다. 저보진 아니 저보진 아녀도 보기는 하영 봤주게

103066 @ 그 혼번 말해줍서.

103066 #1 피는 조에도 들어가곡, 산디에도 들어가, 피는. 그 어떻게 하여그네 씨가 그 좁씨에도 들어가곡, 좁씨영 똑 ㄱ쁜 거라노난 색깔 떠 알 수 어서. 계난 조에도 들어가곡 산디에도 들어가곡. 경흐민 그 들어가지 못 하게 그 하여 오민 튼지 안흔 땀 우선 피 ㄱ쁜 건 튼으명이라도 따로 굴러 놓주게. 따로 굴러 놔그네 피. 따로 굴러노민 어떤 땀 혼 모드레기 웨여. 굴러노민, 그 모아노민. 계민 그건 득양석 득양석. 득은 득양석뿐인 어서. 득은 피 먹어그네 싸민 삭지 아녀는 거난 또 먹곡 또 먹곡 메불 먹넌 흠디다, 피. 피를 멧 번 먹넌. 싸그네 또 먹곡 싸그네 또 먹곡 멧 번 혼텐. 삭질 아녀.

103066 #2 피 농사도 하여나서.

103066 #1 옛날.

103066 #2 쉼 맥이젠 피 갈양 해낫주.

103066 #1 응 그거.

103066 #2 거 해낫주. 거 옛날이 아니쨌.

103066 #1 응 그거 옛날이 아니라.

103066 #2 피는 저 피 영 걸름 안 써도 낭이 잘 나.

103066 #1 우리도 피 하영 갈아낫수다.

103066 #2 그 피 피 으물 하여그네 떠 양식허젠 혼 것이 아니고 쉼 양식으로 그 어느 정도 으물이 조금 훑은 듯 해가민 비여그네 물리와. 완전히 익기 전에 비여그네 물리와부러. 물리민 쉼이 먹어도 배 속에 가민 피가 꺼풀이 열 두 꺼풀이엔 하니까 이게 물러가면 쉼이 물러가면 배가 든든허거든. 배가 고프지 아니영. 경 흐곡 또 쉼이 슬쳐. 그 낭에도 영양분이 많으니까. 경 혼연에 혼디 피도 떠 저 엄청하게 만이도 해나서.

103066 #1 우리도 막 하영 갈아네 막 저 여물저난 메타도 해낫수다. 메타 하여네 저 쓸장시털 이레 받으레 온 때 막 피 풀멍 해나서.

103066 #2 피는 저 쉼 양식으로 받으러 와갓주게.

103066 #1 예 쉼 양식으로 피 받으러 오민 예 피 하여 풀아낫수다 우리도.

103066 #2 겐디 옛날은 경 저 우리 어렸을 땀 피 농사 경하여그네 양식으로 혼 땀 못 봤고.

103066 #1 경 흐고 우리 이디 오란에 쉼출 허젠 피 갈앗주게, 쉼출 허젠.

103066 #2 우리 쉼 흘 때 피 갈앗주게.

103066 #1 쉼 허젠 피 갈아그네 따시 으물 잘 나카.

103066 #2 제일 무정흔 게 피라.
 103066 #1 메타햏여그네.
 103066 @ 사름은 안 먹엇지양?
 103066 #1 사름이.
 103066 #2 사름이 쫄 먹으민.
 103066 #1 쫄 먹으민.
 103066 #2 맛있어 햏주게.
 103066 #1 쫄 먹으민.
 103066 #2 겐디 쫄 문들기가 힘들어.
 103066 #1 쫄 먹으민 먹넨 옛날부터 쫄 먹으민 피밥 먹넨 햏는디 그거 쫄 내우
 질 못 햏여마썸, 이디서. 공장에서도 쫄 내우지 못햏고, 쫄 내와그네 옛날엔 먹어낫
 젠 햏디다만은 쫄 내우질 못햏여.
 103066 #2 쫄 맨들기가.
 103066 #1 겹데기가 여라 겹인 생이라. 줍쫄은 영햏민 쫄이 나오는디 그 피는
 아명 햏봐도.
 103066 #2 그거 겹이 여러 꺼풀이라.
 103066 #1 으물 나오질 아니여.
 103066 #2 경 햏난 저 췌 양식으로 가는 게 먹어 똥 싸도 또 그게 소화가 안
 돼연 또 담양 쥐도.
 103066 #1 계난 밧디도 씨 웃노렌 햏여도 들어 그런 거 먹어그네 밧디 강 씨
 문드려부는 생이라. 경햏난 메여봐도 씨가 셔, 밧디, 메여봐도. 조팍디도 피 싯곡 산
 디 갈민 산디 밧디도 피 싯곡.
 103066 #2 논밧디도 피 나기 시작햏민 피 씨 저민 경 퀘롭덴 햏는 게 아니라게
 논밧디도.
 103066 #1 피가 이제 중간에 출양석 췌양석 햏주.
 103067 @ 그 다음 모멸 모멸 농사에 대해서 말햏줍서.
 103067 #1 모멸 농사 햏영 햏수다게 모멸 농산예. 모멸은 옛날은 모멸을 밧디
 초봄에 갈곡 두불 갈곡, 식불 갈아마씨.
 103067 #2 세 번 갈양.
 103067 #1 씨 뿌리지 안이영.
 103067 @ 밧을 세 번 갈아.
 103067 #1 예 밧을 세 번 갈아 씨를 뿌리지 아니영.
 103067 #2 땅이 북삭햏게 만들젠 햏면.
 103067 #1 땅을 계난 저 세 번 갈아그네 모멸을 노민, 세 번 갈아그네 푸삭햏게
 시리 땅을 햏여노민 모멸은 그 옛날에는 거세시기 저 불체, 불체에 막 서꺼. 불체에
 계난 불체에 오즘 췌다그네, 오즘 췌다그네 햏쫄 초곤햏 불체에 햏여그네 오물을
 놔 서끄곡. 모멸 씨도 오즘 서꺼그네 아싯날 햏영 나뉜. 영 햏 데명 놔뉜. 경 햏 놔

뒷다그네 뒷날은 그 불체에 ㄴ찌 서꺼. 서꺼그네 이제 그 밧 부각ㅎ게시리 갈아그네 뒷날은 양 멩텅이에덜 ㅎ멍 췌에 시끄멍 밧디 가. 췌에 시끄멍 밧디 가그네 남자덜은 모멸 세 번째 갈젠 ㅎ난 거세기만 ㅎ민 줄줄줄 해가지고 췌로 줄줄 가곡. 여자덜은 이제 이디양 구덕 창, 구덕을 영 ㅎ여그네 영 ㅎ여그네 구덕을 창. 구덕을 차그네 영 행 방벌영놉니다, 모멸을. 불체에 영 ㅎ여그네 그냥 툽툽툽 방벌여그네 놉. 방벌영 놉나그네, 그추록 다 놉, ㅎ루종일 ㅎ여그네, 그걸 멧 사름이 ㅎ여그네 그 밧을 다 놉지면은 선비질을 ㅎ는거라. 그 씨만 ㅎ쓸 그냥 땅이 북삭해노니까 씨만 묻어지게 선비질을 ㅎ여. 선비질만 해불면 그걸로 ㄹ는 거.

103067 #2 계난 이 모멸팻 저 심젠 ㅎ면은 두 번 번ㅎ영, 세 번째는 이 남즈덜은 췌로 ㅎ 게, 췌로 이 보섭 끝 요멘이 들어가게 ㅎ영 줄줄줄 기슴만 ㅎ는 거주. 튀어 돌아 췌. 계민 그 굴 그어진 더레 여즈덜은 정확ㅎ게 던져 곧작 상 던져도.

103067 #1 영 행 사도 디디디디 해도 데끼는 거라.

103067 #2 경ㅎ민 선비질 ㅎ면은 또 고랴에 툽툽 떨어진게 고대로 나. 계민 난 거 보면은 일직선 ㅎ게.

103067 #1 잘나.

103067 #2 계난 저기 이 저 직 말ㅎ면 췌로 세 번 간다는 거 그거 하나 ㄹ로운 거지 모들은 경 행 내불면 얼랑얼랑 ㅎ게 뜬 풀도 아이 나곡.

103067 #1 밧이 잘 갈아노난에 뜬 풀이 나지 안 ㅎ주.

103067 @ 계난 모들은 언제 갑니까?

103067 #1 모멸? 칠월달.

103067 #2 어 칠월달.

103067 @ 칠월달 갈아 수확은?

103067 #1 수확은 십일월달.

103067 @ 칠월달 갈양 십일월달이민 멧 개월이라 사 개월?

103067 #2 사 개월.

103067 #1 계민 모멸 농사는 막 빠른 농사주게, 빠른 농사. 계난 모멸 갈아그네 ㅎ 메칠만 신 모멸 낭그네 요마히만 커가민 좇이면은 소파다그네 생 채로도 떡곡 데왕도.

103067 #2 국도 끌령 떡곡.

103067 #1 데왕도 떡곡 국도 끌령 떡곡 경 ㅎ니다게, 모들은. ㅄ시 너무 좇게 하영 간 사름은 뽑지 못ㅎ민 몽똥이로 가그네 확확 후려부러, 저 너미 좇이민. 경 ㅎ곡 ㅎ멍 ㅎ여그네 그 모멸은 이제야 저 ㅎ민 이제 ㄴ슬 들어가민 그 모멸을 이제 비어. 아 익으민 비어살거거주기. 십일월달에 빌 거라. 십일월달에 비어. 비여어그네 이제 모멸을 비어 놓는다 사름덜이 모멸을 비어 노민 모멸을 비여노면은 ㅎ 줌씩 툽툽 비어 놓질 안ㅎ니다. 두 번 놓면은 ㅎ나는 대게 무룩무룩 비여놉서. 이 ㅎ이 북삭ㅎ여그네 그 비오곡 무신 거 해나민 그 멧에 하영 묻어지카부덴 무룩무룩 우터레 죽여노멍 죽여노멍 막 우터레 그자 두 개만 ㅎ면은 ㅎ 아름답 ㅎ안아지게. 그추록

햐여그네 비여냐그네, 비여냥은 햐 일주일 이상 물리왓실거우다 햐 일주일.

103067 #2 햐 열흘 감주게.

103067 #1 예 기추록 햐영 물리와그네양 그추록 햐영 물리와그네.

103067 #2 도께로덜 두두려.

103067 #1 이젠 그때는 그 옛날에는 남자덜 모멸질 햐는 장남덜을 수눌어. 우리 아바지도 그런 것 잘해난. 남자덜끼리도 수눌어그네 들썩은, 그디 셋 사곡 이디 셋 사나, 저디 둘 사나 이디 두둘 사나. 너희나 여섯이나 햐여그네 마주 사그네 그 도께로 햐곡. 딱시 날라오는 사름은 날라만 오곡.

103067 #2 웨쓰는 사름은 웨쓰곡.

103067 #1 딱시 이디서 딱시 햐여그네 풍당 햐여그네 이 사름 때리민 저 사름 때리민 뜯 모멸을 착 햐게 잡앙 착 햐게 뿌려줘야주게. 뜯 사름 때릴 거. 기추록 나도 모멸 뽑는 것 햐영 해나서 어릴 때.

103067 #2 게난 그 마당질 햐레 가는 남자덜은 그디 멀 ㄹ정 가느냐 햐면은 주루 탁배기 주루 아정 가거든. 이 저 농주 담앗당 가정강 맥여야 술브름에 건들어. 경햐민 마당질을 소리ㄱ지 질르명 햐거든.

103067 #1 모멸 흘 때 질르명덜 바딱 덜씩덜씩 가달 햐명덜 그 모멸들 문딱 햐여그네 때려놓민 모멸 그때 옛날도 모멸 햐영 햐수다.

103067 #2 모멸 때리명 햐는 노래가 잇서. 마당질 햐는 노래가.

103067 #1 응 어어야 호오응 햐는 그런 노래. 게난에 저.

103067 #2 경 이것도 교대적으로 딱 거세기가 맞아사.

103067 #1 게. 맞지 았으민 못햐여.

103067 #2 맞지 았으민 이 도께질 햐는 것도 그거 엉뚱햐게 잘못 맞아.

103067 #1 맞이나, 이 모멸을 영 햐여그네 그 도께질햐는 더레 착 햐게 뿌리는 것도 잘 맞창 놔사 웨여.

103067 #2 그게 아니면 거기서도 사고 나.

103067 #1 손 때려볼곡 사고냥 안 웨여 기추록 햐난에 아무나 못 햐여.

103067 #2 게난 목청 좋은 사름은 마당질 흘 때는 소리가 멀리ㄱ장 들리주게.

103067 #1 경 햐고양 소리 어떤 소리 질르는 사름 고만이 사뭇서 소리만 흡니다, 마당질 흘 때. 게민 그 소리 힘에 힘덜이 나는 모양이라 그 노래 힘에 옛날 사름덜은.

103067 #2 덜 지쳐.

103067 #1 응 덜 지쳐 힘이 나는 셈이라.

103067 @ 게민 이제 그 모멸 도께질 햐여그네 모멸 이제 불려그네.

103067 #1 불려그네 얼망이질 햐여그네 저 불려그네 그 저 모멸은 집의 웨에 시끄명덜 맹탱이에 담앙 집의 시꺼당 이제 물려야지. 또 명석에 널명. 명석에 널어그네 햐 ㄹ래에 겁 지젠 햐민 사흘 물려야 흡니다. 거 햐여 온 것도.

103067 #2 햐빳 햐빳이 잘 나는 날 들려사 사흘 물리는 거주게.

103067 #1 그 사흘 웬만 흐면은 웬만이 벳 나면은 사흘만 물리면 ㄹ래에 겁 저 저. ㄹ래에 거 저저는다. ㄹ래에 겁 지면 머 모멸 쓸도 흐곡, 훙은 모멸쓸도 흐곡, 줌진 모멸쓸도 하곡, 는쟁이 ㄹ루도 흐곡 머 니께미도 잇곡 머. 그디 종자가 여라 종류 나옵니다머, 모멸에.

103067 @ 꺾데기도 이실 거고.

103067 #1 꺾데기 모멸 체는 베개 흐곡 모멸 체는 베개 흐곡. 딱시 훙은 모멸쓸 은 밥에 ㄹ뜨 거 낵 먹젠, 훙은 모멸쓸 니 하나토 어시 영 흡니다.

103067 #2 죽도 해 먹곡.

103067 #1 죽도 썰 먹곡. 밥에도 낵 먹곡. 경 흐고.

103067 #2 그 진 ㄹ루는 는쟁이 범벽행 먹곡, 줌진 ㄹ루.

103067 #1 줌진 모멸쓸은 줌진 모멸쓸은 ㄹ래에 곶아그네 ㄹ루 흐젠 흐곡. 훙은 모멸쓸은 죽도 썰 먹곡 밥에도 낵 먹곡 죽도 썰 먹곡. 또 줌진 모멸쓸은 기냥 곶아 그네 빙떡도 흐곡, 묵도 흐곡 기냥 옛날 그 쏘 묵 흐엇수다. 쏘 묵도 흐곡 빙떡도 흐곡. 딱시 묵 그냥 지저, 지저. 솟뚜쟁이에 놉그네 지저 묵 지짐도 흐곡, 쏘도 흐곡. 경 흐고 딱시 그 아래 딱시 는쟁이 ㄹ루 는쟁이 ㄹ루 계난 그 모멸쓸 처분, 모 멸쓸 흐민 체가 실 거 아니우파게. 모멸쓸 치면은 훙은 모멸쓸 친 거 흐곡, 줌진 모 멸쓸 친 거 흐곡 흐여그네 그거 처분, 그 나간 체, 체고라 니께미엔 흡니다. 그 체 를 체를 그 체를 딱시 그걸 ㄹ래에 ㄹ는 거라, 그 니께미, 니께미. 쓸 퍼분 체가 니 꺾미라, 니께미. 니께밀 딱시 ㄹ래에 곶아. ㄹ래에 곶면은 ㄹ루가 나와. ㄹ루가 나오 민 그게 니께미 ㄹ루. 또 이제 그 모멸쓸 곶명 딱시 쓸 곶명 해가민 쓸 줌쓸이영 곶아가민 줌쓸 치면은 줌쓸 아래 딱시 ㄹ루가 그디 부뎡 나와. 게민 그거 딱시 거 름체로 처. 거름체로 처불면은 줌쓸이 웨여. 게민 거름체로 친 건 는쟁이 ㄹ루, 딱 시 그 무신 ㄹ루는 쓸에 불려분 거 흐 건 니께미 ㄹ루, 딱시 쓸로 나온 건 는쟁이 ㄹ루. 경 웨는 거.

103067 @ 그 저 머 모멸 머엔 흡니까? 짹, 짹?

103067 #2 모멸 낵.

103067 @ 낵.

103067 #1 모멸 낵.

103067 @ 모멸 낵? 응 모멸 낵?

103067 #2 모멸 낵은 저 벨로라서. 이 물이나 흐는 디 줌 먹엇주. 쉼출은 안 사 용해서.

103067 #1 도새기 집의 도사기.

103067 @ 밧디영 뿌려부림구나.

103067 #1 아니 통시에도 통시에도 깔고.

103067 #2 통시에난 거, 통지에 질락질락 흐민 머 흐카부덴 저 통지에 웨지 저 머 흐렌 곶아줍이나 했지.

103067 #1 통시에 깔민 걸름.

103067 #2 겐디 모멸 낭은 쉼 벨로 반기지 안 혀여.

103067 #1 경혀여도 어시면 모멸 낭도 쉼도 주곡.

103067 #2 들은 겨울철에 집의 안들영 저 소막에 매 안 혀는 거니까 죽지 못 혀여그네 배고파놓니까 그 모멸낭 먹지 모멸낭은 벨로 용차가 업서.

103067 #1 게난 동시에 담양 걸름 혀는 거.

103067 #2 그것 뿐.

103067 #1 따시 쉼 쉼 매여 노민 두터레 그 저 질민 그레 끌아주는 거.

103067 #2 짓 끌아주는 거.

103067 #1 짓 끌아주는 거.

103067 @ 수확도 많습니까?

103067 #1 수학 만이 납니다.

103067 #2 수학 만이 나.

103067 @ 혀 말지기면 어느 정도 수확 됩니까?

103067 #2 거 섬 수로 여라 섬 나쥐, 옛날 그 도께질 혀 번 놀리민 혀 섬 난데 헷단 말이여. 게.

103067 #1 석 섬은 날 거우다, 좋으민, 옛날에. 혀 말지기민.

103067 @ 게민 혀 섬은 멧 말이우파?

103067 #1 열다섯 말.

103067 #2 열닷 말.

103067 @ 혀 섬이 열다섯 말?

103067 #1 예 혀 섬이 열다섯 말. 게난에 두 뉘 각 데로 네 개가 혀 말이주게. 게난 두 뉘 각 데로 열다섯 개 그것이 혀 섬.

103067 #2 육지엔 우리 제주도에서 혀 말이엔 혀 그 말로 두 말 반이라야 육지에선 혀 말이주게. 겐디 우리 제주도에선 육지 혀 말이엔 혀민 두말 반.

103067 #1 거 대도주게 대도.

103067 #2 게난 육지에서 무쪼건 그거라.

103067 #1 거 대도고 이거 제주도 건 소도.

103067 #2 소도.

103068 @ 경 혀고 저 담배 농사 지어봄디가?

103068 #2 응.

103068 @ 거 혀번 골아줍서.

103068 #2 담배 농사도 지금 묘종 낫당 혀여, 묘중. 웨냐혀면은 저 불체 걸름이 건 머이건 땅에 복삭혀게 골갱이로 그녕. 담배 씨 뿌령으네 툃툃툃 두드울렁 놔두민 담배 그 저 묘종이 나와. 다 나와. 나오면은 그다음엔 그거 이게 보리그르건 머이건 만이 혀젠 혀면은 쟁기로 갈아 고퉁을 꼭 이령을 다시 맨들면은 이 담배는 고퉁에 심어. 고퉁에 걸 사이사이 떠영으네 혀면은 내중에 어느 정도 크면은 굽을 양 쪽에 거 흑을 더퍼줘. 더퍼주면은 요게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혀면은 옆 순이 난

단 말이야. 옆으로 순 나는 건 아주 오래야 돼여. 경 안흐민 이 이파리가 저.

103068 #1 좋아.

103068 #2 좋아. 게민 그것이 어느 정도 색깔이 검시롱 흐 색깔이 나와가민 물 올른 거고 노렁흐 색깔 나나와가민 담배 그 저 수확 그 거세기가 안, 저 기흐이 안 쥘 걸 알아그네 쫄라당 또 여끄는 거라. 이게 저 나록식으로 여경으네 이 그늘에 브람에영 물리와. 물리와그네 그걸 널면은 내중에 그저 만이 워낙 만이 흐 사름은 이저 직 말흐민.

103068 #1 공판 했주게.

103068 #2 공판도 흐고. 경 아니영 사름은 즉영 흐 사름은 집에 저 칼로 썰영 그때 당시 골연이주 골연. 몰양으네 이녁 피우젠 경 흐곡 경 흐영서. 게난 저 담배 좋게 맛있게 흐젠 흐 사름은 것에 물리와가명 멀 뿌리냐면 청주, 청주 걸 입으로 물영 뿌려. 경 아니면 뿌리는 걸로 뿌령, 뿌리던가. 경흐영 물리우곡 물리우곡 멧 번 흐면은 담배 피와 가면 구수흐 냄새가 난덴 했주.

103068 #1 거 담배 물리우는 과정이 담배를 기추록 흐여그네 쓰무 이파리씩 낱 다 이만씩덜 접 지서. 납작납작흐게시리 담배를 흐 이파리 흐 이파리 놔그네, 쓰무 이파리씩 딱 담배로 이렇게 몰아그네, 딱 접 지서그네, 이걸 하영 접 지성 영 흐영 놔그네 그걸 촌근촌근 하영 놔그네양 무신 것에 놔그네양 딱 더꺼그네 덩드렁 딱 지들랑 놔둡니다. 덩드르왕 우터레 덩드르왕 지들랑. 옛날 우리 아방네 흘 땀 보민 그거 저 담배를 경행 접 지서그네 딱딱 촌근촌근 낱다그네 촌근촌근 췌췌흐게 놔나 그네, 경 췌췌흐게 낱, 담배썩이 납작납작 흐게 췌췌흐게 영.

103068 #2 거 이 저 워냐면 이 우의로 압력을 누르는 거거든 게난 흐 접이엔 흐 것이 흐 뎡이엔 흐여. 그게 워냐면.

103068 #1 흐 접 흐 거 열 갠가 쓰무 갠가 흐영 흐 뎡이라.

103068 #2 쓰무 개면 흐 뎡이.

103068 #1 응 쓰무 개가 흐 뎡이.

103068 #2 게난 이게 흐 뎡이 흐민 벌써 저 옛날도 이거 이파리 멧 개 해가지 고 흐 접이다 정해진 모양이지. 흐니까 흐 뎡이엔 흐민 벌써 탁 저 머 무게 뜨도 아녀고 거의 일치흐 모양이라. 경흐연 흐 뎡이에 얼마.

103068 #1 담배 그 잘 놀러그네 보관 그 무신 거 흐는 그 과정이 흐쫄 담배 맛이 좋게 어떻 만드는 생이라.

103068 #2 거난 이 저 청주 뿌리곡 다 흐여.

103068 #1 나 지들랑 놔두는 걸 봤서. 담배를 기냥 딱 딱 쓰무 이파리씩 놔그네 툯 놔그네 담배로 그 담배로 이 딱 무꺼그네 영 놔그네.

103068 #2 담배 농사가 담배 흐여그네 툯곡 머 흐레 뎡겨나민 옷이 진이 부떠 가지고 찌닥찌닥 좋지도 아녀메. 이 옷이 빠작빠작 손더레 부터서.

103068 @ 옛날은 하영 해난 모양이라양.

103068 #1 예 옛날 담배 하영 했수다. 옛날 담배 하영, 담배에 이 전매청에서도

전매청에서 받아사신디 어떻게신디사양.

103068 #2 전매청.

103068 #1 이 화순에서도 오란에 공판해놔수다. 게민 우리도 우리 그때 우리 어
명 왜가로 그때 담배 받으레 온 사름이 켜당이난 나가 그디 들어가그네 일을 하여
나신디. 그 담배 하여 해놔수다, 전의.

103068 #2 겐디 그때 당시 전매청에서 왕 받아가곡 것도 담배.

103068 #1 어디서사 오란 받아.

103068 #2 농사 짓는 사름 그 저 자기대로 자기가 하여그네 피우질 못 하게 해
야 그것이 켈 건디, 그것은 못 하게 안 했단 말이여.

103068 #1 게 이녁대로 맨들앙 집의서 다 맨들아그네 피왓주 무신.

103068 #2 게난 담배통에 담아네 심심해지면 영 행 피우곡, 이 저 종이 혼 건
신문지건 저 세면종이건 하여그네 담배 몰앙 피왓거든, 종이가 어려왕.

103068 #1 세면종이건 아이덜 텅기는 그 척 책장이나 그런 것에 몰아그네 하르
방덜 담배 옛날 하르방덜 피곡. 경아니면 통대에 담앙 피곡, 물뿌리 물뿌리 물뿌리
에 담아그네 피우곡 했주 무신.

103068 #2 게난 아주 기술이 좋은 사름은 종이 하나에 하여그네 이 댓발 므는
그 그 머가 이서. 영 착 혼민 잘 몰앙 혼더라고. 게난 이 골연 모양으로 짹짹 몰아

103068 #1 경 혼는 거, 경 혼는 것이, 아 담배 므는 그게 신 생이랑게. 집의 사
다그네 집의 그 담배 몰아지는, 종이도 사오고.

103068 #2 겐디 이 저 죽은 귀 들렁 혼 거 모양으로 혼 걸로 착 착 몰앙 혼는
게 이서났거든.

103068 #1 게메 머 기계 신 생이랑게.

103068 @ 조금 쉬 쉬엇당 허쿠다.

103068 #1 경 흡서.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오늘은 그 저 옷감에 옷감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잇수과.

106001 #1 옷감 종류, 옛날은 예 미녕 광목 주루 옛날에는 미녕 광목 촌에.

106001 #3 멩지 혼곡.

106001 #1 그거 세 가지. 그거 세 가지로 이불도 혼곡 옷도 혼곡 머이든지 사름
에 대한 건 기자 멩지는 특별하게 특별하게 시집갈 때나 호상 때나 이제 특별혼 옷
은 멩지로 혼곡. 따시 경 안혼 옷은 미녕. 미녕으로 이불안도 혼곡 이불거죽도 혼곡
베개고 혼다 못행 속곳이고 바지고 접바지 무신바지 저고리고 치매고 촌에선 주로
미녕 했수다, 미녕. 옛날은 거의 미녕. 광목은 혼쓸 저 특별하게 혼쓸 시집갈 때 혼

쌀 잘 입는 광목. 광목은 집의서 하지 못하는 거난 그건 사당밖인 안 하여. 이녀 집 의서 하는 건 저 거세기 미녕하고 멩지 이 제주도에선 배 그든 건 아녀고.

명주

106002 @ 경하민양 저 멩지실 그 멩그는 과정 좀 말해줍서.

106002 #3 멩지실은 양 누엘, 고추를예 혼 불.

106002 #1 아니아니 그 멩지가양 씨가 양 요추룩혼 종이 닳은 것에 좁쌀만도 저 알맹이가 짜르륵 영 하여 오는 겁디다. 씨가 씨가 종이에 툽툽툽툽 하게 부썩그네 누에씨가 와마썩. 처음엔 벌레가 아니라. 씨 닳아 씨 닳은 것이 종이에 뽕뽕하게 부썩그네 오면은 옛날에는. 그걸 옛날은 그걸 어디서 구해오는 생이라. 그 멩지 질 를 집을 영 행 하민 그 멩지 질를 집을 그거 어느 만이 하켄 하면은 그 뽕냥에 따라서 그 뽕냥에 따라그네 그 씨를 하나나 두 개나 하여 하는 집은 세 개나 하여그네 그 씨를 요만씩은 좋입디다. 종이에 씨를 저 좁쌀씨만한 거 짝각 박아진 거라, 그거. 경 하여그네 그 것덜 태우면은 그거 씨로 하여그네 그 벌레 그 누에고추를 맨드는 그 과정은 잘 안 보난 잘 몰라. 그 씨로 하여그네 만드는 과정.

106002 #3 아니 누에 저 그 쌀 해다그네 영 집의 드스디 영 하여 놔두민 벌레 가 나옵니다. 벌레 나오민 그걸 뽕을 줌질게 썰어그네 이런 저 옛가 대 옛가그네 점복 맨들야. 전복 맨들양 영 행 대 옛가그네 저 그레 툽 하게 놔두민 거 벌레가 나오민 그레 놔그네 뽕을 줌질게 썰영 그레 툽툽 하게 허경 놔두민 그걸 먹으멍 닷 새 돼민 혼불 줌 자. 혼 불 줌 자나민 그게 헤뜩헤뜩 막 큼니다. 커그네 그게 두불 줌 자곡 세불 줌 자곡 네불 줌 자가민 그게 고치 돼여그네 올립네다. 머 콩고질이 하간 거 갖다그네 그 누엘 심으멍 툽툽 그 안터레 올령 놔두민 그게 집을 지서마썩. 집을 지서그네 곱닥하게 헤양게 고칠 영 맨들야. 맨들양하민 그거 혼 십일 돼가 민 그거 완전히 맨들양 나오민 그걸 우리가 타마썩. 타그네 그 고추를 문닥 탕 문 다듬아그네 그 물레 썰 맨들젠 하민 물 삭삭 솟되레 놔그네 실뽑는기계가 이서마썩. 그 실뽑는 기계로 멩지쌀을 문닥 뽑아냅니다. 그 누엘 경 누엘 뽑아내민 그 쏘 북에 또 벌레가 이서. 건 떡곡.

106002 @ 그 저 멩지 실 멩그는 기계 머엔 흡니까?

106002 #3 멩지 쌀 맨드는 기계 그 물레 닳은 거 영하민 영 뽕뽕뽕 돌리민 흑 흑하게 가래기레 감아집니다. 그때에.

106002 #1 그거 일름?

106002 #3 그거 일름을 어디 잊어부런 알아져? 계난 감아지민 가래기 가래기 하여그네 뽕뽕하게 감아가민 쌀이 뽕뽕하게.

106002 #1 가라기는 이만한 그 췌가 가라기 아니우파?

106002 #3 췌가 가래기계 그 가래기 하여그네 물레 닳은 거 하여그네 영 돌아가 그계 영 속속 하여그네 건들여 가민 실이 북북 나와. 나왕 그거 뽑아그네 그걸 무드리기 맨들야. 무드리기 맨들야그네 저 감아그네 무드리기 맨들양 경 하여에 우

리 어머니 하는 거 보란 그거 감안에 이젠 그걸 놀아나서 놀아그네 독고마리에 걸
감아그네 멧질 맨듭디다. 물레 맨들앙 베클 크게 하여그네 맨들아 놔그네 그 썰을
알층 우층 맨듭디다. 경하면 보디 두 개 해마썸. 한 영 거데기 집 맨들앙 하고 한
영 멀리 하는 거 하곡 하여그네 두 겹 맨들아그네 베클에 올려놔 멧질 차게 돼
민 꼬리바퀴 이서마썸. 꼬리바퀴 하여 영 꼬릴 어떻 감느냐 하면 꼬리도 감아봤수다.
영 꼬리 솥앙 하면.

106002 #1 영영 감습니다.

106002 #3 영영 감앙 솥아그네 그 저 꼬리도 솥아마썸. 솥아그네 멧지 창. 멧지
영영 하여 베클에 그냥 한번 영영 하여 차보젠 나도 차보난에 할 차답디다게.

106002 #1 그때 어릴 때 베클에 앉아집니까?

106002 #3 거 소까이 올라온 후제 했수게게.

106002 #1 아 소까이 올라온 후제.

106002 #3 소까이 올라온 후제 행 미녕은 다 차서.

106002 #1 아 미녕사 해주마는.

106002 #3 미녕차고 저난 멧지 한디 우리 어머니가 질삼을 잘 했수다. 옷도 잘
맨들고 한에 어멍하는 거 봐십주게. 어린 때 어멍 하는 거 보민 흑흑흑행 가래기
영 맨들고 멧지 하여그네 창 하면 또 멧지도양 생멧지 안 하여 그걸 누입디다. 누
여그네 곱닥하게 누여그네 막 발영 습으면 등에 풀 하여 흥짓대로 막 다듬아그네
그것 옷을 맨듭디다게. 경 옷을 토평도 맨들곡 바지저고리 옛날 곱게 맨들젠 하면
아버지 바지저고리도 맨들앙 입지곡 경 습디다게. 멧질 게난 멧지 과정이양 잘도
공들어마썸. 그 누엘을 키왕, 그 누에가 집 지성, 그 썰을 뽑앙, 누엘 저 옷을 맨들
젠 하면 공듭니까게. 게난 뽕 맨들명 경하면 맨듭디다. 저 맨드는 거. 나 우리 어머
니 하는 거 봐십주게. 그때 어린 때영. 게난 미녕은 차 봤수다.

106002 #1 누에는 올릴 기간은 되면은 콩낭이나 뭐 저 그 뽕낭 그 누에 먹어난
그 뽕낭 가쟁이 돌은 걸 다 옷트레 더릅디다. 더경 덕영 누에 우터레 고추 우터레
누에 우터레 더경 놔두민 버랭이가 막 크민 그 낭 올릴 시간 되면 더경 놔두민 낭
우터레 올라강 낭 우트레 고치를 짓는 거주게.

106002 #3 게난 저 누에도 오르게 되면 영 그 누에가 막 먹으면 썰리 하면 얼
랑얼랑한 건 쉬우명 영하면 누에도 썰이 나와마썸. 경하면 심으명 낭드레 막 올링

106002 #1 지냥으로 막 올라가.

106002 #3 누에도 점복 맨들젠 하면 낭 잊추룩 니 반디 박아그네 전복 맨들앙
하나 찌르곡 두 개 찌르곡 하여 매층 올리명 게민 이 구들 누리 하나민 이디 영 행
간 영 행 갈르민 이레 박곡 행 이레 박곡 행 멧 가달 하여 누에 행 뽕 쥬 경 행 맨
듭디다. 경하면 맨들앙 옷하는 과정이 그거 춤 공든 겁디다게.

106003 @ 그하고 저 멧지 종류 잊지 안으우짜 멧지 종류.

106003 #3 멧지 종류.

106003 #1 다듬지 않은 건 생멧지.

106003 #3 생멩지 다듬은 건 그자 멩지 저 경흙디다게.

106003 #1 생멩지 멩지 다듬은멩지 아이다듬은 멩지.

106003 #3 이제 우리 창웃은 맨들젠 흐민 생멩지로 맨들곡, 와상흐게양. 여름에 입는 거 경 흐곡. 또 저울에 이 멩질 때 맨드는 웃은, 막 다듬양 곱게 빈직빈직 다듬아그네 흥깃대 막 두드렁 경행 맨들양 입읍디다게. 바지저고리 흐곡 도폭 흐곡 옛날은 우리 제 봄도 거세기 흐게 봤수다게 경행 문 출렁 봄디다게 옛날.

106003 #1 그 멩지로 흐여그네 시집갈 때 입는 장웃, 장웃 흐면은 붉은 장웃도 싯곡, 푸린 장웃도 싯곡, 장웃은 두 개라. 계난에 시집갈 때 흐난 입고 흐난 머리에 싯곡 옛날은 행 갖수게. 머리 여지민 머리 우트레 장웃 하나 저 계난 잘 사는 사람은 딸 시집가젠 흐민 장웃을 두 개 맨들아. 붉은 장웃 흐고 푸린 장웃 흐고 두 개 맨들아그네 딸 시집가젠 흐면은 멩지로 치마저고리흐곡 속곳으로 멩지로 멩흐영 입곡 이녀이 흐젠 흐면은 장웃도 두 개 맨들아그네 입는 장웃 흐고 영 머리 우트레 씨우는 장웃 흐여그네 하행이 영 장웃 심영 영 데려가곡 해나십주게. 경흐여 낯당 그 장웃을 고만히 낯다그네 그걸 제승웃으로 이녀이 죽영 갈 때 입는 시집갈 때 입은 웃을 멩지 웃드레 놔뒤그네 고만 놔뒤그네 옛날은 빨리 죽었수게 계민 제승웃으로 꼭 죽영 갈 때도 장웃 입정 묻읍니다. 장웃 다 입집니다. 치마저고리 우에 장웃을 입정.

106004 @ 계난 장웃만 만들앗수강?

106004 #1 멩지로 장웃만 만들양. 여자는 장웃이고 장웃흐고 그냥 씨우는 장웃이고 남자는 도복 두루막 바지저고리 그런 거.

106004 @ 그다음 다른 건.

106004 #1 다른 건 중의적삼 ㄱ든 거 멩지로 못흐는 게 잇수광. 빠스고 죽영갈 때 입는 거 보선이고 손도매고 다 멩지로 돌아갈 때 죽을 때 입는 거 다 멩지로 잘 사는 사람은 멩지 육지는 베 햇주만은 여긴 베가 어스니까 멩지로만 햇수게.

106004 @ 잔치홀 때 저승웃 멩글었지 양?

106004 #1 잔치홀 때 입는 옛날에 잘 사는 사람은 잔치홀 때 입어난 바지저고리고 치매저고리고 딱시 여자 ㄱ뜨민 창웃이고 고만이 낯다그네 죽영갈 때 그 웃 입영 또 가 마지막 갈 때 남자도 잘사는 집안엿 사람덜은 두루막흐고 도복흐고 잘 흐영 낯당 남자덜은 도복 ㄱ뜨민 건 멩질 때 ㄱ뜨민 때 정월 멩질 때 ㄱ뜨민 때 흐 번씩 입영으네 잘 낯다그네 일 년에 흐 번씩 벧 췌우멍 낯다그네 잘 관리행 낯다그네 죽어갈 때 입곡 제사 때도 잘 흐는 집원 멩질 때 ㄱ뜨민 때는 장웃 흐 번씩 입곡.

106004 @ 나도 결혼홀 때 이 웃을 입어낯수다게.

106004 #1 예.

106004 @ 그 저 잔치 꺽나그네 입영 사진 찍으렌 흐영.

106004 #1 경덜 흙주게.

106004 @ 멩지로 멩글안에?

106004 #1 경 입어낯수게.

106004 #3 경 하고 이젠 양복 입언에 결혼했수만은 옛날은 양 도쿠리고 바지저 고리만 입언 사모관대 쓰고 행에 결혼했수다게. 남자고 여자고 또 여잔 치매저고리 멩지로 맨들양 입고 우의 장옷 입곡 쓰곡 햅영 갓수다게.

106006 @ 그 누에치는 거 누에 기를 때 과정 혼번 말해봅서.

106006 #1 누에 길룰 때는양 누에씨를 그추룩 햅여그네 따뜻흔 디 아랫목에 혼 이틀이나 삼일이나 그 정도 돼면은 그것이 눈 터그네 그 살아나. 살아나그네 햅여 가민 그 무신 거나 누에 뽕 뽕을 갓다가 처음에 줄 맨 어릴 때난 복삭 썰영 썬디 또 썰영 막 대정 복삭 썰영 햅뽕씩 햅뽕씩만 쥐가민 그것이 이제 저 것도 햅루에 두 번 줍니다게. 아척의도 주고 저녁의도 주곡 햅여 혼 번만 줍 자기 전의는 줍 잘 맨 안 주주만은 줍 자기 전의는 그추룩헨 주멍 키와그네 키와그네 것도 햅썰 커가 민 햅썰 훑게 썰고 또 햅썰 커가민 햅썰 훑게 썰고 딱시 막 훑을 맨 낭 채라도 우 트레 갓당 영 더겨 막 버랭이가 훑어그네 활활 하간디레 기어 멩길 맨 어젠 낭재 딱딱 꺾어 강도 그우트레 탁탁탁 올라가민 그거 다 트더 먹음니다게. 그추룩 줍 자기 전의 게엿당에 경 햅영그네 줍 자는 것이 매틀 혼 삼일?

106006 #3 혼 삼일 잠실 겨우다. 삼일 자민 그게 줍 자는 기간은 아니 먹음니다. 그자 자. 갱 내불민 안 먹당 깨민 아척이 주곡 저녁이 주곡 훑어가민 낮이 주고 햅루 세 번 쥐사 흡니다. 밤이도 주곡. 경흐민 누에가 잘 먹으면 줍도 자게 자그네 하고 고치도 막 좋게 짓곡. 굽지곡 잘 안 주곡 혼민 고치도 잘 짓지 안 하고 잘 좋 질 안읍니다. 게난 밥을 잘 쥐사마썸. 경행 쥐그네 혼 네불줍 자민 경 심으멍 다 올 립니다. 검질더레 낭덜이고 뒤시고 다 경행이네 놔두민 다 올라강 집 지읍니다. 집 지서그네 그거 문 타그네 딱로 그거 싸그네 썰 맨들양 멩질 맨듭디다게. 경행 또 문 다듬양 옷을 맨듭디다. 게난 그건 시집갈 때 하고 장계갈 때 멩글고 그자 이런 막 중년옷을 맨들고 멩지론. 미녕은 딱시 멘네 맨들아그네 멘네 밧디 강 갈양 그거 타당 또 물레로 블랑 이젠 또 클방에 강 어디 시경 강 태왁주게. 정 맨들양 태왕 정 맨들양 물레에 낭 좗읍니다. 물레낭 나도 좗아봤수다 그거 썰 좗양 그걸 딱로 모둥이 맨들양 또 일곱새미녕을 또 노는거라 가시풀 맨들멍 그걸 저 도꼬마리레 감 으멍 저 거세기 매어사 햅여 마썸. 영 영영 버디 영 놔그네 짹 햅게 혼민 미녕 넓 이가 요만인 흡니다. 요만이 혼민 그거 도꼬마리에 감으멍 날존 날은 풀 맨들멍 물 리멍 그거 감앗다그네 베클에 올려낭 꼬리바퀴행 찹디다게. 갱행 차그네 그건 주루 일힐 때 입는 옷 경 맨듭디다게. 갈중이 맨들양 입고 그건 그자 이 주루 일힐 때 몸빠도 맨들양 입고 갈중이도 맨들양 입고 그자 일햅젠 혼민 그 옷을 경 맨들양 입 어십주. 게난 우리가 곱게 입젠 혼민 그 꼬리에 검은 물을 들입디다게. 흰꼬리에 검은물을 들양 혼나씩 서끄멍 짜. 경흐민 그건 막 존 옷으로 그건 막 곤 걸로 맨들양 입고 경행 우리도 그거 치매 맨들양 입어 봤수다게. 경행 짱 햅엿주만.

무명

106007 @ 그 다음에 그 미녕 미녕에 대해서 물어보쿠다 양 미녕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잇수광 미녕종류.

106007 #3 미녕 종류사 미녕 종류 멧.

106007 @ 이 저 토목 생목 광목 이런거?

106007 #3 미녕 종류 헛자 광목.

106007 #1 미녕 종류는 저 거세기 풀흐지 아년 미녕 싯곡 풀흐 미녕이 이신디 풀 안흐 미녕은 그냥그냥 그자 베에서 베틀에서 짱만 나는 미녕은 건 그자 짓미녕 이고 진 미녕 따시 짓 부린 짓은 짓을 영 흐여그네 빨아그네 재 놓앙 그때는 불체 놉그네 그 미녕을 막 물에 빨아그네 물에 그 미녕을 빨아그네 재 놉그네 그걸 솥을 디다. 불체 놉 불체 놉그네 솥그네 또 빨아그네 널영 따시 흐 멧 번을 빨아 물에 또 빨앙 널고 빨앙 널고 해가민 미녕이 색깔이 흐썬 히여 히여. 경흐 미녕은 흐썬 손봐그네 흐썬 헤영흐 힌 미녕. 그냥 짓부빈 미녕. 건 짓부빈 미녕 짓 아니흐 건 기냥 기냥 짓 안 부빈 미녕이 그자 그자 처음에 그 짓은 어떻행 짓인가 흐민 미녕 놀 때에 이 가시리풀 가시리풀 흐여그네 이추룩 도꼬마리 영 흐고 이디 영 흐고 흐민 이디 거세기 쉼똥이나 물똥이나 불을 피와. 불을 피와. 불을 피와그네 그 물러 안장 불을 피와그네 요만인 흐 술, 요만인 흐 대죽 ㄱ똥 거 꼬트머리 거로 해그네 술을 요만이 흐게 맨들앙 사름 손 좁아질 만이 맨들아그네 풀 썩그네 가시풀, 뜯 풀은 아니 똥여 가시풀 바탕에 가시풀 해그네 썩그네 가시풀 영 짝 해그네 그 썩에 다 매깁디다. 썩에 매경 썩에 영 흐영 매기곡 매기곡흐영 매기명 이 아랜 불을 살라 아래 미녕아래 불을 살라그네 풀 매기명 그 불 살라그네 그 썩을 버짝흐게 흐는 거 주게. 썩을 버짝흐게 썩을 버짝흐게 해그네 풀 매기민 버짝흐주게 썩이 미녕썩이 버짝흐게 썩 매경 버짝흐민 영 해그네 들라가는냥 이짝으론 영 흐여그네 감아 영 흐영 감으민 감으민 짝으론 쪽흐게 들어오라그네 따시 영영 풀 매기명 그 거세기 불에 물리는 거. 똥도 거즘 카가민 똥 그레 계속 지드멍 계속 불 달게 계속 불 달 게 흐멍 경 흐영그네 풀 맥영 버짝해그네 그 풀을 지우젠 흐민 그것이 짓광목 아니 짓미녕 솥은 바랜 짓미녕 바랜 미녕 바랜 미녕은 헤영흐고 그건 누렁흐주게 가시레 불에 건나레 썩에 버짝흐 것신디 질기게 질기고 버짝흐게 흐젠 가시레풀에 흐는거 라.

106007 @ 계난 짓미녕흐고?

106007 #1 그냥 다듬은 미녕.

106007 @ 다듬은 미녕 그다음?

106007 #1 거백인 몰라 경 흐고 거시 미녕이 따시 무슨 미녕 잇주게 그냥 거 거세기 검은물이나 붉은물이나 옛날도 도똥상비덜 물레 풀레 대냈수다 계민 붉은 물도 종이에 톡흐게 싸그네 풀레 덩겨서 붉은물이영 검은물이영 색깔 도똥상비덜 정 덩기명 계민 그 물레 상 낫당 물레 상 낫다그네 저 붉은물 그 저 미녕 힌 미녕 썩 뽑은 썩에 물에 붉은 물도 들이고 검은물도 들이고 흐영 낫다그네 미녕 짤 때는 힌 풀을 빼어 두 겹 흐여 영 흐여그네 힌 거 흐 번 가나민 거 흐 번 가게시리 짜. 계민 그것이 영 흐여그네 짓고라 얼력얼력 허여그네 그 무늬 놉진 미녕이 똥주게,

미녕이. 그추룩행 얼럭얼럭헌 미녕이 돼민 그건 흐쓸 좋은 미녕, 고운 미녕. 계민 그건 아기덜 멩질 때 ㄴ뽀 때 치매 ㄴ뽀 거 저고리 ㄴ뽀 거 경혀영 그런 미녕으론 아기덜 해주젠 경 흐곡. 딱시 미녕을 딱시 검은물도 들이고 붉은물도 들여그네 시 집갈 때 이불 거죽 이불 거죽 돼주. 못사는 사름은 양 옛날에 짓은 붉은 물 들였다 그네 붉은 미녕으로 짓히고 검은 미녕으로 이불 그냥 겹데기 흐고 이펜이 거 더경 누는데 건 짓. 경 혀여그네 어신 사름덜은 양 멩지 이불 흐젠 멩지 이불은 고급사름덜 흐는 거고 기냥 보통 사름덜 옛날엔 양 미녕 이불 홉디다게. 미녕 검은물 들이고 붉은물 들여그네 입을락 안도 미녕 거죽도 미녕 딱시 거 쏘복에 소개도 멘내슌.

106007 @ 계난 토목미녕 들어봣디강 토목.

106007 #3 토목 미녕은 양 그자 짠 것고라 토목미녕이엔 흐고 막 풀 혀영 바랜 미녕은 곧 다듬은 거세기로 홉디다. 계난 그 다듬은 우리가 빨멍 막 널민 헤양홉니다. 헤양혀영 곱닥하게 흐민 그 고운 걸론 이불안도 흐곡 옷도 맨들양 입곡 흐곡 또 짓 안 부병 그자 토목은 그자 맨들양 짓만 부병 갈물 들영 저 검질멜 때 입읍디다게. 검질멜 때 적삼도 맨들양 입곡 이제 저 몸빠도 맨들양 갈중이 맨들양 입곡 경행 일홀 때 입고 발이영 곱닥하게 맨든 건 곱게 맨들양 옷 맨들양 입고 또 할으방덜양 중의도 맨들양 입지고 이런 저 저고리도 맨들양 입지고 경 홉디다게.

106007 @ 생목은 들어봣디강 생목

106007 #1 생목은 우리가 물레 들영 맨든 거게 물레 들영 맨든 것고라 생목이엔 홉디다 물에 들여 검은꼬 리 흐 번 붉은꼬리 흐 번 가민 생목이엔 혀여 색베기 노난 경행 우리 어머니도 경행 찬에 우리 혀영 줍디다게 우리 소까이 혀영 올라올 때도 함바집의서 우리 어머니 베클 받에 미녕 찹디다게. 계난 나도 혀여보젠 혀여 봤주게 미녕도 좇아도 보고.

106007 @ 광목은?

106007 #1 광목은 이디서 안 맨들앗수다 육지서 들어오랏수다게.

106007 #3 광목은 이기서 안만들앗수다 제주서 맨든 건 베하고 춤 베도 아니 멩지흐고 미녕만 제주도에서.

106007 @ 닷새미녕 알아지쿠가?

106007 #3 닷새미녕은 훙은 거.

106007 #1 닷새미녕예 썰이 훙게 나왕 썰이 훙은 썰을 영 혀영 썰 뽑을 때 훙게 뽑은 거 훙게 뽑은 건 닷새미녕 훙게 뽑으면 썰이 훙으면은 미녕도 훙주게 미녕도 놀이 훙어가민 미녕도 훙어. 계민 그것이 닷새미녕 잘 못 톨 거.

106007 @ 옛새미녕?

106007 #3 옛새미녕은 또 흐쓸 더 곧 거 닷새미녕보단 썰이 영햏디다게. 영 혀영 맨들양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똥 아웁새 돼가민 미녕이 막 곱고 일곱새 돼가민 미녕이 흐쓸 훙고 옛새 닷새 돼가민 막 훙어 곳어. 미녕이 썰이 막 훙게 좇앙 흐는 따문 경 홉디다게. 겨난 이 미녕이 새가 아웁새 으답새 하갈수록 미녕이 막

곱고 닳새 미녕 옛새 미녕은 막 훑엉 처음엔 막 쉽주게. 썰도 막 팔팔 훑게 좇으면 쉽지 않읍니까게. 경허듯이 막 훑게 즐안에 그추록 흡네다. 이제는 그게 폭이 죽아 닳새미녕은 폭이 죽아마썸. 게난 옛새미녕 닳새미녕은 혼 일곱새 으답새 돼가사 폭이 흐썰 너릅디다게 게난 막 죽아.

106007 #1 게난 이 닳새 옛새 싸는 사름은 흐썰 서툰사름덜.

106007 #3 예.

106007 #1 썰 뽑는 거 서툰 사름덜 막 서툰 사름덜 서툰 사름 뽑으면 썰이 골로로 골리지 안 흐고 훑게 나오고 겨고 아옵새 으답새 아옵새 뽑는 사름은 썰이 일정한게시리 줌지름 하게시리 잘 뽑은 썰로 미녕이고 멋이던지 짜사 미녕도 고울 거 아니파. 겨난에 잘 흐는 사름덜은 으답새 아옵새 흐여그네 썰이 곱게 뽑은 사름덜은 흐썰 잘 흐는 사름덜이고. 저 너 다섯 여섯 흐는 사름은 흐썰 썸씨가 어선 어신 사름덜.

106007 #3 저 못흐는 사름덜 혼 겨우다게 그건. 닳새미녕은 막 훑곡 폭도 죽아. 이 썰이 막 훑게 짠 혼 거 닳아 경 흡디다게. 경허난 옷 맨듬도 그게 더 불편하고 이 폭이 죽으난 경헨 흡디다 저 그거.

106008 @ 그다음에양 그 저 미녕으로 어떤 옷덜 맨들앗수광?

106008 #3 갈옷. 갈옷 맨들곡양 바지저고리 맨들곡 경 했수다게. 우리도 미녕으로 저 몸빼 맨들양 갈물 들영 입고 적삼 적삼 맨들양 갈물 들영 입고 경헨 옛날은 양 우리검질 마흔나씩 쉰나씩 메었수게. 계속 그거 입으면 여름에 덤지도 안흐곡 땀도 영 잘잘 내리지 안흐곡 경 좋읍디다게. 게난 그걸로만 옷헨 입었수게, 그 미녕으로만. 경 흐고 따로 막 바래어그네 곱닥하게 맨든 미녕은 곱게 적삼도 어디 웨출복으로 맨들양 곱게 입영 텡기곡 또 저 막 곱게 맨들양 입영 텡겅수다게. 이 할오방덜 바지 저고리도 곱닥하게 다련 미녕으로 맨들양 입고 경 흡디다. 게난 주루 일홀 때 입는 건 저 미녕마썸 미녕 저 바지저고리 맨들양 갈옷 맨들양 경 입어 경헨 흡디다게.

106008 @ 아까 말해신디양 거 토목 토목은 미녕 중에 줌 안 좋은거?

106008 #1 예예.

106008 #3 안 좋은거 막 안 존거.

106008 #1 막 아이 존거.

106009 @ 이걸론 뭘 맨들앗수강?

106009 #1 토목으론양 갈중이 해 맨들아 토목거튼건 갈중이 갈적삼 갈중이 옛날도 갈중이도 남즈 갈중이 잇곡 여즈 갈중이 싯곡. 경허여그네 흐민 바지 저고리로 갈중일 맨들앗주게 갈중이가 떤 것이 아니주게 조선 바지저고리가 갈중이 맨든 거라. 옛날 하르방덜 바지 저고리거 거세기 입다그네 누렁커게시리 해불어도 감물 들여불고 저 이 저 나쁜 미녕으로 저 그런 걸로도 갈옷 맨들고 이 나쁜 걸론 갈옷을 주로 맨들고 흐썰 나슨 건 미녕이라도 흐썰 나슨 건게 힌 미녕으로 해도 그자 집이서 놀멍 입는 건 흐썰 나슨 걸로. 질 곳인 미녕으로 흐는건 그자 갈옷 갈몸빼

도 하고 적삼 남자마지 저 중의적삼도 하고 여자도 저 적삼이영 몸빼영 하고 그자 나쁜걸로는 그자 같옷.

106010 @ 그 광목으론 뭘 멩글앗수강?

106010 #1 광목으론 예 두루막 ㄴ뚝 거. 옛날은 예 광목으로는 광목으로는 이녁 이 만들지 안흐난 광목으로는 특별히 흐쉴 좋게시리 해그네 광목 직광목 사당 직광목 사다그네 그걸 잣물에 숲양 잣물에 숲아그네 솟되 낱 잣물에 숲아그네 그거 빨양 빨양 물리왕 또 물 적정 또 널고 해 가민 그것이 직광목은 혜영 흡니다, 혜영. 혜영흐면은 그걸로 시집갈 때 치매저고리도 옛날은 그런 것도 행 입고 남자덜 장개 갈 때에 두루마기영 바지저고리도 그걸로 흐곡 광목. 미녕보다는 광목을 아주 높이 봤주게. 미녕은 이자 어디기냥 동네 웨방갈 때나 입곡 그자 영홀 걸로 알아신디 저 광목은 흐쉴 미녕보다 흐쉴 높은 짚. 멩지만이 못흐곡. 그자 제사 때에 두르막 ㄴ뚝 거 흐여그네 제사 때 입곡. 제사 때고 멩질 때고 광목 두르막 그자.

106011 @ 그다음에 영 흥세미녕 알아지쿠가?

106011 #1 흥세미녕.

106011 @ 예 그거 흥번 고라줍서.

106011 #1 흥세미녕 잘 고라보서 흥세미녕.

106011 #3 흥세미녕은 그 결혼할 때에 그 미녕을 흥 빌 답읍디다. 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집윗 하르방이 날 들레 가젠 흥민 신랑칩이서 흥세미녕이 따로 어서마 씬. 미녕 흥 빌이 흥세미녕. 흥 빌 기자 딱 끈치지도 아녀곡 탁 흥 빌 채와그네 그 디 신랑칩이서 신부칩일 보넵디다. 보내민 따로 신랑가그네.

106011 #1 신랑이 멋이우짜 새서방이주.

106011 #3 새서방이 새서방 가민 새서방이 갈 때 그거 으정 갑디다. 으정 가그네 나도 들레갈 때 그걸 으정 강 주난 따로 그걸 우리 어머니가 낫단에 나가 이디 오란 살아가난 줍디다게. 계난 그거 주난 그걸로 끈으멍 옷도 맨들양 입곡 하근거 맨들양 입곡. 경흐는 게 흥세미녕이라 흡니다게.

106011 @ 계난 흥세 안에 담야간 경하구나.

106011 #3 예예 흥세에 담양가난 흥세미녕 경 곤는 겨우다게. 경흐연 옛날은 주루 그 흥 빌 담안 흥세로 보넵수다. 계난 이젠 미녕멩지 어스난에 시룽묵 흥 통 담양 보넵수게. 우리도 아들 풀 때 시룽묵 흥 통 담양 보넵수다게. 베도 흥 통 담양 보내곡. 계난 다 돌아오라십디다게. 경흐는 게 그게 흥세미녕이우다게. 그 담양 보내는 게 그게 흥세미녕.

106012 @ 그디 저 미녕 맨들젠 흥민 멘네 같아야할꺼아니우짜 멘네.

106012 #3 예게.

106012 @ 멘네농사 저봅디강?

106012 #1 멘네농사는 멘네 씨를 멘네 씨를 아시날 저 오즘에 등가, 오즘에. 오즘에 저 멘네 씨를 경놏다그네 뒷날은 그거 건져내영 오즘 다 빠지게 건져내여그네 밧디 강 뚝 씨 뿌리듯 그냥 영영 뿌려. 영영 뿌려. 영영 뿌려그네 이제 쉼로 가는

거라 이제. 쉼로 갈양만 내불민 돼여. 씨 뿌령 쉼로 갈양만 내불민 돼민, 이제 그것 이 얼마, 흥 열흘 돼가민 조끔 우터레 올라오기 시작혀여그네 놔그네 흥쓸 커. 흥쓸 검질 멜 만큼 커가민 우선 검질부떠 메곡. 검질부떠 메영 어느 정도 크면은 우막읍 디다 멘네. 가장이 막 요라이 벌기렌. 흥 밧디만 올라가지 말양 가장이 막 벌기렌. 울 똑똑 우막아. 초불 막당 다 못 막아진 건 또 두불도 막곡 흥명 경 우막아. 우막 으명 이제 막 이젠 클 만이 커노면은 가을 들영 그슬 들어가면은 그것이 흥나 드래 가 생겨그네 멘네가 드래 생겨그네 그걸 드래엔 흥여 드래 생겨그네 드래가 이제 막 커그네 굳어가면은 멘네가 됩디다. 그거 멘네 돼면은 멘네가 돼영 막 익으면은 딱딱 벌어지명 이추록 등기여, 알러레, 알러레. 막 등기면은 등긴 거 영 툽하게 튼 야그네 검질 부떠시민 툽툽 알러레 털어뒤그네 농곡. 그추록 흥명 경했주.

106012 @ 계난 멘네 그 타와야 웰 거 아니우파.

106012 #1 타와야주게. 멘네 영영 그걸.

106012 @ 계민 밤에 까고?

106012 #1 까질 아녀. 그거 영 흥영 까진 멘네를 빠웁주게 멘네를. 멘네를 빠면 밤에는 그 검질이나 다듬지 검질 그쁜 거. 까는 건 마춤막에 마춤막에 저 동지 선 들이나 놔그네 까지지 못흔 거나 타당 물리주, 까지 안힙니다. 멘네 처음에 지냥으로 다 벌겨져.

106012 #3 경 흥고 나도 저 멘네 갈아봤수다. 멘네 갈아네 두 해 갈아네 딸덜 두 개 시집 보내고 남은 거 사단 했수다만은. 밧디양 멘네도 막 밧 골립니다. 좋은 밧 아니면 아이돼여.

106012 #1 경 흥고 해변더레가 잘 됩니까.

106012 #3 저 이 땅 쉼 밧 우리 갓시웁 밧디 우너 판이 갈아네 맨넬 경 우막으민 탁 벌어져그네 막 드래기가 하영 엽니다. 하영 열민 그슬 들어가민 그게 자연적으로 해양게 케여영마쉴. 그 드래기가 벌러지고 흥민 경흥민 드래기가 해양게 잘 쉼건 소게도 막 곱고 따로 케지 안혀여그네 지냥으로 이제 우리가 벨랑 흥 건 소게도 곱힙니다게. 경흥연 그거 흥여당 옛날엔 그걸로 멩지 힙디다게. 미녕 힙디다게 그거. 경행 그거 타따그네 또 우리 브르는 저 그 클이 셔. 브르는 거 영영 맥이민 그자 속속 들어가민 블라지민 그거 저 클에 가그네 태워당 정 맨들양 정 영영 맨들 아그네 경흥영 그거 물레흥영 좇아그네 그거 무등에 감양 경행 저 매여그네 그거 저 미녕을 맨듭디다 경흥영. 기민 그 과정이 나도 어멍네 집의서 갈양 그 멘네 타 보고 우리 이 동광 오랑도 갈아네 멘네 타당 해보곡 경 했수다. 경흥영 미녕흥는 건 우리 어머니가 원체 잘 해노난 소까이흥연 올라온 후체기진 저 미녕을 찾수다. 그뻘 이 쓰봉이고 이런 몸빼고 어섯수다게. 문딱 갈중이만 맨들양 입어서. 이거 이제 일본식으로 문딱 이 몸빼고 뒤시고 이제 저 케멩웨난 맨들암주 그뻘 문딱 사름 덜이.

106012 #1 그제는양 미녕, 저울에 입는 건 미녕바지 흥면은 안도 미녕 겹테기도 미녕흥민 그 미녕 솅을 바지 영 끝아냥 솅을 끝안 이디 새에 저 멩지 저 소게 바지

잇수게 소개바지. 바지도 소개바지. 소개바지 햅여그네 이 틈에 영 햅영 이디도 안
 도 미녕 겁데기도 미녕 햅면은 가운데레 미녕, 그저 맨네 태워다그네 짹 햅게시리
 끌아그네 시꺼그네 이레 햅여그네 가운데로 딱 들어가고 이제 ㄱ뜨민 거 무신거 득
 터럭햅여그네 가운데 그초록 햅듯 짹 햅게 맨들아그네 바지도 경 맨들곡 저고리도
 경 맨들곡 겨울에 입는 저고린. 겨울에 입는 저고린 소개햅영 소개햅영 가운데 경
 놔그네 저고리고 바지고 할으방덜 경 행 입지곡. 여름에 입는 건 웨곱 웨곱으로 바
 지저고릴 맨들아그네 훗바지 훗홀저고리 햅여그네 경 입지고.

모시

106013 @ 모시 재배해봅디강? 모시.

106013 #1 우린 모신 안해봤수다.

106013 #2 모시, 모신 어려왕 못 합니다. 옛날 할망덜은 삼 갈안에 햅젠 합니다
 만 우리 큰 후젠 모시햅는 건 아니 봤수다.

106013 @ 계난 모시햅고 삼이 ㄱ뜨민 거짱?

106013 #1 삼으로 모시 만드는 거 삼 갈앙.

106013 @ 삼으로 모시 만드는 거라.

106013 #1 예 삼 갈아그네 그거 저 막 크도록 질 햅 나민 그거 비영 거죽 베짱.

106013 @ 계난 삼 해봅디강?

106013 #3 옛날 우리 아버지네 햅연 햅 거.

106013 @ 거 햅번 곱아줍서.

106013 #3 삼 기자 영 햅민 그거 잘도 만이 나는 겁디다게. 경 낭 나민 그걸 비
 여. 비여그네 그걸 문딱 거죽 베깎디다 거죽 베껴그네 그걸 따로 물에 놔그네 문.

106013 #1 솟아야지게.

106013 #3 솟앙 문 번곱닥햅게 바루와그네 경행 모시 맨들아낫덴 합니다.

106013 #1 삼을 처음에는 삼 썸이 햅쥬.

106013 #3 너풀너풀 너풀.

106013 #1 똥글똥글 햅다그네 너풀너풀 햅여. 겨그네 저 거세기 짹 해가지고 삼
 햅영 이염에 햅그네 갈민 삼 썸이 너풀너풀 햅민 그 두린 때부떠 크는 과정이 양
 막 가쟁이 벌겨다 낱 항상 쫄라부러 이 가쟁이 벌기는 거 쫄라부러. 가쟁이 벌기는
 거 쫄랑 그자 우트레만 구짱 올르게시리 햅민 막 기영 올라가. 경 햅영그네 햅민
 익으면은 세여. 막 세민 그걸 비여그네 짹짹 거죽 베껴그네 그 거죽을 솟앙. 솟아그
 네 이제 닥닥 두드리멍 막 두드리멍 그걸 물에서 빨아. 물에서 빨곡 빨곡 햅가민
 그것어 힘디다. 경행 그것에서 썸 햅여그네 햅는 생이고. 우린 삼 솟앙 아방 햅는거
 민 삼 햅그네 그걸로 그자 그런 거 햅는 건 아니고 베 꼬는 거 삼.

106013 @ 모시썰 햅는 건.

106013 #3 모시썰 햅는 건 우리 모시썰 햅는 건 우뜨르서 이 모시썰은 안해 봤
 수다. 그 삼 갈아그네 햅면은 그 저 그걸로 베. 우린 이디서 모신 안해 봤수다.

106013 #1 그거 벤 막 좋주기.

106013 #3 예 베 흡디다.

106014 @ 베로 해그네 어떤 옷 맨들야?

106014 #1 옷 맨드는 것이 아니고 그거 베로 햏여그네 저 췌 ㄴ쁜 거 무신 거 짐 시끌 때에 곡석햏 시끌 때에 그걸로 햏에 영 질기는 거게 등기햏 딱 햏게시리 얽는 베 얽는 베 얽는 벨 햏는 거주게 얽는 베 게민 막 질기는 때문에 그췌록 햏 베는 췌고로 좋은 거 삼으로 햏 베.

106014 @ 게난 모시햏고 삼은 ㄴ쁜 거햏?

106014 #1 ㄴ쁜 거.

106014 @ ㄴ쁜 거라?

106014 #1 모시가 키와그네 그것이 하간거 과햏이 그걸로 습고 빨고 햏햏 햏영 게 맨들야그네 걸 모시 햏는 거주게.

106014 @ 게난 모시췌 햏글야그네 모시 옷 햏글지 안햏니까?

106014 #1 예.

106014 @ 옷 햏글야 예.

106014 #1 예 게난 우리는 모시췌 만드는 걸 맨들고 모시옷을 햏는 걸 안 봐햏서.

106017 #3 그건 안 봐햏고 삼으로 저 베 옛날은 베도 어섯수다게. 베 어스난 우리가 그자 손으로 꼬햏만 짐도 햏 데니곡 구루마 구루마도 아니우다 췌에 짐 시끄는 거 그걸로도 맨들곡 또 세햏줄도 영 햏여그네 매어그네 그레 세햏 빨래도 널곡. 그거 바래지 안햏영 곱지 안으민 물레 들어부렁 빨래 햏 빨래나 널민 햏햏디다. 게난 그걸 막 곱햏햏게 노 꼬야그네 세햏 베도 매어그네 그것에 널민 물레 안 들영 곱고 그걸 곱게 햏영은 빨래 물레 들영 안 햏디다게. 게난 이제난 햏췌 뒤 베가 셋 수장 옛날은.

106017 #1 베사 무신 그때사 베사.

106017 #3 삼베 삼베 햏햏야.

106017 #1 응 삼베 삼베 햏햏 그걸로 그자 그 베가 햏 좋은 베 햏 안 햏영 물총으로 햏여그네 물총곤영 물총베도 햏 낫수다.

106017 #3 물총베도 햏여 (웃음).

106017 #1 물총베 물총베도 햏여그네 그거 좋은 베 물총으로 맨들야 베 끈 건. 물 질뤄그네 옛날에 우리 아방네 햏는 거 보민 물 질뤄그네 물총베를 영 햏여그네 줄햏롱이로 영영영 햏그네 그걸로 줄 노햏야 그걸로 베 햏햏이네 베 햏여 거 췌고 좋은 베.

106017 #3 췌고 좋은 베.

106017 #1 그거.

106017 #3 거고 베 이제 햏도 옛날은 베도 어려햏수다게. 예 베도 막 어려완.

도구

106019 @ 또 그거 저 미녕하고 멩지 멩글젠 흐면은 그 도구 씨아 씨아에 대행 말해줍서.

106019 #1 씨앗.

106019 @ 씨 아 그 씨빠는 거 아니짜게.

106019 #1 썰.

106019 @ 씨 아.

106019 #3 아 멘네 저 멘네씨도게 물레도 브르민 씨가 나옵디다. 물레로 다 블랏수게게. 그 멘네 브르는 물레가 다 이서마썸.

106019 @ 저 물레.

106019 #3 예 물레가 서.

106020 @ 물레에 대행 말해봅서.

106020 #1 물레는 예 물레엔 흐 물레는 저 이추룩 흐 거라. 요 푹 이만이 흐 이 추룩 흐 췌에 요만 흐쌀 영 흐여그네.

106020 #3 낭으로 만들어서.

106020 #1 영 행 낭으로 맨들앙 영 흐영 흐민 이쪽으로 영영 해그네 이 물레가 두 개라 영 흐영 이거 두 개 낭인디 올로는 무신 끄트머리에 영 흐영 뱅뱅뱅뱅 이 낭 두 개에 떡영 영 돌아가게끔 흐 거 맨들아십디다. 영영 돌아가게끔 맨들아서 끄트머리 이쪽 끄트머리 이 바껏딜로. 경 흐영그네 영 흐영 들르민 그것에 맞춰그네 그것이 돌아가는 생이라 일로 영 돌리민 손으로 돌리민.

106020 #3 그걸 영 기계로 맨들앗주게.

106020 #1 아이게 기계가 어디 잇수강 그때게.

106020 #3 손으로 안으로 영 흐민 올로 메겨그네 영 돌리민 그게 그자 배껏드레 밋밋밋밋 나오멍 썸 앞더레 털어지고 뒤터레 나갑디다게. 경행 나강 경행 블라정게.

106020 #1 게민 그 씨 씨는 씨대로 털어지고.

106020 #3 털어지고.

106020 #1 맨넌 멘네대로 저래 나가고 게민 이 씨는 씨는 그 씨론 옛날에 지름도 뽑디다. 멘네 씨로 멘네씨 지름 멘네씨 지름도 빠곡 멘네씨 지름이나 빠곡 또 저 씨나 그걸로 멘네 씨나 전 흐곡백인 별로 씨는 흐는 게 웃고.

106020 #3 경 흐고양 그때도 여산 부러네 문딱 낭으로 맨들앗수다. 거 무신 브르는 걸 낭으로 영흐영 그자 요만인 높이흐곡 낭 두 개로 그자 이런 기럭지 깁노롱 흐 거 영 두 개 메와그네 요펜으론 또 영 들루게 맨들민 그자 그게 영 블라집디다.

106020 #1 그때 하르방도 옛날 하르방덜도.

106020 #3 지주가 좋아서.

106020 #1 지혜가 좋아서. 이제 그뜨민 저 나사 영 흐여그네 나사가 아니고 거 무신 거냐 영 흐영 돌령 바쿠 영영 돌리민 그 췌 췌 영영 도는 식으로 낭 끄트머릴

경 만들앙 올로 영 돌리민 그것이 영영 돌아가게끔 헨에 씨가 그초록 멘네 씨 잘
블라집디다.

106020 #3 저 낭으로 맨들아신디.

106020 #1 다 낭이라 다 낭.

106020 #3 다 낭으로 맨들아신디 잘 버르게 맨들앗수다. 이제 그걸 데껴블지 안
해시민 문딱 불 안 케와시민 고만이 실건디.

106020 #1 다 싯곡게 거싸.

106020 #3 다 불 케와부난.

106021 @ 그다음 베틀 베틀에 대행 혼 번 말해봅서.

106021 #3 베클 아니.

106021 #1 베클게 베클.

106021 #3 미녕 차는 거.

106021 #1 응 미녕차는 베클.

106021 #3 미녕 차는 건 양 낭으로 다 맨들앗수다.

106021 #1 다 낭이주.

106021 #3 다 낭으로 맨들앙 낭 크게 영 흥영 질게 맨들아그네 이제 저 도꼬마
리 그 도꼬마리엔 혼 건 영 미녕 메민 메명 영 감읍디다게. 빙빙하게 감으민 브딜
혼난 브디집 이제 씨 노는 거 흥고.

106021 #1 도꼬마리엔 혼 건 어떤 거냐 흥면은. 영 흥여그네 낭 시민 이디는 이
만이 문짝 이만이 넓어 넓어 이짝에도 이만이 커 영 커그네 영 영 흥여그네 저 사
름 손으로 영 흥여그네 돌리고 가운데는 썰 감곡. 요건 이 양지 귀에 다 걸쳐지게
끔 이만이 이만씩 큼데다 이만씩 커. 경 해그네 양쪽에 다 걸쳐지게 그 뜯 낭에 걸
쳐지게 그걸 흥여그네 미녕도 다 창 영 흥영 이만이 차지민 영 흥영 탁 흥민 그게
풀어져. 게민 그 미녕 찬 건 허리레 영 흥영 영 흥영 감아뒤그네 또 차곡. 경흥는
것이 그것이 도꼬마리. 그 말췌 거.

106021 #3 그 도꼬마리고 그 베클 베클 영 행 노민 그 도꼬마리를 베클 우트레
올려 놔마췌. 올려노민 영 흥여그네 그것도 기계식이주게 낭으로 맨들 문딱 낭으로
저 맨들앗수다. 낭으로 맨들아신디 우트레 흥나 영 흥여그네 칭 맨들앙 저 영 신착
흥나 돌아맵니다. 신착 흥나 돌아매그네 영흥영 조악하게 신 등기민 그 브디집이
탁 올라가명 영 공간이 생겨마췌. 경흥민 꼬리뺨으로 그거 들이청 미녕 참디다게.
그 낭으로 영 맨들앙 두 밧디 탁탁 새영 쥐그네 맨들앙 노프게 저 뒤트레 가는 건
노프게 흥고 우리 앓는 딘 예프게 맨들아그네 널착 흥나 이래 탁 놔그네 우리 앓이
민 밧 흥나 영 흥영 또 신착 돌아맨 영 노프게 돌아맹 줄 그레 채왕 신착 흥나 들
아맹 그레 영 등기민 그게 영 브디집이영 탁 올라가민 그레 꼬리팍 들이창 툽툽 차
고.

106021 #1 영 웨민 영 웨는 거주 영영.

106021 #3 게난 그거 그자 그 도꼬마리가 문 차지민 브뜰 거 아니파. 경흥민 영

밀리민 그계 영 흐명 풀어져마씀. 풀어져그네 경흐명 찻디다게. 경행 문딱 낭으로만 맨들앗수다. 흐나 무시거 뜬 건 들어가지 안 했수다. ㄴ쿨 낭으로만 여산헨 다 만들어.

106021 @ 계난 낮인 밧디 강 일하고 밧인 미녕 찻 때?

106021 #3 밧인 미녕을 못 찻니다. 낮의 차주. 미녕 좇으민 밤에 좇곡 멘네 브름도 밤의 브르곡 이제 미녕 좇음도 밤의 좇음디다. 우리 어멍 열두 시ㄱ정은 줌안 찻디다. 미녕 좇젠 흐민. 경흐민 우린 따로 새에 막 좇안 놔두민 잘못 좇앗젠 막 옥듣고 경 했수다게. 경 흐고 그 모둥일 다섯새 흐젠 흐민 다섯 꺾 감곡 일곱새 흐젠 흐민 일곱 꺾 감곡 으답새 흐젠 흐민 으답 꺾 감곡 그 수정마다 흐나씩 모두께 흐나씩 드리칩디다게. 경흐민 그걸 거둑에 낭 그걸 매젠흐민 그걸 뽑아마씀 썰을. 영 뽑아나사 미녕을 메어그네 영 찻디다게. 계난 그거 너는 것도 줌 뽑는것도 따로 이서.

106021 #1 이 박새기 하나에.

106021 #3 모둥이 하나 뵈 철.

106021 #1 썰 도로기 썰 도로기가 모둥이주게 썰 도로기가 모둥이면은 박새기 하나에 썰 도로기 하나씩 영 행그네 쭈런이 놔. 일곱 개민 일곱 개 놔그네 그래 흐나씩 놔그네 그 썰을 흐나씩 영 뽑아 췌어 이 손에.

106021 #3 모두청 기계가 십디다게.

106021 #1 영 해그네 모두청 모두청 췌어그네 쪽 흐게시리 오라그네 이디 따시 ㄴ래착 흐여그네 그거 딱 무끄는 거 잇수다. ㄴ래착 ㄴ래착 손 잡는 것에 ㄴ래착에 딱 무껴그네 그것이 느는거 흐여그네 그초록 흐여그네 ㄴ사 거 무신 것에.

106021 #3 빙빙 감아 그것더레 빙빙 감앗다그네 말째에 미녕 놀젠 흐민 그걸 풀멍 풀뻍이멍 브디 췌와그네.

106021 #1 경 흐여그네양 그걸 여라 개 딱 흐게 모아그네 ㄴ래착더레 딱 흐게 시리 딱 무경양 영영 흐민 ㄴ래착에 흐 대 흐 빌이민 흐 빌내기 쓰무자민 쓰무자내기. 그거 어느 만흐민 흐 빌내기 쓰무자내기가 옛날 할망덜 지혜로 아는 생이라. 경행 그 모둥잇 걸 다 ㄴ래착 멋더레 문딱 감아놔 감아놔그네 그걸 따시 이짜드레 따시 영 행 등기멍 등겨내그네 그 ㄴ새 그 무신 거.

106021 #3 가시리 풀 흐명.

106021 #1 가시리 풀 흐명 그거 맥이멍 들루멍.

106021 #3 브디 췌왕 브디 끼왕.

106021 #1 그걸 가시리 가시리 췌왕이네 그걸 문딱 경흐영 감아내민양 그걸 흐나흐나양 브디가 이서 브디.

106021 #3 썰 흐나 들어가는 브디가 셋수다게.

106021 #1 게 흐면 저 이제 ㄴ뜨민 대, 왕대 ㄴ뜨민 걸 흐여그네 ㄴ늘게 이제 ㄴ뜨민 니쭈시개 닳은 걸로 그초록 만들어그네 영 흐여그네 요만 요만 요만이 넓게시리 요만이 요만이 질게 질게흐여그네 그 쭈드레 하나하나 썰을 다 췌러 그 췌굽더

레 하나하나 그 고망드레 찢러그네 그 찢러는 다음에는 그거 흔 거 쥘 어려운 거
문딱 하나하나 찢러 놔그네 찢러는 다음에 그걸 이짜더레 가그네 또 메는 거라 이
짜더레 등겨당 메어그네 이제 그 가운데서는 그 두 개에 매지 안흡네까.

106021 #3 경영 두 개에 맺주기. 헛난 즐멍 풀멍 매고 헛난 또 일로 헛는 거 일
로 메어 가멍 일로 감곡 풀곡 경 했수다게.

106021 #1 일로 감고 흔 짝으론 풀고 흔 짝으론 감고 그 솔로 헛여그네 가시리
풀 썩그네 영영 뚱이멍 똥똥풀 이 아래서 똥똥이랑 폐와그네 들어 똥리멍 영영 행
그 풀 해그네 버짜행 잘 뚱이민 잘 똥리민 이짜 도꼬마리레 팽 헛게시리 감곡 이짜
에서 영 해그네 헛영 나오민 그짜 그래착에 해진 거 풀멍 톡 감곡.

106021 #3 계난 그 브디가 양 저 일곱새에 브디가 잇곡 으답새 브디가 잇곡 닷
새미녕 브디가 이서마썩. 다 브디 그 브디 매는 게 일곱새 일곱새미녕 브디 메우곡
으답새 으답새 브디 매곡 닷새미녕은 또 훑은 브디 매곡 경 흡디다게. 경헛민 매우
는 걸로 감아 브디로 감아 기민 경헛여그네 두빌도 감고 흔 빌도 감고 경햐참디다
게.

106021 @ 줌 쉬엇당하쿠다.

106021 #3 경 흡서.

바느질

106022 @ 바느질에 대해 물어보쿠다양 바느질 바느질 할때 그 도구 어떻게들잇
수과?

106022 #1 바느상지 바느상지 바느상지엔 바느질할 거 험벅 쪼꼬래기영 썰이영
바느이영 따시 옛날에는 속돌 바느 그는 속돌 잇수다. 바느 옛날 이제 바느는 안
보며도 옛날 바느는 썩 나오민 그냥 헛썰 헛민 보며부러. 속돌도에 큰 속돌 작은
속돌 헛여그네 바당에 그 속돌 잇지 안흡네까 그런 거, 그런 거라, 그런 거. 속돌
우선 속돌로 놓곡 바느상지에. 속돌도 큰 거죽은 거 헛여그네 속돌 놓곡. 또 험벅덜
놓곡. 또 썰놓곡 바느놓곡 바느 놓는 건 험벅 헛여그네 요만이 헛여그네 쏘복에 숨
이나 그때 시절엔 숨이나 하여튼 머리덜 그쁜 가라도예 그런 거 헛여그네 담아그네
동그락 헛게 영해 시 귀 나게나 영 납조룩 헛게시리 그거 바느그래 찢렁 놔나두는
걸 만들어. 만들어그네 그디 저 끈을 돌아 험벅으로 헛여그네. 끈을 돌아그네 험벅
소랑헛게시리 그걸 돌아그네 그걸 이제 바느상지엔 헛주게. 그 구덕 바느 놓는 거
그라 바느상지. 바느상지 바우레 돌아매여. 그걸 드랑헛게 돌아. 게민 바느를 쓰당
남으면은 그레 콧 찢렁 놔두곡 큰 바느도 그레 찢렁 놔두곡. 계난 바느 일러볼지
안 헛게게. 바느 쓰당 남으면 그레 콧 찢렁놔두곡. 따시 쓰다그네 보미민 속돌에 복
복 글멍 그 바느 쓰는 거.

106022 @ 그 저 바느 뽑는 걸 머엔 흡니까?

106022 #3 썰패.

106022 #1 아니 거 감는 것이 썰패.

106022 #3 감는 거 싹빼고 것이라 무시거엔 혼다만은. 것도 잊어부렁 모르크라.

106022 #1 감는 건 싹빼고 그건 몰르큰게.

106022 #3 바농칩이엔(웃음).

106022 #1 바농찹 바농찹 아이라.

106022 #3 것도 잊어부러신게.

106022 @ 골무.

106022 #1 거 골무는 바농질홀 때 찌는 거고. 저 거 바농질홀 때 찌는 거고.

106022 #3 그거 잘 모르겠네.

106022 #1 그 바농 찢르는 거.

106022 @ 그 웨로 엇수과 바농질홀 때?

106022 #1 바농질 홀 때 골메 그건 그거.

106022 @ 골메.

106022 #1 골메 그거 그거 우린 골메 찢 해본 디 엇수다만은 바농질아치덜은 그 옛날은 골메를 찢수다게. 그냥 집의서 그냥 하는 건 잘 안 찢니다. 그거 안 찢 호곡 하여튼.

106022 @ ㄹ새도 이실 거고?

106022 #1 ㄹ새호곡 기본은 기본은 기자 ㄹ새호곡 바농호곡 싹호곡 속돌호곡 저 바농상지에 놔두는 건 험벅덜 험벅쪼가리덜 호곡. 험벅도 옷 하다그네 미녕옷이라도 호단에 영영 ㄹ사분 거. ㄹ사분 거영 이젠 데껴불주만은 그뎨 그릇 쪼가리덜 다 모아그네 바농상지에 놔뉜. 바농상지에 놔다그네 옷덜 혈면은 그거 대명 줍주.

106022 #3 우리 비온 날은 놀레 텅기지 못 했수다게. 옷 줍젠 호민. 현 옷양 입 언 출 저나민 독ㄹ릅도 문딱 브러지곡 이런 엉덩이도 브러지민 그거 먼 대영 줍곡. 옛날은 양 양발도 이젠 영 질겨도 막 ㄹ멩이난 호출만 신어가민 터져롭디다게. 경 호민 그 양발 받양 신곡 보선도 따로 보선받양 신곡 현옷 줍곡 호당보민 낮의도 시간 어성 놀레 갈 저를도 어십디다게. 계속 경호명 살앗수게. 경 호곡 옷도 치매 치매도 주름앗정 주름앗정 치매 맨들곡 어깨마리 맨들곡. 경행 이젠 미승이 미승 셋 수가게 미승 어스민 우리 손으로 다 맨들앗수게. 경호연 입언 살앗수다. 저 치매도 맨들양 입곡. 따로 저 몸빼는 이제사 나난 저 같중이영 맨들양 입곡 했수다게. 양발 도양 옛날 우리 오라방 호교 저 중호교 다니젠 호난 호를 신영 강오민 픽 벗영 데껴불민 그 양발 밤의 받양 신영 또 뒷날 강오민 벗영 데껴불민 또 받양 신지곡. 경 호곡 이녀 보선 받양 신곡 오라방 양발 받양 신지곡 호젠 호민 어디 놀레갈 저를도 어습디다. 이 이디 오랑 동광은 오랑 살젠호난 더 일이 하부난 더 호지 못호킵디다게. 비온 날은 우영에 검질 메져, 옷 줍져, 저 아기 지성기 빨져, 물 강 정오져. 경 호명 이딘 오난 더 바빴 경호디텐 호난. 경호명 살앗수다.

106023 @ 계난 바농질 홀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니우파?

106023 #1 예.

106023 @ 홀트는 것도 잇곡 영 그냥 띄엄띄엄 주는 것도 잇곡.

106023 #1 예.

106023 @ 거 한번 말해봅서.

106023 #1 치매 주름은 맞지젠 흐민양 영 흐영 특 흐게 줍아그네 영영 저오곡 저오곡 흐명 치맷허리에 맞지 안 흐민 그거 쪽 흐게 웨어왕 치맷허리에 똑 흐게 맞게 맨들아그네 우리 들안 입엇수다게. 경행 들안 입곡. 딱로 이 저 고무줄 놓는 디도 영 흐영 맨들젠 흐민 막 훑게 그건. 이 댕침흐민 잘 브러지지 안읍니다게. 댕침 흐민 흐민 브러려지지 안 행 그자 영 호흐민 브러려지곡 흐민 영 댕침 짹작흐게 흐여그네 이런 실밥을 댕침흐명 만들엇수다게.

106023 #1 댕침은 바농질이엔 흐는 것이 댕침이 잇곡 그냥 호흐는 것이 잇곡 감치는 것이 잇서. 뒷바농질이 잇곡 그 썰 과정이.

106023 @ 그거 자세흐게 말해봅서.

106023 #1 뒷바농질은 뒷바농질은 예 이런 저 바지 알 ㄴ뎡 디 흘 때 상각곤흐게 상각곤흐게 흡니다. 영 해그네 이제 저 바지 알 이추록 감추는 거 겹데기로 썰 나오지 안 흐게 흐젠 경흐여그네 그 뒷바농질 흐곡. 딱시 감추는 바농질은 보선 ㄴ뎡 거 저 대비 ㄴ뎡 거 옛날은 대비우다, 대비. 대비를 줍젠 대비나 보선이나 줍젠 흐면은 대비나 보선이나 줄 때는 영영 흐여그네 감추는 거 감추는 걸로 흐곡. 딱시 치매 ㄴ뎡 거 치매 ㄴ뎡 거 흘 때는 그냥 영 그냥 영영 그자 영영 호흐는 거 영영 경 호흐는 거 또 댕침 댕침은 댕침은 바농을 댕침이엔 흐 건 좀 바농질을 질기게 오래 가게 썰밥 바깳더레 안 나오게 흐민 영 흐영 흐번 흐여그네 두의로 흐번 쪼러 그네 영 흐곡 앞으로 두의로 흐번 쪼러 영 해나민 뒤로 영 흐번 쪼러 영흐는 건 건 댕침. 계난 바농질도 댕침 싯곡 뒷바농질 싯곡 호우는 바농질 싯곡 감치는 바농질 싯곡.

106023 #3 거난 것도 네 가지우다, 네 가지라. 바농질 흐는 것도 네 가지.

옷 종류

106024 @ 그다음에 그 옷 종류 물어보쿠다양 그 남자 옷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잇수과?

106024 #1 바지저고리?

106024 @ 남자옷.

106024 #1 남자옷에 옛날은 살마다 살마다 흐곡 저 중의 쏘복에 입는 거 중의. 남자덜 입는 건 그자 옛날은 어디 갈 때 어디 웨방이나 갈 때는 살마다 살마다도 집의서 맨든 살마다 그다음에 바지 바지 입어그네 쪽바지 입어그네 우의 그냥 조선 옷바지 입어그네 흐곡. 저고리도 흐쌀 잘 입는 사름은 쏘복에 안저고리 입어. 쪽저고리 안저고리 입어그네 우의에 저고리 입어그네 그 우에 쪼꼰 입어 쪼께. 담배도 농곡 부세도 농곡. 그때 부세엔 해서 부세도 농곡 담배참지도 농곡 흐젠 영 두 개 들곡 우의도 흐나 들곡. 건 쪼께 광목으로 흐난 미녕으로 흐난 쪼께 맨들아그네 입어난 쪼께 우위 저 두루막을 입엇주게. 어디 웨방갈 때 그건 나들이복, 나들이복.

나들이복은 입젠 흐민 두루막 우터레 입어그네, 경행 가곡. 딱시 그 두루막 우터레는 제사 때 ㄴ뜨 때 흘 때 특별하게 입을 때는 저 도복 남자옷은 주루 그거 어디 갈 때 입는 것은 그거 남자옷은.

106024 #3 경 흐곡 여름엔 남자들은 창옷 입엇수다게. 창옷 입곡 저울엔 두루막 입곡. 이 중의적삼 입곡 창옷 입곡 여름에 나들이흘 때 남자들.

106024 #1 창옷은 홑옷 홑옷이 창옷 두루막은 겨울에 입는 안 영 놔지는 것 이 두루막. 안 안 아이놔그네 흐 겹으로 해진 건 창옷.

106024 #3 여름엔 창옷 입곡 저울엔 두루막 입곡 경헛수다.

106025 @ 여자 옷 종류 곱아줍서.

106025 #3 여자옷 종류양 주로 치매하고 저고리 입엇수다.

106025 #1 여자옷도양 옛날엔양 쏘복에 속곳 속곳 입곡 그 다음에 저 중의 중의 이서서. 저 중의 입곡 그 우엔 쏘복에 입는 치매 입곡. 중의엔 흐 건 양 가당 영 영 해지민 어울러지곡 그냥 가당 오줌 싸지는 옷이 이섯수다 중의. 그런 그 저 속곳 입곡 중의 입곡 우의는 그냥 미녕으로 맨들아그네 어깨마리만 이제 ㄴ뜨면 부라 자식으로 어디 것도 특별흘 때갈 때 그런 거 입주게. 그냥 집의선 그런 거 안 입는 디 그 저 어깨마리 집의서 것도 어깨마리 만들어그네 다 만들어그네 어깨마리 입곡 저 우원 적삼 입어그네 그냥 어디 그냥 여자 보통 가는 맨 적삼 입곡 저울엔 저고리 입곡 어깨마리만 입으면 뭐 난닝구나 그런거 없어 계난에 어깨마리 입곡 적삼 입곡 겨울에는 어깨마리도 입곡 내이도 어선 그냥 저고리민 접저고리 경만 입영 땡기곡 아래는 속곳 입곡 중의 입곡 치매 입곡 경흐영 땡기곡. 주루 경 입어 땡기곡 여자덜은 그거.

106025 #3 옛날 할망덜은 난닝구도 웃곡, 내이도 웃곡, 아무것도 어스난 적삼 흐나 입영 췌도 드러 내연 땡겅수다게. 동네에서 땡길 때 췌 문딱 내영 땡겅수다.

106025 #1 영 흐영에 췌르민양 차디 디친 사름은 일루 나오주게.

106026 @ 아이 옷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과 아이 아이덜 입는 옷.

106026 #3 아이 옷도 영 우리 다 맨들양 입겅수다.

106026 @ 계난 어떤 옷덜.

106026 #1 아이덜 입는 거 그 옷 일름을 모르크라.

106026 #3 그 무신 거게 원피스게 영 치매 우알 부튼 거.

106026 #1 아니 어린아이덜 입는 옷은 예 어린아이덜 입는 옷은 양 그때 아기 들 입지는 거 베려보민양 이 저 아이덜 영 흐여그네 옷을 일루 영 흐여그네 입지곡 일로 턱받이식으로 만들어그네 어깨마리식으로 영 만들양 그런 옷 입곡. 알은 영 그냥 저 들르민 아기덜 오줌이영 똥이고 싸와지는 그런 옷이 이섯수다게 그때.

106026 @ 아래 터진 거?

106026 #1 아래 터진 거.

106026 #3 맨들양 입겅수게, 강알 돌랑.

106026 #1 계난 맨들양게 돌르지 안 흐고 그렇게 맨들아 집의서 맨들 때 이 알

저 여자 할망덜 바지저고리 터진 식으로 맨들아그네 알 맨들아그네 우의를 이런데 다 입어지곡 그냥 영영 아지민 그냥 오쭈이영 똥이영 싸지게 경 만들안 입엇주게. 집이서 돌르지 안 하고 경 만들안.

106026 #3 우린 돌르지 안 하고 옛날 영 식으로 영 저 거세기 불중에식으로 맨들아예 입젓주.

106026 #1 예게 옛날에는 다 만들안 입젓지.

106027 @ 옷 맥글아 봅디강?

106027 #1 우리 옷은 그자 이넉 입는 옷.

106027 @ 게메 맥그는 과정을 영 말해봅서 옷 맥그는 과정.

106027 #1 과정 잘 곴아봅서.

106027 #3 과정양 이 치매저고리 맨들은 막 쉽곡 남자양 남자옷 맨들은 호썰 어려웁디다게.

106027 @ 거 호번 양 곴아봅서.

106027 #3 나도 맨들아신디양 중의 맨들젠 호민 맨드는 식에 트나마썸. 이런 이 이런 딜로 부치는 복이 상복 잇곡 이제 저 밋복 죽은복 잇곡 호는 따문 호썰 어렵곡. 우리 이 여자옷 맨들은 쉽곡 남자옷 맨들은 호썰 어려웁디다. 나도 우리 집 하르방 저 이디 오라네 바지저고리 맨들젠 호난 잘도 어려웁디다게. 이 상복은 부째 호고양 이런 디 부치는 복이 터셔 것그라 무신 복이엔 호다만은 그거 부째이 호썰 어려웁디다게. 호디다만은 경 맨들아봤수다.

106027 #1 게난 그 복 상복 무신 허리에 호는 거 무신 복 그런 거 일름 잘 곴아봅서.

106027 #3 상복은 영 호곡 그 이 복은 거 무신 복이엔사 호는지 잘 모르크라.

106027 @ 그거 맨드는 거 영 해봅서 천 이젠 즐라.

106027 #3 천은 양 상복은 영 호영 과째호게 영 호영 부찌곡 또 이런 디 부치는 건 영 꼬라지게 요딘 넓곡 요렌 좁곡 이렌 좁곡 이렌 넓곡 경호는 복이 두 개를 부쳐 두 개를 부째디다. 이레 호나 이째드레 호나 부찌곡 이째드레 호나 부찌곡 상복도 이레 영 부찌곡 이레 영 부찌곡 경 호영네 나냥으로 몰랑 나냥으로 맨들아바신디 어려와 막 송나고 호디다게. 잘 못호디다게. 경행 그거 경행 나 호번 맨들아봤수다.

106027 @ 바농으로 호여그네.

106027 #3 예 바농으로 바농으로 호연 미승 섯수과게 미승 어스난에 바농으로 맨들아봤수다.

106027 #1 그추룩 부칠 때는 호으는 바농.

106027 #3 호으는 바농 행 경호난 우리가 그거 저 같중인 계속 튼지 안 호여그네 저 빨명 들어 입게 맨드난 막 질기게 좁곡 그걸 우리가 또 트덩 빨젠 호민 바르룩 호게 트더지게 호안 맨들앗수다게. 경 그거 맨들양 따로 다듬양 풀 호영 따로 새로 맨들앗수게. 또 맨들양 입지곡 경햇수다. 경호난 그 복이 이제 저 곴아시민.

106027 #1 밋복.
 106027 #3 밋복 밋복.
 106027 #1 건 밋복.
 106027 #3 상복 밋복.
 106027 #1 상복 밋복 걸 해주.
 106027 #3 계난 우리 저고리 남자도 저고리 맨들은 쉽곡, 그 바지 맨들은 어려
 읍디다게. 계난 밋복 상복 부찌그네.
 106027 @ 저고리 맹글 때 그 과정 머영 고라봅서.
 106027 #3 저고린 맨들 막 쉬웁니다.
 106027 @ 계난 해 해봅서.
 106027 #3 광목이 광목이나 미녕이난에 미녕은 두 쪽으로 두 쪽 들여사 맨들곡
 광목은 혼 쪽으로도 됩니다 크난. 계난 저 영 햅여그네 이런 디 영 거세기 부분만
 약아지 부분만 들르곡 스미 햅곡 영 햅민 저고리 맨들은 막 쉬웁니다게.
 106027 #1 계난에 이제 저고리도 짓 영 햅여그네 영 햅여그네 요디 저 저고리
 에 영 햅여그네 이디 굴른거 부찌그네 썰밥 내우젠 곱게 햅젠 거 짓 건 짓 딱시 영
 햅여그네 영 햅민 거세기 요건 옷스미 그 짓 옷스민데 그 짓 꾀동 논 거 아니우파
 106027 #3 꾀동 곱게 맨들젠 햅민 꾀동을 낫주게.
 106027 #1 계난 거시 그거 꾀동 이건 짓 앞의 건 앞섭.
 106027 #3 골름햅고.
 106028 @ 계난 양 우선 바지부떠 물어보쿠다양 바지 바지 꾀텅일 뤼엔 햅니까?
 106028 #1 이거 바지 꾀에머리는.
 106028 #3 골름골름.
 106028 #1 바지 꾀동 매는 거.
 106028 #3 매는 거 골름 맷수다게 영 띠 햅영.
 106028 @ 골름 그다음 명칭들 혼번 곱아봅서.
 106028 #3 영 햅영에 바지 영 햅영 영햅민.
 106028 #1 그 일름을.
 106028 #3 띠 영 햅여그네.
 106028 #1 띠가 아니고 저 거세기 이건 저.
 106028 @ 일름 일름.
 106028 #1 이건 영 매는.
 106028 #3 다림 다림.
 106028 #1 다림.
 106028 #3 다림 햅양 영 햅 오르려그네 중의 영 햅민 영 햅영 오그렷 다림 곱
 닷햅게 다림도 곱닥햅게 맨들앗수다. 경햅 특 햅게 무껴.
 106028 #1 다림을 영 햅영 혼 번 들러.
 106028 #3 들렁 특 햅게 무껏수다.

106028 @ 그다음에 요 여기를?

106028 #3 여긴 또 허리띠. 허리띠 햏여그네 허리띠 것도 옷으로 맨들앗수다게. 허리띠도 골름으로 영 이제 우리 집 허리띠 맨든 것도 실거라. 두 금 놉그네 누비 영 막 줘그네 허리띠 특 햏게 매엇수다게. 이 저 중의 영 햏영 올려다그네양 영 햏여그네 일루 영 허리띠 딱 매영 했수다.(웃음) 경햏 다녕양.

106028 #1 건 허리 건 허리띠 말고 뜯 거 어슨 철인가.

106028 #3 허리띠 허리띠 경햏 그거 매민 우리 집은 그거 때문에 옷 입지 아이 켜 햏영 오쭈 눅젠 햏민 그 영 햏영 띠 클러그네 오쭈 눅젠 햏민 곳텐 햏명 깃딱 바지 저고리 안 입영에 이제 바지저고리 이제 세불 싣수다. 경 햏여도 깃딱 안 입 습니다.

106028 @ 저고리 잇지 안우파양?

106028 #3 예.

106028 @ 저고리 아까 삼춘 잘 말한 게 그거 골아줍서 이디.

106028 #3 쑈동.

106028 #1 쑈동 곱게 입젠 햏민 이제 그 쑈동 놉그네 입곡. 그냥 땡쑈햏지 안 햏여그네 그냥 이디 놓는 건 쑈동. 또 예 영 햏여그네민 요디 요건 앞쑈 앞쑈. 요디 영 햏여그네 햏는 건 여기 저 거세기 짓, 짓. 딱시 짓 안에 이디 이디 놓는 거 싣수 다, 이디. 등바지, 등바지. 이디 이디 영 햏여그네 오그라지지 아녀게 바르게 놓는 거 이서, 속에. 거 등바지 등바지. 이제 이제 그다음에 골름 남자도 골름 맏수다. 저 고리에 쑈르게 여자 골름은 질주만은 남자 골름은 쑈르게 깃늘게 햏 쑈르게 골름 매곡. 쑈동 쑈동 쑈동 놉그네 저고리 만들곡. 곱게 햏젠 햏민 경 놉그네 저고리 햏 곡. 그 일름이 그자 앞쑈 이제 이거 이 등바지 이 저 이 저 짓 동전 짓 다음엔 동 전 짓 우의 동전을 들앗주게. 짓 다음에 동전 짓 다음에 짓 든 우에 뿐 내우젠 햏 민 동전 드는 거. 동전은 뿐 내우젠 햏민 동전 돌아그네 동전도 잘 똑 맞게시리 익 숙은 사름은 잘 맞게 잘 햏민 동전도 춤 그 사름 잘 들앗져 경 동전도 잘 못해넌 아구 동전도 든 쑈광 경 해나서 옷 입은 거 뵡.

106028 #3 게난 이거 다 기분입주게, 기분. 동전 드는 것도 다 기분. 이 저고리 도 곱게 입젠 햏민 쑈동 놓는 건 붉은 물레 디령도 놓곡. 푸린 물레 디령도 쑈동 놓곡. 짓도 붉은 걸로도 햏영 들곡 골름도 경 햏영영 들곡 경햏 햏민 그거 막 고운 거 웨출복으로 경햏 입엇수다. 나도 멏지 저고리에 붉은 쑈동 뵡 맨들양 입주만은 (웃음).

106028 #1 남즈는?

106028 #3 그런 거 없고.

106028 #1 남즈는 그런 거 쑈동 잘 안 놉 힌 걸로 그뵡 내우젠 힌 걸로 눅니다. 힌 저고리에 남자는 쑈동도 힌 저고리에 힌 저고리에는 힌 걸로 곱게 입젠 모냥 내 우젠 힌 걸로 쑈동 놓주. 여자 입는 저고리에만 붉은 걸로나 푸른 걸로 쑈동으로 놓주. 남자 저고리에에는 붉은 거 힌 거 놓지 안 햏에 힌 걸로 놉.

106028 @ 그다음에 저 치마.
106028 #1 응.
106028 @ 치마 명칭 한번 골아봅서.
106028 #1 치마 명칭.
106028 #3 통치마 잇곡양 깍치매 잇수다게.
106028 @ 계난 영 부분적으로.
106028 #3 영영 혼들령 매는 건 깍치매. 따로 영 통치매로 우리 어깨마리 들앙 영 햅영 주름지왕 입는 건 통치매. 경행 입엇수다게.
106028 @ 거난 영 꾀뎡이를 머영 말하는 건 없수과?
106028 #3 아 꾀뎡이 치맨양 꾀뎡이 뭐 놓는 거 엇수다게. 저 곱게 입젠 햅민 영 색베기로 영영 낡 입어도양 그추룩은 안 행 입어봤수다.
106028 #1 옛날 흑생덜 입는 치맨양 옛날에 흑생덜 입는 치매는 미녕에라도 검은 물들이나 붉은 물들이나 햅민 흑생덜 입는 치매는 단을 낫어. 요만이 햅게. 저 이 요것이 치매 단 요것이 치매 단임 요만측으로 저 떨 들릿수다 치매에 흑생덜.
106028 @ 그걸 단이엔 흡니까?
106028 #3 예예.
106028 #1 예 요거 단이민 요래 저 꾀 저 이거 단 박아서. 이거 저거 햅썰 고운 치매 흑생덜이고나 흑생덜 경 주로 경행 입엇수다, 치매에. 옛날에 치매에서 아이덜 지집아이덜도 치매 입어그네 검은 치매에 흰 저고리 입영 뎡기지 아녓수과. 옛날은 햅썰 햅민 검은 치매에 흰 저고리 입은 것에 저 아래 흰 띠를 둘러서, 흰 띠. 험벅으로 햅여그네 흰 띠를 박아서. 썰로라도 주어서 그 흰 띠를. 경 햅영 입으민 그런 건 통치매. 통치매 우의 우의 저.
106028 @ 계난 각 부분 명칭 계난 아래는 머엔 햅고 우의는 머엔 햅는 거 그건 잘 모르쿠과?
106028 #1 아래 명칭이, 명칭 주름 주름.
106028 #3 주름치매에 주름치매 햅곡 깍치매 통치매 그거뻘이 엇수다게. 명칭은 저 깍치맨 영 흘르는 걸 깍치매엔 햅곡 통치맨 영 그자 입는 것고라 통치매엔 햅수다.
106028 @ 거민 저 우리 보선 신영 와선게양?
106028 #1 예예.
106028 @ 그거 명칭 골아봅서 영햅여그네.
106028 #1 보선.
106028 @ 여거 요거 머영흡니까?
106028 #3 보선코.
106028 #1 보선코지.
106028 #3 보선코지(웃음).
106028 #1 요건 보선코지 요건 보선뒤치기.

106028 #3 요건 에택.

106028 #1 영 흥영 영흥는 건 에택 에택 잘 달라졌고나 에택.

106028 #3 양 요계 잘 달라지민 보선이 벗어지지 안 행 잘 신어지곡 요거 잘 안 돼민 보선이 벗어져나서. 경흥난 요 뒷치기턱도 잘 나와서(웃음) 경 흥여사 잘 벗어지지 안흡주.

106028 #1 요건 뒤치기 요건 저 거세기 저 곳사 글아도 잊에부런.

106028 #3 버선코지계.

106028 #1 버선코지 버선코지를 본 좋게시리 에택이영 코조록 흥게 잘 내우민 쏘씨가 좋은 사름이엔 흥곡. 경 아녀여그네 이런 저 버선코지도 여성 어땡 맨들락 기 저 흥민 이건 잘 못흥는 사름. 경흥난 요건 에택 요건 보선코지.

106028 #3 요건 뒤턱.

106028 #1 경 흥곡 요건 뒤턱.

106028 @ 저 이 우의는?

106028 #1 이건 보선목 이건 보선목.

106028 @ 보선목.

106028 #1 예 이건 보선목 이건 보선목 에택 보선코지.

106029 @ 옛날은 옷 맹글민 단추가 이서야 텔 거 아니우파양.

106029 #1 예 단추.

106029 @ 단추는 어떤것들 잊어났수과?

106029 #3 저 무신 거 조개껍죽으로 맨들지 안 했수과 옛날 단춘양 그거 해 나 읍디다. 조개껍죽으로 맨든 단추 힌 거.

106029 @ 그 일름 알아지쿠과.

106029 #3 힌 거 그거 힌 단추 우린 힌 단추엔만 했수다게.

106029 #1 계난 일름을 조개껍죽으로 맨든 단추도 사름 해 이 쪼개 ㄱ쁜 것에 옛날은 양 다 짜명 들앗수다게 단추를 만들양.

106029 @ 험벽으로?

106029 #1 험벽으로. 험벽으로 흥여그네 꼬노시롱 흥게시리 흥여그네 몰르래길 뽕뽕 몰아그네 썰로 문딱 감쳐. 썰로 문딱 감쳐그네 그걸로 ㄱ작을 만들양. 계난 남 자 단추도 쪼갯단추가 잇곡 저고릿단추가 잇곡. 여자도 단추가 저고릿단추영, 곱게 짠 사름덜 요디 요디 저 단추 흥여그네 이런 디 이런 디 여자들 속곳에도 다 단추 못인 글로만 했수다 단추 옛날은 못인 거.

106029 @ 험벽으로 흥여그네.

106029 #1 험벽으로 흥여그네 다 짱. 계난 ㄱ디 ㄱ디 ㄱ디 단추해신가 것고라.

106029 #3 ㄱ디도 저 못안 못안.

106029 #1 ㄱ작단추.

106029 #3 ㄱ작단추 ㄱ작 해 못안 해 못인 거 들안. 해 못인 거 돌아.

106029 #1 해 못인 거 들앗수다.

106029 #3 해 못인 거 돌아.

106029 #1 이 저 조개껍데기 단추도 아주 후에우다.

106029 #3 아 후에나신건가.

106029 #1 예 경흐난 낭으로 만든 단추가 잇수다. 낭으로 남즈덜 남즈덜 옛날에 보면은 예 오바 그쁜 거 그런 거 흔 단추들은 양 집의서 만들지 안 햏여그네 그 저 낭으로 맨든 단추들이 꼭는 거 셔마씨. 게난 그 낭으로 만든 단추 오바 그쁜 것에 그런 것에 드는 사름덜은 돌아 들곡. 흔디 이 저 쪼깨 그쁜 것에 무신 저고리 그쁜 것에 햏는 그 옛날 단추덜은 양 문딱 막 작 단추덜 만들어.

106029 #3 해 못은 단추가 홉주.

106029 #1 예 막작.

재단과 염색

106030 @ 그다음에 그 저 옷감 손질.

106030 #1 옷감 손질.

106030 @ 예 옷감 손질 어떻 햏영 햏수과?

106030 #3 흥깃대에 감안 막 두드렷수다게. 암반햏영. 그거 저 선들 그물어 가 민 문 빨아그네 풀햏영 암반 요만이.

106030 @ 미녕마씨?

106030 #3 예 미녕도햏곡 저.

106030 @ 멩지도 햏곡.

106030 #3 멩지도 햏곡 암반 햏여그네 막 다듬양 두드리곡. 또 흥깃대가 이섯수 다. 영 질게 이만인 흔 거. 그 흥깃대에 감양 돌리가 앓아그네 막 두드렷수다게.

106030 @ 멀로 두드렷수과?

106030 #3 마깨 마깨양 꼬노릉 흔 거영 물마깨가 셋수다.

106030 #1 물마깨론 빨래 햏는 거고 물마깨론 빨래 햏는 거 흥깃대 마깨가 잇 주게.

106030 #3 흥깃대 마깨가 잇수다. 요만이 영 그는그는 햏게 맨들양 돌리가 톡톡 톡톡 햏영 다듬으민양 멩지고 미녕이고 빈직빈직 고웁니다. 그거 저 흥깃대에 감양 감양 경 두드리민 빈직빈직 햏영 막 고웁니다.

106030 #1 근디 풀도 그냥 이제 저 무신 풀이 아니라 가시리풀 햏사 햏여. 풀도 바탕에 바탕 햏영케시리 가시리 가시리 이제 저 바탕의 거 바래 막 햏영케 곱게 바 래여그네 그 가시리풀 췌그네 멩지에 풀을 햏수다. 가시리풀 췌그네 멩지에 풀햏면 은 그것이 햏영 다듬으민 고와. 풀도 잘 사곡.

106030 #3 뵤직뵤직 햏게.

106030 #1 뵤질뵤질 햏주게 잘 다듬민 가시리풀.

106030 #3 게난 주루 흥깃대에 감양 막 그자 막 두드려. 경햏민 그게 영 막 윤 기냥 고웁디다게. 경햏 경햏영 옷을 맨들야. 경햏영 아따 요거 손도 잘 봤수다 경햏

디다게. 손도 잘 뺨 맨들앗수다. 영.

106030 #1 옛날은 보리밥 ㄱ뽀든 거 ㅎ여그네 막 쪼그네 막 저 힘벽에 ㄴ그네 막 쪼. 힘벽에 ㄴ그네 막 쪼그네 그걸 나오민 미녕에 그걸로도 풀헛수다. 보리밥 ㅎ여그네 보리밥 막 저 거세기 힘벽에 찰리 맨들양 차대에 ㄴ그네 막 ㅎ여그네 빨래ㅎ듯 막 ㅎ민 헤영ㅎ 물 나오지 안엠티니까 그걸로도 그걸로도 풀헛수다. 보리밥 문질랑. 경헛주만은 멩지에는 가시리풀을 미녕에난 광목에는 그런 풀을 헛주만은 멩지에는 가시리풀을 헛어. 가시리풀이 쪼주게.

106030 #3 쪼곡 저 거세기 줌 아이 먹곡. 이 탄 풀은 ㅎ민양 이 마에 줌 먹읍디다게. 줌 먹어도 가시리풀은 줌을 아이 먹어.

106031 @ 그다음에 그저 염색 옷염색.

106031 #1 예.

106031 @ 어떤 염색 해봣디강?

106031 #3 우린 물레 사당 들엿수다게. 물레 사당 양 검은물 사당 이제 솟디 물 팔팔 웨여가민 그 물레 비와그네 옷을 이젠 물 적정 탁탁 털어그네 그거 톡 드리치민 물레 경 듛디다. 경행 경행 물레 들영 입곡. 이제 붉은물 사당 들영 입지 기루우민 붉은물 사당 들어그네 맨들양 입곡. 검은물 맨들지 기루우민 또 검은 물레 사당 경행 들영 입곡 경헛수다.

106031 #1 난양 영 ㅎ는 거 봐놋수다. 옛날에양 시국 나기 전의 우리 어린 때에 우리 어머니가 대썸을 막 슬안 대썸을 슬안에 양 대썸을 물에 킨에 물에 킨에 그디 미녕을 둥간에 양 그 경 ㅎ영네 물들이는 건 봐놋수다. 대썸을 슬안에 대썸 ㅎ연에 그거 물에 킨에 그 검은물을 미녕에 들이는거 봐나서. 물레가 으선 것산디.

106031 #3 그뽀든 물레 어선 거우다게. 물레 나오지 안 ㅎ연.

106031 #1 정도 ㅎ는 거 봐나서.

106031 @ 계난 물레 그거 어디강 사웁니까?

106031 #3 장에 강게.

106031 #1 경 ㅎ곡 장 아이 간 때도양 옛날에는양 도비상귀가 잘 아다루 웨민 도비상귀가 도비상귀가 정 땡기명 물레도 농곡 불곽도 농곡 바농도 농곡 경 ㅎ 도비상귀가 셔서. 그뽀든 불곽이엔 헛수다게. 불곽도 농곡 또 이제 저 그 물레도 농곡 검은 물레영 붉은 물레영 바농 ㄱ뽀든 것도 농곡, 썰도 농곡 ㅎ여그네 풀레 땡기는 도비상귀엔 ㅎ여 정 땡기명. 경 ㅎ여그네 멧에 바꺾서 바꺾서 ㅎ명 삼서 삼서 ㅎ명 땡기는 사름 셔놋수다. 계난 그 옛날은 차도 엇곡 걸영만 땡길 때난양 어찌다고 ㅎ ㅎ 일년에 ㅎ 번이나 경 안ㅎ민 멧 달에 ㅎ 번이나양 그런 도비상귀가 오민 그런 사름 온 때 물레덜을 상 놋다그네 들이는 사름은 들이곡. 아다루 웨영 산 사름은. 곽도 그런때에 상 놋다그네 필요ㅎ 때는 그때는 곽이 셔서게 경ㅎ 때 어뽀다가 ㅎ 번 곽도 스뽀든 멧ㄱ찌 사명 놋당 쪼주.

106031 #3 옛장시 오민 옛장시나 오민 ㅎ 번 사곡(웃음).

106031 #1 경 아이면 늑의집 불담으레 땡기곡.

106031 #3 맨날 불담으레 땡겅수다.
106031 #1 불담으레 늬의 집의 갓주.

신발

106032 @ 그다음에 그 신 종류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 신.

106032 #3 아 신 종류.

106032 @ 예.

106032 #1 옛날은 양 옛날은 거세기.

106032 #3 추신 추신.

106032 #1 아 추신 아이여.

106032 #3 추신도혹곡 저 무신 거 거세기 신은 거.

106032 #1 저 낭으로 맨든 거.

106032 #3 저 남박 아니 저 남신 남신.

106032 #1 남신 남신이라는 신은 양 남신은 영 흐민 이디도 조짜흐게시리 내우 곡 뒤에도 조짜흐게시리 내우곡 경흐 신. 겨울이라도 눈에 흐민 눈 이디 닥 박아져 그네 스몫 눈털어사 걸어지곡 경 흐는 신. 우리도 남신도 우리 아버지도 남신 풀안 남신덜은 웬만흐 사름은 그 남신을 집의서 맨들아 이녁 발에 맞게끔. 남신을 맨들 양 겨울에나 겨울에 ㄱ뜨든 때 그 남신을 신읍디다. 이제 ㄱ뜨민 장화식으로.

106032 #3 마에 혹곡 겨울엔 남신 신곡. 여름에 혹곡 봄에는 초신 신곡 경 했수 다.

106032 #1 초신.

106032 @ 계난 초신이 찍신양?

106032 #1 예 찍신 신곡.

106032 #3 찍신 맨들양.

106032 @ 초신.

106032 #3 초신 맨들양 신곡.

106032 #1 찍신 신곡. 계난 아장 남자덜은 아장 놀 때는 찍신 습젠 찍신 습젠 그 베도 찍신 습젠 노는 시간에 찍신 습젠 놀 놀도 꿩 낫다다그네 찍신 습젠 저 거 세기 남자덜은 그것이 이녁이 책임이라 식귀덜 신을 다 책임져 남자덜이 남자가 책임져그네 이거 누게 신 누게 신 흐명 신을 메틀 신어집니까게 흐루강 흐민 놀 납니다.

106032 #3 그저 거세기 행 삼신 행쟁 질겨.

106032 #1 삼신은 거 특별하게 흐는 거고.

106032 #3 아 삼신은 흐영 저 흐여주민 막 질깁디다. 걸론 우리 아버지가양 거 세기 노명 맨들안 해취신디 그건 막 질깁디다. 저 오래가.

106032 @ 가족신 안 신어봣수과 가족신.

106032 #1 가족신은 안 신어봣수다 우리.

106032 #3 아이 신어봐서.
 106032 @ 계난 세 개정도네양.
 106032 #1 계난 남신희곡 짝신희곡.
 106032 #3 창신희 이서서 창신희.
 106032 #1 창신희이엔 혼 거 이서. 창신희 창신희 우리 신어보지 안 혼연. 창신희이 가 죽신희이라.
 106032 #3 창신희이 가죽신희 저 그건 특이혼 신희.
 106032 @ 거 어떤 사름덜 그거 신희엇수과?
 106032 #1 혼살 그 고급 사름.
 106032 #3 돈도 신희곡.
 106032 #1 돈도 신희곡 고급 사름이 창신희 신희엇수다.
 106032 #3 그 웨 사름은 못 신희엇수다게. 시집이나 갈 때 신희곡(웃음).
 106032 #1 시집갈 때는 그거 시집갈 때 신희는 신희으로 거세기 행 신희는 거주.
 106032 #3 신희음은 어려왔수다.
 106032 #1 경헬에 짝신희고 쥘 처음엔 남신희 짝신희 저 거세기 짝신희으로 맨든 조리 조리 짝으로도 조리도 맨들양 신희읍니다. 계곡 계다 계다계다 혼여그네양 낭으로 남자들 여름에 그 저 낭으로 혼여그네 계다 계다 맨들양 신희엇수다.
 106032 #3 이제 우리 저 스투빠 식으로양 낭으로 경 맨들양 신희엇수다.
 106032 #1 계다 계다 맨들아그네.
 106032 #3 계다가 좋아(웃음) 계다가 막 좋아 잘 생각해신희게.
 106032 #1 계다도 그거 계다 거 일본말이야양.
 106032 #3 일본말 계다가.
 106032 @ 일본말입주?
 106032 #1 응 계다 그때 계다 계다 흡디다. 남자덜 계다 맨들아그네 계다 맨들양 여름에 신희곡 남신희 신희곡 또.
 106032 #3 짝신희.
 106032 #1 짝신희 신희곡. 경헬주며.
 106032 @ 다음에?
 106032 #3 짝신희는 혼여노민 막 뒤치기 아팡 벗엉 땡기곡.
 106034 @ 남신희 멩글아봄디강?
 106034 #1 맨들진 못 흡니다. 신어봄은 해도.
 106034 @ 그거 영 봐봤지양?
 106034 #1 봐본디양.
 106034 @ 어떻 만듭디강?
 106034 #1 남신희는 양 남신희는 혼살 낭이 혼살 둥글락헬게 큰낭 혼여. 큰낭 해게 어느 정도 영 행에 문딱 저 자귀로 가까 초불은 다 자귀로 가깡 자귀로 가까와그네 자귀로 가쁜 다음엔 호미 ㄱ쁜 거 느실게시리 혼여그네양 그걸 저 잘 맨들락헬게시

리 잘 맨들아. 맨들락헿게시리 잘 맨들아그네 신뿐은 어느 정도 맨들아와그네양 신
뿐을 맨들앙 그때에 저 영 두두르는 거 며옴.

106034 #3 거 끝 끝.

106034 #1 끝 끝로 헿여그네양 어느 정도 팝디다. 그 발 들어갈 디. 끝로 헿여
그네 어느 정도 췌막게로 헿영 독독독독 헿게 두두리멍 끝로 헿여그네 어느 정도
파노민양 국췌가 십디다 국췌. 국췌옴 헿 것이양 벵헿게 오그라진 거양 복복 굵는
것이 이서. 그거 불미대장헿민 맨들아그네 그 국췌를 불미대장이 맨듭디다. 그때사
맨듭디다, 불미대장. 불미대장, 그때 불미대장이옴 헿주. 불미대장이 그걸 맨들민양
국췌로 헿여그네 즈룩은 낭 꼭 찢러지곡 헿 즈룩이라 게난. 그 국췌로양 그런 그
신 신쟁 헿민 그 안에덜 영 옴트룩 헿게 헿젠 그런 걸 문딱 국췌로 파 문딱. 국췌
로 문딱 파와그네 바깳된 호미 ㄹ뽀든 거 무신 걸로 헿여그네 맨들락헿게시리 잘 해
와그네 경 헿영 와그네 다 뿐때가리 다 맨들아와그네양 다 맨들아와그네 뭐 무신
색 내우젠 헿민양 불 갖당양 헿췌 영 굵디다, 그거 색 내옴으로. 헿영 헿민 색 내옴
으로 경 구멍 경 헿연에 우리 신어보기는 해서. 남신 그뽀 헿췌만 잘못 헿영 도골
락기 자빠지민 발도 ㄹ무까곡.

106034 #3 경 헿고양 남신이 딱 이 보선식이라마췌. 이 보선 가다라 이 보선양
이 코싯곡 남신도양 코싯곡 이 뒤치기 헿췌 높으게 맨들곡 이디 납삭헿게맨들곡 경
행 똑 이 보선식이우다.

106034 #1 경행 일루 발들어그네 톱 헿연에.

106034 #3 예예 이레 영 발로 톱 헿영 발 들어가게 맨들아. 게난 똑 이 보선식
으로 남신을 맨들아낫수다게.

106034 @ 남신은 무슨 낭으로 맨들아수과?

106034 #3 아무 낭이라도 됩디다.

106034 #1 남신은 췌 낭은 안 웹니다.

106034 #3 저 게부아사.

106034 #1 게부운 낭으로.

106034 #3 게부운 낭으로 우리 신으민 게북게 웹니께.

106034 #1 응.

106034 #3 경행 그 남신 맨드는 건 낭 아이 굴리는 거 닳옴디다. 아무 거라도
그자 헿영 맨들앙 질김은 질기게 신젠 헿민 콧낭 ㄹ뽀든 거 헿영 맨드는디양 그건 너
미 무거와.

106034 #1 힘들어 맨드는 과정도.

106034 #3 힘들어 췌여 낭이 췌여.

106034 #1 낭은 무신 낭 무신 낭산디.

106034 #3 제일 좋은 걸로 헿영.

106034 #1 그뽀 숙대낭 어섯수다게, 소낭백인.

106035 @ 찍신 맨들어북디게양?

106035 #1 우리 실진 아이 맨들아봤수다게. 우리 신어봄은 해도.

106035 @ 게메 영 들은 짐작이라도.

106035 #1 들은 짐작에양.

106035 @ 예.

106035 #1 찍신은 양 늘 햏여그네 영 햏여그네 늘 팡. 늘 파그네 멧 발 햏영 바
라그네 여만햏게 신젠햏민 영햏여그네 햏영낱 이추룩합디다 영 햏영 신으민 영 햏
영 찍으로 찍으로 영영햏여그네 이 알은 문딱 영 햏영 냉겨그네 요디 각 날 디 각
각이엔 햏여 각.

106035 #3 각 영 웃트레 영 속속 올릅니다게.

106035 #1 영 각을 햏민 요결 영 햏여그네 영영 손으로 노파그네 요만이 질게
노팡 요만이 오게 맨들곡 영영 영 햏여그네 이레 오게 만들곡 이레 오게 만들어그
네 요까지 만들민 요까지 각 요디 신코지 뿌린 이딘 안 햏곡 이 신 뿌린 안 햏곡.
올로 영 햏영 영햏여그네 신 각 내여와그네 요디 노민 햏쓸 아녀여. 신각 안 햏여
그네 올로 요렌 딱시 베만 요레 영햏게 맨들아와그네 올로 오민 또 각을 햏여그네

106035 #3 측일 맨들아.

106035 #1 측일 영 햏 밧디레 메와그네 톡 모두쳐그네 어떻햏여그네 영 가게
신 매들아와그네 요 신 어떻 바우덜라그네.

106035 #3 바운양 노 햏여그네 좀 파그네 그걸 영 행 궤어 영 햏영 각을 영 햏
영 궤어다그네 요 코지 내불어뵤 영 햏영 궤당 요레 톡.

106035 #1 게그네 이 신을 뿐 좋게 햏젠 햏민예 저 험벽도 햏쓸 고운 험벽 멀
루래기 멀루래기주기 멀루래기 곤 걸 햏여그네 그 신 이디 영 영 햏영 바우 들루는
디 경햏여그네 햏영 만들곡. 경안행 무대뽀로는 찍으로 찍으로 영 행 바우 들릅니
다 찍으로. 찍신은 찍으로 대강 밧디 신는 건 찍으로.

106035 #3 겐디 이걸 양 각을 잘 보벼그네 영 해그네 도 정햏 건 신이 막 곱고
각을 잘 보비지 안 햏영 그자 쑥쑥 햏영 햏 건 막 곳엇수다.

106035 #1 겐난 각이.

106035 #3 각에 호량이라.

106035 #1 늘을 훑게 햏 거 햏고 즂질게시리 햏영 즂질게시리 햏영 깃늘게시리
뿐 노 햏고 훑게 뿐 노 햏곡 햏면은 이 찍이 복삭햏여그네 잘 찌어정 좋은 찍으로
햏 건 그초룩 좋게시리 뵤곡. 찍이 잘 두두리지도 안 햏영 왕상햏게시리 두두령 잘
베 파도 잘 곱지 안 햏게 뿐 건 훑게백인 안 뵤주게. 게난 찍도 찍도 잘 영해그네
딱햏게시리 찍을 치면은 찍을 탁탁햏게시리 이 저 쳐그네 탁 잡아그네 탁탁햏게
부근데 빼뵤 부근데 빼뵤이네 요만이햏게 딱 무꺼그네 물 츂곤햏게 적져그네 덩드
레 와그네 그걸 베 꼬기 쉽게 잘 두두려. 두두령 햏쓸 복삭햏게 두두령 잘 두두령
햏 건 신이 곱게 잘 뵤곡 경 안 햏여그네 대츂 두두령 그자 저 베가 벼닥벼닥 햏게
웁 건 신도 곱게 뵤지 안 햏곡.

106035 #3 경햏디양 이 신 맨드는 것도 손매로도 갑디다게. 손매 좋은 사람은

곱닥하게 맨들곡. 손매가 어슨 사름은 꺾게 맨들아(웃음) 경 힙디다. 우리 아버지는 손매가 원체 조난양 신 완전 곱게 맨들아 신젓주. 우린 경한 신엿수다게 곱닥하게 맨들아마씨.

106036 @ 찍신 종류도 잇수강?

106036 #1 찍신 종류도게.

106036 #3 뭐 종류 멧 가지 엿수다게. 험벅으로 잘 행 맨든 신하고 그자 찍으로 만 맨든 거하고 그자 그 과정이주 그거 두 가지우다게.

106036 #1 저 남자신 여자신도 어서 발에 맞으면 똑 같았주.

106036 #3 발에 맞으면 그자 찍신은 똑 ㄱ따 마썰.

106036 #1 예 예 찍신 남자신 여자신 구분이 없수다 찍신은.

106036 #3 게난 찍신이 깝 잘 보며그네 혼 건 헝썰 크고 죽은 거 뿐이주 남자신은 막 크고 여자신은 죽고. 경헝영 요영 둘라당 요디 콘 냉겨뒤그네 영 행 둘라당 요래 오라그네 뒤치기 맨들양 톡하게 맨들양 저 힙디다게.

106036 #1 남자신은 헝썰 크게 맨든 거.

106036 #3 여자신은 죽고.

106036 #1 여자신은 죽게 맨든 거.

모자 등

106037 @ 그 다음엔 모자 모자에 대행 들어보쿠당예 모자 종류는 어떤거 셋수 강?

106037 #3 후양 후양행 셋수다게 우리 후양.

106037 #1 후양.

106037 #3 요런데 영 맨들곡 소개 놓곡 헝여그네 맨들아그네 톡 헝게 영 양지 만 내와당 올로 영 야개기레 영 행 톡하게 무경 경행 후양은 우리.

106037 #1 후양은 맨들젠 헝민양 요만이 넓이 요만이 넓이이 혼 게 요만이 지 러기 질게 헝영 그레 숨을 끌아 숨을 끌아그네 이제 숨 더꺼그네 이제 딱 뒤집어그 네 가운데 소괘 북삭하게 낱 그걸 이제 영 시꺼. 시꺼그네 그걸 잘 누벼놔그네 그 걸 영 줍아그네.

106037 #3 영 헝여그네.

106037 #1 영 줍아그네 이 앞이랑 두에 대강이 들어갈 만이만 영 줍고 그다음 에 줍지 마랑 독지레 탁 더꺼지게 헝민 것이 후양.

106037 #3 영 헝여그네 요영 줍아그네 영 헝민 요디 톡 헝게 쥐불곡 헝민 올론 따로 영 헝영 채영 경행 소개 낱 톡 헝게 맨들양 우리 썩 땡겨수다.

106037 #1 경헝민 경헝면은 영 헝면은 머리에도 올로는 줍지 안 헝곡 요 뒷대 강이 뒷대강이 가는 데는 요만이 줍 대강이 들어간 데만 헝민 요딘 짜어 요딘 영 헝여그네 짜면은 요건 영헝여그네 독지레 영 헝영 더꺼지게끔 헝면은 겨울에 쓰는 그거 후양.

106037 #3 우리 경행 두린 땀 후양만 씻수다. 모자가 어디 씻수과게.

106039 @ 계난 후양은 겨울에 쓰는 모자고.

106039 #1 어 겨울엔 후양 쓰는 거.

106038 @ 여름엔?

106038 #3 여름엔 퍼랭이 패랭이 양 보리짚 싯지 안으우짜 보리짚 영 소도 빵 소도 빠그네 우리 그거 다섯 개로 즐아마썸. 영 예깡 짱 경행 그거 뱅 하게 돌아가 멩 쥐그네 패랭이 맨들안에 씻수다. 나도 패랭이 멧 개 즐앗수다. 그걸로 짜 보리낭 소도 뽑앙 보리낭.

106038 #1 거고 여름에 여름에 쓰는 건 싯갓. 대로 얹게시리 대 까까그네 얹게 시리 얹게시리 까까그네 싯갓은 아무나 못 맨듭니다. 곱게 맨들지 못 하여 싯갓은. 이 이런디 영영 행 조싹하게 영 하여 퍼지게 하곡 이디 망 하여그네 대강이 톱 들 어가는 망 만들고 하젠 그건 싯갓 아무나 못 하여 대도 딱시 얹게시리 매운대 하여 얹게시리 잘 까끄곡 하여사 흘 거난. 경 싯갓 맨들아그네 여름엔 그늘도 뒹곡 비 막음 뒹곡 딱시 뱃도 그늘 뒹곡 하여그네 여름에 싯갓 하나 어신 집은 잘 어섯수다

106038 #3 겐디 싯갓은 양 아무나 맨들지 못하는 따문 줌 하여 쓰지 못해수다 게. 우리는 주로 패랭이 맨들앗수다. 패랭이.

106038 #1 거 우리 대에는 패랭이주만은 우리 훗대에는 거의 싯갓이우다. 우리 어머니네 보민양 싯갓도양 큰 싯갓 죽은 싯갓 하여그네 싯갓도 두 개 하여그네 뱃 디 강오민 톱 하게 걸엇다그네 쓰곡. 거 비올 때 비 막음도 뒹곡 딱시 뱃도 이제 그늘 뒹곡. 경 하여연에 여름엔 이 저 패랭이 나기 전 아닐 때 패랭이도 쓰곡. 경 하 곡 딱시 정동 정동 정동으로 하여그네 남자덜 웨방갈 때 정동으로 하여그네 그 모 자 모즈 남자덜은 정동으로 하여그네 모즈도 맨들앙 쓰곡 정동모즈.

106038 #3 정동 패랭이도 셔서.

106040 @ 양태 만들어뵈디강?

106040 #1 양태는 몰라 양태 양태 뭐시파.

106041 @ 총모자 총하민 저 뭇 뭇총.

106041 #1 뭇총 뭇총 햇주게. 뭇총모자는양 우리 맨들아보지는 안 하곡 뵈뵈뵈 인. 뭇총모자는 하쌀 줌 잘사는 집잇 사름.

106041 #3 영 하여 대쓰고양 잘도 그거 쓰민양 멧 이십니다.

106041 #1 어른덜.

106041 #3 막 어른덜.

106041 #1 어른덜 쓰는 모자 그건 보통 사름 쓰는 거 아니?

106041 #3 그거 어른덜 막 저 우리 동네도 그때에 그 뭇총모즈 쓴 사름이 저 강유혹 강유혹 하여명양 막 소문난 사름 싯수다.

106041 #1 말만 들엇주양 우린 잘 모릅니다 뭇총모잔.

106042 @ 탕건.

106042 #1 아 탕건이사게 이제 들어 나오는 거난 탕건 뭇총으로 하는 거 아니

우짜게.

106042 @ 탕건도 몰충으로 맨들아마씨?

106042 #1 예.

106042 #3 탕건도 영 장에 갈 때나 쓰곡 옛날 하르방덜은 죽장 썰수다.

106042 #1 예 양반덜 그건 저 촌에서 탕건 잘 안썰수다.

106042 #3 경 흐디 탕건은 저 우리아버지도.

106043 @ 망건은?

106043 #1 망건은 예 망건은 양 흐출 거세기흔 사름덜 망건도 잘 쓰지 아이햇수다.

106043 @ 망건은 멀로 맹글앗수과?

106043 #1 망건도 몰충으로 맨들앗수다.

106043 @ 아까 저 무신거 멀로 맹근 건?

106043 #1 정동?

106043 @ 응 정동으로 만든 거.

106043 #1 정동으로 만든 건예 정동패랭이 흐곡 저 정동모즈 이제 ㄱ뜨민 밀집 모즈 모저 나까오리 모즈 식으로 웬 거. 나까오리 모즈 식으로 웬는 그거 그추록 그자 패랭이 종류 흐곡 정동으로 흐여그네 나까오리 모즈 식으로 웬 거 경흐 거만 것도 야속한 사름만 맨들주.

106043 #3 게난양 옛날은 모자도 웃곡 아무것도 어서부난 저울엔 후양 썩 땡기 곡 여름엔 퍼랭이 흐곡 그 정동모즈나 맨들양 쓰곡 그추록 햇수다게.

106043 #1 정동모즈도 어디 갈 때나 쓰곡.

106043 #3 갈 때나 쓰곡 저.

106043 #1 정동모즈 밧디 갈 때는 아이 씨.

106043 #3 두루 주루 패랭이 주장입주게. 우리 아버지 신 때는 탕건을 잘 썩 게 계속 탕건만 썩.

106044 @ 도롱이 만들양 입어봍디강?

106044 #1 우리 영.

106044 @ 비올 때.

106044 #1 비올 때 영영 쓰는 거 아우 우리 만들양 입어보지 안 햇수다.

106044 #3 그뻘 말만 들엇주.

106044 #1 말만 들엇주 도롱이 만드는 건.

106044 #3 도롱이 가죽으로 입으명 서.

106044 @ 도롱이 그저 새로 맨들아그네?

106044 #1 게메 새로 맨들아그네 영 흐여그네 비올 때 영 흐영 쓰는 거게 예 썩 거 우린 만드는 것도 아이 봐서 그거 썩 땡기는 건 봐나도 만드는 건 아이 봐보 곡.

106044 #3 그 새로 그거 못안에 쓰는 것도 좋음은 홉디다.

106044 #1 비 생전 4933.

106044 #3 비오왕 그냥 그대도 특하게 내뵈자그네 이런 풀 영 하여그네 특 하여그네. 나도 쓴 건 땀사름 봐서.

106044 #1 쓴 건 봐도 우린 입어보진 안 하곡.

106044 @ 입어보진 안 하곡?

106044 #1 예 입어보진 안 하곡.

106044 #3 그거 입어보젠. 우리 입어본 건 그자 같중이 ㄱ쁜 거 치매저고리 찍, 저 초신 남신 그거뵈이 안 해뵈수다.

106044 @ 좀 쉬엇당 하쿠다 딱 중 울려신게마씨?

106044 #1 중도 잘 알암저.(웃음).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다음은 양 그 밥 하곡 국에 대해 물어보쿠다양 밥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잇수과?

107001 #1 밥 종류 해주게.

107001 @ 한번 돌아봅서.

107001 #1 젤 맛좋은 건 곤밥. 옛날은 젤 맛좋은 건 곤밥. 두 번째로 맛좋은 건 반지기밥. 세 번째 맛좋은 건 보리밥. 네 번째 맛좋은 건 보리쌀에 좁쌀 서꺼그네 하 밥, 그런 밥. 또 그다음엔 딱시 저 밥도 조팍 조팍만 하 조팍만 감저 서경 하 조팍은 건 좋지 안하 밥.

107002 @ 그저 밥 맹글 때 밥 맹글젠 하민 쓸 필요하지 안으우과양?

107002 #1 예.

107002 @ 그 쌀은 어떤 것덜 잇수과?

107002 #1 곤쌀 잇곡 보리쌀 잇곡 좁쌀 잇곡.

107002 #3 모멸쌀 잇곡 모멸쌀도 서경 해뵈수다게 옛날은 막 맛 좋아.

107002 @ 모멸쌀 하곡 그다음?

107002 #1 풋 하곡.

107002 #3 둬비, 두불콩 그거 주루 서경 먹엇수다게, 옛날은.

107003 @ 경하민 보리밥에 대해 말해봅서.

107003 #1 보리밥은 보리밥은 이제 통보리밥 잇곡 곤보리밥 이서마씨. 통보리밥은 방애에 강 저다그네 그 ㄱ래에 겹지지 안하 거. 그냥 벌르지 안하 밥이 통보리밥. 딱시 곤보리밥은 방애에 강 저다그네 딱시 ㄱ래에서 곤 밥. ㄱ래에서 돌아그네 대체로 훤은 체로 치곡 두 번째 체로 치곡 하여그네 하민 이제 훤은 체로 친 거 시민 그냥 보리밥이영 하곡. 그건 그냥 보리밥. 두 번째 쌀로 하 건 곤쌀밥 두 번째

죽진 쌀로 흰 건 죽진밥. 계난 통보리밥 보리밥 준쌀밥. 보리쌀로 흰 밥은.

107003 @ 계난 보리밥 맵글 때 어떻 맵글압수과?

107003 #1 보리밥 맵글 때는 통보리밥 맵글 때는 통보리밥 맵글 때는 보리쌀을 씻어그네 이제 솟디냥 솟당 솟디 냥 솟양 부각부각 부꺼가민 부각부각 부꺼가민 저 부각부각 솟다그네 저 불을 꺼. 불을 꺼그네 두경 더경 내불어 흐쌀 틈 자게. 틈 자게시리 두경 더경 내불었다그네 틈 득하게 틈자나면은 그 보리쌀이 이제 풀어지주게. 다 풀어지민 또 불솟아 또 흐쌀 흐쌀 아랫 건 노릇노릇 하게시리 카게시리 불 솟양 흐민 밥이 경 맛 좋습니다. 경흐민 경 틈지었다그네 두불 솟는 불을 것고라 무신 불이엔 햇수과?

107003 #3 두불 빨리곡 흐여그네 두 번 솟앗주게(웃음).

107003 #1 계난 밥 빨르는 거 밥 빨르는 거.

107003 #3 빨르는 거 빨르는 거. 불 흐쌀 솟아불라 밥 빨르게, 경햇수게.

107003 #1 계난 저 밥 빨르는 거. 두 번 솟는 건 밥 빨르는 건 밥 빨르젠 두불 흐젠 밥 빨러사켜 흐여그네 밥 빨러사켜 흐여그네 두 번 솟는 건 밥 빨르는 건 밥 빨르는 건.

107003 #3 우리 통보리밥은 행 먹젠 흐민양 그 이 방애에 저 물방애에 저 보리쌀을 지민 막 두루 저집주게. 경흐민 그자 통보리밥을 못행 경행 그래에 골앗수게. 경 흐곡 통보리밥은 먹젠 흐민 또 남방애에 그걸 물랑 맞정 곱딱하게 막 저어그네 경흐영 밥을 맵들민 통보리밥이 돼곡. 또 물방애 진 건 글젠 안 흐민 그 체가 꺾꺾 꺾꺾 박아져네 돼질 안흐디다. 경흐난 우리 곱양 먹엇수게. 경행 곱양 먹어그네 처그네 경행 밥해 먹엇수게.

107004 @ 반지기밥에 대해 한번 골아봅서.

107004 #1 반지기밥은 보리쌀 놔그네 솟당 어느 정도 솟아지민 곤쌀 서꺼. 곤쌀 서꺼그네 흐쌀 솟다그네 내불민 틈 자민 영영 흐여그네 젓엉 먹으민 것이 반지기밥. 것이 반지기밥.

107004 @ 젓을 때 멀로 젓엇수과?

107004 #3 배수기.

107004 #1 배수기 낭배수기 집집마다 낭배수기가 이섯주게. 배수기도 배수기도 큰 배수기 작은 배수기 이서. 큰 배수기는 밥 하영홀 때 마치에 마치에 밥 하영 놉 빌영 홀 때 마치에 밥 하영 홀 뎀 큰 배수기로 젓곡. 이녁 식귀만 홀 뎀 작은 배수기로 흐여그네 젓곡. 경흐여그네 저 반지기밥은 그추룩 흐여그네 보리쌀 놔그네 궤왕 흐쌀 싯다그네 흐쌀 빨르자말자 홀 때에 빨르기 흐쌀 직전에 곤쌀 놔그네 흐쌀 보글보글 궤와그네 행 놔두민 건 반지기밥. 경흐여그네 배수기로 저서 골루루 저스민 것이 반저기밥.

107004 @ 반지기밥은 집의서도 행 먹읍디강?

107004 #1 어찌다가 한번 흡니다게.

107004 @ 계난 반지기밥 홀 때는 언제 맵들양 먹어마씨?

107004 #3 반지기밥은 양 우리 좁쌀도 주루 먹었수다게. 이레 올라오랑 살 때도 좁쌀 햅민 좁쌀 저 옛날은 산딜 우리가 같앗수다. 밧디 같아그네 그걸 햅여오민 그 건 막 아껴그네 햅영 저다그네 어떻 손님이나 오곡 아으덜이라도 밥 아이 먹을 땐 좁쌀 햅쌀 농곡 곤쌀 농곡 햅영 반지기밥 햅영 경 햅연 먹었수다. 경 햅여그네 그 게 반지기밥. 좁쌀에 곤쌀 서경 먹는 거. 경 햅연 반지기밥 햅곡 보리쌀에도 경햅연 서경 떡곡 경 햅수다게. 게난 이제사 곤쌀 흔히 먹엄주만은 곤쌀을 먹어봤수가게. 햅여오민 것도 막 아껴 저다그네 햅쌀 어떻 햅당 햅번씩 낱 먹었수다.

107005 @ 곤밥에 대해 햅번 곱아봅서 곤밥 곤밥은 언제 먹었수과?

107005 #1 곤밥은 멩질 때, 식게 때. 멩질 때 식게 때 웨에는 곤밥 먹지 안 햅여. 멩질 때 햅곡 식게 때는 곤밥 먹었수다. 멩질 때 햅영은 아이 먹어도 죽영을 먹어도 멩질 때 햅곡 식게 때는 꼭 곤밥 먹어. 그 웨에는 곤밥 아이 먹어. 곤죽도 곤밥 안, 곤죽도 막 아픍이나 햅여사 곤죽이나 밥 아이 먹어가민 곤죽 썩 주주 곤죽이나 곤밥을 햅 주지 안 햅여. 그자 곤밥은 그자 멩질 때 식게 때 그자.

107005 @ 여긴 나룩이 어시난에?

107005 #1 나룩 어서난 산디.

107005 @ 산디 쓸로 햅여그네?

107005 #1 산디 쓸로 산디 햅여그네 산디 쓸도 남방애에 가그네 햅영 지는 건 뿔방애에 강 짓주만은 조그만이 짓는 건 남방애에 에 방앗귀로 햅여그네 탕탕 저다그네 게그네 우의 꺼만 까지민 쏘복에 쓸은 빨경흙도 햅고 양 산디쓸은 뿔읍니다, 뿔어. 경햅 산디쓸 보민 삼분의 일은 뿔은 거 닻아.

107005 #3 잘 지지 안 햅여그네.

107005 #1 잘 지지 안 햅민 뿔은 쓸 봐나 뿔은 거 시민 그거 것도 곤밥이엔 햅여그네 먹었주게.

107006 @ 조팝 햅 먹어봍디게양?

107006 #1 예게 조팝 살앗주.

107006 @ 조팝 햅번 곱아줍서.

107006 #1 조팝은 예 히린 조팝은 히린 조팝은 이제 저 감저나 저 감저 감저 감저나 햅나씩 썰어농곡 햅여그네 조팝 햅영 햅민 막 햅려그네 건 게도 건 맛 좋곡. 조팝도 모인 조팝 모인 조팝에 감저 썰어낱 햅민 감저 햅나 쓸 하나 낱다그네 질 맛이 엇읍니다. 질 곳인 밥이 모인 조팝에 감저 논 거라.

107006 @ 게난 햅린 조팝은 찰기가 이신 거고.

107006 #1 예 모인 조팝은.

107006 @ 찰기가 어신 거?

107006 #1 살락살락 햅 거. 살락살락 햅 거. 모인 조팝 살락살락햅 거. 모인 조팝 살락살락 햅민양 좁쌀 햅 방울 그냥 무신 햅 방울 다 햅여그네 저 영 수까락으로도 반앙 먹을 정도로 모인 좁쌀은. 모인 좁쌀은 모인 좁쌀은 죽 햅 쏘고 불황 먹젠 햅면은 모인 좁쌀이영 햅여그네 감저영 햅영 닻아놉다그네 저 조팝을 햅주만은 경

아녀민 저 콩죽 쏘 때영 모인 좁쌀로 그냥 죽썰 먹영 해 죽썰 먹었수다. 국죽도 국죽 그냥 죽 해그해민 그 거세기 모인 좁쌀 행 죽썰 먹곡 흐린 좁쌀은 어느 정도 죽 뒤 흐린 좁쌀은 죽 아이 뒤어 지르해불어.

107006 #3 지르해불어 경 흐곡 양 식권 하곡 쏘은 웃곡 흐민 모인 좁쌀은 불랑 먹젠 감저 농곡 모인 좁쌀은 밥이 막 합주게. 밥이 막 하는 따문 이제 히린 좁쌀을 낱 밥을 흐민 밥이 막 죽고 맛은 좋아도. 모인 좁쌀을 낱 밥을 흐민 밥이 막 하는 따문 식귀가 여러 사름 먹젠 모인 좁쌀을 행 먹었수다게. 하영 하영 식귀가 하영 먹젠. 저 밥 히린 좁쌀은 흐 뒤 낱 밥흐민 두 사발 거리민 매기라도 모인 좁쌀을 낱 밥흐민 세 사발은 무룩이 뒤니다게. 게난 더 하게 먹젠 모인 좁쌀을 해 먹었수다게. 또 감저나 낱 흐민 막 하고.

107007 @ 풋밥에 대해 흐번 글아봅서.

107007 #3 풋밥은 이제 풋 솥양 풋 솥아그네 저 보리쌀에 ㄴ찌 서경 솥양. 솥아그네 경 궤왕놏다그네 또 뒤 쏘이나 시민 서꺼그네 저 따로 불 솥양 뽕루와그네 해여민 그게 풋밥 뒤수다게. 저 좁쌀 흐쌀 서경.

107007 @ 옛날 잔칫날 요거 풋밥 먹었지 양?

107007 #1 예.

107007 #3 잔칫날은 저 보리쌀에 풋 서꺼낱 밥했수다 통보리밥에.

107007 #1 통보리밥에 풋 서경 흐는 거.

107007 #3 풋 서경 풋 서경 경형.

107007 #1 통보리밥에.

107007 #3 맹탱이에 막 거려놏다그네 밥 퍼 저.

107007 #1 통보리 통보리 게난 풋을 흐 벌처레 그냥 사르헝게 궤영만해여 궤영만 흐민 쭈글쭈글 해게난 여주게 물어 쭈글쭈글 해가민 쭈글쭈글 쭈글쭈글 흐면은 그걸 흐번에 흐번에 흐영 낱당 잔치 때 ㄴ뜬 날 흐번에 아싯날 처낙 흐번에 확 흐게 물에 흐번 솥양 확 건정 놏다그네 뒤날은 밥흐 때마다 쏘 흐 말미민 풋 흐 흐 사발 흐 사발 정도 놏야주. 흐 사발 정돈 그 밥흐 때 ㄴ찌 서꺼 그 밥흐 때 그 흐 아싯날 흐 그 풋을 흐 사발 보리쌀 흐 말에 쏘 흐 사발 저 풋 흐 사발 정도 그 보리쌀에 서꺼그네 그자 궤와 궤와. 궤와그네 놏다그네 흐 사시민 또 틈자민 또 것도 뽕봐. 틈 들어그네 뽕봐. 뽕봐그네 흐민 밥이 푸달푸달 경 거 잔칫밥도 경했수다.

107007 #3 게난 큰 가마솥의 솥 두 개 걸어그네 흐엏수다. 흐영 맹탱이에 막 퍼 놏수게 그때 밥을. 밥 그자 맹탱이 영 행 흐펜 구석에 놏두서 다락에 퍼당 그래 탁 곳다농곡 행놏당 잔칫날엔 그자 그거 그거 거리명 들어 맥었수게. 경흐영 이 경헝저 우리가 저 경흐는 거 뒤수다 흐엏수다. 우리도 들어 먹음도 흐고게. 게난 그 과정은 양 밥흐은 쉬웁니다게. 이 저 보리쌀에 풋서꺼그네 잔칫밥 흐면.

107008 @ 피밥 먹어봅디강 피밥?

107008 #3 피밥은 머경 먹넨 말은 들어도양 그걸 핀 양 짓젠 흐민 아옴불 진덴 흡니다. 하도 질경 하도 질경흐는 따문 우리 피밥은 아이 먹어뒤수다. 성님 피밥 먹

어뵈?

107008 #1 아이 먹어 뵈.

107008 #3 (웃음)피뵈 아이 먹어 뵈수다. 핀 원체 질긴 따문 양 지질 못혀.

107009 @ 감 감저뵈은 그 좁쌀뵈 했지 양 감저뵈.

107009 #3 예게.

107009 #1 좁쌀 뵈 감저뵈은 좁쌀 뵈 저 모인 좁쌀이나 담아뵈 감저 하영 뵈그네.

107009 #3 뵈그네 뵈해.

107009 #1 아기들 잘 먹자 혀면은 불리왕 부짱 그추록 행 먹어주게 감저뵈은.

107009 #3 응 아기덜토 혀곡, 옛날은 마씨리엔 혀 거 그 혀린 좁쌀도 아이 나고 모인 조도 아이 난 때는 마씨리 막 박혀 뵈디. 그자 좇게 혀영 뵈두민 그자 피 꺾기자 바짝 올라가그네 정오민 그게 경 모입디다게. 경혀난 그서 마씨리뵈 마씨리뵈 행양 맛 어서도 그거 식귀 한 디 불뵈 먹젠 경 혀디다. 옛날 마씨리 마씨리 혀명.

107009 @ 계난 불뵈 먹젠 감저뵈었구나.

107009 #1 예게.

107009 #3 불뵈 먹젠 감저 뵈수게게. 감저 혀나민 좁쌀은 저 감전 두 개민 좁쌀은 혀나두 개쫘 두루 뵈그네 경행 뵈했수게. 경행 그거 불뵈 먹젠 경 했수게. 쫘이 어디 쫘수가게. 쫘이 어스난.

107010 @ 뵈뵈 뵈도 뵈행 먹어뵈었지양?

107010 #1 뵈뵈 뵈은 예 뵈뵈 뵈은 예 뵈뵈 뵈도 뵈힙니다. 뵈뵈 뵈도 뵈혀는디 뵈뵈 뵈은 주로 범벅이 하, 범벅. 모멸핼벅에 뵈뵈 논 건 진짜 맛종곡 모멸핼벅에 뵈뵈 논 것도 맛종곡. 따시 저 그냥 좁쌀꺾루 좁쌀 좁쌀꺾루에도 뵈뵈 뵈그네 범벅힙니다.

107010 #3 경행.

107010 @ 계난 뵈은 안 혀고 범벅?

107010 #1 예 그냥 범벅.

107010 #3 범벅이 질 태운 겨우다게.

107010 #1 뵈뵈는 범벅.

107010 #3 범벅.

107010 #1 뵈은 뵈뵈 놓지 뵈 뵈뵈 안 뵈마서 뵈은.

107010 #3 뵈은 뵈뵈 뵈 아이 뵈입니다. 저 범벅.

107011 @ 툷뵈 먹어뵈었디게양?

107011 #1 예 툷뵈 먹어뵈었주게. 툷뵈은 예 툷뵈은 저 바당에 강 툷 혀다그네 뵈련에 여름날 여름만 봄만 여름만 나민 툷이 물커도 폭삭폭삭혀여 폭삭폭삭혀난에양 뵈힙 때 쫘 잇어뵈 그레 툷 놓니다. 툷 뵈그네 뵈 뵈뵈 혀난에 저슬 때는 먹을 때는 탁탁 저서그네 뵈 먹엇수다. 것도 볶으지예.

107011 #3 볶으제(웃음).

107011 #1 툫밥도 거 어신 사름은 블루젠 흐는 거. 툫범벅도 흐곡 툫밥도 흐곡 거 거 맛 조양 흐는 건 아니.

107011 #3 그자 살아나젠. 옛날은 물룻도 먹곡 게 아이 먹은 게 셋수가게. 물룻도 해당 흐 일주일 물커그네 우렷다그네 흐영 먹곡.

107012 @ 패밥 알아지쿠과 패밥?

107012 #1 패는 넘패 넘패 바당에 넘패 말 아니.

107012 @ 응.

107012 #1 양 바당에 넘패밥도 맛조아 맛없는 넘패밥도 먹어신디. 우린 화순 살 멍 그 넘패밥도 먹어봤수다게. 넘패밥도 툫이나 비슷흐여. 겐디 맛이 툫밥보단 맛이 좋아 넘패. 그거 그건 그자 그자 어찌다가 흐번이주 경 먹지 아이 흐는 거, 넘패밥은. 흐영 그자 흐번 흐영 먹어보젠 행 먹는거 뿐이주. 넘패밥은 경 행먹지 안 흐는 거. 겐디 우린 먹어보긴 했수다. 넘패 흐여당 넘패를 넘패를 바다 강 해다그네 보까 먹는 넘패 맛좋주게.

107012 #3 넘석넘석흐게.

107012 #1 예 넘패 맛좋주게. 그 넘패 흐여그네 넘패 해낫당 보까그네 틈 장낫당 흐면은. 넘패밥은 거그자 어찌다가 흐번 흐는 거.

107012 @ 이 웨로 뭐 밥에 놔그네 먹엇던 거 뭐 잇수가, 콩?

107012 #1 아 콩ㄱ든 거 콩종류는 강 강낭콩이고 두불콩이고 돛비고 그런 거 다 밥에 낱 먹는 거고 그당 모멸쌀도 밥에 서경 먹곡 모멸쌀도 밥에 서경먹곡 녹도 녹도 ㄱ든 것도 녹디.

107012 @ 녹디?

107012 #1 응 녹디 녹디도 밥에 낱 먹곡 뭐 밥에 낱 먹는 건 먹는 건 거의 낱 먹어서 옛날에 우리 맛도로기도 해단에 밥에낱 먹어서 맛도로기 맛좋아.

107012 #3 맛도로기 잘도 맛좋읍네다.

107012 @ 맛도로기가 뭐파?

107012 #3 당에기 올라가는 줄 잇수다.

107012 #1 맛도로기 맛도로기 마 잇지 안으파 마 이저 픓는 들마.

107012 @ 아 마 어어.

107012 #1 그 마 마가 여 이 가을 들면은 막 낭에덜 줄 받지 안흐니까. 막 줄 받으면 마가 맛도로기 이만씩 흐 거 두렁두렁 열지 안흐니까. 그거 행양 우리 그거 타단 그거 해그네양 그 밥 우터레 소도록흐게 낫다그네 밥흐민 그거 막 맛좋습니다.

107012 @ 그 마 열매구나양?

107012 #3 예예.

107012 #1 마열매.

107012 @ 아 마도 열매가 이서.

107012 #1 예 매얼매 막 잘 엮니다 가을 때.

107012 #3 양 옛날양 우리 뒤에 미깡냥이 하나 서나신디 그 맛도로기 미깡냥에 막 올라가고 얼거져. 경흐민양 그슬뜰민 그거 잘도 하. 경행 그거 타네 막 밥에냥 먹어놔수다.

107012 #1 예 밥에 냥흐민 맛좋습니다 거 맛도로기.

107012 #3 맛좋아.

107013 @ 이 밥 종류는 다 뵈고양 국 종류 국 종류는 어떤 것들 잇수과?

107013 #1 국 종류는 국 종류사 해주게.

107013 #3 해주 막 해주.

107013 @ 계난 흐번 곶아볶서 흐번.

107013 #1 무신 국 종류부떠 곶아.

107013 #3 콩국도 싯곡게.

107013 @ 콩국도 잇곡 생선국도 잇곡?

107013 #3 소고기국도 싯곡 돼지고기국도 싯곡 국은 양 핫수다게.

107013 #1 갈치국도 싯곡 뵈 옛날은 자리국도 행 먹엇수다.

107013 #3 예.

107013 #1 각재기국도 행 먹곡 고등에국도 행먹 곡 뵈 국이사 뵈 문막 국행 먹 주 이제 웬장냥 웬장국도 해영 먹곡 그냥.

107014 @ 느믈국에 대해 흐번 말해볶서.

107014 #3 느믈국 저 웬장국이 제일 저 맛좋수다게 저 느믈국은 느믈웬장국.

107014 #1 느믈국은 배치.

107014 #3 배추.

107014 #1 배치를 배치를 흐쓸 그 흐쓸 세듯한 배치라도 어뎡 안흐여 웬장국은 세듯흐 배추 가그네 빨리로 뵈 톨아다그네 싯어그네 웬장놔그네 기자 느믈 꿰여가 민 느믈 박박 무지려놔그네 익으민 먹는 게 웬장국이주게 뵈.

107014 #3 그건 웬장국.

107014 @ 계난 이제 물놔그네?

107014 #1 물놔그네 물놔그네 웬장도 웬장 놔그네 이제 꿰면은 꿰민 이제 느믈 가그네 우영빳이 가그네 느믈 박박 톨아당 바깳뵈 걸로 톨아당 안에건 내불영 바깳뵈 걸로 톨 톨아다그네 싯어그네 물 꿰어가민 그래 영 손으로 박박 무지려 냥 무지려 냥 익으민 웬장국이주게.

107015 @ 거고 콩느믈곡 콩지름 콩지름국.

107015 #1 아 콩지름국?

107015 @ 응.

107015 #1 아 콩지름 콩느믈.

107015 @ 콩느믈.

107015 #1 콩지름국?

107015 @ 응응.

107015 #1 콩지름국은 게 콩지름국도 물 꿩왕 물꿩왕 물꿩와그네 콩지름 영혀 연 씻어그네 아 콩지름도 저.

107015 #3 어린 때 그찌 낳.

107015 #1 이 웬장도 흐쓸 미릇 뇌사 하여 장물에. 저 웬장도 그래 흐쓸 뇌사 하여 웬장국 콩지름국도 콩지름국도 웬장도 흐쓸 농곡 저 장물도 흐쓸 농곡.

107015 @ 장물 난에 했수과?

107015 #1 예 장물도 흐쓸 농곡 웬장도 흐쓸 서경 농곡.

107015 @ 계난 누물국은 웬장 낳 했곡.

107015 #1 예 누물국은 웬장 낳.

107015 @ 콩지름국은?

107015 #1 저 장물도 농곡 웬장도 웬장은 흐쓸 색깔 내우젠 흐쓸 농곡 저 장물 뇌그네 장물 뇌그네 옛날은 장물 뇌그네 저 물꿩기 전의 뇌도 꿩곡 물 꿩기 전의 뇌도 꿩곡 물 꿩영 뇌도 꿩곡 흐는 거 건 콩누물만 익으면 경혀민 그냥 먹는 것이 콩누물국.

107015 @ 그때 콩지름은 집의서 키웠지양?

107015 #1 예게 집의서 키웠수게. 집의서 콩 콩을 이제 물꿩 오늘 처녁원 물꿩 당 뒷날 아축원 건저그네 차롱착에라도 영 하여그네 건정 물 빠뎡 물 빠뎡그네 시리 시리에 검질 굽에 영 행 깎아. 깎아그네 그 우트레 저 그 콩을 비와 그 우트레 콩을 비와그네 그 잘 흐는 사름은 그 우트레 불체도 영 허꿩니다. 그 저 불체도 영 허끄곡 불체 아니 허꺼도 저 뒤 불체 허끄민 흐쓸 저 콩누물이 몽클몽클흔텐. 영 하여그네 불체도 흐쓸 허끄고 하여그네 물은 그자 알에는 무신 무신거 바투와그네 우트레 그냥 물만 조록조록 하여그네 하루 여름 흐 봄 그뜨민 하루 세 번씩만 주면 은 여름에는 일주일만 돼민 먹곡 옛새만 돼도 먹주뎡 여름에 콩누물 그거 그추룩행 여름에는 한 옛새만 돼도 먹곡 옛새 일주일만 돼민 막 커. 게그네 옛새만 돼도 먹곡 겨울에는 열흘은 이상 돼사 먹읍네다, 겨울에는. 겨울에는 열흘 이상 그 여름에는 옛새 일주일이민 먹곡. 경하여그네 영 하여 영 나는냥 경혀민 무룩이 올라오면은 커가는양 우의로 그냥 영 맺 영 하여 영 뽑는거라 영 뽑아그네 먹을만이 뽑아그네 시 쳐그네 그추룩 콩국 끌렁도 먹곡 데왕도 먹곡 해당 또 따시 영 하여가는냥 그냥 뽑으멍 먹는 거지 매날 한 메칠.

107015 #3 계난 한 한번 노민 십오일간은 먹어집니다, 뽑으멍. 뽑으면 또 올라 오곡 뽑으면 또 올라오곡 경혀민 뽑앙 시청 먹곡 뽑앙 시청 먹곡. 겨도 식게홀 건 혼 시리 노민 깎딱 건드리지 안 하여. 거 식게에 어느 날 메틀 키우민 그 식게에 먹어지게 딱 하여그네 딱 하게 낳 식겅날사 그거 뽑앙 시청 우리 탕쉬행 먹곡 경했수다. 이 우리 국 끌렁 먹는 건 그자 커가는냥 들어 뽑으멍 먹곡 식게 흐는 건 고만이 기자 질루왕 낳다그네 식겅날은 그거 문딱 뽑앙 씻어그네 탕쉬 만들앙 저 식게 먹으레 온 사름덜도 거렁 맥이곡 경했수다.

107016 @ 놀뻘로도 국 끌령 먹지 안우파양?

107016 #1 예.

107016 @ 그거에 대해 혼번 곁아봅서.

107016 #1 놀뻘는예 놀뻘는 놀뻘 썰어 놀뻘 썰어그네 이제 가 장물이영 장물 농곡 웅장은 잘 안 놘. 조끔 농민 농으나 말민 마나 흥영 장물 놘그네. 저 이젠 하 간 것덜 놘주만은 전의는 장물만 장물 농곡 마농이나 패마농이나 패마농 행 썰어놘 그네 그자 익영 경행도 먹곡. 따시 놀뻘는 또 탕쉬 숲아그네 그냥 소곰이나 흥썰 서끄곡 패마농이나 썰어놘그네 그냥 영영흥여그네 영영 버무려. 버무려그네 그냥 그자 탕쉬를 식게 때도 탕쉬를 경행 먹곡 따시 식게 아닐 때라도 행 먹지 기려우민 경 흥여그네 그냥 그자 마농이나 흥썰 패마농이나 흥썰 썰어놘그네 영 흥영 손으로 그냥 영영 버무려그네 거 먹곡, 식게 때는 탕쉬로 경행 먹곡. 따시 놀뻘는 빙떡홀 때도 경 흥여그네 먹곡 또 놀뻘는 따시 물렀다그네 생기리도 해영 먹곡 생기리도 행 먹곡. 또 놀뻘지가 잇수다, 놀뻘지. 놀뻘지는 흥썰 흥게 썰영. 흥게 썰어그네 어느 정도 시들봐 물리와. 어느 정도 물리와그네 그걸 간장에 커낫수다, 옛날은. 간장에 커 경헨에 그걸 짜주게. 짜민 밧되 갈 때 거 반찬으로 놀뻘로 경행 먹곡.

107016 #3 겐디 놀뻘도양 막 으라 가지 흥영 먹어집니다.

107016 #1 막 하영.

107016 #3 막 사용 사용료가 막 좋은 거우다, 놀뻘. 저 국도 끌령 먹곡. 탕쉬도 흥영 먹곡. 생기리 흥영도 먹곡. 아무 거라도 놀뻘양 아무 거라도 흥영 먹을 수 이 서마썸. 멧 가지를 행.

107016 #1 범벅도 행 먹곡. 시루떡도 흥영 먹곡.

107016 #3 멧 가지 흥영 먹어집니다.

107017 @ 콩국 행 먹어 저 저슬에 콩국 하영 행 먹엇수과?

107017 #3 예 우리 콩국 흥연 먹엄수다.

107017 @ 콩국 혼번 영 곁아줍서.

107017 #3 성님이 잘 곁아.

107017 #1 아 콩국을예 콩국은 우리는 전의는 처음에 콩국을 불 숲아그네 물 놘그네 이제 처음에는 전의는 물 카그네 콩ㄱ를 물 카그네 영 흥영 저 거세기.

107017 #3 비와.

107017 #1 그냥 비와 물 카그네 솟드레 비완에 그냥 거 흥연 먹어 경흥여그네 레여가민 느물 놘그네 특 흥게 느물만 놘그네 옷트레 소곰 영 허꺼그네 그자 부끄 지 못흥게 불 흥썰 내려와그네 숲아그네 그 느물 익음만 흥민 불 꺼뒤그네 뚜껍 특 더껍 경 흥영 내불영 경도 흥영 먹곡. 따시 경 아녀민 따시 콩을 물 케민 느물 낱 물 케민 느물놘그네 느물 옷트레 콩ㄱ를 그냥 물 카지 마랑 물 카지 마라그네 그 느물 옷트레 콩ㄱ를 그냥 영흥영 하꺼그네 저 남즈로 젓어. 남즈로 영흥영 젓영 남즈로 영 흥연 젓어그네 저 골로루 젓으민 병뎡이 싹 풀어져봅니다. 병뎡이 남즈루 저서놘그네 그 옷트레 흥은 부돌 소곰 흥은 소곰을 썩 흥게시리 뿌려그네 두개 특

더꺼그네 슴양 영 햅영 고만 지켜샷다그네 짐 우트레 오랑 부껌직햅민 영 햅영 들러그네 불 햅썰 내리우멍 영 햅영 들르멍 햅여그네 누뎨 익을 동안 기추룩 햅 부끄지 못햅게 슴야, 부끄지 못햅게. 콩꺄를 슴양 부꺼불민, 콩 햅썰 내리멍 불 햅썰 내리우멍 부끄지 못햅게 슴야그네 누뎨 익을 만이, 영 햅영 영 햅여그네 누뎨 보면 익어시면은 그저 불을 톡 꺼그네 뚜껍을 톡 더껍 내불어. 더껍 내불민양 그냥 그 두부꺄치 그 트랑트랑 햅니다. 게민 콩국은 젓지 안 햅영 거려사주게. 햅펜으로 톡 톡 거려사 햅여. 누뎨꺄치 햅햅 햅스멍 거렁 안 돼여.

107017 @ 겐디 아까 그 두 번째 꺼 저 콩꺄루 뿌려그네?

107017 #1 응.

107017 @ 그거 비린내 나지 안 햅니까?

107017 #1 안 햅니다.

107017 @ 아 물로 서꺼야 비린내 안 날껌디.

107017 #1 아니 아니 경도 햅영 햅곡 물로 서꺼그네 경도 햅영 햅곡 콩꺄루 누뎨우트레 서껍 누뎨 우트레 그냥그냥 늘콩꺄루.

107017 @ 게매 거난 그 늘콩꺄루 햅면은 잘 서꺼지지 안으면은.

107017 #1 안 서꺼지질 안 햅니다.

107017 @ 저 비린내.

107017 #1 아니 아니 비린내가 무사 납네까. 게난에 납꺄로 영 햅영 젓햅주게. 납꺄로 젓햅 납꺄로 영 햅영 젓으면 병햅이 으시만 저서그네 두께 톡 더꺼그네 슴는거라. 슴야그네 짐만 햅썰 올라가갠 콩꺄를 부꺼부는 때문에 불은 햅썰씩 늦추멍 그걸 맞추와그네 직햅영 건 직햅영 사사주 안 직햅민 부꺼불어. 직햅여 사멍 직햅여 사멍 불 햅썰씩 늦추와 가멍 직햅여 사그네 영햅영 우에 올라왕 부껌직햅민 영 햅영 납꺄로 햅썰씩 영 햅영 늘르멍 햅여그네 그걸 다 익을 때꺄지 직햅여 사그네 누뎨 익을 때꺄지 익어나면은 불만 톡 꺼그네 젓지 말양 두껍만 톡 더껍 내불어. 두껍만 톡 더껍 내불면은 게 순두부추룩 양 트렁트렁 햅니다 것도.

107017 #3 양 비린내 납꺄 해도.

107017 #1 비린내 안 나.

107017 #3 그 누뎨 익어가갠 콩꺄루도 햅영.

107017 #1 다 햅어부렁.

107017 #3 저 내음살 안 납니다. 경 햅영 햅번 집의 강 경 햅영 먹어봍서.

107017 @ 아 나도 옛날에 햅 먹어봍수다게.

107017 #3 (웃음) 경햅 먹어봍서.

107017 @ 게난 옛날 콩꺄루를.

107017 #1 물에 서꺼.

107017 @ 물에 서끄지 안 햅여그네.

107017 #1 응.

107017 @ 그냥 나부럿거든.

107017 #1 응.

107017 @ 아 경 햏영니까 그 저 잘 퍼지지 안 햏영?

107017 #3 병땡이.

107017 @ 병땡이 전애양?

107017 #1 그거 잘못해난 거 아니우파?

107017 @ 계난 물로 나중에는 잘 영 저서네 노난에 아 그추룩 맛좋은 걸 그냥 햏난에 비린내 난.

107017 #1 에이 그건 그건 잘못된 거주게.

107017 #3 잘못된 거.

107017 #1 계난에 병땡이도 지지 안 햏곡 뇨물 우트레 뿌리민 뇨물 우트레 그 콩ㄱ루를 이녁 그 국에 맞게 놔그네 저 저서그네 그 남즈로 햏여그네 잘 저서. 잘 짓으면 병땡이 하나 어시 짝 풀어집니다. 계민 그 뇨물 익을 때ㄱ지 뇨물 익을 때 ㄱ지만 슌으면은 비린내랑말양 아뭇치도 안 햏영 두께 톱 더경 낫당 햏민양 투박투 박투박투박 햏여그네 햏 콩ㄱ루는 뇨물국추룩 짓지 안 햏여. 햏 군데로만 츄근츄근 짓어야, 거려야주게. 경 햏영 햏민양 순두부 거세기추룩 투박투박 아뭇치도 안 햏여

107017 #3 아니 옛날 할망덜은 경도 햏수다게. 콩ㄱ루를 언물에 강.

107017 #1 그레 비왕.

107017 #3 저 이제 그걸 퀘민 그걸 비와그네 퀘민 뇨물 낱 꺽꺽꺽 햏게 놀트 령 소곰 서꺼그네 이건 경도 햏신디 우리가 햏여부난 경 햏 국보단 뇨물 우트레 콩 ㄱ루 서경 햏 게 더 투박투박햏연에 콩국이 더 잘 웨여마썸. 경햏난 그추룩 햏는 거라마썸. 옛날 식으론 경 햏당 이젠 딱로 햏번 바짜보젠 경햏 콩ㄱ를을 뇨물 우트 레 서꺼 경햏 끌려 봤수다.

107017 #1 옛날 우리 어멍네 식은 그추룩 물 물 ㄱ루 문짝 햏게시리 잘 카그네 병땡이 어시 카그네 물으레 비와그네 그걸 끌이민 그레 뇨물 낱이게 햏영 햏신디 그추룩 햏영 햏 거나 그냥 뇨물 우트레 콩ㄱ루 비와그네 저서그네 끌인거나 햏면은 우리 이 생각엔 그냥 햏 것이 더 트랑트랑 햏여뻬여 순두부 그렁 트랑트랑.

107017 #3 겨난 영 햏여본 게 우리가 좋으난에 우리가 경 햏는 거마썸. 경 옛날 할망식으로 햏단 경햏단에 우리 이제 영 햏영 끌렘수게. 더 쉽고 저 그릇 부찌지 안 햏영 ㄱ를 카지 안 햏영 경햏 햏수게.

107018 @ 호박입국 햏 먹어봍디강.

107018 #1 예게.

107018 @ 거 햏 번 곱아줍서.

107018 #3 호박입은 양 톱양 톱아그네 그 저 그 저 땡가리에 줄거리가 십니다 게. 겨난 그 줄거리를 문딱 복복햏게 베껴땡 경 베껴그네 물에 씻영 박박 무지렁. 경햏 이제 저 장물 낱 슌다그네 퀘민 호박입 놔그네 슌당 츄지름이나 지름 햏뿔 놔 그네 ㄱ루를 햏뿔 낱 비와마썸.

107018 @ 무슨 ㄱ루.

107018 #3 모멸ㄱ루든 밀ㄱ루든. 경행 ㄱ루 혼 수까락쫄 낱 혼 돌리 먹을 건 혼
쫄 낱 캉 혼민 그게 그자 밀경혼지 안 혼영 막 좋습니다게. 경행 혼민 그게 경 맛
좋습니다. 호박입국 막 맛 좋습니다. 혼영 먹어봅서 막 맛 좋아.

107018 @ 건 어디 봄에?

107018 #1 아니 호박 나민게 팔월.

107018 #3 가을에 가을.

107018 #1 팔구월 나건.

107018 #3 팔구월 나 여름에.

107018 #1 저 이.

107018 @ 여름 때구나.

107018 #3 예.

107018 #1 팔구월 나면 호박썩이 막 번성할 때 아니파. 막 번성혼민 그 호박 호
박입은 너무 어린 때민 안 좋아 혼쫄 세듯 혼여그네 팔구월 나거들랑 호박입 툇아
당 베껴그네 그 대 영 혼영 베껴난 그 대는 똑똑 꺾엉 따로 낫당 이파린 푸린 물
나게 복복 밀엉 싹어야 돼여. 푸린 물 나게 복복 밀엉 싹어야지 그냥 영영영영 물
에 헤움만 혼민 호박이 저.

107018 @ 대는 대는 필요 없고?

107018 #1 아 대는 내중에랑 헤왕 경 노민 대가 더 맛좋주게.

107018 @ 음 음.

107018 #1 겨난 대는 이것드레 ㄱ찌 노면은 부서져불 카부덴.

107018 @ 썩만 영영.

107018 #1 응응 부서져불 대는 툇툇 놔뵤이네 부서져불 그레 놓민 부서져불 거
지 대는 더 맛이 좋아 겨난에 이건 양 푸린 물 나게 막 밀엉 싹어야 돼여 박박 박
박 밀엉 싹어야 호박입국이 맛좋아. 밀지 안 혼영 싹으민 쫄락쫄락 행 맛어서.

107018 #3 우리 메느리 그자 그냥 혼 것도 맛 좍디다게.

107019 @ 몹국에 대행 곱아줍서.

107019 #3 몹국은 양 돼지고기 스투양 건져뵤 그 물에 그 물에 몹 빨아 농곡 퀘
기 혼쫄 썰어농곡 혼영 끝이당 것도 무시거 ㄱ를 하영 놓민 곳입니다. 약간 서꺼그
네 혼영 끌리민 그게 순개비나 못아농곡 혼민 그게.

107019 #1 배추도 혼쫄 서끄곡.

107019 #3 막 맛 좋아마쫄.

107019 #1 배추도 혼쫄 서꺼야 맛 좍네다.

107019 @ 몹에 배추 서꺼?

107019 #1 느물 느물에 느물도 쉰 느물 그 펄기 앓아그네 헤영혼 느물 말고 쉰
느물이나 경 아녀민 초마귀 썩이나 놈뵤 썩 놈뵤 썩이나 배추 썩이나 혼영 몹 몹
몹만 놓지 말앙 혼쫄 서꺼. 기사 더 맛좋아.

107019 #3 게난 그 몹은 양 퀘기 스투아난 물이 아니민 맛이 없수다 저 퀘기 쉰

만남 물에 햅여사 맛도 좋습니다. 옛날 순대 잔치할 때 순대 삶아나지 안했수가게
게민 그 순대 삶아난 물에 멈 빨아냥 국 끓이민 경 맛 좋앗수게. 순대 설민 물이
햅쓸 풀 풀 흡니다게. 저 순대 햅쓸 터지고 해가민 궤난 그물에 몸국 해가민.

107019 @ 수에 수에?

107019 #1 수에 수에.

107019 #3 그거 경 맛 좋앗수게 옛날은 그 수엘 계속 담앗수게, 잔치 때에. 경
햅민 몸국은 바로 이걸 그자 거세기 저 기본적인라마씀. 저 몸 빨아냥 국 햅는 거.
경 햅영 우리 잔치칩의 우리 몸국 얻어 먹으래 가게 아싯날 처냐 가민 경 얻어 먹
영.

107020 @ 생선국에 대행 곱아줍서 생선국 햅민 아까 이 솔라니 국?

107020 #1 생선이 솔라니주게 이던 생선이렌 흡니다.

107020 @ 궤난 생선햅면 살아잇는 궤기 전부 이제 햅 수도 잇곡.

107020 #1 예 예 솔라니엔 햅면.

107020 @ 옥돔.

107020 #1 옥돔이엔 햅영 그자 그거 햅 가지고.

107020 @ 궤난 이거 바당 궤기로 햅여그네 저 국 햅는 거?

107020 #1 바당고기는 양 바당고기는 미역이 들어가사 햅는 거고. 딱시 이제 저
거세기 쉼궤기나 돛궤기나 햅는 국은 놉뻘. 바당의 거 안 들어가도 됴고. 바당에 것
은 미역이 들어 바당궤기 국은 아무 국이라도 미역이 들어가사 좋곡. 뉼지궤기국이
나 쉼궤기 국은 놉뻘 주루 놉뻘국을 들어가는 거.

107020 @ 그 다음 옥돔으로 맨든 국도 잇곡 그다음?

107020 #1 예.

107020 @ 벤자리.

107020 #1 벤자리국도 싯곡. 저저 고등에 국도 싯곡. 궤기 종류가 여라 개면은
젤 맛좋은 거 옛날은 생선국이주게 생선국.

107020 #3 갈치국.

107020 @ 궤난 식게 햅 때 무슨 국 끝입니까?

107020 #1 식게햅 때는 생선국. 식게햅 때는 옛날은 저 이것저것 햅주만은 이제
보통으로 생선국 이제 생선국에 미역 놉그네 끌린 거. 경 안햅민 생선국이나 다금
바리 ㄱ뉼 거예 그런 것도 미역 냥 국 끌리곡.

107020 #3 소고기국도 흡니다게. 소고기국도 햅고 옛날은 이 식게 때에 비늘 어
슨 건 국 안 햅엿수다. 비늘 싯 궤기만. 각재기든 저 거세기 벤자리든 생선이든 비
늘 싯 건 궤국을 햅고 비늘 어슨 건 궤국 안 햅수다. 저 구신이 응감햅지 안 햅텐.
그건 비늘 어싯 거.

107020 #1 갈치 햅곡 고등엔 이 큰일 때 제사 때 쓰질 안 흡니다.

107020 #3 쓰질 안 흡니다.

107020 @ 고등어햅고?

107020 #1 고등어하고 갈치하고.
 107020 #@ 고등어하고 각재기 스춘이주만?
 107020 #1 예.
 107020 #@ 각재기는 비늘 비늘 이시난에.
 107020 #1 비늘이 가운데 이스난에 각재긴 재사 때 쾡도 올립니다. 국도 하고.
 107020 #3 쾡도 하고 국도 하고. 비늘 어슨 건 쓰지 안 합니다. 계난 비늘 신
 것만 재사 때에 경행 씻수다.
 107022 @ 냉국 행 먹어봅디강?
 107022 #1 무슨 냉국.
 107022 @ 여름 때 냉국?
 107022 #1 게 냉국이사 하영 해주게.
 107022 #@ 뭐뭐 냉국 냉국 종류 한번 알아봅서.
 107022 #1 냉국 종류 자 기어 자 가지 가지 해당 누물 냉국도 싯곡 오이냉국도
 싯곡 물웨냉국도 싯곡 뭐 저 바당에 나는 무슨 거냐 우미냉국도 싯곡 뭐 냉국 종류
 는 누물 하는 거 다 돼여 누물 데와그네 냉국 하는 것도 싯곡 냉국이사 오죽 여러
 가지짱. 켤디 여름에는 보통 냉국은 웬장 웬장 놔그네 그자.
 107022 #3 지꾸미 오징어 성흔 거 복삭 썰어놔 오이 썰어놓곡 그거 냉국이 질
 맛좋아마썸, 여름에 흐민. 우리 저 벌초 때엔 그 오징어 성흔 거 테우쳐그네 복작
 썰어놓곡 오이 썰어놓곡 국흐민 거 잘 먹어마썸. 가민 그자 켤당덜이 어떻사 맛 좋
 덴 먹는 디 모두 흔 사발 두 사발이라 더워 놓곡 흐민. 그게 쥬 냉국 중에 잘 먹읍
 니다.
 107023 @ 성계국 행도 먹었지양?
 107023 #1 성계국은 그거 저 냉국은 생 거 냉국은 안 흐연 먹어봤수다. 그냥 그
 자 미역 놓곡 행 끌렁 미역놓곡 흐영 끌렁은 먹어도 성계 냉국은 아니 먹어 봤수
 다. 성계 그냥 밥 버무려도 맛좋곡 밥 버무렁 그냥 영영 밥 버무렁 먹어도 맛좋곡.
 딱시 미역놓곡 흐여그네 성계 국 끌려도 맛좋곡. 성계는 그냥 먹어도 맛좋곡. 뭐.
 107023 @ 보말국도 행 먹어 봤지양?
 107023 #3 예게 보말국도 행 보말국도 그거 바당에 강 흐여다그네 까그네 닥살
 툫툫 털어뒤그네 지름에 낱 돌돌 보끄다그네.
 107023 @ 저것도 메역 놔야 돼쿠다예.
 107023 #1 예 것도 메역.
 107023 @ 계난 바당 건 메역.
 107023 #1 예 바당 건 메역.
 107023 @ 육지건 이저 놔빠.
 107023 #1 놔빠 음 바당건 메역. 우의 건 놔 빠 바당 건 메역.
 107023 #3 경흔디 보말.
 107023 #1 보말국도 누물 낱 저 미역 놔사 맛좋아.

107023 #3 저 바람바람 부르쨌어그네 지름 낱 보끄당 부르쨌영 국 흐민 보말국도 맛 줍니다. 우리 평대 사돈네 보말 똑 잡앙 보내어게. 계민 것도양 국흐민 맛좋아.

107023 @ 넙패국 먹어봅디강?

107023 #1 예 넙패국 먹었주게 넙패는 양 넙패는 흐쨌 넙죽넙죽 흐 거라. 가달 막 벌기명. 가달 벌기명 넙죽넙죽 가달 벌기명 넙죽넙죽흐디 흙도 좋아 그진, 흙도 좋아. 바당 강 흐여다그네 바당에서 흐쨌 박박 그 빌레에 놉그네 밀어. 빌레에 놉그네 박박 밀어그네 그 늦 ㄹ쁜 거역 거세기 바당에 가그네 빌레에 놉그네 박박 밀영 씻어똥 집의 오라그네 집의 오랑은 씻지 아넙니다, 집인 물의선. 집인 물에서 바당에서 박박 밀영 씻어그네 저 무신 구덕에 놉그네 바당물에서 활활활 헤와그네 그 무신거 모살 ㄹ쁜 거 판씩 씻곡 늦 ㄹ쁜 거 판씩 바당에서 판씩하게 씻영 오라그네 집의 오랑 그걸 솟디 놉그네 그냥 그거 솟아가민 물이 그냥 막 낭웁니다 그디. 물이 막 놉와. 그냥 물 안놉도 물이 막 놉와 그거 솟아가민 경 물 나오도록 물 폭하게 솟아 폭하게 솟아그네 그냥 두경이 열지 안흐영 툭 그냥 더경 내불어. 그냥 더경 내불민 양 그것이 문씩하게 흐쨌 트랑트랑 흡니다게. 트랑트랑 흐민 양 그걸 흐쨌씩 그걸 거러그네 솟디 놉그네 국끌이고 하영 놉그네 그거 낱 국 끌이민 막 맛 좋웁니다. 거 경행 먹으민.

107023 @ 가시리국은 먹어봅디강?

107023 #1 가시리국은 안 먹어봐서 가시리 흐여와그네 뜯 건 해도 국은 안 먹어봤수다.

107023 #3 가시리풀 썩그네 방 브르곡 구덕 브르곡.

107023 #1 예 가시리국은 먹넹은 해도 우린 안 흐여봤수다 먹진 안 흐여판.

107023 @ 프래로 국 끌영 먹어봅디강?

107023 #1 예 프래사 국 끌영 먹 프래사 오죽 좋은 거파. 프래도 바당에 가그네 그 먹돌 ㄹ쁜 디 먹돌 ㄹ쁜 디 프래 파랑케 나면은 저 거평 전복꺾데기 거평 전복꺾데기고라 거평이엔 흐주게. 거평 하나 낫곡 족수까락 수까락 영 꺾어진 거 찢른 거 옆이 흐쨌 영 흐여그네 막 굽어가민 다이는 거 이서. 그 다인 수까락을 가져가사 흐쨌 질게시리 흐면은 돌에 거 북북북북 흐게시리 그 거평 흐기 좋은 던 거평으로 굽곡 수까락으로 흐기 좋은 덧 건 수까락으로 그걸 프랠 벅벅벅벅 굽어. 굽어그네 바당에서 모살을 다 물에 구덕에 낱에 흥글흥글 흐명 흥글흥글 흐명 그 모살을 문딱 씻영. 씻영 오라그네 것도 집의 오라그네 저 흐쨌 솟아 그냥 물 놓지 말앙 그냥 솟아 물 놓지 말앙 솟아그네 것도 물 막 나오라. 물 놓지 마랑 솟앙 흐쨌 툭 재우곡 헛다그네 그냥 물 놉그네 끌일 때 국 끌이민 막 맛 좋웁니다. 거 거 맛좋아 넙패국도 맛 좋곡 프래국도 맛좋곡. 그 프래 슬은 김흐는 거 아닌가.

107023 @ 모르쿠다 이 물훼에 대행 흐번 말해봅서 물훼 자리물훼.

107023 #1 아 자리물훼 자리물훼는 흐쨌 훑은 자리 사다그네 비늘 거시렁. 비늘 거시려똥 옆 팡 옆 팡만 떼어. 옆 팡만 떼어똥 옆 팡만 떼어놉그네 이젠 저 씻어.

씻어그네 지러기로 지러기로 썰어야 영 썰어불렁 안 돼여. 지러기로 솔랑솔랑하게 시리 지러기로 썰어그네 지러기로 경행 썰어농곡. 이제 흐쓸 뿔하게 먹젠 흐민 그 머리 대강이 대강이만 이 배설 내불어뒤그네 대강이만 저 방해통에 닥닥 뺏아. 닥닥 뺏아그네 물 흐쓸 흐여그네 대강이 물을 자리물훤레 해 놓는거라. 대강이 뭐 게민 물이 텃텃흐여 게민 물 농곡 그 대강이 뺏은 거 농곡 이제 춤지름도 농곡 우선 조피를 뇌사 조피 조피 농곡 춤지름도 농곡 식초도 농곡 그.

107023 #3 세우리.

107023 #1 그 그추룩 흐여그네 낱 먹어 조피 아이 들어가민 물훤가 아니고 조피 우선 조피 농곡 세우리 시민 세우리도 농곡.

107023 #3 미나리영.

107023 #1 껌도 농곡 미나리도 농곡 웨도 농곡 아이 저 저 오이 오이도 썰어농곡 미나리도 흐쓸 시민 만이 농곡 경 먹으민 맛좋은 거. 경흐민 뭐 자리사 좋주며.

107023 @ 한치물훤는?

107023 #1 한치물훤 한치물훤도 한치물훤도 저 거세기 한치물훤는 나 흐인 거 얻어만 먹어뵈주 난 먹어.

107023 #3 한치물훤도 똑 그뜨우다게, 자리훤나. 하간 거 양념을 잘 뇌사 맛이 좋아마썸.

107023 #1 게난 저 게민.

107023 #3 저 한치물훤도 저 오이도 농곡 하간 거 놀 거.

107023 #1 배 그뜨 것덜도 썰어농곡 한치물훤도 배 그뜨 것도 썰어낱 우리 맨 들 때 배도 썰어농곡 그 저.

107023 #3 요라 가지 넣어.

107023 #1 요라 가지 양념을 잘 흐여그네 한치도 흐여사 맛 좋주게.

107023 #3 게난 한치물훤도 썸니다 세여 막 맛좋아.

107023 #1 난 기 그덴 자리물훤가 더 맛좋아 한치물훤보다.

107023 #3 자리물훤는 이 보민 슬지는 때문에 우리도 흐해에 자리물훤 멧 번 먹엄수다게. 사당 집이서 흐영 먹어. 집의 체피도 싯곡. 미나리도 싯곡. 저 세우리도 싯곡. 흐민 집의 거 다 놓민 자리물훤 뵈마썸. 영 흐영 죽작 행 자리물훤 사당 강 사다그네 행.

107023 @ 오늘 수고했수다 이제.

107023 #1 다 뵈수과?

107023 @ 예 다 뵈수다.

107023 #3 다 뵈서(웃음).

죽류

107024 @ 오늘은 그 저 죽 종류에 대해 물어보쿠다.

107024 #3 예.

107024 @ 그 죽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수광?

107024 #3 콩죽도 잇곡. 양 팻죽도 잇곡. 녹두죽도 잇곡. 흰죽도 잇곡. 국죽도 잇곡양. 죽은 땃 가지우다게. 흐면 다 죽이라마씀.

107028 @ 거면은 재료 말해줍서 재료 죽에 따라그네 그.

107028 #1 죽 죽에 따라 죽에 따라그네 콩죽 쓸 때는 곤쌀 곤쌀에 모인 좁쌀 옛날은 모인 좁쌀로 콩그루 햇수다게. 이제는 쌀만 놔그네 곤쌀만 낱 해도. 옛날은 모인 좁쌀 흐고 콩그루 흐고 서꺼, 서꺼, 저 저 곤쌀도 흐쌀 서끄곡 흐여그네 콩죽 을 이제 서꺼그네 썬어나신디. 옛날은 곤살이 어려운 때난에 좁쌀도 모인 좁쌀로 모인 좁쌀. 모인 좁쌀 죽흐여그네 썬곡. 썬그네 콩죽에 별로 놉빠나 흐쌀 썰어 놓곡 에 소곰이나 노민 걸로 되는 거우다.

107028 #3 경 흐곡 양 이 콩죽엔 모인 좁쌀이 어울립네다. 모인 좁쌀이 막 좋아. 콩죽은 그 데와가민 더 맛 좋곡.

107027 @ 팻죽은마썸.

107027 #1 팻죽은 팻죽은 팻을 저 싯청. 싯쳐그네 그 저 흑 하나이라도 잇는 거 판씩 다듬아땡. 다듬아땡그네 이제 솟디 놔그네 흐 번 숯양. 숯아그네 영 흐쌀 뜸 재왕. 저 흐쌀 저 물룻게. 물룻게 뜸 재와그네 딱시 조락물이엔 흐 물이 이서 우터 레. 딱시 물 흐 사발 조록 흐게 비와. 물 흐 사발 조록 흐게시리 비어놔그네 또 팻 을 숯으민 팻이 잘 퍼져. 조락물, 팻 숯으멍 조락물 난다 경 흡니께. 게난에 조락물 톱 흐 사발 비와놔그네 딱시 불 켜다그네 조 조락물 비어놔그네 이제 또 저 불숨아 가면 불숨양 속 흐게 숯으민 팻이 막 잘 퍼져 흐쌀 뜸 때보다 빨리 익어, 경 기냥 막 숯는 것보다. 경 흐영 문작흐게 숯아냥. 문작흐게 숯아놔그네 그걸 저 옛날은 도 고리, 도고리에 놔그네 막 저 뽏앙 막개로. 뽏아그네 이제 뽏아놔그네 도고리 놔그 네 막개로 막 뽏아놔그네 잘 뽏아. 잘 뽏아지면 물 놔그네 물 놔그네 영해 젓어. 베 술기로 영 영 흐영 젓어그네 그 물을 저 췌 받, 영 흐여그네 췌 맞쳐사, 체 그레 들 어가지 못흐게. 췌 맞추와그네 그 물을 짜꾸 영 흐여그네 딸라 물 딸르곡 딸르곡 흐민 그 체는 굵에 문딱 마라얏곡, 요물을 문딱 그 물에 빠져그네 이 체 알러레 문 딱 내려잡니다게. 게민 췌 비삭흐여그네 먹을 나위 어서. 게민 건 데껴불곡. 체는 데껴땡그네 그 알맹이 빠진 그 물만 솟더레 비와놓곡. 딱시 곤쌀 곤쌀 싯어그네 딱 시 솟더레 놓곡 흐여그네 기자 계속 익을 동안 익을 저 것으멍 계속 익을 동안 우 터레 그저 저 푹각푹각 부글레기 올라오랑 펄쩍펄쩍 땡 때까지 막 숯아그네 흐민 저 곤살이 다 익을만이 익어지민 딱 맞추와그네 불 꺼그네 소곰 놔그네 먹는 거, 거 뽏. 죽 흐는 것 제일 쉬웁니께.

107025 @ 곤죽 해영 먹어봅디게양.

107025 #1 예게.

107025 @ 곤죽에 대해 말해 줘서.

107025 #3 곤죽은 양 저 곤살 싯영 그자 죽 썬 것고라 곤죽이엔 흡니다게. 그냥 죽 썬. 곤살 싯영 놔그네 저 것으멍 풀풀흐게 썬그네 흐 게 그게 곤죽.

107025 #1 아무것도 놓지 아니 혼 것이 곤죽.

107025 #3 소곰 ㄱ뜨 거 놓지 말앙 혼는 게 곤죽.

107025 #1 소곰 ㄱ뜨 거 놓지 아녀는 것이 곤죽.

107025 #3 곤죽 그것이 곤죽.

107025 #1 곤죽이엔도 혼고 힌죽이엔도 혼고. 옛날은 곤죽이엔도 혼고 힌죽이엔도 혼고 아무 것도 놓지 안 혼 거.

107025 #3 게민 옛날은 양 우리 저 아팠 누민 아이고 저 거세기 힌죽이나 혼쌀 쭈라 이 아픈 아이 주게 경 헛수다게. 경 혼영 죽 스뭇 거세기로 먹어 허허허 죽 죽 죽.

107026 @ 조죽 먹어 밥디강.

107026 #1 예게.

107026 @ 조죽은 어떻 맹급니까.

107026 #1 조죽 조죽도 양 힌 저 검은 조로는 안 돼고 검은 조는 죽 아니 웨 지룩지룩 해불영. 검은 좁쌀은 아니 힌 조 힌 좁쌀 노란 좁쌀 모인 좁쌀, 모인 좁쌀 물 놓곡 모인 좁쌀 놔그네 건즘 익도록 영 혼영 것으멍 솟다그네 거즘 익도록 것으 멍 솟아. 솟아그네 그레 누물도 박박 무지레영 놓곡. 누물 무지렁 놔사, 좁쌀 죽엔 누물을 무지렁 놔. 누물 무지렁 놓곡 그때 옛날은 것고라 무신 죽이민 국죽이엔 헛수다, 국죽. 좁쌀이영 누물이영 식은 밥 먹단 것도 식은 밥 먹단 것도 이시민 그레 비와놓곡. 좁쌀도 놓곡 혼여그네 누물 무지렁 혼 건 그거 저 좁쌀로 쏜 죽은 국죽. 국죽은 혼쌀 저 혼쌀 등급이 낮은 죽, 국죽.

107026 #3 경 혼곡 딱로 좁쌀 그 히 저 모인 좁쌀 영 물 물 저 커그네 막 봉물 황 뺏아놔그네 양 그거 뺏아놔 죽 해도 경 맛만 좋습니다. 이 모인 좁쌀은 양 죽에 대혼민 다 좋아. 경 우리도 혼연에 먹어봤수다게. 경 혼여도 맛만 좋아.

107029@ 모멸 죽도 해 먹어밥디강.

107029 #1 예게.

107029 #3 모멸 죽 혼여그네.

107029 @ 모멸 죽은 어떤 맹급니까?

107029 #1 죽에서 제일 쉬운 것이 죽더레 모멸 죽도 물 놓곡 물 놓곡. 그 물에 맞춰 모멸 쌀 놓곡 모멸 쌀 놔그네 그냥 영해 것으민 것어그네 것어그네 그건예 옛날 ㄱ뜨민 모멸 죽에 탁배기덜 놔그네 영 혼영 다 웨민양 하르방덜은 탁배기 그릇 혼 국자 거러놔그네 영 혼여그네 먹으민 저 먹은 모멸 죽은 탁배기에 건져 놔그네 걸려다 먹으민 그추푹덜 맛 좋게덜 먹읍데다. 모멸 죽엔 탁배기.

107029 #3 탁배기에 혼영 낱 먹으민 배고프지도 아녀곡 술끼 나곡. 경 혼여그네 옛날 어른덜 경 혼연 먹으디다게.

107029 #1 탁배기 집이 그 혼여 혼 거.

107029 #3 좁쌀 혼영.

107029 #1 혼여그네 모멸 죽에도 혼여그네 어른덜은 그추록 혼영 먹은 게 젤

좋게 그거 춤 잘도 맛 좋게시리 경 현 먹었수다, 거. 배도 불고 술끼 나그네 기분도 좋곡.

107029 #3 술은 탁배기 맨드는 건 허린 좁쌀. 저 물 컷다그네 막 물 누루민 방애에 뺏아그네 그를 청 오메기 맨들아. 오메기 맨들앙 썬그네 막 썬 막 달루와그네 누룩 서경. 누룩 서꺼그네 물 놓곡 그 누룩 서끄곡 어느 정도 물을 그것에 영 캉 휘휘 젓어그네 망대기 비앙 놔두민 그게 경 현영 탁배기 웹니다게. 경 현영 또 우루 청주 거렁 먹어똥 아랫 건 탁배기로 먹곡 경 흡디다. 좁쌀은 양 못 하는 게 으서마썸.

107030 @ 그 녹디죽 마썸 녹디죽은?

107030 #1 녹디죽도 팻죽이나 툽 그땀니다. 녹디죽도 녹디 팻 삶는 과정 녹디 삶는 과정도 싹쳐똥그네 습다그네 조락물 놔그네 탁 퍼 막 흡읍니다, 막 퍼지민. 흡어그네 경 현여그네. 녹디죽은 양 경 현 어시 걸르지 아니영 해 먹읍니다, 녹디죽은. 팻죽은 보통으로 걸렁 먹는다 녹디죽은 어쩌다가 한번 걸르는 사름 걸루귀양, 녹디죽은 그냥 썬그네 문짝 데겨그네 그냥 쓸 놔그네 죽 흡디다. 기추록 하영 흡니다. 기추록 녹디죽은 경 아니영.

107030 #3 아니 녹디죽은 걸르지 안 흡니다.

107030 #1 예 녹디죽은 경 걸르지 아넵니다.

107030 #3 무룩이 썬민 것도 맛 좋곡. 경 현고 이 팻도 옛날 저 우리 영장 나민, 사돈 죽으민 우리 팻죽 해갓수게. 팻죽 현여 가져가민 경 걸러그네 막 곱다하게 현여그네 팻죽 해가곡. 우리 집의서 먹는 건 그자 막 무르췌어그네 쓸 놔그네 썬그네 경도 현 먹었수다게, 예 저 죽은.

107031 @ 득죽에 대해 말해줍서게.

107031 #3 득죽 득죽도 게 득 사당 삶아. 삶아그네 마늘 놓곡 송게비 마늘 놓곡 지름 놓곡 현영 삶아그네 건져내영. 득케기 막 치져놔그네 쓸 놔그네 죽을 썬민 득죽. 경 현 먹었수다. 그 경 현민 그게 득죽.

107031 @ 꿩으로는 축 안 맹글앗지양?

107031 #3 꿩으로 양 모멸 칼국 현여그네 먹었수다.

107031 #1 모멸 꿩으로는 모멸 칼국.

107031 #3 모멸 칼국 꿩 저.

107031 #1 경 저 모멸 칼국 현곡 그냥 국 끌렁 먹곡. 보깡 먹곡. 쏘양 기냥 뜯어도 먹곡. 보깡 그냥 반찬, 놉빼 낱 보깡도 먹곡. 저 거세기 기냥 저 기냥 쏘아그네 딱시 모멸 그루 놔그네 기자.

107031 #3 치져그네, 치져놔그네 국 현영 먹곡. 경허디 꿩은 저 득 답지 아니영 꿩이가 작읍니다. 베짜 들랑 무시 거 하질 안 흡니다. 게민 꿩이고 머시고 막 못아 놔그네 지름 놓곡 마늘 놓곡 무 놔그네 양 국 점 썬개 점 현 게 제일 맛 좋아마썸. 그게 제일 맛 좋아.

107032 @ 쟁이죽은 먹어봣디깡.

107032 #3 갱이도 양 뺏앙게. 뺏앙 물 햅여그네 걸렁 물 햅영 죽 썩 먹어봣수다 게, 것도. 죽이사 아이 먹어 본 거 셔마씀. 다 먹어봣수다.

107033 @ 이 죽 웨에 또 다른 죽덜 잇수과?

107033 #1 이 죽 웨에? 유죽도 싯곡.

107033 @ 유죽?

107033 #1 예 유죽.

107033 #3 유죽.

107033 #1 들쨌죽.

107033 #3 들쨌죽, 들쨌죽이 맛좋아.

107033 #1 유죽도 싯곡 쨌죽도 싯곡 그냥 쨌.

107033 #3 기냥 춤쨌양 곤쨌에 춤쨌에 ㄱ찌 놈그네 방애통에 막 뺏아. 뺏아그네 그 뺏은 것덜을 따로 물 낱 쨌민 낱 짓으멍 죽쨌민 양 막 맛 좋습니다. 쨌죽은 경 햅영 쨌곡. 또 들쨌죽은 들쨌 방앗간에 강 곶아당, 이녁냥으로 뺏으나 곶아다그네 우리 저 찰리 찰리에 놈그네 그걸 물 짹니다. 막 짜낱 짜놈그네 앳인 곳인 건 놓지 아녀곡 곶운 거 우루 곶운 물만 비와놈그네 쨌 싯어낱 죽 쨌민양 경햅민 막 맛 좋습니다. 들쨌도 경 햅여.

범벅과 수제비

107034 @ 범벅에 대해 알아보쿠다 양 범벅 범벅에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

107034 #1 제일 맛좋은 범벅은 모멸뽕벅. 모멸뽕벅도 기냥 진ㄱ를 모멸뽕벅이 맛 좋곡, 는쟁이 범벅 ㄱ쁜 건 맛 잇곡. 저 모멸 쨌 맨들아놈그네 곶닥햅게 곤 것이 진ㄱ루. 모멸 곶저그네 쨌로 만든 것이 것이 진ㄱ루. 게그네 진ㄱ루 범벅은 완전 곶급 범벅 제일 맛 좋은 거. 또 는쟁이 범벅. 는쟁이 범벅은 따시 질 그 쨌이영 퍼뒹그네 니께미영 곶아난 그 ㄱ트머리엿 거 ㄱ루 나온 거 그것은 는쟁이 범벅. 는쟁이 범벅은 감저 햅영 쨌어 놈그네 감저 햅영 쨌어낱 숲아. 문작 숲아그네 그레 ㄱ를 놈. 그레 ㄱ를 놈그네 햅쨌 풀탁풀탁 햅게시리 ㄱ루 익을 만이 그냥 풀탁풀탁 햅여 가걸라그네 그자 배술기로 햅영 막 짓어. 배술기로 막 짓으민 그건 는쟁이 범벅. 보리ㄱ루도 보리 ㄱ루도 보리 곶아나민 보리범벅도 햅 먹곡. 밀뽕벅도 햅 먹곡. 범벅도 멧 가지 아무거라도 범벅 햅는 거.

107034 @ 거난 보리범벅도 햅 먹곡.

107034 #1 예 보리범벅도 햅 먹곡 밀 곶양 밀뽕벅도 햅 먹곡. 범벅 중에서 맛 좋은 건 보리범벅이 아니 밀 모멸뽕벅이 맛 좋곡. 그 다음이 밀뽕벅이 맛 좋곡. 보리범벅이 쨌 맛 어슨 거.

107034 @ 거난 범벅은 이 세 가지?

107034 #3 아이고 옛날은 대죽범벅도 햅 먹엇수다.

107034 #1 대죽범벅도 햅 먹엇쨌.

107034 #3 대죽범벅도 햅영 먹엇수다.

107034 #1 옛날은 대죽범벅도 햅영 떡곡. 따시 저 감저ㄴ루 감저ㄴ루 그 ㄴ루 이제와 감저ㄴ루 빼떼기 뺏아그네 감저ㄴ루 빼떼기 뺏아그네 그 ㄴ루 맨든 것도 것도 저 거세기 범벅 햅영 먹어서.

107034 #3 범벅도 막 여러 가지우다게.

107034 #1 ㄴ루로 ㄴ루 다 범벅 햅영. 감저ㄴ루에 범벅 감저ㄴ루에도 감저 썰어 감저 기냥 딱딱 감저 썰어놔그네 숲아 숲아놔그네 우터레 감저 곶아나 범벅 햅 것 이 감저ㄴ루만 범벅 햅 것보다 맛이 좋아 감저ㄴ루만 범벅햅 것 보다.

107035 @ 그 다음에 제배기 제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잇수과?

107035 #3 즈배기도 양 모멸츠배기도 잇곡, 밀츠배기도 잇곡, 보리츠배기도 잇곡 양, 이 감저츠배기도 잇곡, 으슨 게 으서. 다 즈배기도 감저츠배기 감저 빼떼기 물리왕 그거 뺏앙 곶앙 햅 건 감저츠배기. 또 모멸츠배긴 모멸ㄴ루 곶아그네 즈배기 햅 것은 모멸츠배기, 칼곡. 그 즈배기도 막 여러 종류우다게 밀츠배기도 잇곡. 보리ㄴ루츠배기도 잇곡. 즈배기도 막 여러 가지우다.

107035 #1 옛날은 집의서 밀 갈아나그네 밀덜 막 갈앗수게. 밀덜 갈아그네 ㄴ루에 곶앙, ㄴ루에 곶아그네 훑은 햅쌀 그디서 잘 곶지 못 해진 거 햅쌀 훑은 것덜은 밥에도 보리쌀에도 서깁 떡곡. ㄴ루은 놔두서 그걸로 저 밀ㄴ루로 즈배기도 햅영 떡곡.

107035 #3 경 햅고 우리 두린 때엔 ㄴ루 저 오민 영 일어 사그네 곶아그네 그 밀츠배기 햅영 먹엇수다게. 밀 곶아 밀 곶아그네 경햅영 밀 곶아 밀츠배기 햅영 먹연.

107035 #1 밀츠배기도 햅영 떡곡 보리츠배기도 햅영 떡곡 모멸츠배기도 햅영 떡곡 그런 그 즈배기 밖의 뜯 즈배기는 어신 거 닥수다, 우리 알건 단.

107035 #3 웃수다 으서. 경 햅고 옛날엔 양 라면도 업고 우동도 어서부난 그거 백이 먹을 게 엇어십주게, 즈배기 햅곡 죽 주로 즈배기 햅곡 죽.

107035 #1 저 칼국수 햅곡.

107036 @ 계민 칼국수에 대해 햅번 말해봅서.

107036 #3 칼국수 게 그 모멸 칼국이 제일 세는 거 아니파. 모멸 모멸 거피영 쓸 맨들앙 햅영햅 쌀로 니 으시 햅영 또 곶앙 햅 건 그거 즈배기가 제일 맛 좋아마 씬. 그것도 경햅영 즈배기도 햅곡 저 수제비들 저 칼국도, 칼국도 맨들곡.

107036 #1 그걸에 그걸에 그 ㄴ루를 ㄴ루를 경 햅영 ㄴ루에 문딱 곶앙, 줌진 체로 쳐, 합체가 잇수다 합체. 줌진 체로 청 그걸 반죽을 햅는 거라. 반죽을 물 낱 반죽을 햅영그네 막 손으로 밀어. 막 손으로 밀어그네 이젠 저 요만씩 햅영그네 다들 맨들아. 다들 맨들아그네 이젠 암반에, 암반에 그거 놔그네 아래 분ㄴ루, 떡 부뜨지 못햅게 ㄴ루 짝 허꺼그네 그거 놔그네 이제 썩으로 햅주만은 오래전 옛날은 머 영 햅영 빨래 두두리는 막개 ㄴ쁜 거. 따시 이만이 흥짓대 ㄴ쁜 걸로 햅영그네 그걸 밀어. 밀영 짝 햅게시리 암반에 하나 밀어놔그네 ㄴ루 짝 햅게시리 허꺼그네 칼로 요만씩 햅게시리 칼로 즐라. 이만씩 햅게 짹짹 즐라놔그네 ㄴ루 허끄난 두뜨질 아

니여. 툇 ㅎ게 멧 개씩 올려놔그네 칼로 일정ㅎ게 썰어. 일정ㅎ게 썰영 짜르륵 ㅎ게
놔그네 물 끝이민. 게그네 ㅎ 쪽에서 물 습앙 물 끝이민 그 우터레 영영영영 ㅎ멍
부뜨지 안 ㅎ게 영영 ㅎ영 놔. 이추록 손으로 영영 ㅎ멍 놔나그네 ㅎ ㅎ게시리 배
술기로 ㅈ어그네 ㄷ면은 그레 ㅈ시 놔뻘 놓는 사름은 놔뻘도 놓곡, 놔뻘도 놓곡. 어
면 사름은 ㅈ시 미역도 ㅎ쌀 놓는 사름도 ㅈ곡.

107036 #3 놔뻘가 쥔 좋아.

107036 #1 예 놔뻘 놔뻘가 쥔 좋아. 놔뻘 놔그네, 놔뻘 놓곡. 저 옛날은 장물,
옛날은 장물 영 놓곡 ㅎ여그네 경 ㅎ영 간 맞춰그네 경 ㅈ곡.

107036 #3 그거 우리 수제비엔 해서양.

107036 #1 아니 그거 아니 전날부터 칼국.

107036 #3 칼국 ㅈ 칼국 칼국.

107036 #1 예 거 칼국 옛날부터 건 칼국 ㅈ배기는 저 영 ㅎ여그네.

107036 #3 ㅈ아 논 거.

107036 #1 영 ㅎ여그네 반죽을 막 만들어. 반죽을 맨들아그네 수가락으로도 영
영 ㅎ여그네 물로 ㅈ는 물에 툇툇툇툇 거러노나. 경 안 ㅎ민 손으로라도 영영 ㅈ아
노나. 경 ㅎ 거 ㅈ배기. 이거 민 건 칼국 옛날부터도 건.

107036 #3 칼국 칼국.

107036 #1 예.

107036 #3 칼국 ㅈ배기가 더 맛 좋은 것.

107036 #1 당연ㅎ지.

107036 #3 칼국은 썰어 맨든 게 칼국. ㅈ배기 기냥 영 ㅈ아 논 게.

107036 #1,3 ㅈ배기.

107036 @ 계난 놔뻘 웨로 ㅈ안 놔수과?

107036 #1 이 저 ㅈ배기, 칼국은 ㅎ여튼 ㄴ물칼국이엔 ㅎ곡. ㅈ배기는 예 ㄴ물
도 ㅈ니다. 칼국에는 놔뻘 정도ㅈ이 아니 놓주만은 ㅈ배기는 놔뻘도 놓곡, ㄴ물도
ㄴ물썰도 막 놓곡. 계난 ㅈ배기는 이것저것 막 놔그네 ㅎ쌀 ㅎ쌀 아무라도 그자, 저
칼국은 ㅎ쌀 고급음식으로 만들곡 ㅈ배기는 기냥 기냥 우리 식귀끼리 기자 아멩이
라도 질 손쉽게 ㅎ영 먹는 것이 ㅈ배기. 계난 ㄴ물도 박박 무지렁 놓곡 손으로.

107036 #3 계난 ㅈ배기 ㅎ이 제일 쉬웠수다게. 칼국은 맨들양 그치젠 ㅎ민 어렵
곡. 그자 ㅈ배긴 기자 ㅈ그네 ㅈ아놓민 ㅈ배기는 ㅈ배기 ㅎ이 제일 쉬웠수다.

ㅈㅈ

107037 @ 그다음에 ㅈㅈ에 대해 알아보쿠다양.

107037 #3 예.

107037 @ 그 ㅈㅈ종류에는 어떤 것들 잇수과?

107037 #1 ㅈㅈ 종류도 하우다게. 각두기도 ㅈ곡. 통ㅈㅈ 기자 놔뻘영 막 ㅎ게
썰영 통ㅈㅈ도 잇곡. 또 ㅈㅈ질게 썰영 ㅈㅈㅈ도 잇곡. 또 배추 배추도 배추ㅈㅈ도 잇
곡. ㅈㅈ도 막 요라 가지 잇수다.

107037 #2 짐치는 깍두기 허곡. 저 고거랑 무신 거엔 허느니, 총각짐치 양 총각 짐치 허곡. 채짐치 허곡. 저 그계 문딱 닳아뵤우다. 깍두기 허곡 총각짐치 허곡 채 짐치 허곡. 저 놉빠로 맨든 건 그거곡 배추로 혼 건 그냥 시게도 죽여그네 생강물 허여 농곡 마농물 허여 농곡 죽영 싯쳐그네 망데기레 담양 그 우터레 똑똑 비와낫 당도 그영도 허연 떡곡. 고추그를 버무령 경 허영 짐치 담양, 짐장짐치 담양. 경도 허영 떡곡 경 했수다. 저 옛날도록 갯느물 갯느물 딱로 허여그네 저 썰영놉그네 물 끌여그네 그레 하간 거 낱 물 끼령 톱 허게 비와그네 저 허영 놉두민 경혼 짐치도 허영 떡곡. 갯느물 짐치가 제일 썩 허게 저 맛 좋앗수다. 그 옛날에 경허영 떡곡.

107037 #1 봄 나민 썩마농 캐당 썩마농짐치. 썩마농 캐다그네 빨리채 허여그네 싯어뒤그네 기냥 기자 소곰 소곰 싯어뒤그네 기자 소곰물이영 소곰 저 마농놉낱 그 우터레 소곰 허썰 쭈지거니 허게 비와낫당 또 돌 딱 지돌와 놉두민 짓누령, 누령힙니다. 여름 나민. 누령허민 허썰 새고름 허듯 허명 그 썩마농짐치도 전인 봄 나가민 썩마농 짐치도 해 떡곡.

107038 @ 거허면 저 배추짐치에 대해 한번 말해봅서.

107038 #1 배추짐치는 배추짐친 썩기짐치도 기냥 한 썩기, 썩기짐치도 싯곡. 딱 시 썩기짐치 아니 딱시 배추를 영허영 요만씩 요만씩 혼 치씩 허게시리 영 허영 썰 어그네 양념 버무린양념 허영 버무린 짐치도 싯곡. 딱시 기냥 딱시 저 양 기냥 양 념 해나 그네 기냥 것절이 식으로 기냥 막바로 먹는 그런 짐치도 싯곡.

107039 @ 열무짐치.

107039 #1 열무짐친 열무제 열무짐치 허는 거주게. 열무짐치로 기냥 열무짐치로 담을 수도 잇곡. 또 열무짐치 허여그네 저 기냥.

107040 #3 물짐치.

107040 #1 물짐치 식으로 허여그네 저 거세기 허썰 영 허여그네 며 짐치를 허 썰 영헤 죽여놉당 놉빠를 죽영 건정놉다그네 건져 건져그네 딱시 새로 짐치를 영 혼디 무신 저 썰튼물이나 무슨 저 밀가루픈물이나 허여그네 저 물 영 허썰 허썰 헤 또록 허게시리 걸 끌여. 그걸 끌여그네 밀꺾루나 경 아니면 밥을 허여그네 솔므나 허여그네 물을 허썰 희게시리 허여그네 짐치 죽인 느물 딱 놉둔 거 우터레 그 우터 레 식영 그 국물을 식영 끌인 거 식영. 식여그네 식여 그네 소곰 농곡 간 맛창 소 곰 농곡 허여그네 그 느물 우터레 비와놉. 비와그네 여름에는 삼일 이틀 경 시민 그것이 허썰 새고름 새그름 허게시리 허여그네 그것이 거 물짐치로 경 허영 먹는 거. 게그네 아사내영 똑똑 썰영도 떡곡 썰명 그 물도 농곡 그 물도 거려 농곡. 그 놉빠도 썰어그네도 떡곡 기냥도 떡곡 씨원허게시리 경 여름에 경허여그네 그 물짐 치도 그 저 총각짐치 경도 허영 떡곡 양념허여그네 딱시 그 썩체 그냥 허여그네 죽 옳다그네 건져그네 하간 꼬치영 썩 저 마농이영 놉그네 그레 양념허영 버무려그네 딱 놀령놉당이라도 경허영도 떡곡.

107040 @ 츠마기 짐치 안 해 먹읍디가?

107040 #3 아이고 무사 안 하나까 츠마기 짐치도 허주. 츠마기 짐치도 양 썩이

영 ㄴ찌 그거추룩 옛날에 양 초마기집치 경했수다. 츠마기집치를 그 썸이영 고치
기냥 저 우의 썸만 툇앙 어랑어랑 혼 거 기냥.

107040 #3 기자 저 놤빼 놤빼 존 건 기자 부찌그네.

107040 #1 게그네 기냥 가운데.

107040 #3 죽여다그네.

107040 #1 가운데 놤빼만 짹 하게 쫄라그네 썸이영 ㄴ찌 쫄라그네 죽였다그네
싯챜다그네 그레 양념 혼쫄 버무리는 체 버무리는 체 뜯 것추룩 양념 하영 아녀쫄
만 혼여그네 버무리는 체만은 딱 놀렁놔두민 거도 맛 좋습니다, 것도.

107040 #3 겨곡 물집친 놤빼 기자 존존하게 썰어 농곡. 무신 사과도 썰어 농곡
이 당근도 썰어 농곡 혼여그네 고치도 시민 혼뽀 썰어 농곡 혼치.

107040 #1 그건 이제 꺼.

107040 #3 혼치 혼치 물이영 그거영 혼치 소곰물 혼여그네 툇 혼게 비양 놔두
민 놤빼가 하나도 글라앗영 우터레 문딱 뜹니다. 게민 뜨민 그게 물집치로 경 맛
좋아마썸. 그게 그게 경 맛 좋아 ㄴ찌 혼영 버무리려도.

107041 @ 동지집치도 헤 먹지양?

107041 #1 예 동지집치도 매해 매해 마다.

107041 @ 동지집치에 대해 혼번 글아봅서.

107041 #1 동지집치는 양 동지가 봄 나민 동지가 막 사지 안 혼니까. 혼쫄 어느
정도 세지 안혼 디로 먹을 수 잇는 디로만 딱딱딱딱 꺾어다그네 꺾어다그네 싯청.
게네 죽여. 죽여그네 죽여그네 죽을 만이 죽으면은 건져그네 확 건정 싯쳐뒤그네
그레 양념, 양념도 경 머 저 배추집치도 하영 아니. 대강 대강 혼여그네 딱 지들황
놔뒤그네 혼 얼마만 잇으면 맛 들민 먹는 것이 동지집치.

107041 #3 동지집치 경 혼영 먹는 거.

107041 #1 막 쉬운 거 막 쉬운 거.

107042 @ 동 저 머 놤빼집치?

107042 #1 놤빼집치 이 집치.

107042 @ 예.

107042 #1 인척이 놤빼집치.

107042 @ 저 열무집치.

107042 #1 예.

107042 @ 게난 열무집치 놤빼집치 집치 ㄴ뜨 거구나.

107042 #1 예 게난 열무집치영 놤빼집치영 혼민, 놤빼 놤빼집치도 양 놤빼집치
도 옛날은 그 쉼뽀넛치 술랑술랑 혼난 이만씩 질게시리 넛죽넛죽 혼여그네 그냥.

107042 #3 넛석넛석.

107042 #1 넛석넛석 혼게 이만씩 크게시리 크게시리 둠박둠박하게 먹어도 그자
딱딱 기냥 끼치멍 먹어지게 이만씩 질게시리 혼쫄 두덱게 썰어그네 죽였다그네 그
거 건져그네 그레 양념만 혼쫄 했다그네 기냥 영 아상 손에 들르멍 먹엇수다, 전의.

썩도 ㄱ찌 부쁜 체. 훑게 썰어, 넙적넙적하게 썰어. 게그네 익으면 것도 경ㅎ영 ㅎ민 옛날은 맛 좋았수다, 것도.

107042 #3 거 이제도 맛 좋습니다게.. 이제도 맛 좋아. 그거 이제도 ㅎ민 맛 좋아. 놈빼 막 맛 좋은 것 ㅎ영 넓게 후 넙적넙적 썰어그네 얼른 소곰 햇당 양념 버무렁 담아두민 이제도 막 맛좋아마썸.

107042 #1 옛날에 양 그 놈빼를 놈빼를 이추룩 ㅎ영 경 ㅎ영 ㄱ찌 죽였다그네 짐치 배추짐치 훑 때 배추 한번 싹하게 항에 꼬아놔그네 그 위의 놈빼 그추룩 큰 거 우터레 뜨시 우터레 싹 더꺼냥 그 우터레 징징이. 징징이 ㅎ여그네 경ㅎ영 배추가 어려우난에 그땐 배추가 어려우난에 이제 놈빼 그추룩 해 징징이 낱 ㅎ민 양 익으면 양 누물보다 그 놈빼가 더 맛 좋아마썸, 놈빼짐치가.

107042 #3 저 양념 들어가민 놈빼 짐치가 더.

107043 @ 그 다음 저 머 저 패마농 패마농 짐치.

107043 #1 패마농 짐치도 게 패마농 이만이 크면은 크면은 이제 매여다그네 칼로 딱 쪼라그네 이제 판짜 곱딱하게 다듬양 물에 씻영 이제 씻어그네 물에서 과삭 씻영 물 빠지면은 저 소곰 싹싹싹 뿌려 소곰 ㅎ영낫당 어느 정도 죽 누물추룩 오랜 아니 죽여도 돼어 어느 정도 죽으면 또 확 ㅎ게 해와되그네 고치ㄱ루영 머 ㅎ쌀 영 ㅎ여그네 마농이영 ㅎ쌀 곳당 ㅎ쌀 양념 대강 해도 거 경 경ㅎ영 먹는 거.

107043 #3 경 ㅎ고 이젠 저 패마농짐치도 죽이지 안 ㅎ영 기냥 막바로 버무렘 수게. 씻어그네 마농 판짜 다듬양 씻어그네 물 빠지민 그자 액젓으로 소곰이고 막 바로 버무리민 경 ㅎ영사 더 맛 좋아마썸 죽영 ㅎ 것보다.

107043 #1 전원 액젓이 어디 이섯수가. 전원 그자 최고 잘ㅎ는 것 기자 땀첿이나 ㅎ쌀 낫주 경 ㅎ연 나는 마농짐치나 거세기 짐치나 똑 ㄱ뜨게 흡니다. 똑 ㄱ뜨게.

107044 @ 그다음에 썩 아까 말ㅎ?

107044 #1,3 썩마농.

107044 @ 썩마농 짐치.

107044 #1 썩마농 썩마농짐치 썩마농짐치 밧디 가그네 ㅎ나ㅎ나 매여당 매여다그네 거 다듬젠 ㅎ민 막 곳입니다. 썩마농짐치는 다 해해다그네 밧디 강 다 해다그네 집의 오랑 거 판짜 ㅎ게 담듬아그네 씻어그네 것도 그 저 약간 약간 ㅎ쌀 그저저 죽영낫다그네 건정. 건정 씻영 건져되그네 또 소곰 ㅎ쌀 해농곡 ㅎ여그네 항에 그저 무신 것도 ㅎ쌀 쓸뜬물 ㄱ뜨 거 놓민 더 좋아 마썸. 놔그네 ㅎ쌀 저 간 맛좌그네 소곰도 ㅎ쌀 농곡 ㄱ 맛좌그네 ㅎ쌀 저 항에다 망테기에라도 담아그네 저 자박자박 ㅎ게시리 낱 우의로 돌 딱, 저 그 옛날은 양 조 갈아난 좃냥 ㅎ여그네 요만이 ㅎ여그네 영 ㅎ여그네 둘러그네 그 그것 저 거세기 우터레 마농 우터레 딱 놔그네 그 우터레 돌 직각 딱 지들좌낫수다게, 좃냥, 붉은 좃냥 것도. 경 ㅎ영낫수다. 이 짐치에도 경 ㅎ곡. 짐치도 우퇴 두를 때는 옛날은 그 좃냥 ㅎ여그네 영 ㅎ여그네 저 ㅎ여 둘러그네 그 우터레 지들좌낫수다, 그 돌 지들좌. ㅎ쌀 익을 동안.

107044 #3 경 흐민 꿩마농 짐친 여름 저 봄 나그네 자리훤 흐여도 그거 썰어낱 먹으면 경 맛 좋아. 자리훤도 썰어낱 먹곡 여름에 썰어그네 물도 낱 먹곡 경했수다 옛날은 꿩마농 짐치도 경 흐여.

107044 #1 거 조직 지들루는 건 영 물이 올라와사 짐치가 저 곰생이도 안 피곡 변하지 말렌 저 조직 놈그네 경 흐연 돌 딱 지들봐낱당 먹었수다.

107044 #3 우의 모르지 말렌.

107044 #1 모르지 말렌.

107045 @ 그다음에 그 갓짐치에 대해여 말해줍서 거 드르 누물이지만.

107044 #1 아니아니 그 드르 드르누물은 드르누물짐치가 잇곡. 갓짐치여 혼 것 옛날엔 갓짐치여 안 흐여그네 갓누물짐치. 갓누물 짐치도 갓누물짐친 흐민 그 갓누물도 누물이나 마찬가지로 저 갓누물은 아무디나 데경내불민 기냥 나는 거난에 게민 좋으면 기자 칼로 강 딱딱 해단에 춤 씻어그네 죽엇다그네 기자 것도 양념 기자 대강만 흐여그네 딱 지들봐낱두민 양 오래 이시민 맛 좋습니다. 경하는 게 갓누물 짐치주 며.

107044 #3 경도 흐영 먹곡. 딱딱 썰어그네 풀 흐쌀 쭈곡, 물 데와그네 물 끌어그네 그레 폭 하게 비왕나두민 양 오늘 흐민 날 먹어저마썸. 경도 헤 먹곡 경했수다, 그 갓짐치도. 갓짐치도 여라 가지우다게.

107044 #1 요라 가지.

107044 #3 경도 헤 먹곡.

107044 @ 계난 갓 흐고 드르누물은 틀리 거네양.

107044 #1 예 틀립주게.

107044 @ 드르누물 짐치도 해 먹읍디까?

107044 #1 예 게 드르누물 짐치는 예 기냥 같지 아녀여그네 기냥 밋디 기냥 제멋대로 난 것이 드르누물이주게. 드르누물 그 놈빼 ㄱ쁜 거, 옛날은 놈빼 ㄱ쁜 거 같아그네 뽑지 안 흐영 기냥 내불영 막 오래 가민 드르누물 뉘는 것 님아. 경도 흐곡 기냥 원래 드르누물도 ㄱ새드르누물도 싯곡. 기냥 그 저 저 그냥 들먹이드르누물도 싯곡 들누물도 싯곡.

107044 #3 세 가지라.

107044 #1 혼 세 가지나 뉘우다 세 가지.

107044 @ 며 머마썸.

107044 #1 누물 종류가.

107044 @ 계난 며 머?

107044 #3 까릿까릿 혼 것도 싯곡.

107044 #1 ㄱ새누물 ㄱ새누물 것고라 고새누물.

107044 #3 응.

107044 #1 딱로 물탁물탁 하게 넘석넘석 배추 님은 것도 싯곡. 딱로 저 흐쌀 고노롱 흐여그네 막 우터레 올라가는 것도 싯곡. 경 흐연 세 가지우다게. 게그네 그

고새늑물은 영 흥영 땅에 올라오명도 썸알라 까릿까릿하게 줌지롱이 까릿까릿 경 흥곡. 저 놚빠 비슷흥명도 쏘복으로 막 몽클락하게 놚빠 들어그네 놚빠 들어그네 흥 그런 늑물 일름은 뭇산디 몰라게. 딱시 늑물도 딱시 썸이 넙폴넙폴 배추추룩 싹 늑물추룩 건 들먹이집치.

107044 #3 들먹이 들먹이.

107044 #1 거 들먹이 들먹이라 흥니다, 짓고라. 배추도 아니고 놚빠도 아니고 고 드르늑물도 아닌 흥 썸이 넓적납작한 늑물이 들먹이라 흥는 늑물이 잇수다. 그 들먹이집치도 흥연 그런 거 짐치덜 ㄱ뜨게 흥는 거게, ㄱ짜. 그 세 개가 다 ㄱ짜 짐치 흥는 거. 들먹이늑물 흥곡 ㄱ새늑물 흥곡 또 흥난 저 그 무신 그 늑물은 무신 늑물산디 몰라 놚빠 닳은 늑물. 그 두 개는 알아지는다.

107044 #3 무시거연사 흥는다 알아지크라게. 들먹이늑물 흥곡 ㄱ새늑물 흥곡 그 자 드르늑물 흥연 세 가지라게.

107044 #1 예.

107044 #3 기냥 드르늑물로 헤여.

107044 #1 드르늑물로.

107044 #3 경 흥고 우리 그 드르늑물을 옛날은 양 이 늑물 웃곡 흥민 그거 해 단 테우멍 먹엇수다, 들어. 그 늑물 캐레 일부러 돌아 땡겅수다, 우리 어린아은 때 그추룩 늑물 캐.

107044 #1 드르늑물 뿌리가 양 맛 좋아마썸.

107044 #3 숲양.

107044 #1 그 때 옛날에 드르늑물 막 빨리가 커. 드르늑물은 매해 같지 아니그네 매래 아니 가는 밧디 막 묵은 밧더레 싯주게. 막 저 멧 년 동안 같지 아니여 갈 아먹지 안 흥영 내분 밧디 그냥 막 싯곡싯곡 흥면 양 그 놚빠 빨리가 양 막 커마썸. 게 그 놚빠 빨리를 기냥 뽑아다 그네 기냥 골갱이로 막 빨리를 파다그네 썸은 문 녹아불어그네 문 해도 빨리를 파다그네 그 빨릴 짜멍 그냥 크민 그냥 기냥 칼로 흥 넷 동 해 짹짹 짜어그네 데와그네 웬장 딱딱 짹어 먹으민 것도 양 쓰질 안 흥영 들크렁드랑 흥게시리 옛날은 경흥연 먹어났수다, 그거.

107046 @ 세우리집치 먹어났지양?

107046 #1 예 게 세우리집치.

107046 @ 그 세우리 집치 어떻 멩급니까?

107046 #3 세우리 집치도 양. 세우리 영 흥영 올라오민 비여그네 비여그네 싯청 물 빠지민 소곰 헛다그네 양념 버무렁 옛날엔 경 흥연 먹엇수다게. 세우리 집치도 똑 같아마썸. 마농집치나 세우리집치나 경 흥영 먹엇수다게. 이젠 세우리도 비어 들 령 그저 흥치 막 버무렁 먹어신디 옛날은 똑 소 곰 헛단 저 딱로 버무렁 먹엇수다 게 세우리집치도.

107046 @ 이 웨에 짐친 엇수과? 아까 말했던 것덜 웨로 행 먹어던 거.

107046 #3 우리 옛날은 머 고춧넙 트당 저.

107046 #1 저 집장, 집장.

107046 #3 거 집장 흥영 떡국.

107046 #1 짐치는.

107046 #3 짐치는 그 종류백이 더 엇수다게 그 종류백이 더 어서.

107047 @ 경하면 저 배추 짐치 담그는 법 알아줍서.

107047 #1 배추 짐치 담그는 법.

107047 @ 응 담그는 방법 거난 과정?

107047 #3 과정.

107047 #1 배추 짐치는 밧디 가그네 밧디 가그네 배추 큰 거 딱 칼 가져가그네 딱딱 찢라당 딱딱 해다그네 이제 저 흥쓸 가운데 것만 좋은 걸로만 흥여그네 바깥 뒷 건 기냥 박박 무지려그네 가운데 거 좋은 걸로만 흥여그네 딱 흥게시리 벌러그네 소곰 흥나흥나 농멍 소곰 흥여그네 죽영놔다그네 오늘 죽이민 널 이제나끼지 죽 엇다그네 내일은 그걸 씻어그네 딱시 흥 두어 시간 서너 시간 딱시 물을 빠지와뒤그네 양념 흥민 그거 그런 거백이 며.

107047 @ 거난 저 양념?

107047 #1 아 양념.

107047 @ 어 양념 맹글아야 흥 거 아니우파.

107047 #1 아 양념, 콤대산이도 농곡 일단은 콤대산이 콤대산이 농곡 꿬 농곡 옛날은 양념이 어섯수다. 저 멜젧이나 농곡 멜젧이나 멜젧국물 멜젧국물 농곡 저 거세기 마농 뽏아농곡.

107047 #3 좁쌀 솥양 걸러 농곡.

107047 #1 딱시 저 거세기 저 고치흥곡 하영 잘흥는 집원 꿬나 농곡 게아니민 그거만 놔그네 좁쌀 노란 좁쌀 노란 노란 좁쌀 막 딸려그네 노란 좁쌀 딸려그네 그 걸러뵤 그 물 걸러뵤 그 물러레 고추ㄹ루도 농곡 그레 마농도 농곡 흥여그네 저 며 꿬도 농곡 흥여그네 젧어. 그걸 영영 젧어그네 녹물을 영영 버무리는 거라.

107047 @ 식형 놔뵤당 흥지양.

107047 #3 예게.

107047 #1 예 식형 놔뵤당.

107047 @ 흥 흥루 정도?

107047 #3 경 흥고 이젠양 메리치 메리치 솥고 하간 거 무신 다시마도 솥고 헤 주만은 옛날엔 그거 어시난 그저 무인 좁쌀 솥아그네 그레 하간 양념 해냥 그 배추를 쫄쫄쫄쫄 쫄어 블라그네 경흥연 먹엇수다.

107047 @ 계난 블블 때는 손으로 블라.

107047 #1 손으로 블라 손으로 영 흥여그네.

107047 #3 쫄쫄쫄쫄.

107047 #1 영흥영 손으로 영 기자 흥 입 베와냥 블르곡 흥 입 베와난 블르곡 흥여그네 문 블라지민 이 흥 펜 멋더레 다락 우터레 나뵤그네 문딱 블라나면은 망

대기 망대기 쏘더레 담앗주게.

107047 #3 경 혀연 담아.

107047 @ 계난 망대기는 어디 강 놓디강.

107047 #1 망대기 망대기 어디 장팡디 ㄴ쁜 디.

107047 #3 그늘 친.

107047 #1 그늘 친 낭 아래 딱시 집지슬 ㄴ쁜 디. 경 혀여그네 굽에 무신 접작
흔 돌 하나 놔그네 그 우터레 그 우터레 짐칫망대기 놔그네 저 거세기 그 우의 조
직 혀여그네 땅 놔그네 돌 딱 지들황 그 낭 그늘에 집지슬엘 노나 낭 강알엘 노나
뒤 뒤에 뒤에 혀여튼 그 뒤터레 놔. 뒤터레 강 지들황놏다그네 익으민 익을 때 마
다 영 혀여그네 돌 영 들르곡 거 들르곡 혀여그네 흔 흔 펼기 아사놔그네 썰영 떡
곡 썰영 떡곡 경 했주게.

107047 #3 경 혀고 우리 양 정도 혀연 땅도 팡 물어봤수다, 짐치. 땅 판 땅 파
그네 옆으로 영 돌아가멍 혀연에 폭 혀게 더견 놔두난 경 혀여도 시지 안흠디다게.
경 혀연 그자 이삼월 나도록 경 혀연 먹엇수다. 옛날에 켌디 옛날 짐치가 맛 좋아
양. 좁쌀 숲아노난 경 맛 좋아신가 이젠 원. 이젠 ㄴ물도 더 속 앓곡 해도, 옛날 짐
치가 더 맛 좋은 것 담아.

107047 @ 계메 놈뼤 짐치 담그는 법 혼번 곱아봅서.

107047 #1 놈뼤 짐치 담그는 법은 그 때는 쉼뼤놈뼤가 핫수다. 이제추룩 쉼뼤놈
뼤를 해다그네 저 거세기 뽑아 밧디 강 매여당 싯청. 이제 저 싯쳐그네 이제 이짜
그짜 그 꼬트머리 문 쫄라뒤그네 계난 토막으로 토막으로 혀여그네 가운데 기냥 훌
게 훌게 넘죽넘죽 혀게 훌게 썰어그네 그냥 소곰 버무려그네 흔 멧 시간 흔 서너너
시간 기냥 놏당. 물이 그터레 우터레 등갈등갈 혀민, 소곰 녹으민 놈뼤에 물이영 나
오민 물이 흥건흠니다게. 계민 그거 물 혀쫄 놔그네 기냥 확 해움만 혀여. 해움만
히려그네 물 혀쫄 빠지민 그레 마농혀곡 고추혀곡 좁쌀 숲은 물이라도 그 고추ㄴ루
영해 버무려그네 기냥 영영 짓영 놔두민양 막 맛 좋아마썰, 것도. 경 혀영 먹는 것
이 놈뼤짐치 제일 쉬운 것이 놈뼤짐치.

107047 #3 계고 우리 저 무신 거 다팡도 담아봤수다. 옛날은 양 이제 물엿이엔
히려그네 하간 거 놈신디, 옛날은 산디 저난 보미, 산디 이 저나민 그 보미, 막 즈
진 ㄴ를이 이십니다게. 훌은 체 마라, 그거 체로 쳐그네 이제 물 버무려그네 놈뼤
흠치 준준흔 거 소랑소랑흔 거 흠치 놓곡 그거 더꺼그네 소곰 우터레 썩그고 그추
룩 혀명 조곤조곤 향드레 담양 딱혀게 혀영 놔두민 그게 경 오래 가 오래.

107047 #1 거 고구짐치 저 옛날 다팡고라.

107047 #3 고구짐치.

107047 #1 다팡고라 고구짐치엔 핫수다, 다팡고라.

107047 #3 계메 우리 경 혀연 해 먹엇수다.

107047 #1 이제 다팡 다팡 혀는 디 양 옛날에 양 고구짐치엔 해서 것고라.

107047 #3 경 혼디 그 보미 노민 짐치가 노랑히려마썰, 놈뼤가 헤양한 놈뼤가.

107047 #1 이제 다팍추룩 노랑혀.

107047 #3 헤양흔 놔빠가 노랑혀그네 경혀연 그거 아사내영 싯쳐그네 경 혀 연 썰언 먹엇수다. 그거 막 오래 먹어져, 경 혀민.

107047 #1 막 짜게 혀그네 거 고구집치 거 고구집치 잇어불지 안혀져.

107047 #3 경 혀연 그거 경 혀연 죽장 먹엇주게.

젓갈

107048 @ 젓갈에 대해 물어봅쿠다 젓갈 젓갈 종류 어떤 것들 잇어수과?

107048 #1 이 벨젓, 자리젓 그런 종류.

107048 @ 예 게.

107048 #1 음 이 젓갈 종류는 제일 한 젓갈이 자리젓.

107048 #1,3 벨젓.

107048 #1 그것이 제일 하고 그초록만 혀고 다음에는 그저 이 바당에 그 옛날 도 보민 바당에서 우리스춘네 보민 그 아 저 생선 ㄱ뜨 거 배 벨라나곡, 고등어 ㄱ뜨 거 배 벨라나민 그 알개미 이시민 알개미젓, 젓고라 알개미젓 해그네 그 알개미 만 딱로 모양 낫다그네 젓 혀민 맛 좋아마썸, 그거. 생선 알개미 더 맛 좋곡 고등어 알개미도 ㄱ 알개미덜 모양 낫다그네 옛날에는, 이제 ㄱ 데껴붙어도 ㄱ 딱 알개미젓 해낫수다게. 젓도 폴아도낫주게. 이젠 아니 푹는다. 옛날은 알개미젓 거세기 알개미 저 고동에나 생선이나 혀그네 알개미젓 혀곡. 또 이 갈치젓 ㄱ뜨 거도 햏주만 갈 치젓은 그건 혀쓸 고급 사름덜 갈치젓 ㄱ뜨 거여 무신 거여 해도 기냥 그저 기냥 사름은 기냥 보통 사름은 알개미젓이나 젓도 사다그네 혀쓸 혀곡 경 햏수다머.

107048 #3 경 혀고 이 자리젓이 주루 자리젓이 하영 햏수다게. 자리젓은.

107048 #1 자리젓 혀곡 벨젓.

107048 #3 예 자리젓은 우리도 이디 오랑 살 때도 혀 망대게썸 담양 그 자리젓 이 큰 반찬으로 혀연 먹영 살앗수게.

107048 #1 그 자리젓 기자 혀쓸 어져가민 기자 반찬 아무것도 어서도 그거민 먹어져마썸. 경 혀연 자리젓 햏 먹곡 벨젓 담양 먹곡.

107049 @ 거난 그 자리젓에 대해 혀번 말해봅서.

107049 #1 자리젓 혀는 것에 대혀.

107049 @ 예.

107049 #1 자리 자리젓 혀는 거 혀면은 자리를 사다그네 우리가 나까오지 못혀 난 자리를 사당.

107049 @ 어디 강 사왓수과?

107049 #1 화순이나 모실포나 가그네 자리를 사당 이제 혀쓸 흙은 거는 글려그네 햏 혀영 먹곡. 햏 혀영 먹을 건 글려두곡. 저 ㄱ ㄱ 햏 혀여 먹지도 못 혀고 그 햏 손보지도 못 혀곡. 이제 그걸 자리젓으로 혀는디 자리젓은 혀면은 자리젓은 소 곱을 자리젓 혀 말이민 소곱은 혀 햏.

107049 #3 대승 흰 돼.

107049 #1 자리 흰 말이민 대신 흰 돼 정도 하여그네 그걸 소곰에 버무려 소곰에 기냥 기냥 영하여그네 씻지도 아녀고 그냥 사당그네 그냥 그 훙은 것만 영 먹을 것만 곱러그네 그거 이제 더러 보까 먹을 거 곱러뒤그네 기추록 하여그네 자리젓을 담곡 그 훙은 거 남은 건 하여 먹젠 대강이 푹 하게 꼬친 거 하여 케민 대강이 꼬친 거 하여 가리 부치 것 하고 이때 하살 냉겨그네 그 대강이 이신 거영 털어 자리 보강 먹곡. 제일 준 건 자리젓 하여해 소곰에 경행 버무려났다그네 그거 흰 석 들 이상 돼사.

107049 #3 여름 나민 먹곡.

107049 #1 먹곡.

107049 #3 경 하고 훙은 건 곱령놋당 곱 먹곡게. 콩꼬질 하여 곱 먹곡, 꿩영 하여 곱 먹곡 경 햇수다게. 경 하여 또 멜젓은 멜젓은 양 저 준 거 꽃멜을 사당 자리젓까지 멜 흰 말이민 소곰 대승 흰 돼 물룩하게 낱 버무려놋두민 멜젓이 경 하여 맛 저 맛 좋습니다. 경 하고 또 훙은 멜, 징어리멜은 이만씩 훙은 건 대가리 끈어뵤 배설이고 대가리고 판척 끈어뒤그네 그것도 젓 담양 놋두민 양 그게 더 맛 좋아마썸. 막 쿠싱합니다, 익으민.

107050 @ 경 멜젓은 어떻 답습니까?

107050 #3 멜젓도 자리젓이나 마친가지마썸. 저 멜젓 흰 말이민 소곰 대승 흰 돼. 대승 흰 돼 놋그네 저 씻지도 안 하여 막 버무려그네 기자 사발로 거리멍 망대기에 담아그네 막 하게 돌 지들왕 놋두민 저 무살이 드랑드랑 합니다. 경 행 놋두민 경 행 먹습니다.

107050 @ 영보민 그 이 젓도 보면은 막 잘 웬 집이 잇곡 안 웬 집이 이서.

107050 #3 경 합니다게.

107050 #1 계난 이 간을 잘 못 맞춘 간을 잘 못 맞춘 간을 잘 맞추기 힘들어마썸. 딱 맞게 딱 맞게 딱 맞게 흰 집은 맛이 좋곡 소곰이 하살 덜 놓면은 자리젓 냄새가 나 자리젓 냄새가 나곡. 딱시 하살 줌 만이 놓면은 자리젓 냄새도 아니 나곡, 쿠시지도 아녀곡, 짬만 하여, 맛이 엇곡. 계난에 하살 짜도 맛이 어서그네 경 하여. 죽으민 하살 냄새 나그네 딱시 맛이 엇곡. 계난 그 간 딱 맞추는 것이.

107050 #3 어려와.

107050 #1 경 하살 어려와.

107050 #3 경 흰디 난 자리젓은 잘 담아집디다윈. 자리젓 두 말 드는 망대기 하나 하여 놋둬서 자리 두 말 사당 기자 소곰 낱 망대기로 하나 딱 담양놋두민 봄의 하여 놋두민 그슬 들영 저을 들도록 그걸로 반찬하여 먹어집디다게.

107050 @ 거난 자리 흰 말의미는 소곰 흰 돼.

107050 #3 예.

107050 #1 소곰 흰 돼.

107050 @ 케민 두 말이면은 두 돼.

107050 #1,3 두 돼.

107050 @ 경하면은 자리젓이 좋건게양.

107050 #1 예 게그네 소곰 혼 줌 하여그네 영해 담아논 다음에 우터레 속 하게 시리 영 하여그네 우터레 허끄는 거라. 자리 다 담아놔 망대기 다 담아놔 딱딱하게 시리 눌러 영 잘 골라그네 눌러난 다음에 그 우터레 소곰 혼 줌 하여그네 허꺼, 소곰을 허꺼그네 그 우터레 혼솔 넙조록 혼 돌 하여그네 토옥 지들황 놔두는 거라.

107050 @ 솟은 안 놔뵈디장?

107050 #1 아 솟은 그거 저 자리젓에 잘 안 놓니다. 장에 놓주.

107050 @ 아 장에.

107050 #3 예 장에 고치헝곡 고치헝곡 솟헝곡 장 담으민 놓니다게.

107050 #1 장에 놓는 거, 자리젓엔 아니 놓는 거.

107050 #3 건디 올이 누게 나 멜 혼 사발 권게 징어리멜 다듬아그네 양 커피통 으로 하나 잔뜩 담양 해노난 경도 맛 줍니까. 경 무살이 드랑드랑 혼 게 경 맞창 잘 하여져서. 막 맛 좋안게.

107050 @ 그 멜젓도 보면은 멜이 막 살아이신 것이 이서.

107050 #1,3 예 게.

107050 @ 폭삭 해분 거 잇곡.

107050 #1 예.

107050 @ 것도 간 잘 못 맞춘거우짱.

107050 #1 아니 간이 약간 싱거우면은 폭삭헝게시리 짱만 남양 국물만 웨여불어, 국물만 웨여불어. 폭삭헝게시리 간이 싱거우면은 국물만 웨불곡, 문딱 국물만 웨곡. 맛은 게도 못 고찌는디 국물만 웨불곡. 따시 너미 짜면은 또 너미 하영 짜면은 소곰 혼 거추룩 짜면은 산 거추룩 과들락 헝영 오래 놔뒤도 과들락 하여그네 짜그네 맛이 엇곡. 어느 정도 소곰 간이 맞아사 저 멜도 불고롱혼 게 불그롱 혼 게그레 무살 닳은 거 드랑드랑드랑 담아진 것도 해주. 머 고기 슬도 녹지 안이 헝곡 따시 버짜헝지도 아녀곡. 경 맛 좋습니다. 게난에 간 맞추는 것이 호랭이.

107051 @ 아까 그 머 알개미젓?

107051 #1 예 알개미젓.

107051 @ 그건 어떻 담그니까?

107051 #3 내장젓, 내장젓.

107051 #1 알개미젓 알개미젓은 양 그디 그 저 낚시 바늘 낚시 ㄱ뽕 것덜 이시난에 그런 것만 판짜 다듬아뵈 바당물에 확 헝경 판짜 다듬아, 손으로 일일이 그 저 낚시바늘 ㄱ뽕 거영 따시 먹이 ㄱ뽕 것덜 혹시 부뜨면은 그런 것들 판짜헝게 다듬양 바당물에 판짜 싯영 오라그네 집의 오라그네 저 거세기 소곰 혼 저 영 하여그네 버무려 놔두민 젓시주머.

107051 #3 불 씹니까.

107052 @ 게젓은 어떻 헝우파 게젓 맨들양 먹어나지가 게 쟁이.

107052 #1 쟁이는 예 바다가 풋쟁이.

107052 @ 짓갈 맵글아봄디강?

107052 #1 바당에 가 풋쟁이 잡아 오면 예 그거 저 기냥 저 흥여단에 우리 어 명 흥는 것 배려보난에 기자 그 저 기냥 물 물 킨에 물 영 흥루 츠낙 물 크난에 그 냥 먹어난에 그 막 그 무신 것 나옴디다 경 흥영 나온 다음에는 양 그레 저 소곰 기냥 버무려 낫단에 먹읍디다. 흥루 츠낙 물 주난 모살 ㄱ쁜 거 흥연 나옴디다. 게 나와부에 그저 건져내연에 저 소곰 버무려 그냥 낫단에. 게난 난 먹어봄은 해도 난 기추룩 흥연 먹는 것만 봤주 나냥으로 직접 담아보진 안앗수다.

107052 #3 아니 쟁인 소곰만 버무려도 맛 좋아. 쟁쟁흥 쟁인. 게고 우리 그거 보관도 먹곡.

107053 @ 거면은 자리젓 맨드는 법 흥번 자세히 말해봅서 저 이 자리 사당.

107053 #1 자리 사그네 화순이나 모실포에 강 자릿배 가그네 자리 사젠 흥민 옛날은 자리 아무나 못 샅수다. 스맛 뽕 좋아사 자리도 사 나서 옛날은. 옛날은 게 그네 스맛 어떻 흥여그네 자리 하영 나꼈 때는 아다르 웨민 하영 거릴 때나 아다르 웨민 자리를 사당 모실포서 이ㄱ지 정 오랑. 정 오라그네 그걸 이제 흥은 거 이제 이녀 쟁 먹곡, 휘 흥영 먹곡, 보깡 먹곡, 어느 정도 그자 흥 말이민 그냥 흥 웨적시 만 곁러똥. 곁러 아사똥그네 준 곁론 이제 저 기냥 저 소곰만 흥여그네 소곰만 간 맞게시리 소곰만 버무려그네 망대기에 담아그네 우의 기추룩 조직 뱅뱅하게 사령 톱 뉘그네 톱 흥게 놀러그네 담 우터레 톱 흥게 지들루움만 흥민 거 경 흥민 자리 젓. 경 흥영 먹는 것이 자리젓.

107053 @ 멜젓, 멜젓은?

107053 #1 멜젓은 멜젓도 알에 가그네 사당 멜 사당 멜 사다그네 집의 오라그네, 기자 멜젓은 집의 오라그네 기자 멜젓은 사다그네 기자 덜어 흥은 건 국이나 끌러 먹을 거 흥쓸 냉겨똥그네 소곰 버무려그네 기냥 망대기, 망대기라 무신 조그 만한 조막단지 닳은 거에라도 것이라도 담양 뉘듭니다게.

107053 #3 그 물량에 뜨랑 물량에 뜨라그네.

107053 #1 죽으민 죽은 조막단지 ㄱ쁜 것에 담곡, 흥쓸 하면은 흥쓸 큰 망대기 라도 담곡.

107053 #3 게 상 오민 큰 다락 흥여그네 다락더레 탁 비와그네 그 다락더레 또 소곰 뉘그네 저 삭삭 젓영 막 버무려그네 뜨로 단지레 담양 딱 무시 거 뉘그네 돌 지들랑 뉘두민 그게 경흥민 쟁 똥영.

107054 @ 그다음 츠레 출레.

107054 #1 출레.

107054 @ 출레가 머이짱 출레가?

107054 #1 출레는 출레는 자리젓도 출레 짐치도 출레 장도 출레 소곰도 출레 출레는 예 출레는 밥 죽양 먹는 거 출레라.

107054 @ 게난 출레가 반찬이구나 양.

107054 #3 예 맞다 반찬이 출레.

107054 #1 반찬이 출레라. 계난 퀘기라도 영 흥여그네 잡앙 먹, 퀘기라도 영 흥민 아이고 출레 어선 먹어접시냐, 이거 퀘기 먹엄, 오 퀘기 반찬 출레 흥연 먹엄구나. 경 출레는 야튼 밥 반찬이 출레.

107054 #3 경 흥곡 옛날에 기자 우리 손이 죽앙 자리라도 하나 구민 손의 줍아그네 흥끔씩 흥끔씩 툇으멍 먹엇수다. 경 흥면 그계 출레. 이거 밥 조짱 먹으라, 밥 조짱 먹으라.

107054 #1 마 출레에 밥 조짱 먹으라. 이것에 밥 조짱 먹으라, 조짱 먹으라 흥민 기자 그거 흥끔 툇아 먹엄 밥 먹곡, 그자 국은 기자 웬장국 끌리곡 기자 국은 주루 웬장국 끌리곡 그 출레 흥여그네 손에 줍앙 경 흥연 툇아 먹엇수다.

107054 @ 그나 출레 계민 옛날 출레 흥면은?

107054 #1 장도 출레.

107054 @ 자리젯.

107054 #1 자리젯도 출레 웬장도 출레 장물도 출레 짐치도 출레 퀘기도 출레 밥 반찬은 출레라 출레.

107054 #3 출레우다 출레 어스민 밥을 못 먹엇수다게 싱거완. 계난 출레 조쳐사. 장이라도 조쳐사 먹엇수다게.

107054 @ 계난 출렌 좀 짚구나 좀?

107054 #1 짚 것이 출레라 짚것 다 출레라.

107054 #3 아니 짚 건 다 출레우다게.

107054 #1 짚 것이 출레라.

107054 #3 계난 출레 줍앙 먹으라, 출레 줍앙 먹으라.

107054 #1 출레 어시 어떻 먹어시냐게 경도 흥곡. 출레.

107054 @ 수고 했수다 좀 쉬영 흥게 양.

장아찌와 회

107055 @ 좀 쉬여시난 양 이번에 저 장아찌 흥곡 회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양.

107055 #1 예.

107055 @ 장아찌 종류에 어떤 것덜 잇수광 마 마농도 지 지 마농지.

107055 #3 마농지 마농진 송개비 마늘 잇수게, 송개비 마늘. 봄이 나민 이만인 크민 그거 매여그네 다듬앙. 판씩 다듬아그네 막 즐게 썰어. 썰어그네 그거 딱로 저 소곰이여 무신 거 흥쓸 버무령 놔뒀다그네 그거 이젠 건정. 건정 이제 저 통더레 담아그네 장물 비왕 놔두민 그계 장아찌 됩니다. 경도 흥영 장아찌 흥곡. 그.

107055 @ 마농지양?

107055 #3 예 마농지.

107055 #1 경 흥곡 또 마농, 송개비 마농도 양 저 여물든 거 깡. 까그네 식초에 소곰물에 이제 저 등강 흥 일주일 놔두민 양 그계 보요롱 흥민 그거 딱 건져그네

딱로 아사내여그네 또 식초 농곡 저 설탕 농곡 소곰물 농곡 햅영 숲양 놔두민 그게 또 마농 장아치.

107055 #3 경 햅연 마농 장아치 경 햅연 줍디다. 경 햅연 우리 먹엄수다. 마농 장아치 햅연. 놔뻘덜도 장아치 맨들곡. 놔뻘 물이운 거. 물리와그네양 무물랭이 맨 들양 장물에 켕.

107055 @ 가시리 양 가시리 해점저. 저 생기리.

107055 #1 생기리, 생기리. 생기리 그거 장에 켕. 커그네 놔두민 그게 쫄곳쫄곳 쫄곳 햅게시리 물운언 거 맛 좋습니다. 경 햅연 그것도 장아치 햅여그네 경햅연 먹 곡.

107055 @ 생기리 햅고 저 마 마농 서꺼그네도 햅지 안햅니까?

107055 #3 예 서켕도 햅니다.

107055 #1 옛날은 예 옛날은 그거 마농 콤대사니 콤대사니 빨리 빨리를 까그네 양 저 쉼 맥이레 오는 사름덜 정심 반찬 햅영 오는 거 보민 양, 웬장에 저 담양놋 당 웬장에 웬장에 꺾 저 거세기 마농 간 걸 그냥 놋다그네 양 그 이디 올 때는 양 그거 꺼내여그네 웬장 맨들아 농곡 그거 그거로 주로 쉼맥이는 사름덜 반찬을 햅디다. 게민 그 저 그 마농이 누렁햅연게. 웬장에 그냥 담안 내부난. 말자 먹어보 난 잘도 맛 좋아. 게 이거 어떻 햅연 햅수켌 해그네 이거 마농 까그네 웬장에 담양 놋다그네 이쭈록 햅민 밧디, 어디 웨방 땡길 때 이거 제일 좋은 거여 햅명 웨삼촌 흘 때는 그쭈록 햅연에 와놋수다 그 마농은.

107055 #3 경도 햅곡 패마농도, 이제 패마농 봄의 매여그네 그거 판씩, 패마농 빨리마썸. 빨리 매여그네 판씩 다듬아그네 복닥 판씩 시쳐뒀그네 저 그거 장 버무 령 장 버무령 놋당 그것도 반찬으로 우리 먹었수다.

107055 #1 장물을 버무리지 장물의 컷서 켕. 통에 영 햅여그네 망대기 조그만햅 조막단지 걸로 하나 까냥. 조막단지에 까냐그네, 그거 패마농 까기 잘도 꺾입니다.

107055 #3 경 햅영 까냥.

107055 #1 콤대산이는 까기가 좋은디 이 패마농 까는 건 까지 실패그네 우리가 안 먹어주게. 게그네 그거 전윈 이제 패마농은 잘 읊지 아녀는디 옛날 패마농덜은 뽀록뽀록 저 읊아, 읊아그네 읊으면은 뽀록뽀록 읊으면 그 읊은 걸로 햅여그네 다듬 아그네 저 장 저 무신 단지에 그 큰것에 아니 단지에 담양놋다그네 단지레 그 장물 을 그 우터레 등당햅게 비와 우터레. 저 우터레 마농 우터레 올르게. 마농 우터레 올르게 비왕 놔두민 그 마농이 마농이 말제윈 장물 색갈쭈룩 양 꺾불고룡 햅니다 꺾불고룡. 꺾불고룡 햅게시리 장물이 막 그 쏘터레, 쏘복터레 들어가민. 경햅민 그 것이 양 콤대산이 이 지역 것보다 그것이 더 맛 좋아. 활썸 맛 좋아 그게.

107055 #3 경 햅연 반찬햅영 장아치 햅영 경 햅영 먹곡. 마농 햅영 먹곡.

107055 @ 유썸으로도 햅지 아녓수과?

107055 #3 예예 예 유썸으로.

107055 #1 예 예 유썸으로.

107055 @ 그건 어떻 맹급니까.

107055 #1 유썸은 그 장아찌 오래 낫당 먹는 건 흐썸 썸 거 흐썸 이제 이 으름 의 흘 것은 어랑어랑 흐난에 그거 임시 먹는 걸로 기냥 장아찌 다 임시 먹는 걸로 그날그날 그냥 흐멍 그 즉시라도 먹곡. 오래 낫당 먹는 건 흐썸 썸 거 흐 팔뿔썸 나민 흐썸 썸 걸 흐여그네 다듬양 씻어그네 저 그릇에라도 흐썸 죽영놔 그릇에 그 저 납작납작 똑 흐게시리 지 흐여그네 그 우터레 소곰물을 흐영 비와. 소곰물로 흐 영 비와그네 고만이 지들좌그네 내년 봄, 이제 ㄱ슬 때, 이제 우리 팔뿔이민 내년 봄 나도록 겨울에 기냥 내불어. 봄 나도록 그냥 내불었다그네 흐민 그것이 짓누렁 흐여. 누렁흐민 하나씩 하나씩 떼멍, 먹을 때 하나씩 하나씩 떼멍 흐썸 저 무신 쥘 시에라도 흐썸 영 아사내영 그걸 하나씩 떼멍 밥에 툭툭 올려노멍 경도 흐영 먹곡. 거 오래 흙이엔 경 흐영 먹곡. 따시 유썸으로 그날그날 먹는 건 유썸 툭아다그네 장물러레 고추ㄱ루 농곡 춤지름도 비와농곡 께도 농곡 흐여그네 그냥 그 장을 막 양념을 흐여그네 그 유썸 하나 툭 흐민 유썸더레 툭 흐게 수가락으로 영 흐여그네 불르곡. 불라냥 또 흐나 유썸 툭 놔그네 따시 수가락으로 양념 흐 장 흐여그네 영 흐영 불르곡 불르곡 흐민 그건 경흐여그네 문딱 불라냥 그 툭 흐게 뒤집어. 툭 흐 게 뒤집으면은 영 흐여그네 햇단 것이 영 웅 거주게. 영 돼면은 먹을 때는 우의로 영 하나씩 하나씩 떼멍 먹으면 그것이 맛좋아 그거. 그날그날 건 그 즉시 먹는 거.

107055 @ 반치로도 맹글아 먹었지양?

107055 #1 예 반치는 옛날은 반치가 드룻반찬에 반치가 아니파.

107055 #3 반치는 반찬이 아니파.

107055 @ 반치 장아찌는 어떻 맨듭니까.

107055 #3 그건 그 빨리 우린 장 담은 것더레 낡도 먹었수다.

107055 #1 장 담은더레 기냥 드리쳐.

107055 #3 드리쳐.

107055 #1 장더레 드리쳐.

107055 #3 드리쳐 장이 익으면 그 반치 흐여그네 장더레 드리쳤다그네 그거 건 쳐다 경 흐영 먹었수다.

107055 #1 장 담은면은 장 담젠 흐면은 반치 반치를 흐여당 장만흐영 놔뒤 양. 장 담젠 흐민 흐여당 놔뒤. 아섯날 내일 장 담은 거면은 오늘 파다그네 문딱 씻어 그네 딱 준비흐여그네 놔뒤. 썰영 낫다그네 장을 둥그며는 그 장더레 그거 기냥 들 이쳐. 그냥 기냥 이만씩 흐 덩어리로 덩어리로 기냥 들이치민 그것이 멧 달동안 익 으면은 양 무랑힙니다. 무랑흐면은 그 빨리, 빨리 장에 들이쳐 무랑흐면은 영 흐꿈 영 헤여그네 흐썸 그차내여그네 막 짜난에 흐꿈씩 그차내멍 그날 먹을 만이 그차내 여그네 먹곡 먹곡. 경 흐여그네 흐꿈씩 먹곡.

107055 #3 그건 막 반찬으로 출빌 때 ㄱ뜬디 밧디 잇영 강 먹었수다.

107055 #1 경 흐연 먹곡 그 텡구리. 그 빨리 말고 텡구리도 텡구리도 장에 경 들이쳐 먹었수다 옛날에.

107055 #3 계란.

107055 #1 그 저 대, 대.

107055 #3 대 킹 올라왕.

107055 #1 대도 우의 거 우의 껍데기만 벗겨튀 먹을 수 잇는 거 흐쫄 어랑어랑
흔 거, 어랑어랑흔 거, 쏘복의 먹을 수 잇는 것만 우의 껍데기만 벗겨튀 쏘복의 어
랑어랑흔 건 요만씩 툭툭 동골락동골락 흐게시리 요만씩, 울로 요만씩 지러기 흐게
시리 툭툭 쫄라그네 그 장항더레 디리청 먹곡. 게민 것도 반치지.

107055 #3 반치지 경 흐연 그거 복복 지지민 그 대가 난 맛 줍디다. 저 거세기
덩어리 빨리보단.

107055 #1 그거 요만이 흔 거 흔 덩어리 하나만 툭 아사내여그네 초옥초옥 흐
게 찢어그네 그레 춤지름 농곡, 꿩 농곡 흐연에 버무려그네 하나씩 반찬 흐민 것도
좋아마씹.

107055 @ 양애지도 해 먹어지양?

107055 #1 예게 양애지도 해 먹곡게.

107055 #3 양애지는 이제도 흐영 먹엇수다게.

107055 @ 그거 흐번 맹그는 거 곱아줍서.

107055 #3 양애지도 양애지도 양 양애 끈 영 흐여그네 문딱 흐여다그네 다듬아.
판씩 다듬아그네 싯쳐뒤그네 딱로 소곰이영 무시 거 흐쫄 버무령 낫다그네 흔 이틀
만 시민 그거 문딱 건져내영 경 흐영 장 꿩왕 식연 낫수다. 식영 놚그네 식영 놚그
네 저 흐민 흔 메칠 돼민 그거 경 흐영 아스멍 먹엇수다.

107055 @ 몀으로도 지 헨 먹엇수광?

107055 #1 예 몀으로도 지 헨 먹엇수다. 몀은 예 옛날에 바당에 강 몀, 옛날엔
몀이 하낫수게. 몀 막 하난, 먹는 몀 춤몀, 저 몀이 하며는 몀을 해다그네 파씩 들
리와그네 장 담을 때는 양 빨지도 아녀 소곰 막 잉격이 그 소곰 잉격이 흐여 짓고
라. 소곰 흐민양 소곰만 그냥 손으로 탁탁탁탁 털어튀 그 무시거 저 모살 ㄴ쁜 거
부쁜 거나 저 손으로 잘 테여뒤그네 양 요만씩 요만씩 팽팡팡팡 몰아. 몰아그네양
장더레 기냥 들이쳤수다, 그거. 장더레 기냥 들이쳐, 기냥. 기냥 ㄴ른 체 영 팽팡팡
팡 몰아그네 장더레 장 담아놚그네 장더레 들이치곡, 장더레 들이치곡 흐영 낫다그
네, 그건 맛 좋아 것도. 게그네 그것이 장 익어가면은 것도 ㄴ찌 장 물 들어그네 맛
좋아. 경 흐여그네 그거 흔 덩어리 툭 아사내여그네 칼로 썰어그네 그레 딱시 저
지름이라도 영 비와농곡 꿩라도 놚그네 영 서꺼그네 반찬, 그거 것도 맛 좋곡. 옛날
은 그 반찬이 맛 좋아서. 것이 그것이 몀지.

107055 @ 이 이웨 지 종류 엇수광?

107055 #3 무시거.

107055 @ 아까 말흔 거 말고양 지 종류?

107055 #3 아까 말흔 가 말양 지 종류? 양해끈지 흐곡 마농지 흐곡 고치지나뻘
이 엇수다.

107055 #1 고치, 풀고치로도 지 흡니다.

107055 #3 경 흡니다. 풀고치, 풀고치.

107055 #1 풀고치 풀고치도 타다그네 풀고치도 타다그네 저 너무 매운 걸랑 말
꼭 어느 정도 매운 것만 햏여그네 저 곡지 신체 곡지 체 저 거세기 햏 건 무신 걸
로 햏여그네 바농꿏 닳은 거 아무거라도 그냥 고치 콕콕콕 햏게시리 터지와. 멧
군데 툃툃툃 터지와그네 그거 소곰 저 소곰물 햏졸 햏영 건젓당도 햏곡 기냥도 햏곡.
기냥 햏는 것도 하고게. 기냥 놔 기냥 망대기레 놔놔그네 장 꿰와그네 비와. 장 꿰
와그네 식영 비우고 딱시 그거 식영 문딱 햏루썸윈 자나민 비와뵙 이 짹더레 비와
냥 또 데와 또 데와그네 또 비우고 햏여그네 햏 세 번만 햏민양 지 뵙여그네 맛 좋
아마썸. 세 번만 햏민 시지도 아녀곡, 오래 가곡.

107055 #3 올이 이제 햏영 나뵙신디. 고치 하우스에 막 으난 햏영 햏영 나뵙서
이제.

107055 @ 물웨도 지 햏지 안 흡니까.

107055 #3 예 물웨도.

107055 #1,3 지 흡니다..

107055 @ 오이로 흡니까 물웨로 흡니까?

107055 #1 물웨도 흡니다게. 오이도 햏주만은 물웨.

107055 #3 물웨도 양.

107055 @ 물웨지 만드는 거 곱아썸썸.

107055 #3 오이지도 물웨지도 그 마지막에 준준햏게 막 영 도래기 열지 안흡니
까? 경햏민 그거 기냥 툃툃툃툃 햏게 벌렁. 벌러그네 그저 그거 소곰에 소곰에 햏
여그네 딱 햏게.

107055 @ 썸 파동?

107055 #3 씨 신체, 어리난 양 씨 신체 해도 막 좋습니다. 경 햏난 어린 때 영
그거 확확 벌러그네 소곰 햏여그네 딱 버무려그네 딱 햏게 지들황 놔두민 그것도
맛 좋습니다게. 그 저 오이지도 저 물웨도 경 햏영 지 뵙곡. 오이도 경 햏영 지뵙곡
경 흡디다. 경 햏영 먹곡. 나 이 저 봄의도 그추룩 햏영 막 햏영 햏연 먹언. 물웨지
경 햏영 맛 좋습니다. 맛 좋아. 저 경햏여그네 햏썸썸 아사내여그네 양애에 햏썸 버
무려그네 경 햏영 먹엇주게.

107057 @ 그 햏 종류 잇지 아니광 양 햏.

107057 #3 햏.

107057 @ 저 자리햏.

107057 #3 자리햏.

107057 @ 이런 거 햏 종류은 어떤것들 잇수광?

107057 #3 햏 종류는 자리햏햏곡백인 어서양?

107057 #1 한치물햏도 잇곡.

107057 #3 한치물햏 햏곡 그 저.

107057 #1 한치물훤도 싯곡 자리물훤도 싯곡 그거뻘이 어서 무사?
 107057 @ 새끼훤.
 107057 #3 응 도새기 새끼훤.
 107057 #1 췌 새끼훤계.
 107057 #3 도새기 새끼 그거 맛.
 107057 #1 예 도새기 새끼훤도 이서실거고.
 107057 @ 그거 맹글라 먹어봘디가?
 107057 #1 예 게 도새기 새끼훤 먹주게. 먹어도 보고 사 도새기 새끼 도새기 새끼 이만이뻘이 안 훤니다게. 이만이뻘이 아니여. 도새기 새끼 푼는 거 도새기 새끼 푼는 거. 우리 집 하르방 도새기 새끼 사오렌 햏여 가가민.
 107057 #3 겐디 우리 집의도 도새기 새끼는 잘 먹웁디다, 옛날에. 도새기 새끼 요맨이 햏 거 사 오민양.
 107057 #1 햏 사발뻘이 아넙니다, 죽은 건.
 107057 #3 그걸 막 못야. 이 뚝비에 놉그네 양 즐게 막 그 도새기 새끼 요만인 햏 걸 막 못야냥. 그 물이 쉽니다. 그 안네 물 시민 그 물에 서경 그레 막 양념 해 놉그네 경 햏영 먹엇수게.
 107057 @ 양념 무신 거 놉그네.
 107057 #3 지름도 농곡 고치ㄱ를도 농곡 꺄ㄱ를도 농곡 그레 하간 거.
 107057 #1 식초 농곡.
 107057 #3 식초 농곡 경 햏영 거 양념을 잘 놉사 맛 좋웁니다게. 마농도 이제 햏영 췌어 농곡. 저 하간 양념 맛입주게. 경 햏민 그거 먹으민 췌 헤쳐그네 밥을 잘 먹넨 햏영 그거 막 전의 막 그.
 107057 @ 게난 물은 안, 물은 안 농곡?
 107057 #1 물은 안 농곡.
 107057 @ 안네 신?
 107057 #1 예.
 107057 @ 양?
 107057 #3 양숙.
 107057 #1 예 양숙물로.
 107057 @ 양숙?
 107057 #1 예 양숙물로.
 107057 #3 양숙물로.
 107057 #1 췌새끼도 마찬가지로 도새기 새끼도 마찬가지.
 107057 #3 양.
 107057 #1 떠 물을 안 놉.
 107057 #3 양숙물만.
 107057 #1 그디 물만 햏영. 우리 췌 새끼훤는 사단 집의서 햏여 보지 안이 햏주

만은 쉼 새끼혜 상 하르방 먹는 것만 반 난 안 먹어 봐서.

107057 #3 나도 우리 집의 먹는 것만 반, 하여 사당 맨들은 호곡.

107057 #1 쉼 새끼 크주게. 송애기 새끼 하나 사오민 막 하. 혼잔 먹지 못하여.

107057 #3 경 호고 도새기 새끼 양 저 사발 하나백이 안 되어.

107057 #1 사발 하나백이 아옵니다, 도새기 새끼. 도새기 새끼도 양 호쓸 쉼 도새기 쉼 도새기 호쓸 옥은 도새기 새끼는 팡도 호쓸 세고 생각호민 그 팡 못젠 호민 양 그 팡 못젠 호민 호쓸 막 열심히 잘 못아야 호곡. 하여그네 거 젊은 사름덜이나 그 팡 보득보득 씹영 먹주 아무나 씹영 먹지 못하여. 그런 건 호쓸 크곡 따시 호꼬만 호 도새기 호꼬만 호 새끼 물백이 아니 뉘난 는지레기나 잘 못앙 그런 거나 호주. 또 하여그네 그레 우선 식초 농곡 마농 농곡 저 머 패마농이라도 호쓸 썰어 농곡 꿰 농곡 지름 농곡 경 하여그네 먹곡 송애기 새끼혜도 기추룩 흘 거고.

107057 #3 못 먹는 거 엇수다게. 도새기 새끼혜, 쉼 새끼혜, 자리물혜, 한치물혜, 그 혜 종류 그거. 그거 뿐 답수다.

107057 @ 자리물혜 언제 먹습니까?

107057 #3 봄의.

107057 #1 자리물혜는 사, 사월.

107057 #3 사월.

107057 #1 사월 오월 그때부터.

107057 @ 보리 흘 때?

107057 #1 예 예.

107057 #3 스월부터 남 시작호민.

107057 #1 경 호민 하여튼 자리물혜 먹을 때 양 오월 오월 유월 하여 먹주게.

107057 #3 하여 먹주게 오월 유월에 스월달로 시작하여그네.

107057 @ 그나 자리물혜 이제 맨근는 것으로 돌아줍써.

107057 #1 자리물혜는 자리 사당 우선 훑은 걸로만 따로 골렝 이레 놔뵙, 골려 비늘을 거시려. 저 수꾸락으로 거시려도 좋곡 칼등맹이로 거시려도 좋곡. 수꾸락으로도 술술술술 잘 거시려지곡, 경 아니민 칼등맹이로도 잘 거시려집니다.

107057 @ 전복 껍데기?

107057 #1 전복 껍데기로 우리 전복 껍데기로는 안 해봤수다. 기자 수꾸락.

107057 @ 수꾸락.

107057 #1 수꾸락 그 등 저 무신 걸로도 해져, 즈룩으로도. 그걸로 싹싹싹싹 하여그네 경 하여그네 벳겨그네 요 이디 배설 부뜨는 디 큰 가시 하나 신 건 짝 누들러그네 싹 호게시리 영 호민 빠져. 싹호게 칼로 빠뵙, 거는 영 호영 빠 두곡. 따시 이짝 까시 가운데 까시 가운데 까시는 빠져도 좋곡 못 빠민 영 호영 즐라뵙.

107057 @ 칼로 즐라?

107057 #1 칼로 즐라. 칼로 즐라뵙그네 호곡. 경 아녀민 따시 영 호민 빠져. 게그네 다 빠뵙그네 따시 영영 그로 영 썰지 아녀그네 술랑술랑 납작납작 호게시리

술랑술랑 흥게시리 나풀나풀 흥게시리 썰영. 게 문 썰어놔그네 그 저 우선 처음에 식초부떠 먼저 놔그네 식초부떠 먼저 농곡.

107057 @ 대가리 어떻 해부림수과?

107057 #1 대가리는 그거 딱딱 청, 대가리는 흥여그네 그 저 무신 배설 그쁜 걸랑 싹 빼뒤그네 대가리 흥여그네양 저 무신 것에 저 저 절구통 닳은, 절구통 기자 이제 그뜨민 무신 마농 뺏는 것에 놔그네 막개로 이녁냥으로 딱딱딱딱딱 막 뺏아. 뺏아그네 그 물을 그 물혜 흘 낭푼이에 문딱 메와놔, 딸라놔. 딸라놔 놔똥 글라얏게 나뒤그네, 아쟁인 대가리 못아난 빼는 데껴똥. 데껴뒤그네 그 경 흥영 나뒤그네 요거 자리 썬 것더레 식초부떠 제일 먼저 놔그네 그 다음에 꿩도 농곡 따시 지름도 농곡 흥여그네 버무려놔그네 그 물을 비우는 거라. 우 따시 조피 그쁜 거 조필 만이 놔삽니다. 제피, 제피, 이제 제피. 옛날은 제피 그쁜 거 툃아다그네 것도 좀 질게 썰어 농곡 마농도 뺏아 농곡 머 쪽과도 썰어 농곡 흥여그네 저 춤지름도 농곡 꿩도 농곡 고치도 농곡 머 옛날은 우유 어슨 땀 우유 그쁜 것도 필요 엇고, 미내기나 농곡.

107057 #3 세우리 농곡.

107057 #1 미나기나 농곡 세우리나 시민 농곡 어스민 아니 나도 괜찬여, 뽀으로 놓는 거. 맛은 미나기 흥곡 조피 흥곡은 필수로 들어가사 자리혜에.

107057 #3 경 흥디 자리혜 흘 때엔 패마농은 어습니다. 주로 세우리라.

107057 #1 자리혜 흘 때 경 흥여그네.

107057 #3 주로 세우리.

107057 #1 그 추록 놔그네, 그 대장이 뭇은 그 물을 자리혜레 비와. 비와그네 그거로 충분히 이걸로 이 식귀가 먹어짐직 흥다 흥면은 땀 물 놓지 안 흥영 그 물만 먹곡. 물이 죽암직 흥민 따시 기냥 항엿 물이라도 흥 흥 사발이고 아무만이라도 이녁 식귀에 맞일만 흥게 그레 더 비야그네 그레 따시 장물이라도 낱, 그 것에 간 맞게 장물이라도 놔그네 간 흥여그네 먹으민 똥는 거.

107057 #3 경 흥곡 자리혜 맨드는 게 막 요라 가지 들어간 복잡허여. 막 복잡힙니다. 먹젠 흥민.

107057 @ 방어 혜 먹어보니다 방어 혜 먹어보디가?

107057 #1 방어 혜 기냥 썰어 먹어 흥번 먹어봐디 여기 저 혜 혜로.

107057 @ 혜로는 안 먹지양?

107057 #1 예 혜로는 안 먹어 뵈수다.

107057 #3 기냥 썰어.

107057 #1 기냥.

107057 #3 고추장 버무려.

107057 #1 기냥.

107057 #3 고추장 죽으멍 찍어 먹는 것.

107057 #1 기자 영 찍어 먹는 것뵈의 경 혜로 먹지 아녀부난 모르쿠다 우리 아

니 먹어봐.

107058 @ 이저 반찬도 보민 계절에 따라 막 틀려 아니짱 봄민 어 무슨 반찬 해 먹은니까?

107058 #1 봄의는 양 봄윈 삼 사월 삼월달에 삼월 말 나민 자리 흐민 제일 좋은 반찬이 제일 좋은 반찬이 좋은 반찬이 자리 사다그네 소곰흐영 낫당, 소곰 흐영 낫다그네 저 쨍 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반찬. 경 아니민 저 저.

107058 #3 송개비 마농 데와. 송개비 이제 봄 나가민 송개비 마농 게 막 장성하지 안흐니까게. 경 흐민 봄 낭 주로 먹는 건 송개비 마농 데왕 지름에 장에 무치민 그게 쨍 맛 좋습니다. 경도 흐영 떡국 짐치도 거세기 ㄱ장은 갑니다게. 봄의 ㄱ장은 짐치도 떡국.

107058 #1 보통으로 지.

107058 #3 지도 저 마농지 주로 마농지 흐여 흐여그네.

107058 @ 여름엔 무신 해 반찬으로 여름에?

107058 #1 으름에는 쨍장. 으름에는.

107058 #3 으름ㄱ지 마농지도 잇수다게.

107058 #1 쨍 잘 먹는 건 쨍장. 쨍장으로 국 흐영 떡국. 쨍장으로 기냥 여름 냉국도 쨍장으로 흐영 떡국. 뭐 싸 먹는 것도 쨍장으로 떡국. 쨍 잘 먹는 건 쨍장.

107058 #3 경 흐국 으름엔 양 상추도 잇국 물웨도 잇국 흐민 여름엿 반찬이 좋습니다. 우리 물웨가 주루 먹어집니다, 물웨. 물웨 쨍장 즉양 또 물웨 국도 흐영 떡국 물웨 따로 김치도 흐영 떡국 물웨 하영 우영의 해 놓으민 양 물웨 김치가 경 맛 좋습니다. 물웨 짐치 솔솔 뱃겨뒤그네 그자 양념흐영 확 브리민 그 시간에 먹어 경 좋습니다.

107058 @ 가을 뒤편는 가을 뒤편는 무신 반찬들 헤여그네.

107058 #3 가을엔 이제 우리가 느물 깔지 안 햄수광. 이제 느물 우영의 갈민 느물도 흐영 김치도 흐영 떡국. 느물 흐영 데왕도 떡국. 국도 끌렁 떡국. 가을에도 마농진 일년 열두달 갑니다게. 경 흐민 또 자리젓도 햇당 떡국, 여름에 자리젓 담앗당 또 가을에 떡국 경흐니다. 자리 젓도 주로 떡국. 경 햇수다게.

107058 @ 겨울엔마썸.

107058 #3 겨울에도 그거 그 반찬.

107058 #1 겨울에 겨울에는 기자 짐치, 콩국, 느물 쨍장국. 콩국. 이저 지 종류. 지 종류도 된 먹젠 흐민 그저 그 지도 아사내영 흐번 떡국, 저디도 흐번 아사내영 떡국 흐여그네, 지종류 그접주며.

107058 #3 이제 또 때가 좋은 때난 뒤편지고기 사다그네 잘 보짱 떡국. 저을엔 헤더 잘 먹어집니다게. 뒤편지고기고 기자 바당 쨍기고 상 해 먹엄주게.

107058 @ 고사리 무침은 언제 먹습니까.

107058 #1 것도 봄의 거끄민 봄의 흐 음력으로 삼월 흐 초부터 거끄기 시작흐여그네 삼월 초부터 거끄기 시작흐여그네 흐민 처음에 거꺼온 거, 초벌 고사리 거

꺼다그네 박박 밀영 박박 밀영. 밀어가민 그저 순두 든 거의 털어져붙어. 순두 털어져붙곡 경 흐곡 씻어그네 그거 솟더레 놔그네 장물 장물 농곡. 장물 놔그네 우선 두껍 열지 아녀그네 기냥 오래오래 삶으면 그것이 막 저 삶아지다그네 너무 삶아지민 흐쌀 흐쌀 저 보까질 정도로 막 잘 삶아지면은 흐쌀 쪼락쪼락 흐게시리 흐면은 그추룩 흐게시리 흐여그네 그 흐쌀 막 잘 삶아정 장물 농곡 흐영 삶아가민 내중은 국물도 어시 쪼락쪼락하게 보까가민 그추룩 흐민 그때사 고사리 신더레 양념하는 거라. 처음에 놓지 아녀, 처음엔 장물만 낡 흐다그네 그때사 지름도 농곡 기자 양념 그디 기자 마농도 농곡 영 흐여그네 젓어그네 그거 반찬으로 경 흐여그네.

107058 @ 이제 요즘은 봄의 하영 흐영 먹엄구나예.

107058 #1 예 늘고사리 보꾼 거.

107058 @ 예.

107058 #3 봄원 늘고사리 보깡 떡곡. 이제 그거 고사리 꺼꺼당 이제 삶양. 그 삶은 고사리 털 영 물립니께. 바삭 물리왕 낫다그네 그것털을 물 컷당 고사리 삶양, 삶아그네 건져그네 지름 농곡 장물 농곡 흐여그네 그냥 얼른 보끄민 그 삶아난 것이 훨씬 더 맛 좋습니다. 고사리 저 늘고사리 보꾼 것 보다.

107058 @ 계난 초불 고사린 그저 손 비벼그네 비벼그네 놔뒀다그네 삶양 놔뒀당 식게 때.

107058 #1 예 식게 때 예 예.

107058 @ 탕쉬 탕쉬 탕쉬용으로?

107058 #3 예 고사리 아녀민 식게 아녜니께. 고사리털 해사 탕쉬 탕쉬 고사리

107058 @ 고사리가 영 지게 모양으로 생겨주마썸.

107058 #1 예.

107058 @ 이 지게모양으로 생긴 거 이 각 좋은 거 영 흐여그네 며 저그네 가렌 경 흡니다.

107058 #1 경 흐면은 양 고사리도 양 옛날 할망털은 고사리도 저 이 저 모삿젍 시테 놓는 고사리 잊지 아녀파. 모삿젍시 고사리도 영 세 가달로 벌린 거로만 노렌 했수다 영 가달 벌긴.

107058 @ 그 지게 모양으로?

107058 #1 예 예 가달 벌긴 거로만 노렌 흐여그네 모삿젍시엔 저 좋은 고사리 저 윤진 거 흐나만 무락흔 걸로 안 낡 영 흐쌀 세듯 흐영 가달 벌긴 고사리 낫수다 게. 지게 벌긴 거. 경 흐곡 고사리 어슨 제사는 엇주게 양. 고사리 흐 쿨 해 떡젠, 고사리 흐 쿨 해 떡젠 흐명.

107058 #3 야 콩늬물 고사린 기분. 식게 제사 할 때. 기분으로.

장 답그기

107059 @ 그다음에 이 자 장 답지양 장 언제 답습니까?

107059 #1 이 셋들 구름에 답습니다, 이딘. 육지는 정월에 답습디 정월 유월 삼

월까지 담는다, 이딴 섯들 구뭍 전의만 담젠 하여 제주도는 옛날부떠.

107059 @ 무사 그추록 섯들 구뭍 전의?

107059 #1 계난 새해 나기 전의, 묵은해에, 새해 나기 전의 묵은해에 담젠, 새해에 담으면 안 뵤덴 하여그네, 동짓들이영 섯들에 담젠, 동짓들이고 섯들이고 담는 사람은 담곡, 섯들에도 담지 못한 사람은 섯들 구뭍날이라도 초하를 뵤기 전의 딱 답아.

107059 #3 정월 초하루 뵤기 전의.

107059 #1 정월 초하를 새해 나기 전의.

107059 #3 이 장은 양 메주 메주 숲양, 메주 뵤양, 그거 메주 췌영 혼 영 돌아매연 나두민 양 지냥으로 트멍 막 므릅니다게. 지냥으로 무룩무룩 트멍 막 므르민, 혼 들간만 시민 장을 담아져마썸, 메주 숲양. 오늘이 초하를이민 오늘 숲으면 이들 말일이민 담아집니다. 계난 나도 딱 혼 들 므르민 장 담앗수다게. 장 담으면 장 담양 익는 기간은 육십일 딱 두 들, 두 들이민 익영 거려집니다. 경 하여 뵤장 뵤장 아상 췌그네 췌뵤 물장 트로 거려그네 벵에 질영 놔두곡 뵤장은 트로 췌곡. 경 하면 딱 두 들이민 저 장 익읍니다. 혼 들이민 메주 숲양 터그네 담양 딱 두 들. 경 하면 장이 맛 좋아마썸.

107060 @ 이저 장 종류는 어떤 것들 잇수광?

107060 #1 이 장 종류는 장 종류는 여하튼 하고 옛날은 보리장.

107060 @ 아 계난 뵤장 이런 거?

107060 #1 뵤장 보리장을 뵤장으로 했수다. 보리뵤장이 섯수다게 저기 장 종류는. 보리 보리췌 퇴와그네 보리췌는 퇴완에 하면은 그런 보리뵤장 잇곡, 콩뵤장 잇곡. 그거 뵤장은 그거 두 가지뵤이 엇수다게 뵤장은.

107060 #3 고치장 하곡 기자.

107060 #1 건 고치장이곡게. 뵤장 종류 예 보리뵤장 하곡 콩뵤장 콩 뵤장, 거뵤인 어서.

107060 @ 예 뵤장 그다음 아까 고치장?

107060 #1 고치장, 고치장 하곡 그거 시 가지우다게. 고치장도 우리 고치장도 이녕으로 담고 옛날 보리췌덜 퇴왕 보리장도 하곡.

107060 @ 그다음 간장 간장물?

107060 #1 장물은 이제 장물은 하젠 하면 이제 두 들동안 고만이 놔뵤당 두 들 뵤면은 이제 메준 건져 건지명 저 거세기 멧에, 무신 다락에, 다락이나 무신 아무런 장태에라도 장태에라도 혼뵤드레 건져뵤. 건져뵤그네 그 장 계민 장물만 남을 거 아니파. 장물은 뜬 그릇 뜬 것더레 놓명 영 하여그네 무신 거 그 콩 혼나 혼날췌이 라도 콩 시카부덴 무신 거 시카부덴 영 하여그네 망대기레 체 받쳐그네 그레 영 뜬 망대기레 거려놓는 거라. 그 췌복엔 딱시 그 소곰 골라앗인 것도 섯고 혼난 그거 그냥 놔두지 아녕 뜬 항더레 거려놔, 그 장물을. 뜬 항더레 거려놔그네 그거 딱 하게 놔두민 것이 장물. 딱시 뵤장은 딱시 이제 그 이짜더레 건져 논 거 그레 이제

소곰을 흐쓸 더 놔, 그 웬장더레. 더 놔그네.

107060 #3 쩡 나둔 건 웬장.

107060 #1 기냥기냥 쩡 나둔 건 웬장.

107061 @ 그 장 장 담그는 법에 대해 그네 흐번 곶아봅써.

107061 #3 장 담그는 법은 나가 곤지 아넵디가. 장을 이제 메주 슣앙 이제 뺏앙 메주 췌영.

107061 @ 뭇로 뺏읍니까.

107061 #3 발로도 불르곡, 막개로도 뺏곡, 방애통에도 뺏곡 경햐수다게. 그거 양 우리 주루 흠은 발로 블라, 푸대에 놔그네.

107061 #1 전윈 양, 이제사 푸대 나왔주, 전윈 푸대도 엇곡 흘 때난 전윈 남방 애에 다 췌수다. 남방애에 방앳귀 흐여그네 흐 사름이 식귀가 하나에 흐 말, 둘리민 두 말, 서이는 서말, 다섯 식귀는 닷말씩 슣앗수다, 옛날은. 장으로 만 주장흐연 사 난에. 게 장으로만 주장해 사난 장을 하영 답읍주게. 게민 흐 열 말씩 드는 향으로 두 개씩 답아. 두 개씩, 더도 답곡. 게그네 답젠 흐민 양 그거 메주를 흐루에만 슣 지도 못 흐여. 제게 익지도 아녀. 저 아싯날 그 메주를 싯영. 싯어그네 물 컷당 뺏 날 나중에 날 좋은 날 따시.

107061 @ 메주 뺏 뭇냐 메칠 돌아맵니까.

107061 #1 게나 그 슣아. 슣앙 이 문짜 흐게시리 이제 슣으민 그 메주를 흐여그 네 이제 그 췌 영 흐영 문 공쟁이마다 그거 돌아매지 안읍니까. 돌아매영 흐 한달 정도만 흐면은 흐 열 열흘만 뺏여가며는 막 념새나 트는 념새.

107061 #3 경흐민 막 흐 들이미 므르고 톱니다게.

107061 @ 거 곶생이도 피고?

107061 #1,3 예 예.

107061 #3 곶생이도 헤영케 피고?

107061 #1 게난 돌아매영 내불민 곶생이 피멍 몰라가멍 경 흐여그네 흐 달 정 도만 흐면은 장 답아져마췌.

107061 @ 게민 이제 메주 싯어그네.

107061 #3 싯어.

107061 #1 메주 싯어그네. 메주 내일 답을 거민 내일 장 답을 거민 오늘 문딱 싯읍니다. 거 날 보멍 답주게. 무신 무신 소끼날이여, 무신 모날이여 그 무신 거 흐 여그네 날 보멍 답으민 내일이 장 답는 날이민 오늘은 문딱 싯어. 떠나민 검은 거 영 무신 거 슣을 박박 밀멍 싯어그네 그릇에 흐여그네 구덕에나 무신 것에 흐여그 네 놔뺏다그네 그 소곰물 소곰물도 오닐 소곰물을 곶아놔 장 답을 곶. 소곰으로 오 널 답앙 놔뺏사 그 소곰이 그 아쟁이 곶라앗곡 그레 곶게시리 소곰을 곶게 흐젠 흐 민 무신 다락 ㄱ뺏 거역, 큰 다락 ㄱ뺏 것더레 막 무신 저 무슨 망대기더레여, 막 빈 그릇드레 막 답앙 놔뺏, 오닐 답아. 게민 오닐 답앗당 뺏날에 장다을 날은 그 그 향드레 그 싯영놔둔 저 메주를 문딱 디리쳐놔, 곶라그네. 요 향에 뺏 개, 요 향에

멧 개, 요건 죽으난 멧 개 흥여그네, 그 메주 싯엇 놔둔 것덜 항더레 다 담아놔그네, 아싯날 소곰물 곁안 놔둔 걸 우의로 판씩 걷어뒤그네 그레 체나 무싯 걸 받쳐그네 그 소곰물을 그 메주싯더레 막 비와놔. 골로루 다. 게그네 항 슴빱헿게시리 항마다 아싯날 담양 놔둔걸 비와그네 놔두민 흥는 날은 헤양 흥여도 양 흥 삼일 스일 만 돼가민 불그롱 해 갑니다. 게 흥여그네 두 들만 시민 막 장이 익어그네 맛 좋읍니다.

107061 #3 경 흥영 두덜만 이시민 그 장을 웅장 트로 물장 트로 거렴수게. 경 흥영 웅장은 웅장대로 쟁 담곡, 물장은 물장대로 뜯 항에 담곡. 경 흥여놋수다. 경 흥연 거리명 먹엄수게.

107062 @ 그저 메주는 그 언제?

107062 #3 콩 슴을 때 저 무시거 이 양력 저 우리 음력 동짓들에 슴읍니다게. 시월엔 안 슴아. 경 아니민 구월이나 동짓들이나, 이 동짓들의 주로 슴읍니다. 이 동짓들의 슴아그네, 동짓들의 슴으민 메주도 흥 들 기간이민 트곡 므릅니다게. 경 흥연 흥 들 기간 트곡 므르민 저 느리와나그네 장을 담암수다.

107062 @ 뭘에 슴아수가?

107062 #3 큰 슴디. 가마 슴디도 슴곡, 큰 말치도 흥영 슴곡, 두 말떡기에도 슴곡. 옛날은 식귀가 하민 식귀 수정 흥나에 흥 말씩 흥젠 흥민 장을 막 하영 담앗수다.

107062 @ 멧 말 담암수과.

107062 #3 이젠 우린 장 두말 정도.

107062 #1 게민 흥 말.

107062 #3 경 아니민 흥 말 경흥여그네 담고.

107062 #1 이젠 장 담는 사름도 엇수다게. 사당만 먹어그네.

107063 @ 그 장 담글 때 금지 흥는 것들 잇지양?

107063 #1 금기흥는 거예 옛날엔 이섯수다 이제는 전의는 장 담을 때 금기 금기흥젠 흥면은 흥쓸 좋은 날에 좋은 날에 담젠 흥곡.

107063 @ 무슨 날에 담아수가?

107063 #1 므날 므날이여, 토깃날 ㄱ뜬 날, 개날 ㄱ뜬 날, 술일이여, 술일이 개날 아니파예. 경 흥 날 흥쓸 좋은 날. 술일 흥곡 저 거세기 토깃날 흥곡. 므날 흥곡. 경 흥영 주로 담아마썸. 쉼날 ㄱ뜬 때, 베염날은 안 담아.

제2절 어휘

-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대강이
201002	대가리	대강이
201003	크다[大]	큰 사름
201004	숫구멍	숨굴
201005	제비초리	총대기
201006	머리털	머리털
201007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쫄르다
201010	빗[梳]	얼레기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땡다	땡 머리
201014	비녀	빗네
201015	고수머리	곱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앞 갈르는 거
201019	이마	임탱이
201020	넓다[廣]	임탱이 벗어지다, 임탱이 넓삭한다
201021	이마빼기	이마빼기
201022	솜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양지
201024	낫[面]	양지
201025	웃다[笑]	웃는 얼굴
201026	그리다[寫]	그리는 거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양
201028	씻다[洗]	씻는 거
201029	거울	거울
201030	보다[見]	영화를 봐야 주
201031	빤	삤얌
201032	빤따귀	삤얌때기

201033	때리다[打]	종아리를 고리다
201034	불	불빼
201035	불따구니	불따구니
201036	불거리	불고사리
201037	광대뼈	광대뼈
201038	보조개	보조기
201039	주름살	주름술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자
201042	검은자위	검은자
201043	눈꺼풀	눈두꺼
201044	거적눈	덤게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지트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눈두세
201049	수침(垂針)	두세
201050	거머리	정세
201051	폐롭다	정세가 과 ^ㅎ 영 침 만나
201052	눈곱	눈곱제기
201053	눈초리	눈깍
201054	사팔눈	사파리눈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지다
201058	콧마루	콧대
201059	세다[強]	요망지다.세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코푼제기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씻다
201064	콧수염	콧시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솔직 ^ㅎ 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줄바르다
201071	뉘달하다	답달하다
201072	입술	입바우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201075	말하다	글다, 곧다
201076	입방아	으망시러운 말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또곧다
201079	침[唾]	츄
201080	삼키다[吞]	숨지다
201081	가래침	개츄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느치름
201084	턱받이	턱받이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활트다
201087	헛바늘	세까시
201088	이[齒]	니빨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송곳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버더진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옹니
201096	옥다[曲]	오고하다
201097	돋다[出]	돋으다
201098	옥물다	딱물다
201099	턱	턱
201100	턱살	턱술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귓둘레
201105	귓볼	귀또랑지
201106	귓구멍	귓고망

201107	귀청(고막)	고막
201108	귀지	귓밥
201109	귀이개	귀주게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귀톡
201112	구레나룻	녹대쉬염
201113	목	야가기
201114	굽다[顛]	독지다
201115	모가지	모가지
201116	먹살	맥살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뒷대강이
201119	꼭뒤	상가매
201120	뒷덜미	뒷대강이

상체

201121	어깨	독지
201122	어깨뼈	독지뼈
201123	어깨죽지	어깨독지
201124	겨드랑이	젓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굽치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힘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독슬
201131	팔꿈치	폴꿈치
201132	팔목(=손목)	홀목
201133	뼈	팡
201134	뼈다귀	뼈다귀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왼손
201137	오른손	노단손
201138	왼손잡이	왼손잡이
201139	손등	손등땡이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손거슴
201145	할퀴다	글그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안조애기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약손가락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튀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오목가슴
201157	명자리	맹자리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꼭지
201160	젓명울	젓명얼
201161	짜다[擻]	달루다
201162	울다[鳴]	웁니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배고프다
201166	배꼽	배꼽
201167	옆구리	엽갈리
201168	갈비뼈	갈비뼈
201169	등	등뎅이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오그라지다
201172	등때기	등뎅이
201173	가렵다[癢]	ㄱ립다
201174	긁다[抓]	글그다
201175	결리다	오속ㅎ다
201176	등목(=목물)	등물
201177	찬물	실룬물
201178	등마루	등뎅이

201179 등뼈 등짱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뒤터리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엉덩이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볼기짱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엉둥이
201188 궁둥이뼈 엉둥이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고망
201191 더럽다[汚] 더럽다
201192 가볍다[輕] 개볍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201194 살 *
201195 가래똥 멩얼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지
201199 넓적다리 너벅지
201200 무릎 무릅
201201 무릎뼈 무릅뼈
201202 뼈다[髑] 심트다, 뼈다
201203 정강이 전갱이
201204 정강뼈 전갱이짱
201205 종아리 종아리
201206 장판지 주설
201207 오금 오금
201208 복사뼈 복사뼈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굵다[凶] 굵다
201212 헛발질 헛발질
201213 발목 귀마리

201214	겹질리다	고몯간
201215	발등	발등덩이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뿌리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ㄱ릅다
201220	간지럼	*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안죄기발가락
201221-3	가운뎃발가락	*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

201222	발살	발트멍
201223	까치눈	발가락눈
201224	티눈	멍쿠쟁이, 멍쿠지
201225	고린내	구린내
201226	발톱	발콧
201227	발뒤축	뒤치기
201228	슬개[膽]	슬개
201229	허파	염통
201230	마음	므음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창지
201232-1	큰창자	큰창지, 대창
201232-2	작은창자	죽은 베설, 죽은 창지
201233	목숨	멩
201234	빼앗다[脫]	엇어지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들어사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쁘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낱다[媿]	난다
202006	태(胎)	아기뵈
202007	탓줄	탓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흔살 뭉이
202011	갓난아이	갓난아이
202012	싸다[包]	지성귀에 쌍
202013	어린아이	물애기
202014	사내아이	소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깝다	아까운
202017	아이보개	아이엿개
202018	엿저지	아이엿개
201019	폼다	폼는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오줌찌개기
202023	오줌싸개	오줌쌌기
202024	누다[便]	싸다, 싸불라
202025	나무라다	나무랄디가 엿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모렵다
202028	꾸지람	ㄱ르치는말
202029	배냇저고리	배냇저고리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배부레기
202032	포대기	아기 지성귀
202033	보자기	포따리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쳐네	뜨대기,

202038	띠	걸렁이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 터진 바지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좀매좀매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섯따섯따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쭈쭈질트라질트라
202046	걸음마	흔자국 두자국
202047	걸리다	선데선데
202048	곤두박질	곤두박질
202049	곤두서다	곤작사다
202050	가동가동	으야으야
202051	안다[抱]	안아주마
202052	안기다	안다
202053	목말	청고개
202054	흉내	승내,
202055	흉내질하다	승도 잘털엄찌
202056	엄살	소도리
202057	쌈	쌈 난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용심나다, 부에나다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심보
202062	밉다[憎]	밉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구슬놀이
202066	딱지치기	때기치기, 딱지치기
202067	통차기	짱통차기
202068	숨바꼭질	굽을락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장남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뜨기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도투는일
202097	싸우다[鬪]	쌈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다드령
202100	편벽하다	편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래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장연
202107	가오리연	가오리연
202108	연달	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
202108-2	꽂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상대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꽂줄	연의 꽂달구멍에 꿰어서 꽂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
202117	개미[연놀이]	*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
202120	밑신개	*
202121	굴렁쇠	*
202122	구르다[轉]	*
202123	썰매	*
202124	자전거	*
202125	키[身長]	*
202126	키다리	*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선하우
202129	기지개	질튼다
202130	기지개하다	질튼다
202131	경기하다	정세
202132	놀라다[驚]	모쌍
202133	졸음	좀깨젠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로왕
202136	잠	잠
202137	귀잠	지픈좀, 한좀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좀꼬대
202140	잠귀	좀귀
202141	잠꾸러기	좀무충이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하다
202144	트림	트림, 포마징
202145	말꼭질	툄국지
202146	채채기	채치기
202147	개치네췌	*
202148	방귀	방구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피기
202151	구린내	똥내
202152	노린내	그끄렁내

202153	사레들다	살레들다
202154	감기	감기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홍역
202157	학질	*
202158	천연두	마누라
202159	곰보	곰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독짓
202163	두부백선	독짓
202164	옷	개옷
202165	버짐	버즘
202166	마른버짐	군버즘
202167	진버짐	츄버즘
202168	주근깨	포리츄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검버섯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검다
202174	굳은살	멍구쟁이, 켈이
202175	부스럼	허멀
202176	종기	종지
202177	습종	습징
202178	나다[生]	종기 답다.
202179	붉은발	발 버컷찌
202180	다대	허멀 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애육
202182	고장물	피고름
202183	낫다[癩]	종앗찌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허물 그르
202186	생인손	배접
202187	앓다[痛]	아프다
202188	두드러기	질투드레기
202189	땀띠	땀때기, 땀투드레기

202190	소경	봉서
202191	칭맹과니	눈뜬봉서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애꾸눈
202194	사팔뜨기	사팔떼기
202195	다래끼	개좃, 개쌌
202195-1		
202195-2		
202196	언챙이	얼챙이, 타주애기
202197	외언챙이	외얼챙이
202198	쌍언챙이	쌍얼챙이
202199	귀떡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막쉬
202201	병어리	모래기
202202	말더듬이	*
202203	혀짤배기	세다드레기
202204	입비뚫이	*
202205	구안괘사	건풍
202206	가납사니	폴쫄레기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곱사등이	곱세
202209	절뚝발이	발틀렉이
202210	얇은뱅이	아즌백이
202211	문둥이	문둥병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방, 아부지
203002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부부간

203010 싫다[厭] 긋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막둥이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큰말젯아덜, 셋말젯아덜
203012-9	막내아들	막둥이아덜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나덜,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어서야
 203020 자손 즈순
 203021 어비딸 애비딸
 203022 어비아들 애비아덜
 203023 닳다[相似] 닳다
 203024 어이딸 애딸
 203025 어이아들 애새끼
 203026 말이 믄이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님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성님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외아덜, 독재
203034	외딸	단딸
203035	쌍둥이	글애기
203036	다르다[異]	트나다
203037	같다[如]	답다
203038	양자	양재
203038-1		양아덜
203038-2		양재 돌아온다
203039	처녀	비바리
203040	총각	*
203041	혼인	혼서
203042	날[日]	한나절
203043	사주보다	운수보는거
203044	중신	중매쟁이
203045	권당	퀸당
203045-1		강치비 덩덜
203045-2		방상은 퀸당
203046	앉은잔치	*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방
203050	시어머니	씨어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외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외할망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동네 삼촌덜
203056	아주버니	아주버님
203057	아주머니	아지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노인, 늙으신어른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광ㅎ다
203061	살다[生]	맹도 질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랑팔십
203063	병추기	진병
203064	거동하다	움직이지 못하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외손지
203069	친탁	성가 답다
203070	외탁	외펜 답다, 외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외펜
203073	종내기	종내기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캐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외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정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정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203095	웁딸	봉근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눔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감
204002	끓다	물르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쭈러들다
204007	무녕	미녕
204008	무녕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녕	닷새미녕
204010	옛새무녕	옛새미녕
204011	생목	진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솜	소개
204017	풀솜	맹지솜
204018	솜틀	맹지클
204019	솜틀집	멘네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씨, 멘네도래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자목
204024	번데기	번데기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섭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드룻뽕
204029	오디	오등게비
204030	다듬잇돌	다듬잇돌
204031	다듬잇방망이	홍짓대
204032	펴다	두들겨사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개품

204035	물거품	물개품
204036	빨랫돌	광돌
204037	빨랫방망이	서답마깨
204038	빨랫바구니	질구덕
204039	행구다	행귀다
204040	빨랫줄	빨랫줄
204041	마르다[乾]	모르다
204042	바지랑대	바드랭이
204043	널다	널어야
204044	걷다[收]	걸어내다
204045	바래다[褪]	바래다
204046	헝겂	*
204047	찢다[裂]	찢어사
204048	나부랭이	몰르레기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달, 바짓가랑이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자락
204054	폴치마	깍치메
204055	옷고름	옷고름
204056	옷깃	옷짓
204057	옷설	압섭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모진단추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소미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포
204066	두루마기	두루막
204067	장옷	창옷
204068	고쟁이	고쟁이
204069	토시	손도메

204070	누더기	누데기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뽀쟁이
204073	잠방이	불중의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204075	주머니	전대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보선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보선등어리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뽀족한 부분	보선뿌리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보선발
204081	대님	다림
204082	감발	카바
204083	홀옷	훈옷
204084	겹옷	접옷
204085	숨옷	숨옷
204086	얹다	얼게 입엇찌
204087	입다[着]	입어사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안
204091	홀이불	훈이불
204092	겹이불	접이불
204093	사이	트멍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보따리, 이불포
204096	보풀	보푸레기
204097	홀청	껍데기, 거죽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안

204100	눅다[臥]	눅 잡찌
204101	누이다	눅찌다
204102	담요	요깃끼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안지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거죽
204107	베갯머리	머리맛
204108	베갯모	*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병거
204114	밑짚모자	패랭이
204115	미사리	삿갓
204116	짚신	짚신
204117	채총박이	*
204118	판총박이	*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족신	가족신
204123	부르뜨다	붕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설피
204126	문수	몽수
204127	부채	부채
204128	미선	미선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짚고리	바농쌍지
204131	가위	ㄱ세
204132	마르다[裁]	들르다
204133	골무	골메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실괘
204136	실괘	실괘
204137	바늘	바늘
204138	찌르다[刺]	찔르다
204139	바늘겨레	*
204140	바늘귀	바늘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집다	주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접다	존다
204145	곱치다	곱치다
204146	휘갑치다	감치다
204147	채봉틀	미승
204148	다리미	다리미
204149	다리다[熨]	다리미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누뜰다
204153	씨아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물레지둥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세역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깔개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베기처럼 생긴 톱니	볼레귀
204153-5	씨아손	손잡이	볼레손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가레기

204154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괴머리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괴머리지둥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물레지둥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물레버텅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버얼레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물레조륙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정줄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가락지둥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가래기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굴뚝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물렛줄

204155 자세 *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황
205004	담다[入]	담양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빠다[湯水]	빨루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폰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선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녕이
205016	눌은밥	승능
205017	더운밥	멘도롱헌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파래밥	파래밥
205020	밥보	배토막도 크다
205021	밥술	술구락
205022	밥알	밥알
205023	끼니	끼니, 세끼니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송농	송농물
205029	화독내	그끄렁내, 칸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나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초친 냉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더우다
205040	흰죽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팔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갱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배치짐치
205051	무김치	놈뻬짐치

205052	열무김치	열무짬치
205053	물김치	물짬치
205054	나박김치	나박짬치
205055	갯김치	갯짬치
205056	파김치	파짬치
205057	깍두기	놈뻬짬치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담그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된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개
205065	소금장수	소금쟁이
205066	간	간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간헛다
205069	콩나물	콩노물
205070	숙주나물	눅디노물
205071	무나물	놈뻬탕쉬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노물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밥
205075	꺾다[切]	꺼끄다
205076	곶[場所]	고사리 맛
205077	고비	베염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내기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갯노물
205083	오이	오이외
205084	물외	물외
205085	참외	츨외
205086	수세미외	소가외
205087	말물	초물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갈쟁이
205090	원두막	웬막
205091	갯잎	유입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고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섭
205100	시들다	소들소들하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아가미젓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식초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시리떡
205110	부스러기	보스레기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떡쉬
205114	도래떡	들래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두
205117	가루	ㄱ루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조배기
205122	물다[淡]	얹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지
205127	과줄	약과
205128	옛기름	*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숙이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추니
205138	엎다	어푸다
205139	술고래	푸대
205140	술독	술독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서
205143	숨기다	굽찌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싸다
205146	갑시다	숨 기차지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지짐이
205149	산적	젓갈, 쾌기적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지문
205152	불때다	불숨다
205153	불등걸	불인경이
205154	불뚝	불뚝
205155	부엌비	정짓비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알너레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그스렁
205160	검댕	그스렁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채	불채
205163	모으다[集]	메우다
205164	부뚜막	숫덕
205165	봇돌	숫덕 아찌는 돌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옹지리
205168	무쇠솔	무쇠숫
205169	끓다[沸]	피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
205171	솔귀	숫뚜껑 조륙
205172	솔전	숫천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밧
205175	솔검정	그끄렁
205176	부삽	불삽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짚방석
205182	성냥	곽
205183	성냥개비	성냥살
205184	성냥갑	불곽, 곽통
205185	부시	부세
205186	부싯돌	부셋돌
205187	부싯깃	불쩍
205188	부시쌈지	부세쌈지
205189	부시통	부세통
205190	등잔	각지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룽	호야
205193	남포등	호얏불
205194	접싯불	지름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가마
205199	뜬숯	게시미
205200	숯검정	숯검덩이
205201	불타다	불나다
205202	탄내	그끄렁내
205203	불태우다	물태우다
205204	불티	불게미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붕당	붕닥불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춘다
205212	화상(火傷)	화상, 불에 대어난 그르
205213	부손	불순구락
205214	부젓가락	불젓가락
205215	다리쇠	바튼쇠
205216	석쇠	적쇠
205217	물독	물황
205217-1		*
205217-2		추니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운다
205220	용고뚜리	*
205221	담뱃대	통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뱃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떨이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빈 그릇
205232	주발	놋그릇
205233	사발	사기그릇
205234	뚜껑	뚜껑
205235	접시	접시
205236	굽달이	굽신접시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간종지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조뿔
205243	수저통	제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진물
205246	도시락	벤또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박새기
205250	박	콜락
205251	뒤옹박	두렁박
205252	조롱박	조롱박
205253	쪽박	족박
205254	양푼	냥푸니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뚝배기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리바닥
205260	시룻번	시룻마개
205261	경그레	바드렝이
205262	함지박	남도고리
205263	바구니	바구니
205264	소쿠리	송쿠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족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고대
205270	굳은대	매운대
205271	무른대	금죽
205272	항아리	황, 망데기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배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정지칼
205278	빼다[拔]	빠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골다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노슬다
205283	행주	상빼
205284	번철	빈철
205285	국자	남저
205286	밥주걱	우금
205287	죽젓광이	베슬기
205288	수세미	소가외
205289	떡살	떡판
205290	밀판	암반
205291	밀개	홍짓대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물장데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고소리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고소리 뿌리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두벙두리

205293	빚다	답는다
205294	풍로	간데기
205295	삼발이	삼발이
205296	달이다	딸린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올레길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낡다[古]	오목다
206007	기와집	기와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이간막살이
206011	외채	외집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바꺼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문간집
206016	결채	목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독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팡뒤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잃다
206024	마구간	물막
206025	변소	도통
206026	부춘돌	지들팡
206026-1	부출	지들팡
206027	기척	인기적
206028	맞서다[拮]	맞걸다
206029	냄새	냄새
206030	맡다[臭]	맞추다
206031	울담	우영담
206032	울안	우영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릿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산태
206040	이영	노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기
206042	엮다[編]	엮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푼채
206043-1		푼채
206043-2		푼채
206044	디딤돌	엇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마루
206047	마루문	마루대문
206047-1	‘호령창’	호령창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다
206053	구들직장	구들창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정
206059	닿다[觸]	다드키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안방
206062	방문	지겟문
206063	비[帚]	비차락
206064	빗자루[柄]	비차락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비우다
206067	바람벽	축브름
206068	걸다[掛]	돌다. 돌아메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시렁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헛대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
206075	풀비	풀비차락
206076	찾방	천방마루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모영 놔 둔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
206081	안뒤결	*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함석
206084	지붕물매	지붕물매
206085	이다[蓋]	인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집가지
206088	처맛기슭	상마루
206089	낙숫물	지숫물
206090	덧돌	엿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질흑
206093	찰흙	촌흑
206094	흙덩이	흑덩어리
206095	새벽	촌흑
206096	흙길	흑길
206097	이기다[汲]	볼린다
206098	산자(撒子)	튀기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פות지둥
206101	뒷기둥	뒷지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루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椽)	태기
206111	인방	태기
206112	문설주	문골
206113	문곶도리	지방
206114	문얼굴	문골
206115	문틀	문지방
206116	문머리	*
206117	문흙	문골흙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지갯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창꼭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닫이	미닫이
206127	여닫이	여닫이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이중문
206131	문틈	문틈
206132	돌쩌귀	돌철귀
206133	암틀쩌귀	암돌철귀
206134	수틀쩌귀	숫돌철귀
206135	문고리	문고리
206136	배목	무걸이쇠
206137	퀘	퀘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열쇠
206142	부수다[碎]	부수다
206143	서랍	설랍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날툽
206146	거도	대툽
206147	틀툽	틀툽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옥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두드리다
206154	배척	빠루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막게
206157	방망이	방명이
206158	대괘	대괘
206159	개탕대괘	흙베기대괘
206160	송곳	돌부비
206161	뚫다[鑿]	뚫르다
206162	굽자	고분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술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흑손
206167	쇠흙손	쇠손
206168	나무흙손	낭손
206169	흙받기	흑받침
206170	돌물레	물레
206171-1		호르레기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염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도르갱이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잡대, 쟁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주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뺀 나간 나무	무쿨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칫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설칫세역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돌벧이뿔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베톨랭이

207009	옥보다	속아수다
207010	겨리	접새
207011	벧밥	병에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멍에
207014	밭두둑	밭두둑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이랑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글가리, 글갱이
207019	씨레	설레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조륙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좁게발
207019-3	몽둥이	씨레밭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몽둥이
207019-4	씨레밭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족한 살	씨레살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씨레채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팽이
207022	곡팽이	목팽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쇠스랑
207025	삽	삽
207026	따비	때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앗
207030	알씨	알씨
207031	백씨	백씨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망탱이
207034	꿈계	선비
207035	남태	남괘
207036	돌번지	병에돌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 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벌매기
207040	두벌매기	두벌
207041	세벌매기	세벌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집이 가게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사데소리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삿	일콧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간식
207050	폼앗이	수눔
207051	삼태기	골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조록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슴베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다갈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새역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호미등어리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놀

207053	베다[刈]	빈다
207054	새뺨기	어육대
207055	새끼	베, 노
207056	꼬다[索]	꼰다
207057	매듭	모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노끈
207060	참바(바[索])	드린베
207061	짐바	노
207062	질빵	짐페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몰질메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고고리 주스라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도깨
207076	벼훑이	보리클
207077	그네	*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보리고고리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산디고고리

207078	타작하다	두드리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지치다 쉬영 허게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아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어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깨줍게

207085	여물	여물
207086	쭈정이	줄레
207087	꿀	출
207088	꿀밭	출밭
207089	꿀꾼	출비는사름
207090	꿀단	출뭇
207091	신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구루마
207093	복두	돌막대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등태

207096	거적	도금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ㄱ는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푼다
207107	드리다	불린다
207108	‘술박’	좁박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되
207112	되	되
207113	관되	말되
207114	사삿되	밥되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네모말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굴묵당그네
207120	떡등구미	맹탱이
207121	가마니	가맹이
207122	꿇다[引]	끄스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그느다
207125	자루[袋]	찰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뒤들인다
207128	계으름	간세다리
207129	노라리	할량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밭
207132	누리다[黃]	누렁다
207133	밟다	뽏다
207134	까끄라기	고스락
207135	보리쌀	보리츨
207136	보릿겨	보리채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츨보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낭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감벽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숙다	소꾸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부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수아비
207153	좁쌀	좁츨
207154	조짚	조직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멧자리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꼬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밭
207162	밭벼쌀	산디츨
207163	밭벼짚	산디쩍
207164	멧돌	고래

207164-1	멧돌짜	멧돌의 위아래 돌	고래착
207164-2	윗돌	멧돌의 위짜	우착
207164-3	아랫돌	멧돌의 아래짜	알착
207164-4	매암쇠	멧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고래혹
207164-5	멧수쇠	멧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중수리
207164-6	멧손	멧돌의 손잡이	고랫조륙

207165	멧방석	고랫방석
207166	매함지	덕석
207167	풀멧돌	정고래
207168	풀매	풀고래
207169	썰기	썰역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남방에
207171-1		남방에
207171-2		남방에
207171-3		남방에
207172	방아확	방에혹
207173	방앗간	방엿간
207174	븨비다	하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돌방에
207178	방앗돌	방엿돌
207179	연자멧간	돌방엿집
207180	절구	절구통
207181	절긋공이	방엿귀
207182	빵다	백스다
207183	뉘	너
207184	고르다[擇]	주수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채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썩
207189	기름콩	콩늬물콩
207190	콩깍지	콩깍지

207191	콩짚	콩낭
207192	꼬투리	콩깍지
207193	두부	두부
207194	두붓물	콩물
207195	뜨겁다	뜨겁다
207196	비지	비지
207197	찌꺼기	비제기
207198	완두	완두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돔비
207201	팔	폿
207202	팔알	폿방울
207203	팔밥	폿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꽤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츄지름
207208	깻묵	꽤주시
207209	고소하다	고소ㅎ다
207210	메밀	모멸
207211	메밀밭	모멸밭
207212	나깨	모멸צל
207213	메밀껍질	모멸채
207214	메밀국수	모멸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모멸조배기
207216	메밀칼국수	모멸칼국수
207217	메밀떡	모멸떡
207218	메밀묵	모멸묵
207219	무르다[軟]	얹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감저빼떼기
207222	찌다[蒸]	술무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빨리

207225-3	마늘중	마농도래기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장아찌
207227	파	패마농
207227-1	파밑동	패마농뿌리
207228	무	눔빠
207229	무청	초마기
207230	시래기	쓰래기
207231	장다리무	*
207232	열무	열무
207233	배추	배추
207234	고깡이(배추)	배추속잎
207235	나물	늑물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겉대	바깥디쌈
207238	다듬다	무질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녕이
207240-1	옥수수	대죽부레기
207241	수수	사당대죽
207242	쌀수수	강낭대죽
207243	비목수수	살레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당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낭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녀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옷	잠녀복
207249	물안경[水鏡]	물안경
207249-1		*
207249-2		*
207250	태왁	태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재기
207255	뜯채	족바지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풍선
207258	이물	이물
207258-1	이물칸	이물칸
207258-2	이물사공	이물사공
207259	고물	고물
207259-1	고물칸	고물칸
207259-2	고물사공	고물사공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돛대
207262	마룻줄(용총줄)	돛댓줄
207263	활대	
207264	외대박이	외대발이
207264-1	두 대박이	두대발이
207264-2	세대박이	세대발이
207265	노(櫓)	노
207266	결노	엽노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눅구멍	*
207273	눅쭯	*
207274	닷	닷
207275	닷가지	닷갈고리
207276	닷줄	닷줄
207277	닷돌	*
207278	닷걸이	*
207279	키[舵]	키
207280	킷구멍	킷구멍
207281	키잡이	선장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상대
207284	떼[浮筏]	뗏목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與]	사이좋게 살다
207287	마을	동네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세상
207290	윗마을	웃드리마을
207291	옮다[移]	절염된다
207292	아랫마을	해변마을
207293	마을가다	마을카다
207294	밤마을	외방
207295	가게	가게
207296	구멍가게	구멍가게
207297	다녀오다	외방 간 왁짜
207298	심부름	심부름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거스름돈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홍정	홍성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벨리
207311	늘다[增]	늘어나다
207312	대장간	불뒤향
207313	풀매	불매
207314	손풀매	불매
207315	모루	모루
207316	모루채	매
207317	갓양태(양태)	망
207318	망건	망건
207319	망건골	망건틀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결다[編]	짜다
207322	사냥	산쟁이
207323	사냥개	사냥개
207324	사냥꾼	사농쟁이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핑쟁이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나누다
207331	갖다[持]	가지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덥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센다
208003	알다[知]	안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오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되	흔말
208005-2	(2/두)	두되	두말
208005-3	(3/서, 석)	석되	서말
208005-4	(4/너, 녀)	녀되	너말
208005-5	(5/닷)	다섯되	닷말
208005-6	(6/엿)	으섯되	은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개	흔두되	흔두말
208006-2	(2-3/두세)	두세개	두세되	두세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개	두서너되	두서너말
208006-4	(3-4/서너)	서너개	서너녀되	서너너말
208006-5	(4-5/네댓)	너다섯개	너다섯되	너다섯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개	대으섯되	대으섯말
208006-7	(6-7/예닐곱)	예슬곱개	예슬곱되	예슬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곱으덟개	일곱으덟되	일곱으덟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덟아홉개	으덟아홉되	으덟아홉말

208007 여남은 으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계뽕 흔뽕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흔밭 두밭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마흔자
208014-2	명주	마흔자
208014-3	광목	육십마
208014-4	베	스무자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흔 말지기 백평
 208016 못 못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둥 못
 208019-1 *
 208020 조짐 줄레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열네못
208021-2	조(이삭 있음)	으섯못
208021-3	콩	은못, 너못
208021-4	밭벼	열두못
208021-5	꼴	마흔못
208021-6	띠	열못
208021-7	각단	열못
208021-8	어욱	은못

208022 모금 적
 208023 섬 섬

208023-1		열다섯말 혼 섬
208024	덩이	덩어리
208025	포기	포기
208026	그루	그르
208027	돌이(양태)	돌이
208028	마리	모리
208028-1	두[頭]	모리
208028-2		*
208029	축	단
208030	퀘미	퀘미
208031	쌍(돼지)	흔자리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봉분
208034	컬레(신)	배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못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자리
209002	아이서다	아이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승할망
209004	깃저고리	베넛저고리
209005	배넛머리	벳속머리
209006	돌	돛
209007	새 색시	새각씨
209008	새신랑	새스방
209009	가마	가마
209010	시집가다	씨집간다
209011	시집보내다	씨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개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개보내다
209014	함	홍세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고진상, 새각씨상, 큰상
209018	휘다[樣]	휘어지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안사둔
209021-2	바깥사돈	밖사둔
209022	겹사돈	겹사둔
209023	상갓집	영장난집
209024	수의	저승옷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주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정대
209031-1		왕대
209031-2		머구냥
209032	짚동	찍덤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곡ㅎ다
209035	뒗자리	산터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나경판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제
209042	상두꾼	상뒤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밭
209045	광중	개광
209046	횡대	개판
209047	호층	도피
209048	무덤	봉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봉분 멩글다
209053	마치다[終]	막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제월제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갯집
209059	편틀	쟁반
209060	퇴물	퇴물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개영
209063	제육	제숙
209064	제편	시리떡
209065	인절미	은절미
209066	절편	첼벤
209067	웃기떡	우짚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태우다
209070	몹	몹
209071	면례(緬禮)	철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멩질날
209073	세배	서배
209074	명절	멩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금줄
209077	매다[結]	졸라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멜빵장구
209080	뽕과리	뽕과리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래찜
209085	추석	팔월멩질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앵택이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신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판
210008	명두	멩뒤
210009	추다[躡]	춘다
210010	소지(燒紙)	지전
210011	사르다[燒]	태운다
210012	살(煞)	쌀
210013	삼살방(三煞方)	쌀방
210014	도깨비	도채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채비
210016	허깨비	허깨비
210017	어둑서니	헛개굴메
210018	무섭다	몸서리친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고사
210021	고수레	코시
210022	포제	뱌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잡풀
211003	방화(放火)	방엿불

211004	불다[點火]	부찌다
211005	내[川]	내
211006	넷가	넷가
211007	물가	물가
211008	따르다[從]	뜨르다
211009	건너다[渡]	건너다
211010	낭떠러지	절벽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보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벌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벌
211015	돌무더기	작박
211016	갈림길	갈름길
211017	묻다[問]	묻다
211018	비탈길	비탈길
211019	벼랑길	벼랑길
211020	내리막길	내리막길
211021	오르막길	오르막길
211022	길가	양엽길
211023	큰길	대한질
211024	분화구	화산구멍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오르다
211027	기슭	굴렁지
211028	산바람	산브름
211029	산꼬대	노룻
211030	상고대	서리
211031	구렁	웅덩이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엎떠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물통
211037	숲	곶
211038	성(城)	성땀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바당곳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바당븨름
211043	깊다[深]	짚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물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자갈돌
211049	갯가	바당곳
211050	펼	펼밭
211051	먼바다	한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dot소리	절치는소리
211054	듣다[聞]	들리다
211055	너울	너울절
211056	굼뉘	*
211057	물결	절고개
211058	잔물결	바당 보랏다.
211059	무수기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초 닷새
211059-2	두무날	두물	*
211059-3	서무날	서물	*
211059-4	너무날	너물	*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그믐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초하루
211059-8	여덟무날	으답물	*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
211059-10	열무날	열물	*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
211059-13	(열서무날)	조금	*
211059-14	아끈췌기	아끈조금	*
211059-15	췌기	부날	*
211059-16	한조금	한조금	*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곶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밀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쌀물	쌀물

시후

211066	오늘	오닐
211067	내일	넬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저낙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저께
211074	그끄저께	그그저께
211075	새벽[曉]	새벳
211076	꼭두새벽	동새벳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햇빛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녁꺼리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베린네
211092	달	덜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덜갓
211095	초승달	초승달
211096	보름달	보름달
211097	그믐달	그믐달
211098	햇무리	해갓
211099	무지개	황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황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211104	겨울	겨울
211105	입춘	입춘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읏새
211110-7	이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닷새	너닷새
211113	대엿새	대엿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달
211119	선달	선달
211120	올해	금년, 올리
211121	내년	내년
211122	내후년	내후년
211123	작년	넘은해
211124	재작년	그르해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쌀
211127	따스하다	뜨스다
211128	땡별	땡벧
211129	가을별	ᄃ슬벧
211130	양지받이	햇빛바른곳
211131	아지랑이	아지렁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캐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발라
211137-2	바람아래	브름뒤, 브름넘어
211138	맞바람	맞브름
211139	바람받이	브름코쟁이
211140	바람살	브름쌀
211141	회오리바람	도깡이주귀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프름
211144	서풍	서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장대비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봄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슬장마
211150	곰팡이	곰팡이
211151	소나기	소낙비
211152	여우비	번개비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하다
211156	도롱이	도롱이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어남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험벽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쓰레기눈
211170	도둑눈	도둑눈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희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리다
211179	굽다	굽다
211180	진눈깨비	진눈깨비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옆대이
211185	옆	옆
211186	위	우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다
211190	왼쪽	왼쪽
211191	오른쪽	노단쪽
211192	밑	굽
211193	흐르다[流]	흘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바깥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귀퉁이
211198	가[邊]	곳
211199	가장자리	가장자리
211200	가운데	가운데
211201	곧다[直]	과썩ㅎ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담 다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부룽이
212005	쇠소	속췌
212006	불까다	불브르다
212007	불알	불감
212008	황소	부룽이
212009	얼룩소	얼럭췌
212010	부리망	그물망
212011	쇠고삐	췌석
212012	끌다	등기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병작췌
212015-1	하룽~열룽	

		소	말
212015-1	하룽(1)	금승	금승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이수몽쟁이
212105-3	사룽(3)	사룽	삼수몽쟁이
212015-4	나룽(4)	나룽	스수몽쟁이
212015-5	다듭(5)	다듭	오수몽쟁이
212015-6	여듭(6)	췌	육수물
212015-7	이룽(7)	췌	칠수물
212015-8	여듭(8)	췌	팔수물
212015-9	아듭/구룽(9)	췌	구수물
212015-10	열룽/담불(10)	늪은췌	큰물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췌것
212018	구유	거통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조매

212023	수말	움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래물
212026	청충마/총이말	청충마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대물
212028	얼룩말	얼룩물
212029	유마	얼룩물
212030	백마	백물
212031	고라말	유마물
212032	곰배말	곰새물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뛰다
212035	마소	쉐물
212036	글경이	글경이
212037	털[毛]	털
212038	말고삐	물석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추꾸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비리
212048	비루먹다	비리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들고녕이
212053	살쥬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멀떠구니	멀토쟁이
212058	산맥	산맥
212059	닭의어리	득망사리

212060	닭장	독장
212061	달갈	독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른자
212061-2	흰자위[卵]	흰자
212062	끓다[腐]	골다
212063	병아리	빙애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숫도새기
212067	암돼지	암트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ㅎ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숨씨	일숨씨
212072	생둥이	일 서틀다
212073	새끼 돼지	자릿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돛통
212075	돼지고기	도새기퀘기
212076	적	젓갈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판매집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치스랭이
212081-1	둘암소	치스랭이암쇄
212081-2	둘암말	치스랭이암물
212081-3	둘암돼지	치스랭이암도새기
212081-4	둘암캐	치스랭이암캐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오리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취슬다	취싸다
212088	가시	장빠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
212096	장구벌레	장글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챙빃
212101	지렁이	개우리
212102	회충	회충
212103	거머리	거덜
212104	바구미	물방게
212105	콩바구미	콩방게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생이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
212110	노래기	*
212111	지네	주냉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쉬 하영 일엇찌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덜벙이
212117	민달팽이	집어신들벙이
212118	거미	개미
212119	개미	개염지
212120	왕개미	물개염지
212121	불개미	불개염지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물방귀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사마귀

212126	귀뚜라미	공중이
212127	풍뎅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뎅이	하늘썩
212129	무당벌레	심방말축
212130	쇠똥구리	떠렁썩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좁제기
212133	하늘소	하늘썩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늘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밤부리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밤부리
212141	장수잠자리	왕밤부리
212141-1		*
212142	매미	재열
212143	매미허물	재열껍죽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열
212145	쓰르라미	조재열
212145-1		*
212146	소금쟁이	소금쟁이
212147	방개	*
212148	반딧불이	불한지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꿀벌
212151	꿀	청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새상벌
212154	붓다[腫]	부스다
212155	진드기	부구리
212155-1		새미역, 진독
212155-2		부구리
212156	송충이	소낭베렁이
212157	개구리	골개비
212158	올챙이	멘주기<올챙이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꺼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헤치
212161-2	뱀허물	흘 벗엇찌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띠
212163	도마뱀	독다구리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괘기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소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값다	값다
212173	쥐구멍	중이고망
212174	박쥐	박쥐
212175	다람쥐	도람쥐
212176	오소리	지다리
212176-1		지다리굴
212177	지달(이)	*
212178	지달피	지다리가죽
212179	멧돼지	산뿔
212180	원숭이	원숭이
212181	원숭이띠	존나비띠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띠
212184	꼬리	꼴랭이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지	꼴랭이
212187	깃[羽]	생이털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생이가슴
212190	참새	참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소로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빼꾸기	빼꼭새
212200	종달새	하늘생이
212201	올빼미	오뵘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조치
212204	장끼	웅치
212205	꿩알	꿩독새기
212206	꺼병이	꿩빙애기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러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
212214	밤고등	*
212215	팽이고등	*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쇠군벗, 물군벗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제기
212227-1		족쿠제기, 쌀구제기, 문둥구제기
212228	전복	점복
212228-1		*
212228-2		*
212229	전복갑	거피
212230	오분자기	바르
212231	게	쟁이
212232	마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
212240	갯강구	*
212241	말미잘	*
212242	성게	귀살
212243	말뚝성게	숨
212244	군소	*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물이슬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해삼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꺾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물 어둡다
212257	잘다[細]	족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볼르다
212261	생선(生鮮)	늘케기
212262	미끼	니껍
212263	갯지렁이	갯지렁이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춤대
212266	만들다[造]	맹글다
212267	낙싯줄	낙싯줄
212268	붕돌	뽕돌
212269	참대	춤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늘개
212274	아가미	아궁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붉은멜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
212279	베도라치	*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
212288	흑돔	*
212289	돌돔	*
212290	감성돔	*
212291	벵에돔	*
212292	황돔	*

212293	자리돔	*
212293-1		*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
212299	오징어	*
212299-1		*
212300	북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
212303	쥐치	*
212304	우럭볼락	*
212305	볼락	*
212306	쭈기미	*
212307	독가시치	*
212308	방어	*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팽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
212320	돌고래	*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
212323	흑산호	*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고랏
213002	갈대	갈대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품	미뻬쟁이
213005	화승(火繩)	미승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질차다
213009	빨기	뽕이
213010	사초	오올리
213011	천일사초	자오락
213012	김의털	*
213013	쇠무릎	쇠비늬
213014	바랭이	절환지
213015	민바랭이	밋불근절환지
213016	조개풀	웃뺨절환지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물모작쿨
213019	솔새	소세출
213020	개솔새	물지장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가마귀밥줄
213023	원추리	고시락쿨
213024	메꽃	메마
213025	갯메꽃	개낭
213026	비름	비늬
213027	쇠비름	쇠비늬
213028	개비름	개비늬
213029	참비름	참비늬
213030	땅빈대	장독쿨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평밭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배채기

213035	쭈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속떡
213038	토끼풀	돛쇠
213039	개자리	개자리풀
213040	냉이	난쟁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물릇
213043	여뀌	옛뀌
213044	오이풀	시호
213045	영경귀	소앵이
213046	췌기풀	삼수세
213047	수크령	글럭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풀
213050	병풀	함박꽃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진풀
213053	파리	푸께
213054	땅파리	밀푸께
213055	피막이풀	빈대쿨
213056	도깨비바늘	가마귀바늘
213057	도꼬마리	개조베기
213058	모시풀	모시풀
213059	왕모시풀	진췌
213060	천남성	천남상
213061	맥문동	맥문동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옥께기
213064	차풀	자골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개삼동냥
213067	하늘타리	두루애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하늘레기
213069	부처손	푼채순
213070	방가지뚱	돛췌
213071	닭의장풀	고내할미

213072	배풍등	*
213073	촛	꼭
213074	촛덩굴	꼭덤벌
213075	촛뿌리	꼭빨리
213076	댕댕이덩굴	정동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생이족박
213079	호자덩굴	실모작쿨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
213081	함바기	떡정동
213082	담쟁이	눈벨레기
213083	송악	글르레기
213084	인동	인도고장
213085	멀꿀	멍줄
213086	천문동	천문동
213087	계요등	떡정동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등독쿨
213090	수영(승아)	생괴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짜리	근자리풀
213093	땀짜리	셍짜리
213094	명아주	*
213095	갓	*
213096	달래	뽕마농
213097	썸마귀	*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수리대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눈비애기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물룻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늦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봉오리
213119	채송화	땅꽃
213120	민들레	쓴불퀴
213121	봉선화	봉숭아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마농고장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할미고장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도채비고장
213127	맨드라미	민드라미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쭈부쟁이	드룻국화
213133	수국	*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베염고장
213136	제비꽃	제비고장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말마농고장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문주란

나무

213141	뿌리	빨리
--------	----	----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줄기
213144	가지	가지
213145	잎	썸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달이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소낭썸
213151	솔가리	소낭썸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멜감	지들커
213154	마디다	안부트다
213155	갈퀴	글갱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퐁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붉다
213161	멀구슬나무	머쿠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카시아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엄낭
213167	삼나무	숙데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사오기낭
213170	왕벗나무	사오기낭
213171	사옥	사오기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남총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노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굴거리낭

213179	생달나무	사데기낭
213180	굴나무	미깡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비자낭
213185	치자나무	치자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롱낭
213189	배롱나무	백일홍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개웃낭
213192	팡팡나무	팡낭
213193	노린재나무	재낭
213194	때죽나무	종낭
213195	마가목	마깨낭
213196	말채나무	마깨낭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굽낭
213199	향나무	향낭
213200	웃나무	개은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태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가마귀베개낭
213206	무환자나무	모과낭
213207	귀똥나무	개팡낭
213208	섬귀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검은가시낭
213212	종가시나무	종가시낭
213213	호랑가시나무	소앵이가시
213214	돌가시나무	가문탈낭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귀까시낭
213217	덜꿩나무	얼루레비낭
213218	사스레피나무	봉낭
213219	머귀나무	머구낭
213220	좀머귀나무	논동낭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말오줌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다간종낭
213225	참식나무	식낭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름푸기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동낭
213228	실거리나무	쓸거리낭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후박낭
213231	풍개나무	검복낭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초낭
213235	상수리나무	가시낭
213236	참나무	초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제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스철낭
213241	겨우살이	저을살이
213242	모람	모람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
213244	아왜나무	아왜낭
213245	순비기나무	순비기낭
213246	붉나무	북낭
213247	협죽도	협죽도
213248	담팔수	담팔수

열매

213249	과일	을음
213250	껍질	껍데기

213251	깎다	베끼다
213252	벗기다	베끼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뺨딸기	베염탈
213255	명석딸기	보리탈
213256	복분자딸기	가문탈
213257	줄딸기	밀탈
213258	산딸기	항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탈
213260	검은딸기	가문탈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조밤
213263	머루	멀리
213264	개머루	개멀리
213265	까마귀머루	가마귀멀리
213266	산머루	산멀리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르미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개드래
213272	보리수나무	볼래낭
213273	보리수	볼래
213274	보리장나무	꼬리볼래낭
213275	앵두나무	애영지낭
213276	앵두	애영지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실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개탕지
213282	탱자나무	개탕지낭
213283	감	감
213284	떨다[柿]	쪼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감
213287	풋감	풀감

213288	청미래덩굴	벨랄귀낭
213289	맹감	벨랑귀
213290	찔레나무	도꼬리낭
213291	영실	새비올음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조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붓껍데기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개낭
213303	복숭아	복숭개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줄갱이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쇠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푼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층이	주층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몹
213321	청각	천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뭇가시리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서슬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